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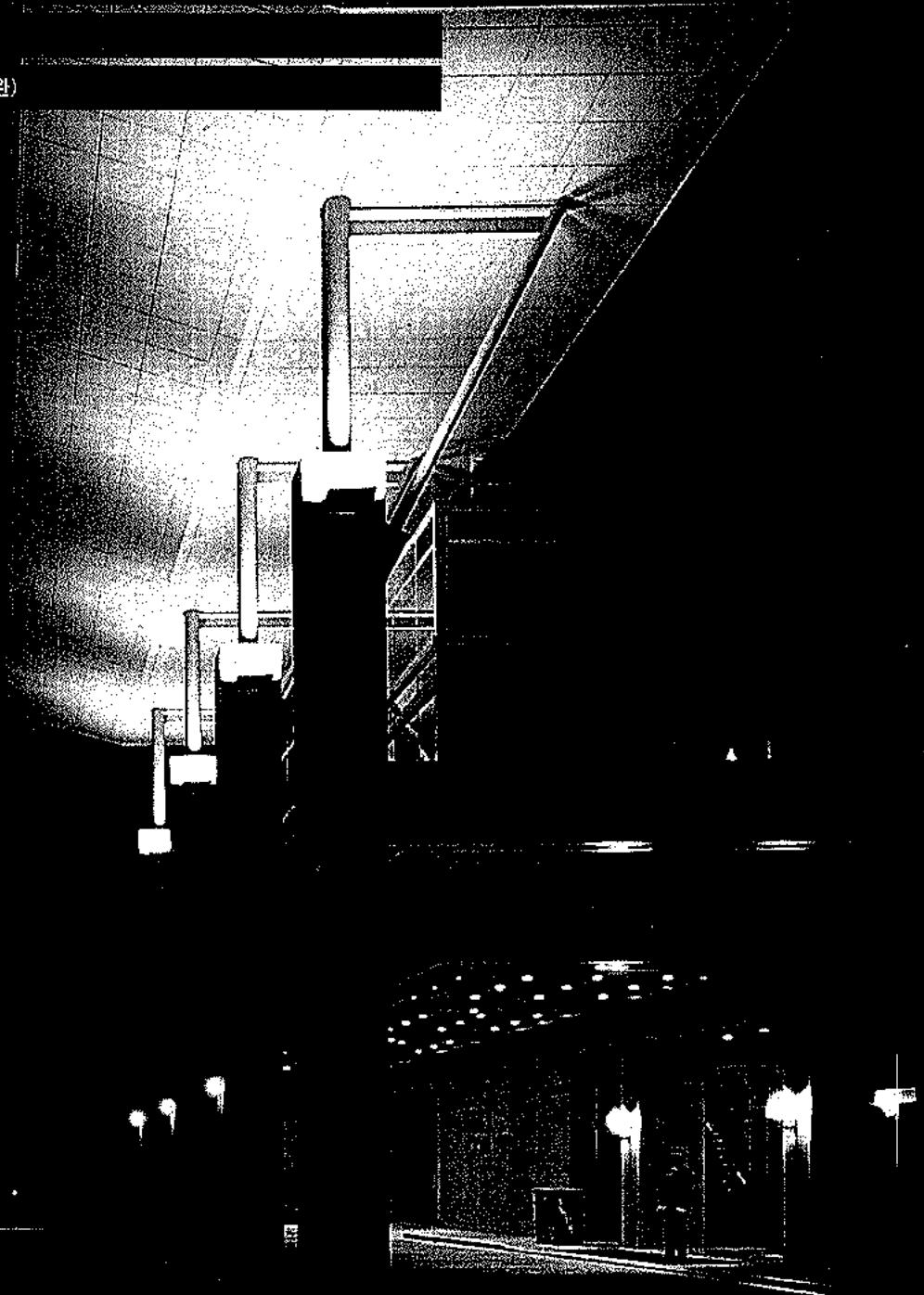
1997 07 vol. 339

칼럼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특집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

작품리뷰 전주리베라호텔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9) - 김중업(완)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혁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지정
		피복두께 (mm)	금속판	
보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순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미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분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 (02)559-8181 FAX (02)552-6224
부 산 지 점 : TEL (051)512-8181 FAX (051)516-9343
광 주 지 점 : TEL (062)268-8181 FAX (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사·광장
목록·시·업부
건기구·차업부
서울·전시장
인천·서구·석남2동 223-40
(032)571-7771 Fax 575-6655
(032)582-7771 Fax 571-7744
(032)583-7771 Fax 571-7744
서울·강남구·논현동 130-9
기반·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80-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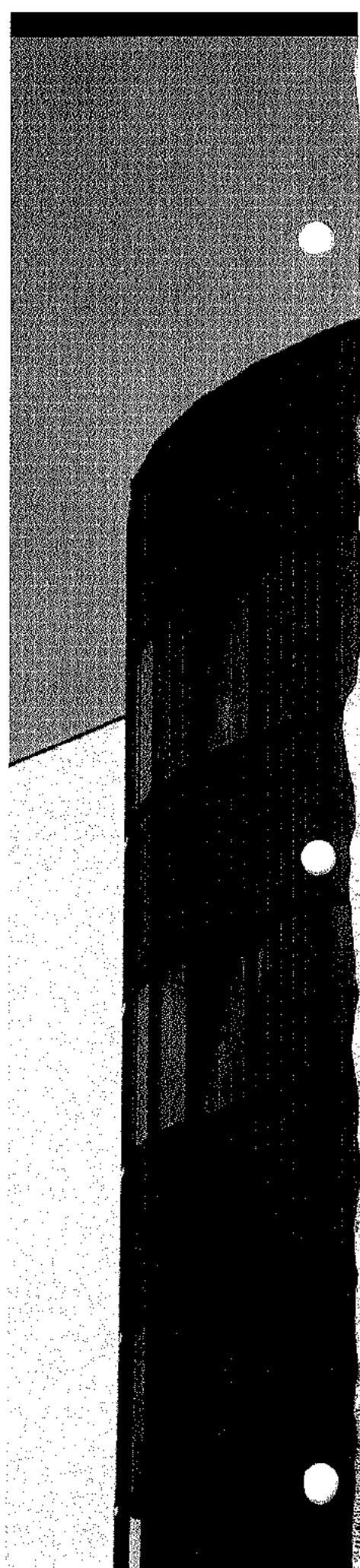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케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업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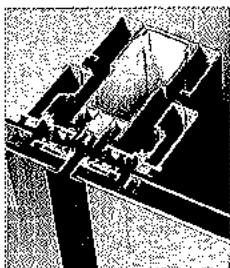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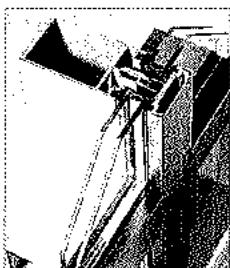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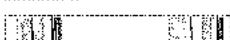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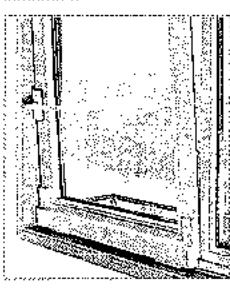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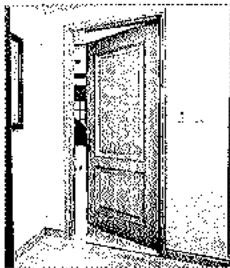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기구, 시스템카진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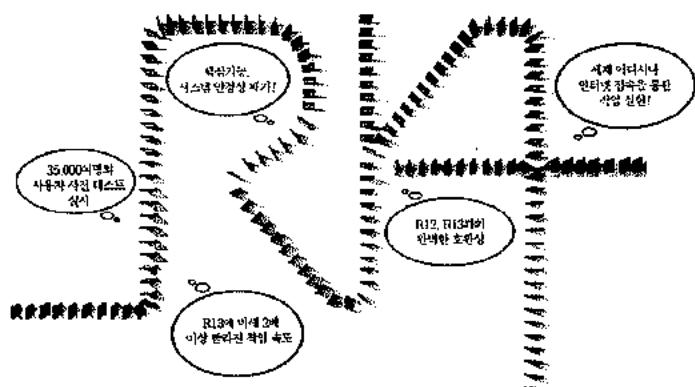
AutoCAD®

R14으로 버전업!!

CIMCAD®

R13
R14

AutoCAD® R14로 버전업되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Object ARX 2.0을 이용해 Run Time Extension을 지원한다.

2. AutoCAD의 DCL을 사용하지 않고 Windows의 Resource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및 기능이 개선 되었다.

3. 보다 빠른 속도로 CIMCAD를 사용 할 수 있다.

4. Windows 95와 Windows NT4.0을 지원하며 NT에서 최고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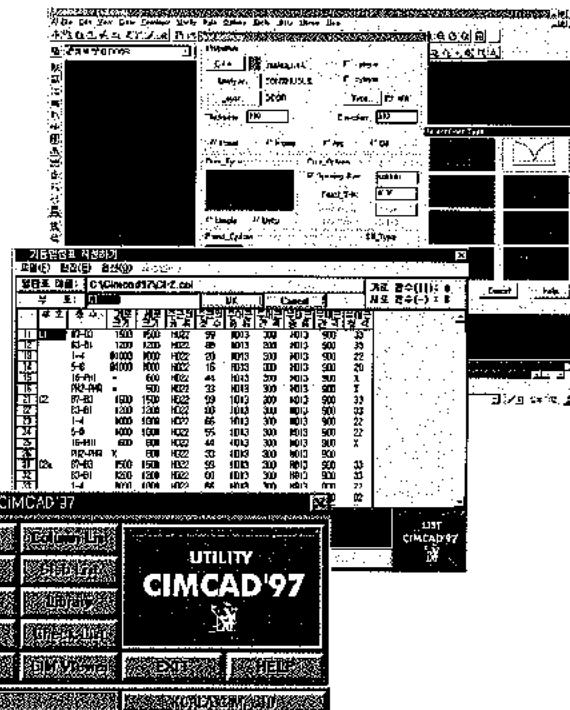
국내 최초, 윈도우용 건축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CIMCAD' 97

For AutoCAD R13, R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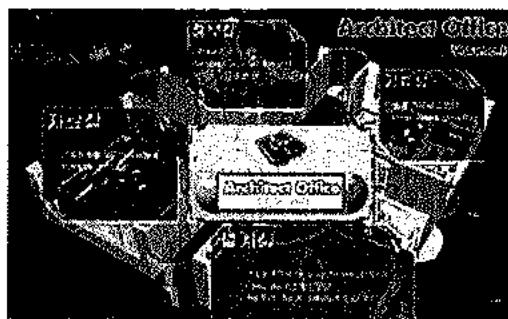
윈도우95용, 윈도우즈NT용 AutoCAD R14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국내최초, 최적의 윈도우용 AutoCAD 애플리케이션, CIMCAD' 97은 빠른 속도, 간편한 작업방식의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와 함께 제공됩니다.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장의 CD-ROM으로 통합하여 모든 사용자들의 설계업무 효율성에 일대 혁신을 불고 올 것입니다.

- LIST자동작성기능
- 명령의 단순화
- OBJECT COMMAND 기능
- Dialogue BOX에서의 모든 도면 제어기능
- 설치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 편리한 Viewer 제공



국내최초 건축설계용 그룹웨어-

Architect Office vol. 1



한국씨·아이·엠의 Architect Office는 건축설계 작업에 필요한 유필리티와 정보가 설계실, 자료실, 기획실, 홍보실 등 4개의 방에 집약되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건축설계용 그룹웨어입니다.

■ 특징

- Window95와 유사한 인터페이스.
- 사용자에게 유용한 Utility 다수 포함
- 자동전화 걸기, 명함판, 전화번호부, 일정표등 필요한 개인 Data의 보관 및 관리 기능
- 건축업무에 관련되는 설계비 산정, 인허가 양식, 도면 검색 관리기능등이 포함

알립니다

- CADJOY(CIMCAD' 97 NEW버전가칭)
발표예정(97년 9월경)
- Architect Office vol 1.1
Rebuilted Version 발표예정
- Upgrade Promotion (97년 5월15일~6월 30일 까지)
 - Upgrade R13 to R14 : 25만원
 - Upgrade R11, R12 to R14 : 40만원 <VAT별도>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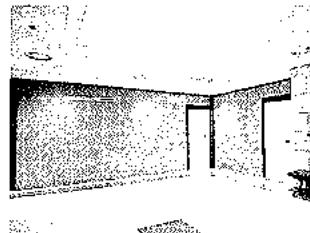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멀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종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민족·안전성·편의성
을 민족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문 면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 방화 셔터 설치현장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소방
- 신세계 영등점
- 강방필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페션마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위카힐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충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3동 154-7

T E L : 838-4545(代)

F A X : 838-0474

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주셔터공사

• 공무원연금
산부농업공
(주) 삼성
한생명 • 삼
설(주) 있습니다.
(주) (주)
달철 • 흥
본부 •
성건설
공업(주)
(주)
(주)
화엔지니어링 • 삼안종합기술공사 • (주) 이공건축 • (주) 청조건축 • 내외건
축사사무소(주) • (주) 서울건축 • 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 • (주) 건화엔지니
어링 • (주) 정일엔지니어링 • (주) 이종학건축사 • (주) 덕산토건 • 동부건설
(주) • (주) 공간 • (주) 대우 • (주) 신우설계 • (주) 자드환경건축 • 다솔건
축사사무소(주) • (주) 세마건축 • 이동호건축사사무소 • (주) POS-AC •
한국중공업(주) • 중앙면(주) 경내외종합건축(주) • (주) 금성종합건축
• (주) 동명기술공단 • ● 주 연희성화건축 • (주) 양원종합건축 • 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 • 미래건축사사무소 • 서울합격건축사사무소 • (주) 예종합
건축사사무소 • 한보철강(주) • (주) 예강 • 풍림토건(주) • (주) 도회종합
기술공사 • (주) 건우종합건축사 • (주) 디자인기술단 • (주) 범아종합건축
• (주) 유양전기설계사무소 • (주) 제일전기설계 • 거화종합건축사
사무소 • 공간종합건축(주) • (주) 엠티건축 • 국양건축사사무소

부 • 한국은행 • 농림수
경관리공단 • 거양개발
(주) 대 (주) 대
화간 • 종합건
EMS-1,2,3,4
R C
K-FIN
철건설
(시설) 사회 • 삼
기산 • (주) 명성기공 • 흥회
• (주) 금호건설 • LG기공
프종합건설(주) • 미주실업
진로건설(주) • (주) 건
화엔지니어링 • 삼안종합기술공사 • (주) 이공건축 • (주) 청조건축 • 내외건
축사사무소(주) • (주) 서울건축 • 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 • (주) 건화엔지니
어링 • (주) 정일엔지니어링 • (주) 이종학건축사 • (주) 덕산토건 • 동부건설
(주) • (주) 공간 • (주) 대우 • (주) 신우설계 • (주) 자드환경건축 • 다솔건
축사사무소(주) • (주) 세마건축 • 이동호건축사사무소 • (주) POS-AC •
한국중공업(주) • 중앙면(주) 경내외종합건축(주) • (주) 금성종합건축
• (주) 동명기술공단 • ● 주 연희성화건축 • (주) 양원종합건축 • 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 • 미래건축사사무소 • 서울합격건축사사무소 • (주) 예종합
건축사사무소 • 한보철강(주) • (주) 예강 • 풍림토건(주) • (주) 도회종합
기술공사 • (주) 건우종합건축사 • (주) 디자인기술단 • (주) 범아종합건축
• (주) 유양전기설계사무소 • (주) 제일전기설계 • 거화종합건축사
사무소 • 공간종합건축(주) • (주) 엠티건축 • 국양건축사사무소

● 내 역 (도급, 실행)
● 일 위 대 가
● 면 경 내 역
● 물 가연동 (품목, 지수)
● 물량산출 내역 과연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힐스테이트 4층 TEL: 529-6071~4 FAX: 529-607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세라토닉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화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기관광호텔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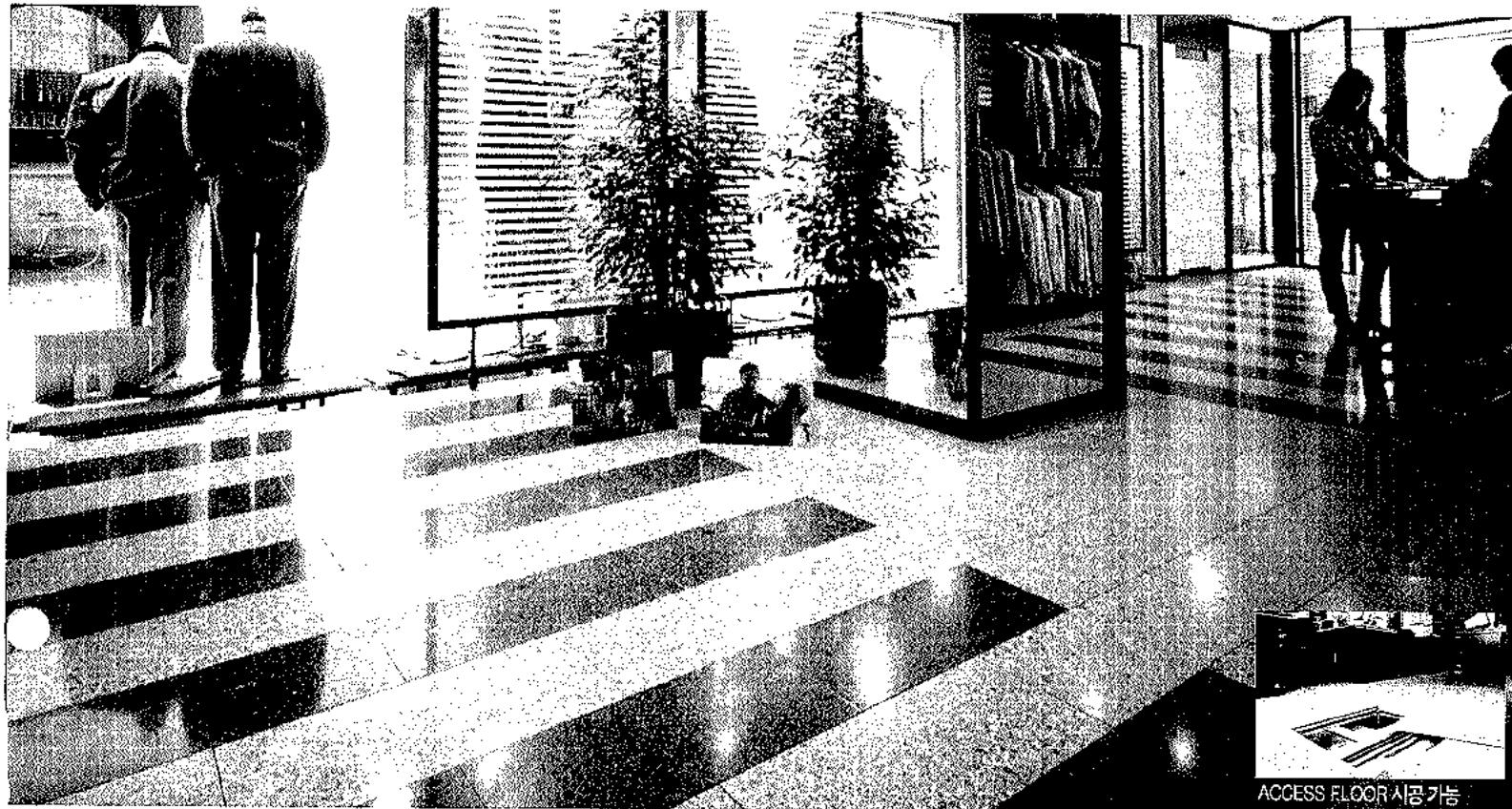
大 雅 互 電 株 式 會 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987-4184, (02)63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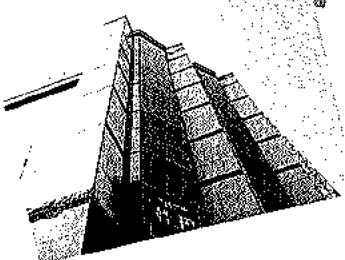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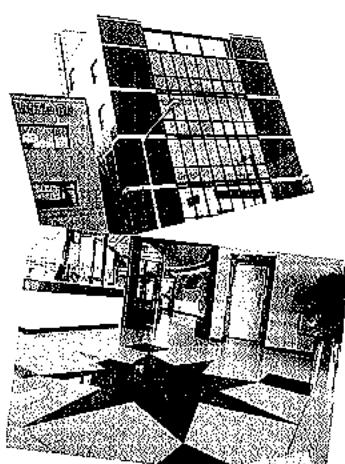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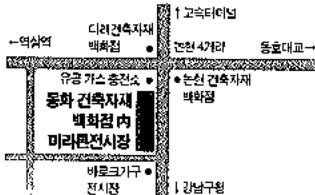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장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두께 : 12mm, 15mm, 20mm, 30mm
- 크기 :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씽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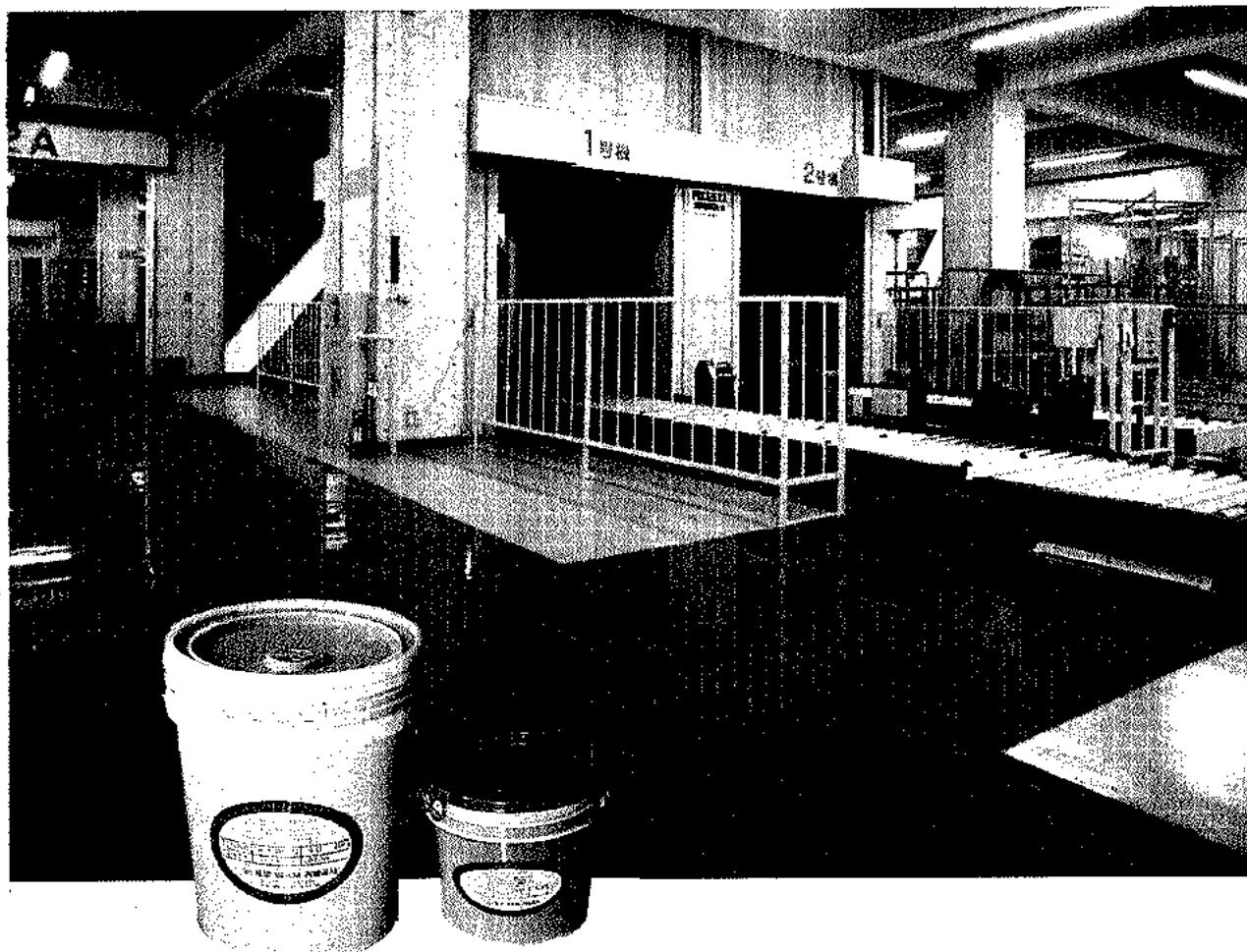
대림 콩크리트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기적의
신소재

항균 EPOXY TH-5100

최근 위생관념이 강해지면서, 항균물질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항균이라는 것은 항생물질과 같이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TH-5100은 기존의 에폭시 제품에 은을 함유한 항균제를 넣은 새로운 에폭시 제제입니다. 에폭시는 건축마감재로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항균에폭시는 공중위생적인 측면에서 물탱크, 식당의 바닥재, 식품제조 공장의 바닥, 벽, 천장등에 처리하면, 유해세균에 대한 우려가 대폭감소될 것이며 보건 위생및 산업체 생산업무에 큰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식품제조 산업체
공장 바닥재

위생시설 바닥재

적용분야

음료용수 저장고(TANK)
관로등의 내부마감재

반도체공장
특수분야의 멸균실
내부마감재

아이스크림 제품류 공장, 과자류, 식육제품류, 어육제품류, 두부류, 면류, 다류, 청량음료류,
특수영양식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조미식품류, 인삼제품류, 김치, 절임식품류,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물탱크 및 관로, 식당 주방등, 멸균이 필요한 작업장 등

TH-5100의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서중 일부 내용

사진 1

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15일간 대장균을 배양시킨 모습. TH-5100으로 처리된 비이커(원쪽)에서는 바닥의 하얀 여과지가 보일 정도로 배양액이 맑다.



사진 2

배양을 잘보이게 하기 위하여 유리병에 넣은 모습. 항균처리한 것은 투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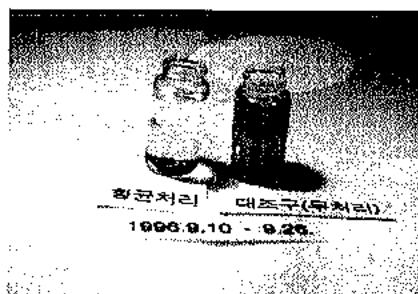


사진 3

일반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수돗물에 배양한 살모넬라균의 수. 9시간 배양.
(왼쪽) 일반 에폭시 10^{-2}
(오른쪽) TH-510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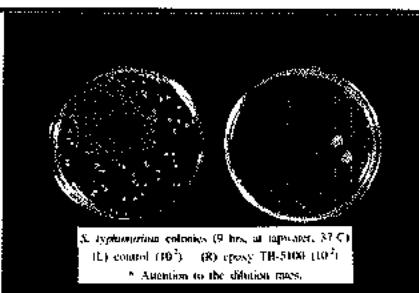


사진 4

일반에폭시와 TH-5100으로 처리한 비이커에서 수돗물에 배양한 살모넬라균의 수. 12시간 배양.
(왼쪽) 일반 에폭시 10^{-2}
(오른쪽) TH-510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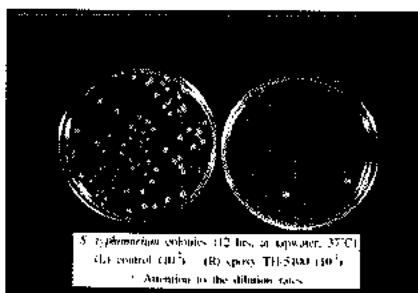


사진 5

일반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배양한 포도상구균의 모습. 3시간 배양. 많은 세균들이 보인다.(5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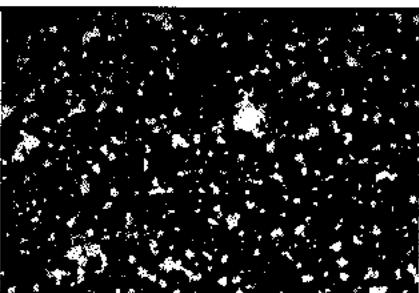


사진 6

TH-5100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배양한 포도상구균의 모습. 3시간 배양. 세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500배)



사진 7

일반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3시간 배양한 *B. subtilis* 균의 모습. 악대기 모양의 세균들이 많이 보인다.(50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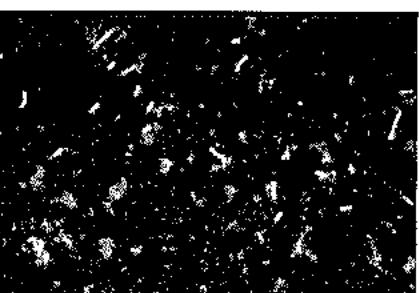


사진 8

TH-5100 에폭시 처리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3시간 배양한 *B. subtilis* 균의 모습. 세균들이 보이지 않는다.(500배)



살균 및 항균력

1. *Escherichia coli* 대장균
2. *Staphylococcus aureus* 포도상구균
3. *Pseudomonas aeruginosa* 류농균
4. *Bacillus cereus* 고초균
5. *Candida albicans* 칸디다균
6. *Salmonella typhimurium* 장티푸스균
7. *Aspergillus* 흑고리곰팡이
8. *Staphylococcus aureus (MRSA)* 활색포도상구균
9. *Vibrio parahaemolyticus* 장열비브리오균 등

총판매원 & 시공원

G.T.C 그라우트 CO.

서울 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0-32

방배오피스텔 114호 217호

TEL (02) 521-9923-5 FAX (02) 525-5640

제조원

동양에폭시개발공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49

TEL (032) 681-6809 FAX (032) 673-7544

검증문헌

* TH-5100 의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 연구소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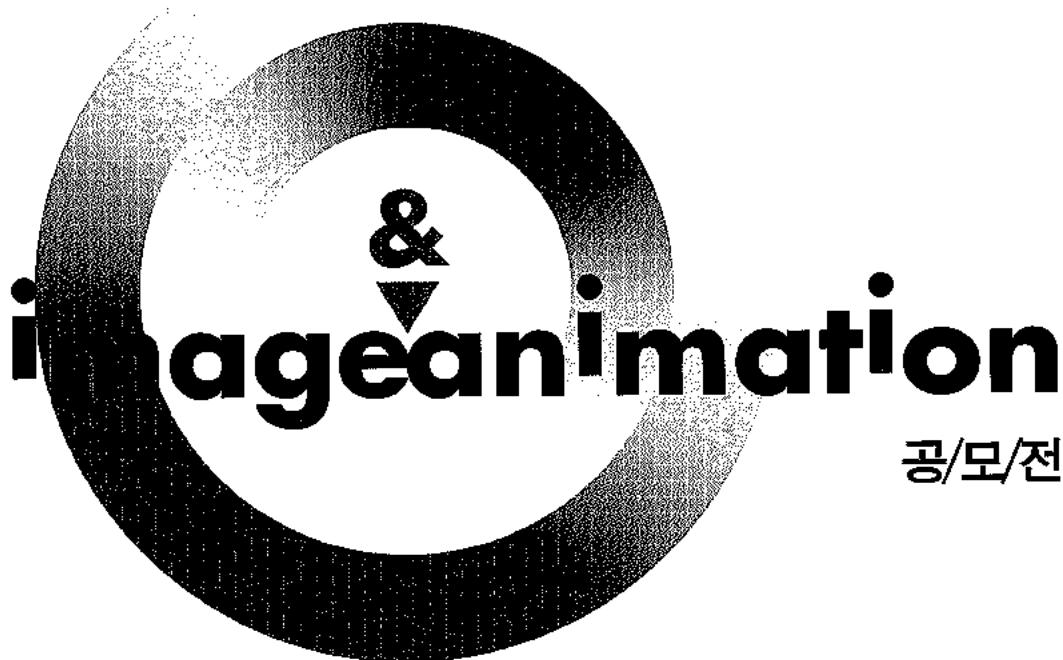
연구소장 : 교수 안태석

* 시험결과 보고서

시험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96-TK-16337)

* 발명특허 제41208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공/모/전

오토데스크의 최첨단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통해 마음껏 펼쳐가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과의 만남! '97 Autodesk Image & Animation의 세계로 오십시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기억 될 이번 공모전에 멀티미디어 매니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만18세 이상의 개인 및 단체, 회사
원서교부	97년 5월 1일 - 97년 8월 20일
원서접수	97년 8월 4일 - 97년 8월 20일
응모분야	건축 / 토목, 기계, 비디오그래피, 오학 / 교육, 순수미술 / 기타
시상	최우수 대상 1명: SIGGRAPH '98 월복합공권 2매 및 5박 6일 숙박권 각 분야별 대상 1명: 각 상금 200만원과 상장 / 상폐 각 둔아벌 우수상 1명: 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 상폐 각 둔아벌 장려상 3명: 각 상금 30만원과 상장 / 상폐
대표 실사위원	국민대 궁예미술과 교수 / 콩누리교수 / 총학제 건축과 강역교수 /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백명진 교수 / 홍외대 시각디자인과 이상수교수 / 국민대 궁예미술과 이순종교수(부니디순)
주최	(주)오토데스크 코리아
후원	거림시스템(주), (주)건캐드, (주)라인테크시스템, (주)실테크, 일컴엔지ニア링(주), 위肯시스템(주), (주)윌리, (주)일진, (주)캐드캠프, (주)큐너스컴퓨터, (주)테일시스템, 한국씨아이엠(주)
주관	한국 ATC협회



응모원서 교부처 <전국 Autodesk 공인 교육센터>

- 서울▶ 구이김씨네학원 02 563 5031 · 국동컴퓨터학원 02 475 4611 · 내외컴퓨터학원 02 566 5086 · 동양디자인아트스쿨 02 569 0411 · 성실정보처리학원 02 707 1341 · 이어컴퓨터학원 02 3572 4429 · 이온캐드앤그래픽센타 02 568 8256 · E.G CAD스쿨 02 952 1163 · 이도아트인스튜트 02 552 4501
· 인애컴퓨터학원 02 63 4617 · 키드클럽 02 598 2226 · 키드하우스 02 563 0387 · 라이팅비아카데미 02 511 9400 · 비정평정보처리학원 02 636 0937 · 토익프레시즌학원 02 563 5266 · 수원▶ · 고려정보처리학원 031 2 12 2122 안산▶ · 안성컴퓨터학원 0345 432 0445 안양▶ · 구이김씨네학원 024 45 9081
· 삼성CAD/CG인스티튜트 031 43 8413 · 유한CAD/C.G학원 0303 41 5784 인천▶ · 이트밸리스 032 765 0061 · 엑시캐드선행학원 037 896 5963 강릉▶ · 신안전자학원 031 651 3933 출판▶ · 키드하우스 031 242 8333 · 프로苦难디자인학원 031 61 5040 대전▶ · 도팔컴퓨터학원 042 256 9588
천안▶ · 동양제작기술개발원 041 755 7896 · 이리온전산학원 041 7 63 8500 청주▶ · 원도자연학원 0431 55 8610 마산▶ · 서진디자인학원 0551 42 7461 · 시각디자인아카데미 0551 41 2088 부산▶ · 뉴한국실무전산학원 051 563 4695 · 신국가드정보처리학원 051 244 7912 · 태평제교육원 051 464 5160
포항▶ · 포시드디자인학원 051 833 1555 · 울산 · 영성카드컴퓨터학원 0522 74 C24281 0243) 진주▶ · 서울CDI디자인전문학원 0601 43 4483 · 서진디자인학원 053 421 0266 경명▶ · 웃나ICA 설계학원 0551 55 8055 · 신국가드엔터프레인문학원 0551 67 0385 구미▶ · 서리디자인학원 0346 426 4480
대구▶ · 서진디자인학원 053 426 3036 · 서진디자인학원 053 251 7887 · 한미디자인스쿨 053 421 0955 · 호강제일디자인학원 053 695 1058 포항▶ · 21세기 컴퓨터학원 0562 83 2286 · 세판디자인학원 0562 46 3288 광주▶ · 경통캐드정보전산학원 052 228 5939 · 대화캐드기술학원 062 234 1020
포항캐드컴퓨터그래픽학원 062 234 1020 제주▶ · 글린드자인학원 064 56 6278 · 제주본 사령은 한국 ATC협회(573 6951) 또는 한국ATC협회회원으로 문의 바리미, 상법 / 주소 /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응모증 및 원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R14

卷之三



R14는 유혹

AutoCAD R14와 처음 만나는 순간! 빠르고, 스마트하고, 멀라진 그 모습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 「한글 AutoCAD R14」
새로운 모습, 그 끝없는 유후-직접 느껴 보십시오. 「한글 AutoCAD R14」

Faster You save time. You try more ideas
R14는 속도면에서 R15는 범위 R12는 룰루 R13보다

R14는 속도면에서 DOS 버전 R12는 물론 R13보다 물리보거나 빌리자 적어 시간이 많이 감소됩니다. 또한 새로운 AutoSnap™ 툴과 턱질한 편집 가능성이 작업 단계를 단축, 드로잉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Wizards에 의한 자동 설정은 물론 새로운 Toolbar Shortcuts는 여러분의 작업 환경까지 최적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단축된 시간으로 보다 많은 디자인을
진행해보시오!

AutoCAD B14 전국 7대도시 둘사 신제품 발표회

- ◆서울·6월 28일(수) 13시~17시, 잠실 롯데호텔
 - ◆대전(리비라호텔), 광주(무등산코리아호텔), 대구(그랜드호텔), 청원(청원호텔), 부산(롯데호텔)·6월 13일(토) 13시~17시
 - ◆울산·6월 4일(수) 13시~17시, 디아이몬드 호텔
 - ◆경기문화의 전주오토데스코 코엑스·02-627-0730

Autodesk

서울시 강남구 흰집동 678 삼무빌딩
TEL : 527-0291 FAX : 527-0292

www.vivax.com.br

전국 영업점 향수
(주)오토데스크 코리아로
보내주시면 Autodesk RID에
대한 이해도 100% 달 자세한 정보가
제공해 드립니다. 05

아 십니까?

HANS BRINKERS...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

건축 방수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은 방수관련지식, 각종
방수재료, 재료별 방수공사, 부위별 방수공사, 시설물별
방수공사, 유지관리, 방수재료의 성능평가 및 시험 방법,
방수관련업체에 대한 정보 등 방수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건설분야의 전문기술 CD 를 태이틀입니다.

사용환경

- 80386 IBM 호환 PC (80486 이상 호환기종 권장)
- 4MB RAM (8MB RAM 이상 권장)
- CD-ROM DRIVE (멀티미디어 PC 호환)
- 256색상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32000색상 이상권장)
- SVGA 모니터, Microsoft 마우스 또는 호환기종
- 한글윈도우 3.1 또는 한글 윈도우 95

• 가격 : 240,000원, VAT별도 (CD-ROM 1장, 방수개론 책 1권)

* HANS BRINKERS는 물이 새는 둑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
네덜란드를 구한 용감한 소년입니다.



[주] 청우미디어
CHUNGWOO MEDIA CO.,LTD.

■ TEL : (02)3473-8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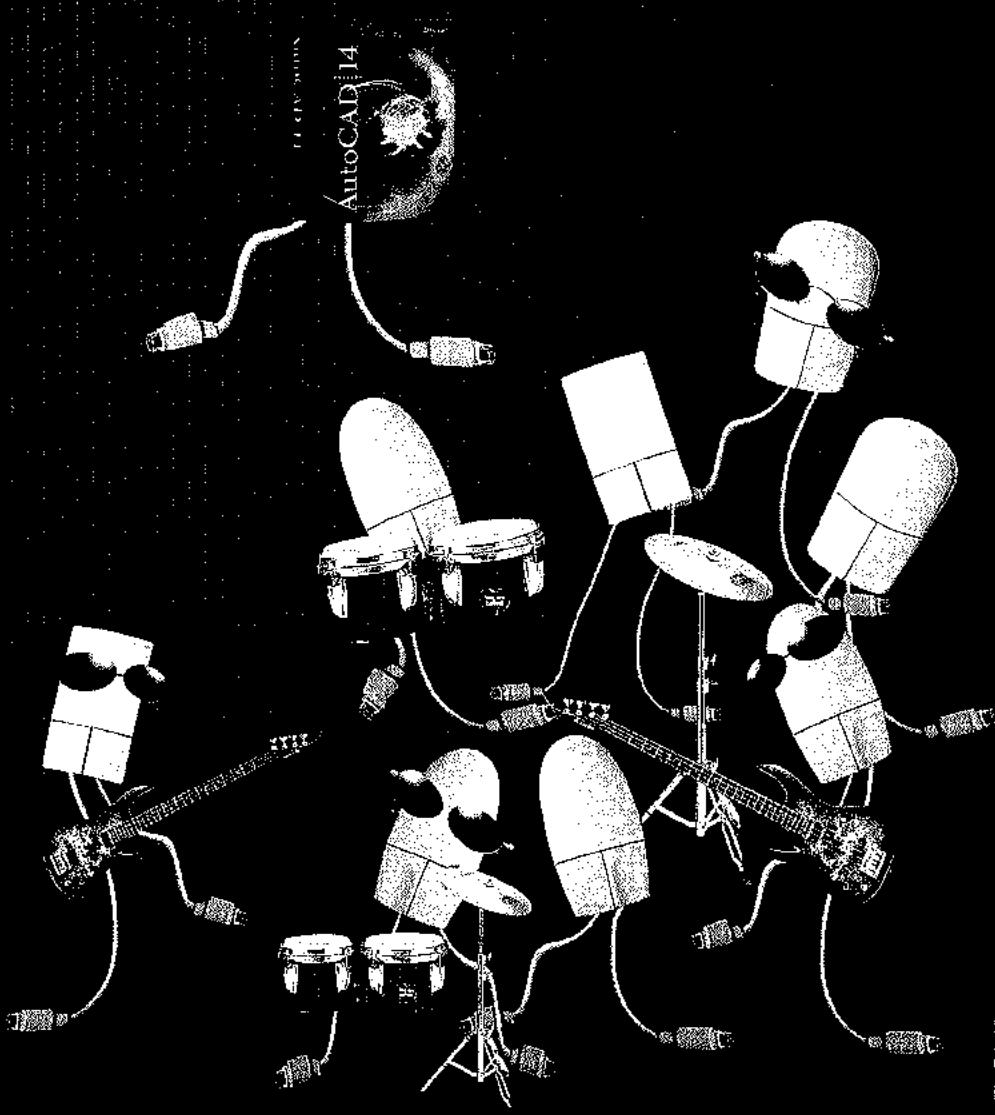
■ FAX : (02)3473-8448

■ URL : <http://www.chungwoo.co.kr>

R14

한글AutoCAD

Enjoy it!



Digitized by srujanika@gmail.com

R14의 즐거움

「한글 AutoCAD R14」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들통보입니다. 빨라진 속도, 편리한 차세대 객체 기술, 사용자를 위해 최적화 된 작업 환경... 빠져들수록 즐거운 세계, 그 끝없는 유혹 - 즐겨 보십시오. 「한글 AutoCAD R14」

R14 는 Visual Basic을 통한 Active X와 Visual C++를 이용한 Object ARX 신기술을 개발환경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HEDII를 탑재한 시로운 그래픽 엔진, 모듈화 된 지오메트리 라이브러리의 혁신 WEB기술이 여러분의 작업 속도까지 향상시켜 드릴 것입니다.

AutoCAD R14는 Windows 95와 Windows NT를 위해 최적화된
32 Bit 전용 소프트웨어로 전세계 CAD/CAM의 산업 표준입니다.

Delight Customer

R14는 데이터 공유가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새롭게 보완된 다양한 기능들이 여러분의 디자인 작업을 솔직하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전세계 16,000여명의 업계별 배터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과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인상하고 만나십시오. AutoCAD R14는 빠르고, 간편하고, 물리로게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AutoCAD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토데스크는 전장한 고지
마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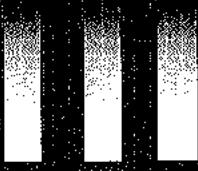
 Autodesk.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8 심부빌딩 17F
TEL : 527-0291 FAX : 527-0799

TEL: 9270750 FAX: 9270759

글리 양형래 힐
(주)도토네스코 노리아이
보내주시면 AutoCAD 11에
다한 테이블과 빛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05

건축전용 CAD의 새로운 세계



- 일본 CAD 시장 점유율 1위 (건축, 토목, 측량... 포함)
- 일본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 순위 7위 (OA, OS... 포함)

-日經 CG 1996년말 결산-

- 한국의 NCC와 일본의 FUKUI 컴퓨터가 기술제휴한
객체지향형의 한글 ARCHI-EAGLE v4.0이
1997년 9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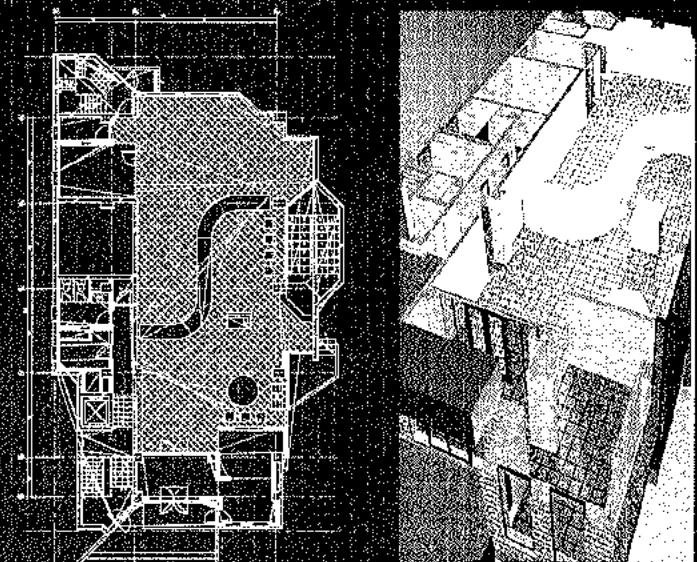
NCC (02) 564-2021

FUKUI COMPUTER (81-776) 53-9200

<http://www.fukuicompu.co.jp>

- 손郿씨 - (02)786-7470 (주)아성 시스템 - (051)516-1130
제일캐드콤 - 강원(011)250-0347

NCC



ARCHI  **EAGLE**

Version 4.0 for Windows

아림미디어 시스템 - (0551)68-6364 CMS - (0431)272-1024
협력업체, 영업사원 모집- 본사 (02)564-2021

PC통신 서비스

•••
우리협회

천리안 매직콜을 개설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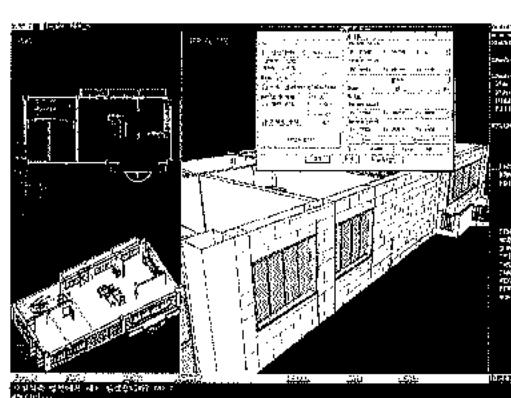
천리안 매직콜 CUG 개설 이용안내

1. 우리 협회에서는 (주)데이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리안 매직콜 서비스에 CUG(Closed User Group : 폐쇄 사용자 그룹)를 개설하였습니다.
2. CUG란 이용이 허락된 회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업무연락, 문서교류 및 정보제공, 전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PC통신 서비스입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CUG를 이용하여 협회현황 알림, 각종 현상공모 알림, 관련법률 제공, 각종자료 제공, 설문조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4. CU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신규 가입을 원하는 회원의 경우
천리안 매직콜 가입 신청서를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하면,
(주)데이콤의 천리안 매직콜 이용 권한과 우리 협회의 CUG 이용 허락을 받아 사용.
 - 나. 천리안 매직콜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별도의 이용요금 없음)
천리안 ID,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우리 협회 CUG담당자에게 송부
(FAX : 586-8823)한 후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
 - 다. CUG 연결방법 : 천리안 매직콜에 접수한 후 "GO KIRA" 입력
(우리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연결이 가능함)
5.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우리 협회 CUG를 모든 회원이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각 회원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CUG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협회의 CUG에 가입하면 (주)데이콤에서 제공하는 천리안 매직콜의 모든 정보를 함께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CUG담당자(사업부 정보자료과)

FAX 02)586-8823 · TEL 02)581-5711~4

상세한 내용 문의:(데이콤) TEL 02)581-3340(대) · FAX 02)581-3467



기초도면작성

- * 도면표지 및 도면목록/설계개요, 지적도, 구적도
공동주택 규모산정/면적표작성/입면도/
계단단면/창문단면/스케줄표작성
- * 중심선, 편집/벽체자동드로우/벽체편집, 등록/
창호22타입/창호타입변경/창호 Simple, Detail
- * 계단평면5가지/화장실 유니트/도면부호/
건축유밀리티/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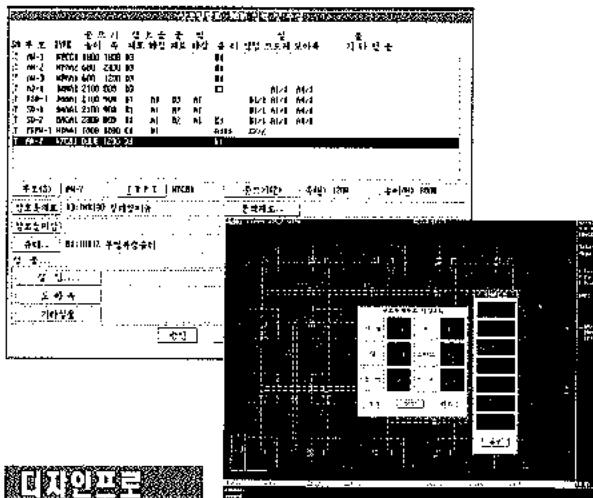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설정/도면정보
관리/프로젝트개요/
설계개요/건축허가서/
동별개요/현장조사서/
건축물현황도면/설계
진행방법/건축법규

도면수 3D

- 2D 도면을 3D 자동변환/간단한 질감표현/
문타입 자동변환/블럭변경/충돌아울리기/
등고선MESH/3D심볼 400여개지원/실별자동
투시기능/3D 한글 3DS와 연결가능

야근없는 설계사무소 도면수가 실현합니다.



디자인도면

설명, 실번호자동정리/마감상세입력/설부호 개선, 조희, 수정/
실내마감표 자동작성/창호일반사항/창호일람표 자동작성/
창호상세도작성/창호라이브러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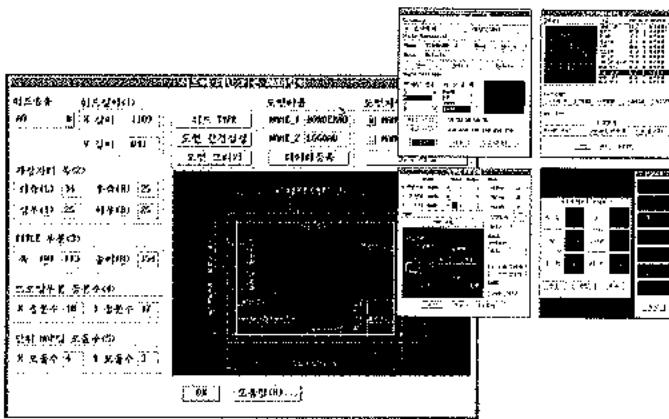
구조도면작성

- * 철근, 철골 일반사항
- * 구조리스트-스라브, 보, 기둥, 기초, 옹벽, 드라이에어리어, 계단
- * 구조평면-스라브, 보, 기둥, 기초, 옹벽, 드라이에어리어, 계단,
집수정, 매트기초, 철골리스트, 단표시, 레벨표시,
부재부호, 형강그리기
- * 구조평면에서 물량을 자동으로 산출가능

DOOS VER3.0

도면수 표준화

도면수는 각각의 건축사무실에 맞게 환경을 구축하는 강력한
표준화 도구입니다. 설계사무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오토캐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접목시켰습니다.
도면양식, 각종타입, 부호,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으며 공통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UTODESK 공인딜러

(주)소라정보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0 금원빌딩
TEL 564-1613 FAX 512-9375

협력업체

캐드리언 02-564-8500 캐드콤시스템 053-652-1897 캄아드 051-469-1882
캐드미디어 043-1272 1024 명진정보 0652-232-9901 기공시스템 062-523-7100
제일캐드콤 0391-651-1717 C.G.M 0591-762-0058

도면수 차로를 보드합니다.
설계, 조희, TEL/FAX:
자료교환

“재벌건설업체가 건축설계까지도 독점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에게
건축설계마저 넘길 것인가?

“反문화적이며 편파적인 公正委의 「건설회사 설계허용 방침」을 전국의

우리 건축사들의 주장

▶ “진입규제 라니!! 이불성설이다”

건축설계분야는 전문서비스 영역으로, ‘건축사’ 만이 건축설계업을 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수준높은 설계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보장인 것이다. 대한민국 건축사는 누구라도 건축설계업을 할 수 있다. 진입규제는 불성설이다. 건축설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의 「설계수행」주장은 명백한 自家撞着이다.”

건설회사 건축사는 건축설계가 본업이기보다는, 건축시공 관련한 기술적 사항과 시공도(Shop Drawing) 작성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소속된 것이다. 건축사 자격을 가졌다고해서 소속에 관계없이 건축설계업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계업을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건축사 자신이 개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 “대형건설회사는 설계업 진출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건축설계업은 건축사가 직접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업역이다. 시장규모도 건설산업시장규모의 3~5%정도다. 그러나 건축설계는 건축가들이 창작작업이어서 업체의 규모가 곧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막대한 자본력만 믿고 건축설계라는 전문서비스업역까지 문어발식 「무차별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 “국민재산인 건축물에 대한 상호 견제기능의 상실로 부실·불법이 극도에 달할 것이다.”

설계와 시공은 업무의 특성상 절묘한 상호견제가 유지된다. 건설회사가 설계를 하게 될 경우 이런 관계가 사라지고 오직 건설회사의 이윤추구만 남게된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을 「신속하고 많이」 짓는 데만 치우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공업체는 설계를 공사수주의 한 방편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덤펑, 부실 등의 부작용은 明若觀火한 것이다.

▶ “전문서비스 업역중 왜 하필 건축설계업만 표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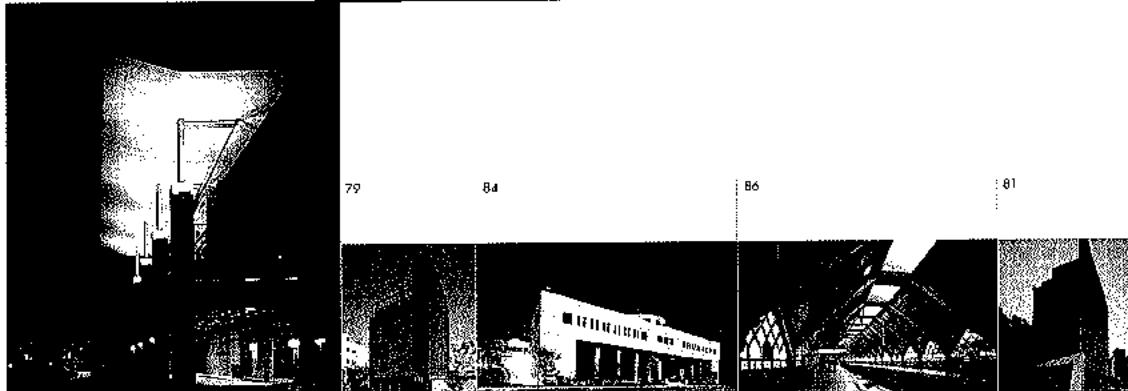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서비스업이 모두 각각의 관련법에서 공인자격자만이 해당업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건축사들의 건축설계업만이 진입규제에 해당되는가. 이는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해석이다.

▶ “설계·시공 분리운영은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만 왜 이러는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법적이든 관행적이든 설계·시공을 분리 운영한다. 민간 공사에 한해 건설회사의 건축설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지금 현재 이의 완전분리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왜 거꾸로 가려하는가.

6천5백여 건축사들과 5만여 건축설계 종사자들은 다시한번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전주리베라호텔(김병현 作)

칼럼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이관영	26
시론	시공회사 「설계겸임」의 부당성에 대해		29
기획특집 [4]	'97 실무건축계의 자화상		31
작품리뷰 / 전주리베리호텔			
	작품-전주리베리호텔	김병현	58
	대담-건축의 합리성과 텍토닉성	정기웅	67
	비평-전통적 도시 속의 도시 집합체	김봉렬	72
회원작품			
	KJ빌딩	김희곤	76
	삼덕건축 사옥	이주영+김원갑	80
	삼성 산청연수소	삼무설계	83
	도봉산 지상 정거장	오기수	86
	내외건축	배태현	88
	춘원당 한의원	강철희+심상철	90
	부평농협	김영석	92
작품노트			
	15년의 유희	류익현	94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9] - 김종업(完)	조인철	98
해외건축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5)	박효순	104
건축미당			
	협회소식		116
	건축계소식		120
	현상설계		123
	계획작품		126
	해외잡지동향		129
	신입회원		135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36
	개시판		138

Column

- Thoughts 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Permiss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by Construction Companies Lee Kwan-Young 26

Focus

- Perm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Design? 29

Special Issue[4]

- The Self-Portrait of 1997's Business World of Architecture 31

Review / Hotel Riviera Jeonju

- | | | | |
|-----------|--|----------------|----|
| Works | Hotel Riviera Jeonju | Kim Byung-Hyun | 58 |
| Interview | The Rationality and Tectonics of
Architecture | Jung Gu-Yong | 67 |
| Critique | Urban Assemblage in a City with Tradition | Kim Bong-Ryol | 72 |

Works

- | | | |
|--------------------------------------|--------------------------------|----|
| Building KJ | Kim Hee-Gon | 76 |
| Samdok Building | Lee Ju-Young & Kim Won-Gap | 80 |
| Samsung RESTRA(Resort & Training) | Samoo Architects & Engineers | 83 |
| Tobong-Mountain Station | Oh Ki-Soo | 86 |
| Naewoe Architects Research Co., Ltd. | Bae Tae-Hyun | 88 |
| Choonwondang Oriental Clinic | Kang Chul-Hee & Shim Sang-Chul | 90 |
| Bupyeong Nonghyop | Kim Young-Seok | 92 |

Sketch Book

- Amusement of 15 years Rhyu Ick-Hyun 94

Serial

- Korean Architect 9 - Kim Chung-Up (E) Zho In-Choul 98

Overseas Architecture

-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Park Hyo-Soon 104

Architects' Plaza

- | | |
|------------------|-----|
| KIRA News | 116 |
| Archi-net | 120 |
| Competition | 123 |
| Blueprint | 126 |
| Overseas Journal | 129 |
| New Members | 135 |
| Statistics | 136 |
| Bulletin Board | 138 |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617-3071 · 강동구건축사회/284-6840 · 강북구건축사회/803-3425 · 강서구건축사회/804-718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2 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봉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과천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시천구건축사회/56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2 · 용산구건축사회/717 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6 · 종로구건축사회/735-00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57-736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72] · 광명건축사회/[02)1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누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2-755-5145 · 수원시의스축사회/[0331)4-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00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택지역건축사회/[033)657-6140

■ 경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3 · 속초지역건축사회/[032)233-5031 · 영일지역건축사회/[0373)374-263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44)2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 223-3088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2502 · 청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금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브링자역건축사회/[045)25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신안지역건축사회/[0455)64-8500 · 청원지역건축사회/[0417)551-4651 · 충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근사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8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63)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8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문경지역건축사회/[058)53-3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66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360)31-8263 · 칠곡지역건축사회/[0546)9/4-723 · 포항지역건축사회/[0545)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3-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08)43-603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삼천보지역건축사회/[0593)33-3779 · 창녕지역건축사회/[0523)8-3080 · 울진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충무지역건축사회/[0557)8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공정위 「건설사 설계허용」의 오류

Thoughts 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Permission of Architectural Planning by Construction Companies

이관영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by Lee Kwan-Young

이 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시장 진입규제완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설계허용” 방침에 대해 필자가 건축사협회를 대표해 관계자로에 평론한 반대의견임을 밝힌다.〈편집자 주〉

전문직(Profession)의 정의

지금까지 건축사(건축가)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직(Profession)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WTO 양허각서상의 분류에서도 건축분야가 전문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은 장기간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그 성실성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대신, 사회는 그 대가로서 각종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특권
- 위신과 존엄성
- 확고한 법위의 자치권과 권위
- 높은 수준의 보수
- 합리적 판단 능력의 인정
- Profession에 기대하는 의무
- 실무수행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공정성 유지
-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의 옹호
- 개인의 이익에 앞선 공공의 복지와 이익존중

뿐만 아니라 Profession은 그 실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Business가 아닌 Practice로 구별하고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어로 변호사나 개업의를 Practitioner(Practitioner)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에서이다.

건축생산방식의 다양함에 따른 Profession의 형태

구미 각국에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회사」가 이와같은 Profession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법으로 금해왔다. 그

것은 회사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쌓아온 사회와 Professional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한 조건을 갖춘 Professional Corporation(직능법인, 전문법인, 약칭PC)을 제도화 하였다. PC의 조건으로는 개설자, 임원 및 주주를 Profession으로 한정하고 업무는 회사가 아닌 개인의 명의에 의하여 수행하며 상호에는 개인 이름(또는 인명의 조합)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말미에는 필히 Profession Corporation임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취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상호만으로도 회사의 성격과 취지를 알아 볼 수 있어 다른 「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공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건축사만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직 업무는 공공의 이익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를 전문직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이 전문직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또한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인식과 제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제3자가 관련된다면 책임소재의 불확실,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통한 책임의 전가·회피 등 막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건축사가 피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써 고객 개개인에게는 물론 공공의 복지·안전에 초점을 둔 독립된 직능적 판단의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고용된 건축사는 그가 성실한 업무수행의 의무감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고용주와 고객간의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서 갈등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독립된 건축사에 비하여 직무에 대한 자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전문직이 이익의 충돌에 개입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공표(De-clare) 또는 공개(Disclosure)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과의 신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조차 전문경영인에 대한 오너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시되고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에서는 고용건축사제도가 허용된다면, 한국의 건축문화는 비전문가의 손에 유린당하고 말 것이다.

건설사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디는 주장에 대하여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요청의 이유를 보면 자사보유건축사(Inhouse-Architect)를 보유하므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조금만 주의하여 보면 논리의 허구성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경쟁력 강화란, 턴키방식(Turn Key)이나 Design-Built방식에서 사내건축사를 활용하여 설계비용을 경감하고, 시간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세계시장에서 입찰사례를 보면 외국의 유명건설사 일수록 설계분야는 JV(Joint Venture)형식이나 기타 다른방식의 Out-Sourcing(외주)방식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다. 이와같은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설계경험을 한꺼번에 갖춘 Inhouse-Architect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쟁사와 경쟁을 위하여는 보다 유능하고 경험많은 설계자를 파트너로 하는 것이 경쟁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보유 설계조직을 갖는 것이 경쟁에 유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이는 입찰에 실패하였을 경우에 설계비용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지극히 소극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밖에 자사용도의 건물이나 자체개발사업의 설계 등에 있어서의 경쟁력문제도 진술한 바 건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경험을 통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오히려 설계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감안할 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비록 자기가 사용할 건물이라고 하나 건축의 특성으로 보아 개인소유를 떠나 사회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다시말해 설계자에 의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전제가 경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축적된 신기술의 활용가 용이하다는 점에 대하여

시공에 관련한 신기술은 엄밀하게 말하면 Design이 아닌 Engineering에 관한 기술로써, 이 역시 성의만 가지면 설계단계에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또한 입찰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획득하기 위한 기법)제안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VE 제안마저도 건축사의 업종한 승인이 있어야만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사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설계사무소의 등록의무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비단 건축사들의 친목단체가 아니고, 법으로 위임받아 건축사의 관리, 평생교육, 업무기준의 정비, 행동강령의 제정 등을 통하여 건축사 업무의 성실성과 사회에의 공여를 보장하며, 건축사자격시험의 시행, 관련법규의 시달, 개선 방안의 연구 등을 통하여 정부기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리하여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WTO협정에 따른 회원국 상호간의 자격인증 등 중요한 문제들이 각국의 건축사관련 단체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사의 「협회등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무소 명칭에 대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의 특성을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는 매우 적절한 제도이다.

전문직의 진입규제는 독점이 아니다.

전문직에 대하여는 이미 「명칭의 독점」과 「업무의 독점」이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는 전문직이 그 「독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그 「독점」을 일방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써 공익(Public Interest)을 우선한 실무를 행할 의무를 요구받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기구이며 불공정행위란 이러한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제소가 있어야 할전대 전문직의 고유한 업무의 「독점」 때문에 과연 누가, 어떠한 형태의 피해를 호소해 왔단 말인가? 고작 자본가가 이러한 「전문직」을 고용하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공익적인 제도가 불공정한 행위라고 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자본가의 무차별 참여를 공정위가 거들어서는 더욱 명분이 없다.

잠시 보류가 되는 모양이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17개 전문직에 대하여도 비슷한 논의가 있는 듯하다. 이게 웬말인가? 아무리 재벌이 길밥장사에 뛰어들고, 추석때면 조기, 명태를 사재기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수준이라지만 이제 이런 작태에 공정위마저 「불감증」이 되었던 말인가?

돈만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진입」해서 「독점」하려는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규제완화」의 본뜻이며, 공정위의 「공정한 입장」이란 말인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전적 전문직에 대한 고전적 인식의 변화 또한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그 제도를 수용하는 사회적 환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숙하지 못한 환경에 주어진 「자유」가 자칫하면 제멋대로의 「방종」으로 변질되듯이, 건축정책의 변화에는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성숙」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PL(Product Liability : 제조를 책임)제도나 건축산업 관련 보험제도의 전무, 시공사의 「자주감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의 부족 등 건축산업의 선진화가 요원한 가운데, 거두절미한식의 제도개혁만 앞선다면 우리는 또한번 저 「불도저 시장」시대의 암울한 건축문화를 다시 체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한 고속전철공사의 파행적 행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신국제공항 공사, 그칠 줄 모르는 대형 사고, 비만오면 무너지는 아파트현장, 감사원까지 나서야 하는 지하철 부실사태 등 주위 어디에도 건설선진국이란 조짐은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의 건설환경이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화」한 다음에 「제도개혁」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방관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련단체의 전문가가 꿀고루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연구기구를 상설하여, 비단 차제에 거론되고 있는 「진입규제 문제」 뿐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중한 연구를 통하여, 「졸속」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진정한 한국건축의 장래를 도모해 보자고 제안한다.

세발자전거는 느리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

섣불리 두발자전거로 바꾸면 탄 사람 뿐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까지 함께 다치게 되는 것이다. 착실히 연습을 해서 위태하지 않을 때, 그 때 두발자전거를 사주어도 좋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다.

시공회사 '설계겸업'의 부당성에 대해

Permitting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Design?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의 모순

대한건축사협회 「공정위」 대책소위원회

1. 공정위가 말하는 '진입규제'란 무엇인가?

-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업종이든 행정관서에 신고 및 등록토록 하는 것으로 「진입규제」라고 볼 수 없다.
- 건설회사의 건축사는 시공회사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타 전문직(의무실의 의사, 병원약국의 약사, 기업체 직원으로서의 변호사·회계사 등)도 고용된 형태에서는 자신의 전문업무를 수행할 뿐 외부업무를 수임할 수 없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식이다.
- 「등록」하는 것을 진입규제하는 「법률」은 없다.
- ※ 「등록」의 필요성
 - 정부의 통제 및 조정이 필요
 -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정책수립시의 필요성
→ 무등록일 경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재교육 및 연수가 가능하다

2. 시공회사가 요구하는 [자기시공공사]란 무엇인가?

- APT, 공장, 자사빌딩
 - APT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건축주가 될 수 있는 건축물로 더욱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건축물이다.
특히 APT는 원공전 분양으로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어 사용자 보호가 필요
- APT를 끝내 설계율량의 40% 이상이다.
 - 건축사사무소의 생계 위협
 - 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독과점적 사고」의 표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방안」이 「건설회사」의 주장에 따라 수정을 거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독점적 지배」를 감시하는 경제경찰로서의 공정위가 재벌 건설회사의 "설계독식기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용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회극이다.
 - 전문직(Professional) 서비스업의 업무수행 형태 및 전문지식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 전문직(Professional) 업무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전문직(Professional)은 영업 및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윤리다.
(전문직은 광고(영업행위)를 못함(신문에 개업인사를 한다) · 건축사, 의사, 변호사, 등)
-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업무다
- 오랜기간 교육과 축적된 전문지식은 '목적' 자체가 영업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
- 전문가는 높은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신과 존엄성을 인정받고 공공성과 복리증진의 의무를 가진다.

4. 재벌회사는 이미 유형·무형의 「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이미 음성적 형태로 설계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건전한 「계열화」인가?)
- 세계유수의 건설회사중 자사의 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백텔 + SOM과 같이 조인트벤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민간발주공사에 한하여 시공회사가 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인 일본도 관리(책임)건축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WTO체제시 시장적응성(통상마찰)이 우려되므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중이다.

5.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구조조정은 「투명성」 확보와 「전문화」에 있다.

- 단편적인 외국사례의 비교는 위험하다. 그러나 고유의 제도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공사비용의 「투명성」이 건설제도개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 턴키입찰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을 때 설계사무소의 계약설계에 투자된 비용(설계비)을 줄여보려는 건설회사의 알파한 상흔이다.
 - 이러한 사고와 제도가 「건축설계」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
- 건설 드라이브정책(해외건설 및 건설육성정책)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인 「건축설계」 육성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건설산업의 발전은 고질적인 「재하청 관행」을 추방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6. 「건설산업의 종합화·효율화」는 「CM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 종합화·효율화의 오해
 - 모든 분야를 한회사로 통합한다는 비전문가의 발상
- CM제도의 도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외국 대부분이 운용).
- 턴키제도의 오해(한회사가 모든 것을 한다는 비전문가의 해석).
 - 턴키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책임을 지는 한회사가 각각의 전문분야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형태임
- 신속한 업무수행 → CM제도로 확보할 수 있다.

7. 이러한 논의에 해당분야 전문인의 참여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선진외국제도의 무분별한 도입
 - 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환경에의 비교 결여
- 제도의 본질왜곡 우려
 - 턴키방식, CM방식 등에 대한 전문적 인식 부족 사례
 - 각분야를 망라한 상설연구기관의 필요

〈참고1〉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완화」 검토내용의 변천

- ◆ 1996. 8 :
 - 건축사법 제23조는 「경쟁제한법령」으로써 건축사사무소 개설시 대표자를 건축사로 국한시키는 현행제도 삭제
 -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규정 임의화
- ◆ 1996. 12 :
 - 시공업체가 설계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설계시장 참여를 허용. 다만 진입시 예상되는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
 - 설계·시공 일괄입찰대상 대형공공공사(100억원이상) 우선허용('98년 시행)
 - '99년부터 제한없이 허용
- ◆ 1997. 5 :
 - 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시공공사(턴키시공·분양공사)에 한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97년 중 건축사법 개정).

〈참고2〉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설계겸업" 논의결과

1. 건설회사(한건연)의 국민제안(설계겸업 요구) 내용
- ◆ 제1안 :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가 아닌 건설회사 법인대표도 건축사사무소 등록 허용
- ◆ 제2안 :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자기시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는 법인대표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설계업무는 자기시공건축물로 한정함.
- ◆ 건설회사가 주장하는 "설계겸업" 이유
 - 건설업의 종합화 저해.
 - 시공기술이 설계로 흔류되지 못하고 단절됨.
 -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설계분야 발전 저해

2. 행정쇄신위원회 결정내용

- ◆ 행정쇄신실무위원회('94. 6. 29)
 -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여 각각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국민제안(건설회사의 설계겸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
 -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 부동의
 - 한국건설업체연합회 : 동의
- ◆ 행정쇄신위원회('94. 10. 14)
 - 건설교통부의 "건축설계용역업 육성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제안에 대해 부동의 확정.

'97 실무건축계의 자화상

The Self-Portrait of 1997's
Business World of Architecture

오늘날 건축계는 정치·경제·사회적 혼돈 상황 못지 않게 지난 몇 해 이래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정비, 연이은 대형사고에 따른 감리업무 강화 및 건축사의 책임 증대,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진출 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과열된 수주경쟁과 건축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쟁,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역할과 사회 대중적 요구간의 갈등…….

이렇듯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건축 각 실무분야의 시각 또한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오늘날 실무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재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97 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각 실무분야를 배경으로 실질적 관심사항과 실무건축계의 긍정적·부정적 모습은 물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특집에 부쳐	심영섭
설계도는 건축사의 실력과 책임	원정수
나의 자화상	안병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우리	김정희
우리의 현실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김우성
1997년 초여름, 그 곳에 서서	서민원
현상설계 유감	김충일
20세기말과 우리의 상황	이용희
사회 총체적 전문화의 시급성	정덕훈
쥬라기 공원에서	옥태범
우리는 개방에 대해 배타적인 민족인가 보다	이호정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성과 작품성	김용균
팬(Fan)을 만드는 건축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전진삼
건축구조계의 자화상	이창남

특집에 부쳐…

Editorial on the Special Issue

심영섭 / 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본지 편찬위원

by Shim Young-Sub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유독 실무건축계에만 국한된 어려움은 아닌 듯하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전통의 일부분을 건축계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는 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문화창달이라는 고상한 의미부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소박한 가장 기본적인 꿈이 사무소 운영이라는 어려움이나 발주자측과의 갈등, 법과 제도의 모순 등으로 무력해지는 현실 속에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무건축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각자가 처한 실무의 어려움이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자가 느끼는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점은 건축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다.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갈등, 현상설계의 문제점, 작가의식과 자기성찰, 수주경쟁과 직업윤리, 그리고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건축계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리라 본다.〈필자 주〉

이번 7월호 특집은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는 대신 실무건축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상황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들어보고자 했다. 오늘날의 사회, 정치, 경제적 여러 상황은 매우 광범위하게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계 또한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심각한 경기불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인 여러 도전으로 인하여 전문적으로 실무건축계의 위상조차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주제에 얹매이지 않는 특집 아닌 특집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다소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상태일지라도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목소리를 통해 실무건축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각도로 그려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구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유독 실무건축계에만 국한된 어려움은 아닌 듯하다. 9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전통의 일부분을 건축계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실무건축계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건축내적인 사안들이기도 하다. 그 문제들이 외부적인 여러 요인들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겹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거나 시간의 해결을 기다릴만한 여유로운 국면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막다른 골목에 건축계가 몰려 있다는 심정으로 정면으로 맞부딪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무건축계의 마스터 플랜을 재구성하여야 되리라 본다.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 때 그리 길지 않은 역사 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실무건축계가 그동안 경제성장과 근대화에 동승하여 앞만 보고 출발을 쳐 온 관성에서 벗어나, 지나온 길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모습을 추스릴 때가 이제는 된 것이다.

얼마전 여류 문학계 인사 한분이 총체적 문학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건축계 내부에 만연한 반목과 상호비하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함께하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배경과 이해 관계를 지닌 이들이 함께 모여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건축의 속성상 타 전문집단과는 달리 상이한 생각과 갈등이 많게 마련이다. 이번 특집의 내용들 또한 쓰는 이 각자의 배경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읽는 이에게 전달되는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출발한 이번 특집의 참된 의미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인들의 눈빛에 서려있는 기쁨과 번민, 투정과 바람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느껴보고 각자 스스로의 자화상과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현실

흔히 건축의 예술적 속성을 얘기하곤 한다. 그러나 건축은 다른 순수 예술과는 달리 자신의 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프로젝트가 없다면 불행하게도 건축사는 그 존재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다. 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문화창달이라는 고상한 의미부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소박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꿈이 사무소 운영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발주자족과의 갈등으로 무력해지는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번민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매우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리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듯하다. 공정한 현상설계의 풍토조성, 경제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건축논리의 확립, 사업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개발방식의 도입, 파트너쉽을 통한 역할분담보다 투철한 직업의식의 필요 등이 부분적인 대안으로서 거론되었다. 이 문제는 각자가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하거나 개발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영에 관한한 이미추어 수준인 건축사들에게 실무건축계 차원에서 지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현상설계

현상설계에 대한 개선방향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근들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발주 현상설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밝히고 있다. 현상설계가 양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아직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 시장 개방 후 외국사의 힘을 빌린 대리전 양상이나 프리젠테이션 위주의 평가로 인한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상설계에 대해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근본적인 부정론이 있는 반면,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건축계의 발전과 신진건축사들의 등용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2단계 시행을 통한 운영방법의 개선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현상설계에 대한 애증의 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의식과 자기성찰

최근의 어려운 실무건축계의 상황은 외부탓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기에 해결책 또한 건축사 스스로들에게 달려 있으며, 건축사의 대사회적 위상이 흔들리는 것 또한 작가의식이나 프로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까닭이므로

자기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전문직으로서 건축사의 일지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곳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프로'라고 줄여서 말하는 전문가(Professional)의 의미를 건축에 대비해 볼 때, 그 전문영역은 설계이고 작업결과이고 그것을 태동시키는 의식 자체이다. 비록 여러 가지로 미비한 국내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 불황인지 개인적 능력부족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현실적 상황에 종속되어 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각자 자기의 빛나는 사회상을 조각하는 길' 이 전문직으로서 건축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이다. 이와같은 개별적 노력과 더불어 실무건축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서로간에 격려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수주경쟁과 직업윤리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척박한 현실, 개업 건축사의 증대와 경기침체, 기업형 대형사무소의 증가,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사의 영역침식 등으로 인해 건축계는 대내외적인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문직으로서 기본적인 직업윤리가 흔들리고 건축사의 사회적인 위상 또한 훼손되고 있다. 지나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는 규모검토의 폐해, 일부 사무소의 건축허가 대행업체화, 국제협력설계를 빙자한 외국사의 설계수입, 비건축적인 설계입찰의 관행, 건축윤리를 대체한 기업윤리의 대두 등이 거론되었다.

기타

구조분야에서 실무건축계의 등반자로서 건축과 구조의 불편한 현실 및 바람직한 방향, 구조도면 작성 및 감리에 대한 의견, 건축구조계의 현황과 전망 등을 기감없이 표현하였다. 그밖에 언급된 주요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축계 원로의 역할과 Vision 제시 필요
- 건축관련 전문업체들과의 건실한 협력관계의 확립
- 전문분야간의 상호 업무존중 및 건축계의 전문화
- 건축교육의 중요성과 산학협동의 활성화
- 건축사 자격시험 변화에 따른 현실과 전망
- CAD의 도입과 이에 따른 건축의식의 변화에 대한 우려

설계도는 건축사의 실력과 책임

The Plan is the Proof of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Architect

원정수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Won Chung-Soo

자화상의 배경

본 특집기획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건축사협회가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밝은 희망과 미래를 타개하여 나가는데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및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다.

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밝히면서 건축을 경험한 실제의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원고 청탁과 다른점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34년생이며 건축에 입문하여 올해 40년째 접어들었고 오로지 건축설계분야에서만 뛰었으나, 남다른 젊은 후진양성을 위해 35년 간은 교육분야를 병행하며 건축의 길을 뛰었다. 간삼건축설계사무소를 이끌어나가는 협력건축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저 순 소장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적인 건축부부 동반관계로 건축의 길을 함께 뛰면서 신학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실무분야에서 관여하고 있는 입장과 역할은 건축설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작업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에 설계를 마치고 완공을 본 “포스코 센터”에 모아진 건축계의 많은 관심에 따라 설계를 체험하면서 얻어진 자료를 여러 가지 기회에 공개하여 왔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부부동반으로 25세까지는 입문의 길을 거쳤고 그다음 35세까지는 여러 현상설계에 참여하였고, 새로운 복합기능의 건축을 해결하는 설계경험을, 마치 실험과 새로움에 도전하였던 과정이었다고 회고한다. 이때 69년도 건축사법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취득으로 건축사사무소 「一洋」을 개설하고 여성 건축사 지 순 소장의 설계활동이 시작되고 필자는 보조 협력으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은행 본점 현상설계에 당선되던 해인 76

년까지는 개인 또는 사회조직 등의 건축주와 직접 상대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와 현장을 아끌어 나가는데 새로운 건축문제를 체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건축은 건축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빠져나가 느끼게 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의 특성에 따라 건축계의 발전이 좌우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사는 한층 넓고 깊은 안목에서 사회와 역사인식의 건전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경험과 과정이었다고 본다.

한국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산업, 21세기의 주력 산업인 첨단, 정보산업으로 변신하여야 하는 과업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89년도 건축계획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미래의 건축, 인테리젠톤 건물 등으로 불리우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선진국과 협력하여 소위 다국적인 설계조직을 구성하는 새로운 양상의 설계해결방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설계관련요소를 수용하고 종합하여 해결하는 설계를 지휘 통솔하였다.

이제까지 지나온 40년동안 건축의 길을 돌이켜보면, 건축은 사회와 역사의 소명의식을 뚜렷이 파악하고, 건축의 전문적 분야가 급진전하면서 깊고 넓게 확대되어 가는 흐름을 앞질러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저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제 건축설계를 통한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와 미래의 건축을 정확하고 빠르게 짚어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함양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주경쟁과 윤리

새롭고 참신하며 미래지향적인 건축작품을 만들어 내어 존경받는 건축가에게는 건축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김종업, 김수근 두 건축가의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지난 시대가 그랬었다고 본다.

오즈음에는 신뢰하며 존경하는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소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없어졌다는데 얘기가 된다.

미국의 건축설계가 우리나라에 상당수 상륙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S.O.M, KPF, H.O.K 등 대부분 설계조직의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 설계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시대의 추세라고 보아야 할지?

정치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체험하고 깨달듯이 건축설계의 방법과 조직의 변화도 이를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는 설계 수주의 과열경쟁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이다.

우선 이런 상황에서는 건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간의 신사협정의 수칙은 지켜지기 어렵고 이는 자유경쟁의 기업구조 본능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같다.

설계비의 기준을 지키기 어렵고 책임있는 설계를 제작하기도 불가능하므로 건축계가 받는 사회로부터 냉대와 불신은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건축설계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인 것이다. 또 정치적 비유를 하면 마치 중소기업육성의 정책을 늘어놓지만 중소기업의 부도와 도산의 비명은 높아만 가듯이 건축설계분야가 부딪치는 시대적 사태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무제한으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시적인 관심과 결론은 그 효력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윤리의 개념도 농경사회의 도덕성과 산업사회 의 도덕성 더 나아가 정보사회의 도덕가치 기준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방지대책이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정확히 규명하여야 이 시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계획과정의 혼선

건축설계의 매력은 멋진 건축의 "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건축가의 "꿈"은 결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이는 건축가의 건강과 정신적 좌절을 부채질하여 희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뚜렷한 동기가 없는 건축설계의 지침과 목표에 서 발생하는 불상사 - 대기업에서 사옥을 건설하는 설계과정에서 일어난 일회 헌토막.

창의적이고 보다 새로운 건축계획안을 보고 건축주가 갖게 된 의문은, 세계 어느 곳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불안해진 건축주는 계획안을 거부하여 새로 계획안이 만들어졌다. 외국에서 보던 세련된 건물의 인상이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 하기를 몇년 가는 사례도 있다. 끝내 그 설계건은 외국건축가의 손에 넘어갔

고 외국건축가는 자국의 설계를 재탕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건축가를 믿지 않고 애정을 갖지 않는다. 이는 해외 쇼핑의 충동구매 심리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서 경제력이 신장되어 설계비가 국제수준에 도달한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산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지켜보는 건축계가 안타깝다.

개인 건축주가 설계의뢰하는데도 외국설계자와 함께 뛰어아 자격과 기회를 준다. 또는 현상설계를 시행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고 응모안을 이용하여 설계를 별도로 해결하는 사례 등 건축계획과정의 과다출혈과 희생으로 명들고 있는 건축사들의 권리보호의 대책은 건축계 스스로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설계도의 변천

건축계의 두드러진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설계도판에서 컴퓨터로 바뀌면서 건축가의 일지와 생활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컴퓨터 상자에 담겨진 설계도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책자로 뮤여져서 나타나며 깨끗하고 보기좋은 효과의 설계도가 생산되며, 이는 설계비 수금에도 크게 기여하는데서 일어나는 설계분위기로 건축가의 자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축은 현장에 세워지는 실체를 말한다. 그런데 건축설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에서 미세한 상세까지 깨뚫어 보는 추리력과 상상력이 실종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건축설계 수주의 기회를 독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상이 건축계에 큰 화제가 되어 있다.

설계는 결코 공업생산라인에서 양산되는 방법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설계도는 건축가의 실력과 책임을 실어 주고 있다. 건축, 구조, 설비, 토목, 정보통신, 안전설비, 환경조형미술, 조경 특히 공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폐적환경을 창출하는데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1934년생으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와 밀양건축에서 작품활동을 하다 현재는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Prime Architect로 활동중이다.

나의 자화상

My Self Portrait

안병의 / (주)김충업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Byung-Ui

설계입찰이라니!

어느날 뉴욕타임지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다.

「대한민국 서울주재 뉴욕타임지 지사의 현지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설계발주의 부정여부로 논란이 많았던 K.B.S. 지사의 설계는 결국 가장 내정기에 가까운 3개 설계사무소의 입찰가격의 평균치에 근접한 모(某) 설계사에게 97년 7월 1일 낙찰되었다.

이 기사는 신문의 경제판에 소개된 것이 아니라 문화면의 가십난에 우스개소리로 실렸다. 즉 뉴욕타임지에 의하면 설계비를 입찰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꼰 것이다.

르노와르의 누드그림이라면 얼마에 사겠다고 입찰에 부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또 실제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건설되지도 않은,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다만 건축가의 머리속에 막연한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꿈 같은 형태에 대해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다는 말인가(예를 들어 얼마만큼의 콘크리트 양과 인건비가 든다고 물량이 결정된 건물이라면 나는 얼마에 팔겠다는 등의 입찰이 성립될 수도 있겠다).

우스개소리를 또하나 부친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지난 해에 두 전직 대통령의 수억 불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되자 국가 공무원들은 오직 부정방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는 공무원들의 딱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너무나 단세포적인 발상이 아닌가.

어느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야 하는가. 답은

하나. 우수하고 양심적인 그래서 좋은 건축을 빛어낼 수 있는 건축가가 아니겠는가 그 방법은.

그것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찾아낼 일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발목을 잡힐까봐. 또는 부정에 가담했다는 소리를 염려하는 등 이차적인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복지부동이니 말이다.

나는 왜 콤페(Competition)을 기피하는가

아주 오래전에 사상계(思想界)라는 월가지가 우리나라 사조(思潮)의 흐름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다. 어느날 인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실선개헌인지, 유신인지하는 아주 못된 일을 꿈꾸었을 때 사상계는 권두언에 아무 것도 실리지 않은 백지인 채 넘겨놓았다. 다만 권두언이라는 밖밖에. 우리나라의 설계콤페에 대해서 나도 할말이 없다. 아니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으니 뭔가 코멘트해야 한다면 글쎄. 옳지! 좋은 말이 생각났다.

아 더 메 치.

옛날 유행했던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인데(더러 기억하고 있는 독자도 있으리라)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다 못해 맘스껍다는 말이다. 분명 협상설계규정이라는 것이 벅적이기는 있다. 그러나 누구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왜 만들었담.

나도 다섯 손가락에 들정도 심사위원이라는 갑투를 써보았다. 그 결과는 바로 아 더 메 치다. 굳이 이름을 밝히고, 경위를 털어 놓으면 결국은 다치게 되는 심사위원이나, 콤페 당선자가 모두 내 친구이고, 후배이고 또 제자이고보니 결국 하늘보고 침뱉는 격이다. 그러니 역시 노, 코멘트.

건설관계 공무원들이여, 제발…….

나는 75년부터 약 3년간 L.A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그곳 시청에 자주 출입했었다. 얼마나 신선(新鮮)했는지. 우선 누구도 금일봉을 바라지 않았고 탐욕스런 눈초리도 아니었다.

그때 나는 서울이 생각났다. 여기는 이런데 왜 서울은.

둘째로 느낀 것은 그곳 공무원들의 친절함이었다. 내 설계도의 법규상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정확히 꼬집어내어 그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결코 디자인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았다. 디자인은 건축가인 당신이 해야 할 분야이고, 자기 담당은 어디까지나 법규에 맞는가 하는 문제란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건물 중에 가장 뒤떨어진 것은 학교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담당공무원들의 횡포 때문이다. 건설담당 공무원들이여, 당신네들은 법규만 검토하면 그만이다. 또 그것이 당신네들에게 주어진 업무이다. 제발 디자인에 관여하지 말기를…….

건축가란 자기 디자인이 그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결코 우수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축사자격시험

대입시험제도는 여러해동안 갈팡질팡 해왔는데, 건축사자격시험도 자기 페이스를 못 찾다가 지난해부터는 예비시험이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도 그 수험자격을 주기로 낙착되었다. 이것은 크나큰 용단(勇斷)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도 대학졸업후 5년이상의, 설계업무경험을 고집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두 나라에 비해 우리의 대학교육이 시원치 않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러나 우선은 밀어볼 수밖에.

2차시험의 문호를 활짝 열어버린 것 또한 기회평등이라는 점에서 흰영할만하다. 다만 설계기술이 저하되지 않을까하는 한가닥 근심은 남아있지만.

지금 속단을 할 수는 없겠다. 몇해 지나면 아마 잘못된 점이 보이리라.

자격시험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가리는 것이다. 선발시험이나 채용시험만큼 까다로울 필요는 전혀 없다. 될수록 문을 활짝 열어 작품을 창조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겠다. 그동안의 갈팡질팡행정으로 더러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젊은 건축가들이 있겠으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했고,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CAD, 너는 만능인가

미국에서 오랜세월,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 한 녀석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다. 우리 아뜨리에를 한 바퀴 둘 돌아보고 그 녀석이 하는 말인즉,

「고무 냄새가 나네요.」

「고무 냄새가 뭔데..」

「적어도 건축가의 아뜨리에라면 고무인형 냄새가 아닌, 사람의 냄새가 나야 할 터인데 말입니다.」

하기는 우리 아뜨리에 몇 안되는 짧은 건축가의 달걀과 같은 수의 CAD가 있고 제도판은 몇개 안되니 말이다. 그 녀석 그렇게 꼬집을 만하다.

내 나이 70고개에 이르고 보니 이제야 건축 디자인을 익히기 위해 CAD를 배울 염두가 안난다. 하면 되는 줄은 알지만 어쩐지 구차스럽다. 그래서, 이제까지 40년동안 익혀온 대로 4B연필로 프리핸드 스케치한다. 처음에는 스케일조차 대지 않고 오직 눈에 익힌 비례감각과 손이 움직이는대로 따른다.

처음부터 CAD를 사용하는 이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CAD로 디자인하기 쉬운방향으로 디자인이 굳혀지기 쉬우며 자칫하면 비인간적인 건축으로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프리핸드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완성도면 만을 CAD에 맡겨 버린다. 모든 사고는 장, 단점을 아울러 갖는다. 큰 참외는 양은 많으나 맛이 없기 일수고, 작은 참외는 맛은 있으나 양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선택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혁명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건축의 아름다운 비례감, 무한한 인간의 상상력, 참다운 휴머니즘건축을 빛을 려는 노력, 이것들은 CAD의 사용 이전에 우리들이 익혀야 할 덕목(德目)이 아니겠는가. 건설계는 왜 이다지도 많은 사건과 부조리투성이인가. 이 환경에서 우리들 건축가는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야 할까. 우리들 모두가 좋아서 택한 이 길이다. 좋은 건축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나는 비교적, 외국 건축가들과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많은 편이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가지 느껴지는 것이 많았는데 으뜸가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정신이었다. 직업 의식이 투철했다. 나이 60을 훌씬 넘은 백발의 노 건축가, 그러나 늘름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일을 다루는 모습. 나는 감동되고 이끌렸다. 구리파의 선진국들이 백년이상 걸려서 이루어놓은 현대문명을 우리들은 불과 30수년에 이루려고 빌버둥치고 있다. 무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오직 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각자 자기의 빛 나는 자화상을 조각하는 길 뿐이다. 르 코르뷔제가 남긴 말로 이 글을 맺으련다.

“인간은 의지에 불타있을 때만이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필자는 1927년생으로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Bouwcentrum에서 건축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함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90년부터 (주)김종업종합건축사사무소를 팔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사무소원은 모두 70명 정도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우리

Let's Think in a Different Manner to Solve Problems

김정희 / 건축사사무소 토반
by Kim Chung-Hui

특집 「1997년 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 주제가 된 기획배경은 '사회, 경제, 정치적 혼돈상황과 건축계가 직면한 실질적인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며 어떻게 희망적 미래를 가질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어느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 여건들은 있게 마련이다.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업계 자체의 노력으로 극복할 어려움도 있고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속수무책의 상황도 전개될 수가 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불경기, 사회·정치적 혼돈상황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상위 환경적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사회, 정치적 안정과 경기호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든 인내며, 또 다른 의미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건축계 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 즉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법령정비, 감리업무의 강화,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침범 등은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할 순수한 우리들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사회 정치적 혼돈상황마저 기중됨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어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실무건축계의 자화상?

아마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여러 설계조직들이 이러한 주제의 글을 외로 밟는다면 무슨 자화상이냐? 고화를 낼지도 모를 일이다. 다 죽어가는 미당에 자화상은 초상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어려움에도 체감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여건의 극복에는 너, 나가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이

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기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우리가 외국건축가가 되어 우리 설계시장을 넘나보고, 우리가 행정당국이나 건축주가 되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건설업체가 되어 우리 업무 영역을 침범해 보는 그런 입장에서 서 보는 것이다.

과연 이 어려운 탓을 우리 실무건축계 외부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초래한 것

오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들이 초래한 것이라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설득력 부족, 창의력 결핍, 철저하지 못한 도서준비, 작품에 대한 애착심 부족, 책임전가, 과열경쟁 등 건축가로서 우리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무시안일한 생각과 행위들이 경쟁력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를 고유의 업무영역까지도 침해될 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은 협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배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협회나 행정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들 개인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고유역할을 먼저 충실히 바르게 수행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젠 관심을……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로 업계의 존재의미는 한 국가의 사회, 문화 및 경제적 기여에 있고 그에 따른 역할과 임무가 요구된다. 권리는 이를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 주어지며 그 업계가 존재할 수 있는 원동력임과 동시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를 고무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갖기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는 협회를 갖고 있다. 물론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혼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성토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선출한 우리들의 대표기관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도 반성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끌려 가야 할 우리도 그랬지 않았는가?

회원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협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도 없으며, 협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회원은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를 대표하는 협회를 언제까지나 나와 무관한, 회비나 거두는 그런 조직으로 돌 것인가!

우리도 NO라고 하자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며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건축주의 하수인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임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 설계건을 구걸하고, 설계비를 Nego 해야만 되는가? 무리한 요구도 끌려다니며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도 불사해야 되는가? 그래도 굽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직까지 건축설계로 갑부가 된 사람이 없는 걸로 보면 건축설계업은 사업으로서의 가치는 없는지도 모른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창조라는 과정의 고통스러움, 결과물의 주관적인 판정 등 어느 곳 하나 수월한 구석이 없다. 건축은 보다 정신적인 작업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다. 덧가는 있지만 그것은 진한 노력의 끝에 있으며, 불로소득이라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건축주는 건축가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도 NO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건축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굽어 죽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지 않는가. NO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다워질 수 있다. 우리들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고 본연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교육자

교육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의지며 우리들의 미래인 것이다. 대학교육은 있지만 소양교육이며 대학교육만으로 건축교육이 완성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 곁에 나와 앉은 우리들의 후배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홀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반성해야 될 시점이다.

건축적 사고와 방법론의 전수자이기 보다는 경영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지고 고용주로서의 임무가 오직 봉급주는 것에만 있다면 오늘에 우리들이 처한 여러 어려운 여

건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꽤 어려워 질 것이다. 단순 기능인으로서가 아닌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리더이며 우리들의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창조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정신적 소양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며, 디자인 능력뿐만 아니라 강한 인성교육까지도 이정을 가져야 한다. 건축이 사업의 수단인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도 일깨워줘야 한다. 건축을 사랑하는 방법도, 사랑에는 회생이 따른다는 사실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같이, 다같이!

사회 속에 어떤 분이라도 그 속에는 다양한 이해 집단이 있고 양상이 있게 마련이다.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그에 따른 반목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이러한 다양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규모가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경영하는 방법이 다르고, 건축철학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함은 자율이 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한다. 다양함은 자율적 질서 속에서만 그 사회적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함 속에도 한 전문분야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있고 그에 따른 주장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다양한 건축철학과 삶에 대한 가치관들은 보장되어야 하나 사회적 정의에 입각한 공공의 덕목은 자율에 의하여 지켜져야만 할 것이며 이에 상반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될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개인주의와 권리는 주장하되 우리들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에 충실히 못하고 자율에 의한 질서를 세우지 못한 까닭은 아닐지?

학회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고, 우리들의 건축사협회도 있다. 대형사무실이 있고, 중소형 사무실도 있다. 건축을 단지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사업가도 있고, 건축가적인 건축가도 있다. 공적인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적인 영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도 건축계가 건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오늘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우리 건축계가 사회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했는가?

남을 틯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했는가? 건축사는 무엇이고 건축가는 무엇인가? 업계가 없는 학회는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 건축계가 처한 어려움은 우리가 초래한 것이다. 건축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 위상이 변변치 못하다. 자율적 질서는 시육으로 흔미하고, 단합된 모습은 다양성 속에서 맥을 끊추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의롭고 시대에 부응하도록 무사안일, 도덕불감증 등 구습은 고쳐야 되며, 마음놓고 건축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건축이 문화임을 깨달은 많은 일반인들과, 높은 수능시험점수가 요구되는 건축과 입학, 양적으로 크게 불어난 수많은 예비건축가들, 년 1000명 이상의 건축사 배출 등 자정(自靜)노력의 기치만 들고 나오면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은 바로 내일 극복될 하찮은 문제들이라 생각된다.

문제점은 해결책이 있게 마련이고 이 해결책은 우리속에 있다는 이러한 믿음은 무엇보다 오늘의 우리 실무건축계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화상은 초상화가 아닌 활기찬 모습으로 곧 되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진정 건축을 좋아한다면 오직 그것뿐인 것을……”

필자는 1952년생으로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에서 건설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거쳐 현재 서울에서 직원 8명과 함께 91년부터 건축사사무소 토반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Our Current Status, Problems and the Future

김우성 /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Woo-Sung

1. 요즈음 거론되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 ① 부실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감리제도
- ② 부실사공 방지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강화
- ③ 시공회사들의 건축설계업 진출
- ④ 심의제도, 인허가제도 개선(심의, 인허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하다)
- ⑤ Turn - Key 공사 확대(시공회사의 영향력 증대)
- ⑥ CM제도 도입
- ⑦ 외국설계회사들의 대규모 설계 독점(현상 설계 대거 당선)
- ⑧ 국내 설계비가 외국 선진국보다 높다(생산성 저하, 임금상승).
- ⑨ 실무계, 학계,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회사별 특성이 없고, 학계도 전문분야의 지속적 연구가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해당업무의 최고전문가가 없다).
- ⑩ 협력사(Consultants)들의 양성이 부족하다.
- ⑪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건축계가 무력하다(정치논리, 경제논리에 희생 되는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2.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회사로서의 어려운 점들은

- ① 부실설계가 아닌 “성실설계”를 하려 해도 전문성을 가지거나 전문가가 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한 건축가로서 원결적이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경향)과 책임감리제도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함에 따른 인적자원 감소와 인간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회사와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② 좋은 설계를 위한 기본환경이 되어 있지를 못하다.

③ 과열수주, 현상설계 남발로 인해 많은 시간과 재원이 낭비되고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겠다는 마지막 상황에서 외국회사들의 힘을 빌리거나 로비에 힘을 쓼아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악화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④ 각종 심의,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과정 중에 변경사항들이 발생하여 설계진행이 효율적이 되지 못해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⑥ 건축활동을 경제논리에 치중해서 제도화하려 함에 따라 시공 및 개발회사의 입장이 우선되는 환경에서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도시건축환경을 설계하는 건축설계회사들의 입장이 축소되어, 건축물을 싸고, 많이,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은 시공회사에서 설계도를 발주함에 따라 디자인이 필요없는 현재의 아파트촌과 같은 획일적인 설계만을 하게 된다.

⑦ 양질의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각종 건설자재 총람, 마스터 시방서, 표준상세도 총람, 각종 설계기준(구조, 설비, 전기, 소방, 교통)의 미흡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설계과정에서 매번 새로 만들거나 적용여부를 검토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⑧ 담당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심의하는 사람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 따른 과정상의 번잡함을 간소화하는 통합된 기준집이 있다면 현재의 인력을 1/3정도 감소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⑨ 일본사람들은 협동작업을 잘하고 한국사람들은 뿔뿔히 논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건축설계는 여러 방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양질의 건축설계가 가능한데 학교교육 과정에서부터 「디자이너」만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다보니 기술력에 소홀히하고 각 분야에 골고루 인재가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에서 한 건축설계사무소로 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사무소들이 생

존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여 적당히 매부좋고 누님좋고하는 식으로 안주하기가 쉽다. 그러다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에 따라 엉뚱한 사람이 대우받게 되고, 엉뚱한 회사가 일을 물어가게 되어 건축계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가 되어간다.

이럴 때에 건축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모여서 서로 도움되는 일을 협동해서 추진하고, 상호 "Fair Play"을 할 수 있는 경쟁의 기준도 만들고, 산학관이 뮤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해결책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럴 때에 건축계의 원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큰 하지않는 존경받는 원로가 계셔서 각기 나누어지고 입장이 다른 의견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내어 건축계의 발전에 목표(VISION)을 세우고 이를 위한 아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건축계의 집합된 목소리가 되어야 힘이 있고 정치, 경제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건축 논리」가 정립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선진국과 비견할 수 있는 건축가들이 나올수 있는 토양이 형성될 수 있다. 양질의 건축가들이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어야만 경쟁력있는 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한국땅에서 세워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울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됐으면 한다.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 건축계의 지도자들이 각 단체에서 나와 요즈음 유행하는 「건축개혁위원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1945년생으로 현재 (주)아키플랫폼힐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에서 건축식사과장을 마쳤다. 국내에서 다년 간 실무를 거쳤으며, 외국의 설계사무소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디자이너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무소는 84년에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무소 인원은 151명으로 서울에 위치해 있다.

1997년 초여름, 그 곳에 서서

Being There, In the Early Summer of 1997

서민원 / (주)코아종합건축사사무소

by Seo Min-Won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속에서 뜻하지 않게 원고 청탁을 받고, 처음엔 하고 싶은 말들이 무척 많다고 느꼈으나, 막상 쓰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

1, 2년 전부터 집지나 건축사신문 등에 실리는 우리 건축사 - 크게는 건축계 - 들의 위기감 등에 대한 피상적 표현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소리들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10여년 설계업무에 종사하면서 내 자신이 느껴왔고, 또한 실제 겪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과 생각들에 대해 몇자 적어 보고자 한다.

건축가? 사?

필자가 처음 실무를 배운 곳은 20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설계사무소였다. 그곳에서 몇 년간 실무를 익히면서 사무실내에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설계 그 자체였다. 항상 동료들과 작품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등 순수하고 즐거운 기억들이었다. 지금도 그때의 OB들을 종종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설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외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를 또한 그 상황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큰 바다에 점점이 떠 있는 조각배들처럼 아슬아슬하게…… 이러한 느낌은 생긴 지 얼마 안되는 중 소규모의 사무소일 경우 대부분 겪게 되는 일상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무소는 60여명 정도의 중규모 사무소로, 개업 후 짧은 시간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으나, 전술한 상황에 예외는 아니었다.

처음 일을 배울 때부터 건축의 디자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투자(?)해 왔으며, 현재 사무소에서 필자의 주된 역할(Role)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필자로서는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이러한 혼돈 상황에서 건축사로서 과연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의문에 직면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는 건축가와 건축사가 원칙적으로는 동일 표현이나, 마치 건축가는 예술적 작가정신을 표방하며 건축사는 웬지 모르게 자유스러움이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

단적으로 말하면, 건축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으로서 서비스 업종이다. 작가로서의 작품에 대한 고집, 아집, 매력, 철학 등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정신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크라이언트(Client)라는 구체적 대상과, 사회문화 또는 건축문화라는 추상적 대상과 더불어 자신의 디자인이라는 또다른 내부적 대상을 향상 곁에 두고 있는 복잡한 직업이다. 이러한 것이 다른 예술가와 상이한 점이고 또한 다른 서비스 업종과 구별되는 부분이 아닐까? 결국 건축가와 건축사는 이상과 현실사이의 적절한 제어능력의 정도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디자인 뿐만 아니라 수주, 경영, 관리 등 여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부딪히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원초적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자기기발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생각을 하며 의도하고 있으며 혹시 나도 현실적 상황에 종속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억들

나는 어렸을 때 - 1960년대 - 개량한옥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 기와지붕에 외벽은 꽃무늬가 들어간 타일로 마감된 벽, 그런 집들로 이루어진 골목들, 방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짧아진 처마 깊이로 인해 그것도 증축이라며 불법이니 아니니 공무원들과 시비가 잦았던 곳, 그런 필요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생활에 의한 주거형태, 어떻게 보면 변질된 한옥이라 볼 수 있었다. 그 너머 산동성이에는 소위 산동네라는 것도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다양한 공간체계와 정서가 배어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는 그렇게 나쁜 기억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성과 생활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통과 역사라는 것은 결국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닐까? Brolin의 「Architecture In Context」라는 책에 나오는 글 중에 “건축은 혁신(Revolution)이라기보다는 진화(Evolution)이다.”라는 글이 나온다. 언제부터인가 그

곳에 있음직한 건물, 주변과 어울리는 건물, 결국 건축이란 대지로부터 잉태되어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간다. 한때 국립박물관 철거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결국 지금은 새로운 박물관이 생기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지만, 시원하게 보이는 경복궁 앞을 지날 때 웬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본질을 외면한 상황 논리로 인해 자연스러움이 배제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나 자신도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접근에서가 아니라, 원가 의도적 형태를 드러내고자 - 이유는 많겠지만 - 부 자연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어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게임의 법칙

이러한 상황은 수시로 접하게 되는, 소위 규모 검토라는 작업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 4일 만에 법적 최대규모와 멋있는(?) - 건축주 마음에 드는 - 모양의 투시도를 만들어 낸다. 물론 공짜다. 우리 건축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하나의 건축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안을 제출해내고 있으며 또한 건축주들은 하나의 건축물 설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설계사무소를 기웃거리고 있는가! 건축설계가 아무리 서비스업 종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듦다.

한국 건축계의 현실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이 한 일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또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밤낮으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계속 재고로 창고에 쌓이고 있는 느낌이다. 언젠가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빼내기를 기대하며…… 좋다, 이것은 오픈게임이라고 치자. 그럼 이번엔 현상설계라는 일종의 메인게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본래 게임(Game)이란 일정한 규칙(Rule)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최근 나는 몇번의 게임에 참여하였다. 계획안 제출후 오랜시간에 걸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당선된 이후, 규모 축소에 따른 변경으로 조정을 거치면서 결국 1년이 넘도록 아직 유보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획안 브리핑까지 해 놓고 갑자기 지침에도 없었던 기작이 생기며 당선작은 사라지고 우수작으로 만족해야 했던 일도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이유를 듣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알고 싶지도 않다. 결국 규칙(Rule)이 일방적으로 비판 것이다. 순수한 열정으로 한순간의 승부를 위해 몇개월을 노력한 선수들에게는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정치판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준의 모호함과 객관적 논리성 부재에 따른 결과라 본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반성도 해 볼 일이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따라야 될 일이지만, 승자도 패자도 그리고 관중도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게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최근 사회적으로까지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대형 현상설계 등에서도 볼 수 있었다. 짧은 시간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생각하며 표현한 결과치고는 너무 허탈하고 꺼림칙한 게임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근 ○○○시 의회 청사 현상에 참여해 당선하였다. 보편적 기준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의회청사라는 것은 관료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주제였으므로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벗어난다면 어디까지가 가능성을 가능해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인지, 또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제시한 일종의 모험이었다. 그리고 단순한 개념하에 절제된 디자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많은 자제력을 요구한 작업이었다. 빌주처 소속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출품 작품들에 대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기존의 의회청사와는 다른 실험적 접근을 시도한 우리 사무소의 작품이 다수의 건축가를 포함한 심사 위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 들여졌다고 한다.

최근 몇몇 현상설계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을 들어왔던 그로서는 어떠한 외부적 조건없이 투명하게 진행된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나 개인적으로도 대부분의 현상설계와는 달리 실무를 하는 건축기가 심사위원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나는 학계의 교수들도 실무에 참여하고 실무의 건축가도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무적 작업을 이론적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실무 건축가들에게도 이론적 재무장이 계속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하들 이야기하는 산학협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튼 현상설계 언론이 먼저 떠오르는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모든 현상설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깨끗한 게임에 참여하려는 순수주의(?) 건축가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리라 생각되며, 얼마전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기사화된 모 일간지의 현상설계 비리관계 기사 같은 사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디자인 풀기

어쨌든 우리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무언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어려운 현실 상황속에서도 계획을 하고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흥분제(?) 역할을 하여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그래도 건축은 재미있는 직업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곤 한다.

나는 주로 생각을 정리해 나갈 때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러한 작업은 어느 순간에는 무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몇초만에 이루어진 스케치가 있는 반면, 선이나 굵는데도 수 일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질량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표현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스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초기 프로젝트 시작전 약간은 공식적(Formal)인 회의를 가진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디자인 회의를 거쳐서 각자 작업한 부분에 대해 브리핑하고 서로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언젠가 기업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 회의 많은 회사치고 잘되는 회사가 없다고 하였지만, 설계 사무소에서의 디자인 회의는 긴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자신도 배우는 것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나의 개념과 생각을 이해시키고 판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토론문화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서로들 어색해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법을 이제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다. 또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Project Review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현상설계 같은 경우, 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약간은 자유스럽게 - 끝났기 때문에 - 자체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서서히 코드(Code)전환을 해 본다.

오랫만에 아이들과 뒷산에 올라 갔다. 벌써 만 개하여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내음과 어느새 푸르게 변해 버린 녹을 속에서 예정된 변화도 모르고 지냈던 나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는가? 어느사이 성큼 다가올 것만 같은 40이라는 숫자에 - 나에게는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이 불혹(不惑)을 의미 한다.- 짜릿한 전율감(?)같은 것을 느끼며 수년 전 그랬던 나의 모습을 다시 꺼내어 본다.

그 모습이 아직도 나의 자화상이다.

필자는 61년생으로 고려대와 동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주)코아종합건축사사무소 부소장이다. 정림건축(89~95)에서 근무해오다 95년부터 현재의 코아건축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무소 규모는 60명 정도이며 서울에 위치해 있다.

현상설계 유감

Regrets on the Design Competition

김홍일 / 위드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Hong-il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군복부와 약간의 실무.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 사무실을 만든 지 3년.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건축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경영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자의 모습이다. 몇년째의 경기불황이라는 말이 건축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건축경기가 호황인 때를 경험하지 못한 나로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불황인지 나의 개인적인 능력부족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원지모를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따라 나도 중대결심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보다는, 일을 수주하는데 있다. 할 일이 있어야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아직은 다른 선진국보다 일거리가 많아서 다행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의 양은 줄어들고 수주경쟁은 치열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 수주경쟁에서 새내기 건축가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상설계이다. 개인적인 일의 수주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적으로 월가월부하기는 어렵다 보고 그의의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입찰과 현상설계로 나뉘어 진다.

설계비에 의한 입찰은 공정성을 확보하는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설계의 질이나 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무관하게 건축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축의 의미는 없어지고 오로지 공정하게 일을 분배한다는 의미가 극대화된 어처구니 없는 무사안일의 표본인지를 장차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을 한다.

다음은 현상설계에 의한 수주인데 현재 상당량의 현상설계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설계사무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획의 균등

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폐해가 있지 만 그중에서 경제적인 낭비의 심각성은 이미 많은 건축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현재 보통의 현상설계는 투시도와 흑백페널이고 간혹 규모가 큰 현상설계는 컬러도면에 모형을 원 하고 있다. 설계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표현수단이 많을 수록 좋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일반 현상설계에 이 모든 것을 요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컬러 현상설계는 차치하고 작은 규모의 현상설계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3D에 의한 입면과 배치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론 투시도 비용도 무시 할 수 없다. 대규모의 사무실에서 현상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해도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는 그리 만만한 비용이 아니다. 도면표현보다는 작품의 질이 문제라 하지만 심사에 들어가면 도판이 화려한 작품에 눈이 가게 마련이고 현재의 심사방법에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할 시간이 없으므로 도판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이 작품의 질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규모가 큰 현상설계에 참여하려면 대규모의 사무실의 경우 투자하는 비용이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보통 십여개 사무소가 참여를 한다. 십여억원이 낭비된다는 소리다. 현상설계가 일년에 몇개 가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된다고 할 수 있다. 호화롭게 치장된 표현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듯 보여지는 현상설계 당신 현실은 설계사무소에 과다한 비용지출로 이어지고 결국은 절 낮은 설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상설계의 문제점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공정성을 가장한 교묘한 술수가 난무하지만 그래도 공정성에 바탕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 이점을 십이분 발휘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제도개선을 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현상설계는 경쟁에 의해 좋은 작품을 선발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되도록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특히나 다른 사무실에서 오랜 경력을 쌓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막 개업한, 별다른 연고는 없는, 실력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을 한다면 현상설계는 2단계로 시행을 하여야 한다. 1차 현상설계는 아이디어 공모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의 아주 제한된 표현수단과 작은 작업량의 현상을 통하여 1차선발을 하고 2차에는 1차 지명자에게 어느 정도의 표현비용을 제공하여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우선 1차 현상이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아 보다 많은 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과업수행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대규모 사무실과 협동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 1차 지명된 건축가들이 대규모의 설계를 진행할 수 없으면 2차 현상에서 협동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즉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상호 견제와 협동에 의한 이상적인 협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혼히 기능을 잘 해결하는 건축사면허를 보유한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가 건축가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누구의 우월문제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협동의 관계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인식하에 이루어지는 협동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상적인 현상설계를 통하여 우리 건축계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너무 많다. 우선은 좋은 작품이 당선되므로써 우리의 도시가 달라지고 또 경쟁을 통해 좋은 건축가들을 탄생 시킬 수 있다. 좋은 건축가들은 한국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바로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공공성을 강하게 갖는 문화가 바로 건축이며 도시인 것이다. 건축이 앞서 가지는 않아도 다른 예술과 문화와 같이 가는 정도는 되야 하나 우리의 건축문화는 한심하기만 하다. 세계의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내놓을 많은 건축가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문화민족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니, 이는 분명히 사회적, 제도적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우선은 현상설계의 올바른 운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다.

필자는 1957년생으로 한양대와 동대학원을 거쳐 불란서 파리 레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워드중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불란서 공연건축사이며, 서울에서 20여명의 사무소원들과 함께 3년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세기 말과 우리의 상황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nd Our Status

이용흠 /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ng-Heum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말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이다.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후가 농후하다. 동서 냉전의 종결로 인류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전개될 줄 믿었으나 점점 더 어려움이 기증되고 있다.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건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역사가 지향하는 이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역사에 방향성이 있다고 볼 때, 또한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인류의 이상은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천국 또는 피안의 세계 등으로 부른다. 동 시대 인류가 처한 문제가 건축에 그대로 반영된다. 동서냉전 후의 인류는 자본주의 물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물신주의의 풍조로까지 비약되어 있다. 고도의 Thechnology는 건축에 있어서 구조, 재료, 설비, 전기 등을 최고의 수준으로 승화시켰다.

건축가와 건축주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물신주의의 영향하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가도 결국은 건축주의 목적에 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건축가가 작품활동을 하면서 겪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원기절감을 하려는 건축주 입장과 충분한 대가를 받아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건축가는 항상 이러한 상충적 입장에서 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도 자본주의 논리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작품에 대한 의욕과 경영은 이를비판적이다.

과거에는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대단히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물들이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설비, 재료, 전기, 구조 등 협력업체가 분업화되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았을 때 역시 좋은 작품이 나온다. 또한 제대로 댓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신주의 환

경 속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는 일부 비양심적인 직업적 행위도 있다.

또한 제도와 법에도 모순이 많다. 이상적인 제도와 법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 그 주역들 역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물신주의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살다보니 법을 하나 개정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대립 역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이 발전해 나간다.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설업체가 설계건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설계와 감리를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민주 자본주의 시대의 병폐에서派生된 결과물이다. 아직까지 단일화되고 있지 않은 건축사 요율과 내무부 요율 등은 설계할 때마다 건축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이런 것들이 작품활동을 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설계사무소 직원, 즉 보조사들도 같은 맥락에 서 생각할 수 있다. 돈에 의해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것과 건축사 시험이 건축의 최고 목표인양 그리고 라이센스만 획득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풍토, 충분한 건축적 경험과 훈련도 없이 성급하게 개업하는 행위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 역시 현대의 우리들이 처한 시대적 사조가 그 뿌리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런 바탕위에서 민의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것인데, 실제로 금권선거, 협연, 학연, 지연이 더 중요시되는 현실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질적 저하로 더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 건축가는 양심에 입각한 장인적 태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투철한 작가정신이 있어야 하며 그런 노력들이 건축주에게 김동을 주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이 시대가 건축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명이라 하겠다.

필자는 1946년생으로 부산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 건설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에서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원은 모두 180여 명이다.

사회 총체적 전문화의 시급성

An Urgent Request for
Specialization of the Whole Society

정덕훈 / (주)청전종합건축사사무소
by Jung Duk-Hoon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 성수대교의 붕괴, 신행주대교의 붕괴, 한보비리사건 등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을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접하며 살다보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여러 불감증 현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불감증 현상 속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들은 우리를 스스로가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설계의 작품성 및 질저하, 과열경쟁에 의한 설계비 수가 덤팡, 우리 건축사의 윤리의식 및 자긍심 부족, 국민이 보는 우리의 위상, 전문인으로서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건설사의 설계영역 침범, 외국 선진기술의 침범 등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의 위상정립에 대한 노력 부족임을 인지하고 정부, 시대를 헛하며 좌시할 수 만은 없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오즈음 필자는 설계비 정산문제로 모정부투자 기관과 송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 내지는 건축사의 위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은 물론 법정에서의 왜곡된 또는 잘못된 인식속에 진행되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나의 모습을 재조망해 보고,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필자는 2년전에 모정부투자기관과 방송국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례적으로 계약서에 설계비 정산조건(계약서 6조 : “실제 총공사비가 개략공사비의 ±5%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계약률에 의해 증감 정산한다.”)을 삽입하였다. 같은 수년동안 설계계약은 평당 260만원선 - 정부예산 편성기준 공사비 단가(중앙청사 기준) -으로 책정하여 실제 평당공사비는 460만원선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동안 설계비는 실제 설계비의 60%수준에서 우리 건축사의 희생만을 강요하여 왔고 우리 건축사는 업무수주에만 열중하다보니 자신의 권리를 반쪽만 지켜오고 있었다. 그래서 갑의 실무자들에게 항변,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산금(수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회사의 SYSTEM(?) 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 어떤 외부의 신뢰성있는 공문 등이 있으면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겠다”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경쟁국)를 찾았다.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정적인 회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다. 그러나 몇주후 뜻밖에 부정적 - 적용할 적합한 법적 근거가 없다 - 인 회신을 받았다. 그때가 마침 매스컴을 통해 공정위 ○○국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방영될 때다. 그곳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정부기관인 것을…….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측 변호사(건설관련 송사에 경험이 많은)에게 수임을 시키고 설계비 계산방법,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계약서에 있는 정산조건의 의미, 개략공사(설계계약당시 추정공사비)와 최종 실제공사비(설계가 공사비)의 개념 등을 수 차례 설명하였으나,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은 충분치 못하게 진행되었고 합의부재판장의 인식부족 - 설계비 계산은 면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개략공사비(갑의 내부품위단가)와 실제 공사비의 의미가 무엇이나, 원고측 증인의 증언의 의미가 무슨 내용이냐, 건설교통부에 사실 조회가 왜 필요하나, 피고측 증인의 위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방청석에서 항변도 못하고 변호사의 변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우리직업과 흔히 비교되는 자유업, 의사, 변호사, 판사들의 직업도 전문화되어 자기가 맡은 업무에 특화, 전문화되어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할 때만이 이 사회가 건전하고 발전적일 것이다. 우리들 건축사 역시 특정 Project를 주로 연구 발전시켜 특화 내지는 전문화하여(필자는 방송국, 레저·스포츠시설 및 단지계획 실버시설 등 쪽으로 전념하고 있다) ① 과열경쟁을 피하고, ② 충분히 연구·발전시켜, ③ 충분한 설계수자를 보장 받으며, ④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지키며 긍지를 갖어야 한다.

몇년전인가 어느 선배가 협력관계 의사률 타진해 온 일이 있다. 개요를 접근하며 설계비 수가에 대하여 질의하자 건축주(관공서)와 협의된 설계비는 「건축사협회」에 치금 조건표에 의해 결정했다 하여 그런 수가로는 협력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경험이 있다. 디수의 우리 회원중에는 조건표에 의한 설계비 산출로 수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대다수의 경우 평당설계비로 수임하고 있다. 건축사 보수요율과 실제 공사비로 계산(100%)하여 할인율(00%)에 의하여 수임하더라도 원칙적 계산액(100%)을 인지시키며, 할인율을 높여나가 언젠가는 100%~150%(건축사 보수기준 15조)로 수임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건축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필자는 1949년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엄마건축을 거쳐 현재 대전에서 19여명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주)청전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쥬라기 공원에서

In the middle of the Jurassic Park

옥태범 / (주)모인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Oak Tay-Bunn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본인이 만들레
흘씨되어 대망의 건축계로 날아든 지 15년이 되어가니, 이 무릉
도원도 한두번은 족히 변했을 터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

그 분명한 첫번째 변화는 일반인 - 우리의 건
축주 내지 사용자로서 - 의 건축에 대한 관심의 증가일 것이다.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부실공사와 연루되어 세인의 입방에 오
르기도 하고, 여전히 개발업자의 둑북한 내조자 역할을 아니 할
수는 없겠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문화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문
명의 대미를 마무리하는 주역역할도 가끔씩 담당하게 되니 한
켜의 허물은 벗은 느낌이다.

그 두번째 변화는 우리 자신의 미래예측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대학입사에서의 건축과 신입생들의 입학 성
적이다. 물론 이전에도 그리 만만한 타겟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가히 아니라 최고 영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 푸른 새싹들
을 어떻게 조련하느냐에 대한 작은 기우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게 거는 기대는 사뭇 크며, 우리 어깨에 느껴지는 중압감조차도
기쁘게 느껴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보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건축계 또한
그와 상응한 변화가 당연히 있을 것인 바, 그 세번째 변화는 건
축계에 펼쳐진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이다. T자로 대변되던 낭만
은 아련한 추억이 되고 그위에 군림한 컴퓨터의 정보화, 조직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링 위에 플라이급에서부
터 수퍼헤비급까지 몽땅 등장하여 최후의 승자를 가릴 때까지
진행되는 무제한 경기의 공이 울렸다고나 할까 ? 그 경기의 끝
은 단 한가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선

수들이 기권하고 퇴장하였다. '악육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그 누가 막으리요만, 만에하나 '악화(?)'에 의해 '양화(?)'가
구축된다면 승자에게 돌아갈 트로피에는 흠집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땅을 진동시키는 굉음에 놀라 도원속을 천천히
둘러보니 여기저기에 용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무한다. 이
름하여 선진외세론, 자본공통, 설계거론, 예술대통론들이…….

영화도 꿈도 아닌 현실의 코앞에서 위풍당당,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루기의 생존보고서

• 우리도 건축을 위해 생존할 권리가 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창을 날카롭
게 갈고 닦아야 할 것이며,

• 우리에게 부족한 방파역할을 대신할 성(城)
이 필요하다.

• 그 성은 실무건축계의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져야 함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 그러나 그 성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
므로 우리 스스로의 벽돌로 쌓아야 할 것이다.

• 그 핵심은 정보센터의 구축이며 여기에는 많
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터이고,

• 그 주축은 건축사협회와 회원자신들이 되어
야 할 것이다.

• 그 첫번째 과제는 당장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권위를 갖춘 체계화된 시방서의 선포이
다. - 사실 디자인이 건축의 알파라면 시방서는 그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진저!

• 당장 '건축시誌'에 독자투고란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신문고가 달려 있는 오아시스에서 우리도
작은 승천을 꿈꿔보자.

편자는 1960년생으로 현대 건축공학과와 M. Arch. Univ.(of Houston)를 졸
업하고 10년의 실무경력을 미친 후 독립하여 현재 서울에서 (주)모인디자인건축사
사무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에 대해 배타적인 민족인가 보다

Maybe Our Nation is Hostile to Openness

이호정 / 무이건축 설계사업본부장
by Lee Ho-Jeong

역사를 거슬러 구한말 서구세력의 개방압력에 저항했던 흥선대원군의 개방에 대한 저항은 조선의 역사 나아가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들 한다. 당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천명했다면 우리의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명치유신으로 개방을 받아들인 일본의 오늘날 사정을 생각해 봄직하다. 우리 것에 대한 열려 혹은 전통에 대한 열려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민족이 전통을 계승하면서 살아왔다고 말 할수 있는가. 일본의 그런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들보다 나은 것 이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디가온 설계시장의 개방을 놓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대로 많은 고심을 해온 것으로 믿는다. 나는 오히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설계프로젝트를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까를 고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건축사를 양산하고 대형사무실을 더 키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덩치로 혹은 규모로 일단 대등해야겠다는 생각일까?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면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내지는 일생일대의 목표이어 왔다. 그래서 건축사가 되면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건축활동을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건축사면허를 취득하면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이 수순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도 건축계의 분위기는 면허를 취득하면 사무실 개업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첫째, 과거의 건축사면허 취득연령이 30대 중·후반이었으나 현재는 30대 초반이면 그리 어렵지 않게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둘째, 오늘날 건축사 면허는 그 합격자수가 최소한 과거에 비해 5배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셋째, 치명적인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건축사가 되면 개업을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그들이 과연 완성도 있는 혹은 질있는 건축을 보다 발전시킬 만한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

들은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사꾼으로 혹은 단순히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행업자 정도로 전락하는 빼아픈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넷째, 당연히 현재 개업 건축사들은 연령면에서 아직은 사회적으로 공인받을 만한 경륜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또한 젊은 건축사들을 양산하다 보니 설계사무실에서 종주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인력이 다 빠져나가 오히려 과거보다 설계사무실의 기술적인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력 5년, 10년된 기사를 구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매우 어렵다.

여섯째, 각기인들에게 한참 실무에 기속도가 불어서 실력을 배양 해야할 나이에 건축사라는 계급장을 주어 건축계에서 내보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1, 2주 훈련뒤에 소대장이라는 계급장을 주어 전장에 내보는 것과 나무나도 흡사한 형국일 수 있고 당연히 그들은 전쟁터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지금 필자가 이야기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난황을 혀쳐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본인은 우리 건축계의 의식문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건설계사무실에서는 최근 파트너쉽(Partnership)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고 있다. 또 건축설계그룹 C.R.S가 Architecture by Team이라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건축은 팀에 의해서만 이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즉 경영(Management), 설계(Production or Drafting), 계획(Design) 파트가 유기적으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한 각 파트마다 우수한 인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조직이 강하다고 말한다. 과거와 같이 건축기가 경영, 설계, 계획 모두를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또 대형화된 사무실, 복잡한 사회구조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이제는 안된다. 나는 학창시절 위대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 즉 사업수원과 수주능력이 필수적인 조건이라 배웠다. 그러나 아는 바와같이 그 모두를 하기에는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사무실의 규모도 커졌다. 이러한 과도기에서 건축기가 수주를 위해 사업활동을 하니 건축은 뒷전이고 시간이 자날수록 사업가로 변신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물론 그 모두를 성실히 수행해가는 건축가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그러한 실정에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것은 좀계는 개인의 건축가로서의 자질향상에 맞을 것이고, 넓게는(이것은 심각한 문제라 판단되지만) 우리나라 건축계의 전반적인 질의 향상,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복잡해진 사회상황은 분업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건축도 이제는 과거의 마이스터로서의 위상이 변

화되고 있는 것 같다. 미래의 건축에서 건축가의 역할이 얼마나 될까, 건축에서의 하이테크놀로지, 즉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면 건축가 이외에 우리는 제반설비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의 능력과 기술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심하게 말해서 앞으로의 우주도시, 우주정거장 등의 건설에 건축가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건축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설계사무실의 조직은 소장이하 임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 사무실 규모에 따라 건축사인 소장과 실장, 기사 등이 있는 소규모 사무실이 있고, 대표건축사와 그 밑에 있는 건축사들이 있을 수 있다. 소규모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수장은 소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사무실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를 대표 건축사가 모두 관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대부분이 대표건축사는 그 조직을 대표하고 그 밑으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들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사무실의 등장은 몇몇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온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형성된 조직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사무실의 조직 내지는 내실을 디자기도 전에 거대해진 사무실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프로젝트로 인해 조직은 커졌지만 구성원들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들의 조직력을 배양할 때이다. 이를 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소규모, 즉 스튜디오타입이라 하는 조직의 소장들, 사실 그들은 수주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며, 지명도 있는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중소규모의 균린생활시설 등이 고작이라고 봤을 때 그들에게 기회부여의 길조차 안열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들이 대규모 조직의 한 부서를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건축계를 선도할 수 있는 토양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그런 조직에서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자기 위상을 찾게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건축가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마련은 대규모 조직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 각기 건축사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독립이라는 길을 굽이 선택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거장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프로젝트의 설계를 대표건축사가 했다는 것은 모순이다.

필자는 1961년생으로 인하대와 동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김종업건축, 장원건축, 태건축을 거쳐 협연건축(92~96)을 개소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인천(주)부이건축에서 설계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성과 작품성

A Study on the Business and Artistry in Architectural Firms

김용균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Kim Yong-Kyun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국내의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기반과 건축에 대한 건축주의 몫이 이해, 전문가로서의 건축인들의 지식과 의식의 부족 등 건축적 여건이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열악한 상태로 이곳의 건축사는 작가의식이나 작품성을 논하기에 앞서 사무소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서로간 심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건축사 자신이 건축에 대한 높은 의식과 긍지를 갖고 향후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필자는 2년 전에 광주광역시 57명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성과 작품성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건축의식을 살펴본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당시의 주요내용과 분석결과를 본란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사의 의식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건축설계관련업무에 대한 분석

건축설계관련업무를 외부수주 및 건축주와의 면담, 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모형제작 및 투시도, 컴퓨터 그래픽, 허가, 그리고 현장으로 분류하여 건축사사무소 운영초창기와 1995년 현재와 비교해 본 결과, 하루 대부분의 업무는 계획 및 기본설계, 외부수주 및 건축주와의 면담, 실시설계, 현장 등의 순으로 그 업무의 비중이 나타났다. 특히 건축사의 하루 업무의 절반이 기본설계 및 건축주와의 면담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건축사의 주업무고 허가, 모형, 컴퓨터 그래픽 등은 건축사의 주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설계업무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계획 및 기본설계, 외부수주 및 건축주와의 면

〈표 1〉 건축사의 주요관련업무

항 목	사무소 운영초기	1995년	중요성 인식
계획 및 기본설계	26.1	25.5	33.2
외부수주 및 건축주와의 면담	21.0	20.8	23.2
실시설계	17.3	18.0	17.3
현장	16.7	18.3	11.1
허가	8.5	5.6	5.0
모형제작 및 투시도작성	3.0	3.0	2.9
컴퓨터 그래픽	1.5	1.9	1.6
기타	5.9	6.9	5.7
	100.0(%)	100.0(%)	100.0(%)

남, 실시설계, 현장 등으로 하루 업무와 같은 순서대로 나타났다. 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마음의 인식은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현장은 반대로 작게 나타났다.

2. 건축사에 대한 인식

건축사 본인에 대한 건축에의 적성과 재능, 작품인목, 경영능력, 작품에 대한 고민 정도에 대한 반응을 1985년, 1990년, 1995년 5년 단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작품에 대한 고민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반응차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적성능력과 작품인목은 다소 성숙되어가는 반면, 경영능력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 건축사에 대한 인식(85, 90, 95년)

항 목	년 도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분 산
적성, 재능	1985	2.350	3	3	0.921	0.849
	1990	2.318	2	3	0.857	0.734
	1995	2.255	2	3	0.943	0.890
작품인목	1985	2.415	3	3	0.865	0.749
	1990	2.318	2	3	0.857	0.734
	1995	2.234	2	3	0.890	0.792
경영능력	1985	2.775	3	3	0.920	0.846
	1990	2.795	3	3	0.701	0.492
	1991	2.766	3	3	0.914	0.835
작품성에 대한 고민정도		2.064	2	2	0.845	0.713

(1:매우긍정 2:다소긍정 3:보통 4:다소부정 5:매우부정)

3. 사업성과 작품성에 대한 관심

사업성과 작품성에 대한 현재의 관심정도는 사업성에 치중되어 있으나 이상목표는 작품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건축설계는 이상적으로 작품성에 기초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성과 작품성의 비중이 실제이던지 이상이던지 간에 50:50의 비율이 절반이상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건축사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작품성과 사업성의 성격이 모두 공유되어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업성과 작품성에 대한 관심 및 이상적 비율

사업성 : 작품성	현재 관심정도	이상적인 정도
100 : 0	0명 (0.0%)	1명 (2.1%)
75 : 25	12명 (25.0%)	3명 (6.3%)
50 : 50	29명 (60.4%)	24명 (50.0%)
25 : 75	6명 (12.5%)	10명 (20.8%)
0 : 100	1명 (2.1%)	10명 (20.8%)
계	48명 (100.0%)	48명 (100.0%)

4. 사업성과 작품성의 비중 (구성비)

건축설계업무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사업성과 작품성의 관심비중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 또는 작품성에만의 관심보다는 사업성과 작품성에의 관심을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성에의 관심은 일정한 반면, 작품성에 대한 관심은 40대 후반까지는 그 비중이 작아지다

가 50대부터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건축사사무소 성격의 전환이유

사업성에서 작품성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작품성에서 사업성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 요구거나 사회여건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 우수 작품에의 영향 및 사무소 운영의 곤란이라는 직접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표 4〉 사업성과 작품성에 대한 비중

구분 연령	사업성 +작품성	사업성	작품성	계
20대 초반	20.4	8.7	70.9	100.0%
20대 후반	17.4	17.4	65.2	100.0%
30대 초반	16.0	48.0	36.0	100.0%
30대 후반	21.4	50.0	28.6	100.0%
40대 초반	18.5	59.3	22.2	100.0%
40대 후반	17.9	67.9	14.3	100.0%
50대 초반	21.1	68.4	10.5	100.0%
50대 후반	21.4	42.9	35.7	100.0%
60대 이후	8.3	58.3	33.3	100.0%

6. 사업적인, 작품적인 측면의 발전방법

사업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경영지식(30%)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또는 특별한 방식없이(60%)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역시 수주확대 및 수익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무소의 조직이 증대하고 운영이 복잡하게 되면, 사업성에 대한 전문지식 및 개발방식의 도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작품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문화를 참조하거나 건축답사 등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도 전문적 개발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건축사사무소는 과거에 비해서 사업성과 관련한 측면에서보다는 작품성 측면에 주력하여 전문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시되며 이것이 건축사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처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표 5〉 건축사사무소 성격의 전환 이유

사업성에서 작품성으로 전환이유	작품성에서 사업성으로 전환이유
사회적 요구	13명(34.2%)
우수 작품의 영향	10명(26.3%)
우수 건축가의 영향	5명(13.2%)
늦은 관심	5명(13.2%)
교육	3명(7.9%)
운영에 만족하므로	2명(5.3%)
계 38명(100.0%)	계 36명(100.0%)

필자는 1946년생으로 광주대 건축공학과와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 인원은 6명으로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팬(Fan)을 만드는 건축 소사이어티를 만들자 Toward an Architecture Society with Architectural Fan

전진삼 / 월간건축인 POAR 편집주간, 건축비평가
by Jahn Jin-Sam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유독 나는 그렇지 않다고
고민을 피우고 있는 작자는 없겠지만 살기 어렵다고 행동반
경을 축소지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이럴 때일
수록 의지를 골추세워 볼 일이다.

일이 없다 없다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무척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는 설계사무소들도 곧잘 만나게 된다.
일없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그러나 일이 없긴 없는가 보다. 빨리
세상이 편안해져야 할텐데.

작금의 난맥상이 특별한 누구(YS같은)의 잘못
이라고 못을 박기에는 설부른 것이 국민 저마다가 제 할 도리를
온전하게 해오고 있었느냐고 물는 대목에서 거개의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글친구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다. 'Dividing,
Communicating, Sharing'. 우리 말로 '나눔, 나눔, 나눔' 이
란 제목의 대중문화 비평서다. 나누는 대화이거니, 나누는 마음
이거니, 나누는 돈푼이거니 하며 살면 오죽 좋을까.

우리 사회는 나누는 것에 너무나 인색하다.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공동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지적 마음
들이 부족하다. 건축계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나누는 과정중에
재벌 기업의 하청업자가 되기를 종용하는 풍토는 무얼 말하는
가.

그런데 요즘 향간에 가장 빛나는 직업인이 건
축이라는 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념서를 곧잘 내던
출판사도 건축기행사를 덮색 물지 않나. 건축가의 미셀러너가 4
권 짜리 전집의 모습을 갖추고 태어난다. 건축시장만 유독 뜨겁
다?

광고시장이 어렵다해도 건축전문지에 실리는
광고의 지면수를 모두 빼내 한 권으로 묶어보면 이것은 엄청나
다. 무려 500쪽은 넘고도 남음이 있는 건축잡지가 된다. 그러니
건축전문지 창간에 어중이 떠중이 몰려들었다간 김만 꽉꽉 새
는 거다.

왜 이렇게 건축전문지가 많아요. 글쎄요. 일단
은 돈이 된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맞남요. 글쎄요. 건축 이란
용어로 합성된 제목의 월간지 형태만 줄잡아 10여 종에 이르고
격월간지, 계간지 등등 하면 무려 20종 가깝게 발간되고 있다지
요.

요즘 부쩍 건축가들의 단행본 출간이 눈에 띤
다. 대선을 앞두고 찍어대는 정치꾼들의 책은 아닐진대 책선반
이 비좁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가 그랬는데 건축계,
알디기도 모르겠어요. 잘 되나봐요.

그런 연유에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공업
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을 허용한다는 땅을 질(대한건축사협회
는 그렇게 표현한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많은
서비스업종 중에 '시범조'로 건축사라니 재수가 맹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시범조 발탁이라 해서 건축동네 사람들이 온통
화들짝 놀란 기색들은 아니다. 왜 그럴까. 밥그릇이 거덜나지 않
아서이겠고, 이미 그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조차 견뎌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건축을 답사를 떠났다. 아주 오랜만에 지금 만
들고 있는 잡지를 통해서도 건축물을 게재해보겠다는 전제를
안고. 건축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이와 함께. 기는 도중에 그가
말했다. 끼나 재능들은 많은데 작가의지를 가진 이는 드물어요.

건축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미래로 버전 업 시
켜주는 건축가들이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저렇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아니 건축이 무슨 상품인가? 쏟아져 나
오게.) 건물들은 그럼 건축가 없는 건축 일색이란 말인가.

건축가는 없다. 그러나 건축사는 있다. 건축이
라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건축사는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건축주가 건축사를 사칭한다. 건축
가는 될 수 없어도 건축사는 돈이 배경이 되면 가능해진다.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도둑맞고 있다. 도둑
맞을게 있는 사람만이 도둑맞는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많은 건
축사들은 건축이라는 상품의 양산을 위해서 혹시나 남의 디자

인안을 도둑질 해온 적은 없는가. 내것을 뺏기는 누구나 다 싫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무수히 바뀐 정당의 이름을 나열해 보라. 그럼에도 전혀 시간의 수갑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정치꾼 할아버지들, 그들은 위대하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현재가 있다? 건축사도 이 기회에 반성하자.

박정희가 뜬다. 또는 인물은 잡아라. 이인제 경기자사도 박정희 신드롬을 적당히 잡아 끈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이다. 박정희 시절에도 얼마나 많은 건축 인들이 특정 건축가 집단을 원망했을까. 시대가 지나서 정권에 밀착했던 그들의 배후가 이 땅의 건축 선단에서 여전히, 아니 더욱 폭발적으로 건축의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면 결국 세상을 시는 논리는 시대를 얼마나 잘타고 났느냐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아닐까.

그래서 앨빈 토플러의 적응기업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로버트 벤추리의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은 현대판 고전에 끼이는 것 아니겠는가. 건축은 여전히 우리들의 희망이며 그것은 또 다른 희망의 괴물들이다.

학생들을 집단으로 만났다. 특강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이 물어 온다. 여러가지를.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물음 가운데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가치가 외면되는 시절에 건축을 배우고 있으니 제대로 물어올 것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좋아하는 후배가 있다. 배가 다르니 출신도 다르다. 그러다 공간에서 책을 만들 때 위, 아래로 만났다. 뒷날 서로가 헤어져서 서로 다른 정기적 건축책을 만들고 있다. 그가 열심히 만드는 책이 돈도 안 되고, 인심마저 잃고 있다. 슬프다.

비평없는 건축은 미래가 없다. 그가 주장하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게 사는 모습에서 우리들 건축의 현재가 미래를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배운다. 나는 그가 잘 되었으면 한다. 그의 책이, 그의 생각이, 불평이 아닌 비평이기를 원한다. 그를 어지간히도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다. 어쩌다 이어대는 전화선을 티고 흐르는 기상의 공간에서 만났을 뿐이다. 서로가 바쁜 것도 이유가 되었겠지만 나 스스로가 후배 한 사람 열심히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의 결과다. 그에게 미안하다.

좋아하는 선배가 있다. 배가 달라도 호형호제 한다. 탈렌트가 너무 많아도 인간에겐 짐이다. 그것을 스스로 아겨내려면 탈렌트의 일부를 공익에 쓰면 된다. 그래서 이번 너는

동생인 까닭에 양분으로 취한다. 건축한다는 것만으로 빙가워야 한다는 그이의 언어가 이제는 나의 표어가 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함께 가는 길인가. 그중에서도 건축이라는 명제를 인생의 업으로 삼고 가는 이들, 때로는 그들끼리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 작으면 직을수록 나눠 쓰리는 그이의 방편설법은 정말로 건축의 법이다. 나눠쓴다는데 외국의 선진 기술이 두려울소냐, 재벌의 입김이 무서울소냐.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지 못함으로 그것들은 분명 대항해야 하는 적이다. 어느 30대는 현상설계에 참여한다고 한다.

어느 30대는 인척관계로 뛴다고 한다. 어느 30대는 잡지 등 홍보에 주력한다고 한다. 어느 30대는 부동산 컨설팅을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 어느 30대는 다 포기하고 작품에 승부를 건다고 한다. 어느 30대는 대학에서 불러주는 시간 강사 역할에 충실한다고 했다. 어느 30대는 동창회 명부를 뒤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어느 30대는 사회단체에 발을 들여놨다고 했다. 지금 30대는 무척 바쁘다. 일 없이도 마음이 바쁜거다.

스탈들은 스텝들 나름대로 생각이 많다. 온통 비교가 되는 것들 뿐이고, 그러자니 재벌의 풀이 오히려 안전하다. 안전을 꽉하는 그들을 나무라지 말자. 세상이 거푸 바뀌고 있는데, 다만 서로 사랑하게 하자. 그게 법이다.

건축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자. 건축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자. 그것들이 모아져 꿈의 바다를 이루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늘의 상황이 파고의 폭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지만 건축의 행위가 예약된 고통의 길이라고 말하진 말도록 하자.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그분은 혼자 이시되 바람에 날지 않는다. 그분이 기끔은 전화를 주신다.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서 사회의 어른이 느껴지지 않는 이 땅으로부터 존재하는 어른의 파권을 느끼게 한다.

내가 만들고 있는 잡지가 영원히 언더그라운드를 지켜줄 것을 원해오는 팬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팬이다. 우리가 지켜지는 것은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저들처럼 우리 건축하는 사회가 다수의 팬을 확보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필자는 중앙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공간연구소에서 건축수업을 쌓아 건축비평가로 활동중이며 현재 월간 건축인 PCAR의 편집주간이다. 저서에는 *건축비평집*, *건축의 발견*이 있다. 공간지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건축우크지 *간향*의 편집위원이다. 간향미디어의 공동대표이다.

건축구조계의 자화상

The Self-Portrait of Structural Engineering

이창남 / (주)센구조연구소
by Lee Chang-Nam

건축사의 모습

「동물의 왕국」이란 T.V프로그램 있다. 어미 사자가 물소를 잡으면 새끼사자들이 포식을 한다. 그리고 막다 남은 짜까기는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먹고 끝내 파리와 구더기 또는 세균의 둘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엇있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사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미물의 세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건축계의 군웅할거시대(群雄割據時代)는 지나갔고 도처에서 소속없는 6천5백여 사자(건축사)들의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는 건물들로 꽉 찬 듯한 느낌이고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아도 빛틈이 없다. 건축주(먹이)하나가 나타나면 6천5백여 사자가 동시에 달려드는 환상을 보게 된다.

비교적 점잖다는 현상설계 모습을 보자.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현장에 서양 사자들까지 합세하여 덤벼든다. 그러나 한편 건축주 입장이 되어보자. 마음놓고 내 집을 설계해 달라고 말길만한 건축사사무소가 몇 개소나 될까? 걸 모양은 그럴듯한 집인데도 막상 들어가보면 비바람이 새고 각종 접합부가 덜컹거린다. 현장 시공자가 불성실한 공사를 하여 그렇다고 책임회피를 하나, 이제 누워서 침 뱉는 소릴랑 그만하기로 하자. 건축사가 설계도 했고 감리도 했으니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외국 건축사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말도 제법하고 와국어가 유창한 교포 건축사들도 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우리 건축사들의 작품이 너무나 엉성하다는 것이다. 도면의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초등학생들도 잘하는 치수의 더하기 빼기도 틀린다. 구조도면과 건축도면, 설비도면이 서로 다르고 구조도면이 구조계산서와도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은 현장감리가 확인하여 바로 잡으면 된다고 얼버무린다. 그

러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입이 열더라도 할 말이 없다. 간혹 눈에 쌈빡한 건물이 있어서 알아보면 섭섭하게도 외국인이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핀란드에는 돈에다가도 유명한 건축가의 초상화를 그려넣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건축사는 언제쯤 그런 존경받는 직종으로 격상될 것인가?

건축설계비와 구조설계비는 적당한가?

설계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정성들여 설계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도 해 본다. 그러나 선진 외국건축사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더 깔끔한 설계도를 들고 온다고 하니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그래서 외국사람들의 설계도서를 들여다보았다. 우리들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선 성실하고 꼼꼼하다. 특히 잔소리가 많고 상세도가 많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와 뒷받침 할만한 규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눈여겨 보았다. 경험과 나이 많은 실무자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불평없이 하고 있다. 마치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사자가 먹고 남긴 고기 부스러기를 요리조리 둘려가며 뜯어먹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제 어차피 고기보다 어부가 많듯이 건축사 수가 너무 많아졌다. 1996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물의 총 연면적이 1억 2천만 평방미터이니 이를 6,500명의 등록 건축사로 균등 배분하면 18,000평방미터다. 건축사 1인당 보조원이 5명이라고 해도 건축사사무소당 연간 최저수주액은 $6\text{명} \times 7\text{천만 원} = 4\text{억} 2\text{천만 원}$ 이며 이에 다시 6,500명 건축사 수를 곱하면 $4\text{억} 2\text{천만 원} \times 6,500 = 2\text{조} 7\text{천} 3\text{백} \text{억 원}$ 이다. 이를 1억 2천만 평방미터로 나누면 연면적 평방미터당 설계비는 22,750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보다 적은 돈을 받고 설계하는 건축사는 제 살을 깎아먹는 격이 되는데, 건축주와 사회 분위기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의 설계수준으로는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건축구조를 전공하는 필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 건축사들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좋게 말하면 협력업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청업자다. 원청자인 건축사는 우선 쓰고 남아야 준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자고로 설계비 받아서 남는 법이 없단다. 당연히 구조사무소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수시로 요청해 오는 것 중의 하나가 구조도면도 그려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조원 수를 늘리고 사무실을 확장해 놓으면 건

축사사무소의 처분만 바리다가 쪽박차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일이란 땜질이다. 시공하다가 잘못된 것의 뒷치닥거리, 설계 잘못의 바로잡기, 조금 더싼 공사비로 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 안전사고가 났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구조물을 긴급히 진단하여 보강방법을 제시하는 일,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양측(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일 - 법정에서 증언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피의자 노릇도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일만 하다 보면 조금은 비참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새로운 공법의 연구 개발이다.

이상 구조에 관련된 일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겨우 조그만 사무실이나마 유지해 나갈수 있는 것이 건축구조 기술자다.

건축 구조도면은 누가 그리는 것인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관청에서는 구조도면에다 구조기술사의 날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고 나서 구조도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구조기술사는 자기가 그리지도 않은 도면에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것도 납품 직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도장만 찍으란다. 빌비동 치듯 버텨보기도 하고 용역비를 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겠노라고 설득도 해본다.

구조도면 작성 업무도 하나의 전문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보조원은 신입사원 아니면 별로 소질이 없는 보조원의 몫으로 잘 못 알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 구조도면을 그리면서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다. 그 그러므로 구조도면에 날인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이른바 1급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구조도면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고 시공했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현장감리자도 마찬가지다.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심지어는 잠시 뿐인 땅파기공사를 하는 동안 기실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질기술자의 감리를 의무화하면서도 앞으로 장기간 건물을 안전하게 떠받들고 있어야 할 골조공사를 하는 것을 감리하는 자는 "건축기사" 면 족하다. 간혹 구조

에 관심이 있고 경험도 풍부한 건축기술자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자격시험에서 조차 구조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 하므로 골조공사는 시공자가 하는 대로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건축사사무소에서 구조설계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시기는 대부분 현장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이다.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변경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 마감재를 잘못 시공했을 때 그것은 눈으로도 확인하기 쉽다. 모양이 훈하거나, 사용상 기능에 지장이 있고, 물이 새기도 하므로 쉽게 발견된다. 그러나 주요 구조부재는 마감재로 뒤집어씌우고 나면 도무지 그 시공 충실퇾을 파악할 수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엄살이라도 부릴줄 알아서 힘겨울 때, 확실하게 사전예고를 해주면 좋으련만 마지막까지 건더기가 갑자기 향복하고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대피할 겨를도 없이 깔려 죽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골조 공사의 각 공정마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네 사정은 그렇지 않아서 물 흐르는 듯 잘도 넘어간다. 감리는 현장사정에 맞추어서 뒷치닥거리를 하는 보조 요원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이제 구조도 건축분야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할 때가 된 듯하다. 구조도면을 그리는 것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분야에서 투신하고자 하는 고급인력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

건축구조 기술사의 현황

1997년 6월 현재 건축구조기술사의 총 배출 인원은 273명이고 건축구조 설계와 구조계산 실무에 종사하는 자는 줄잡아 150여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20여년동안 배출인원은 이뿐이지만 앞으로 5~6년만 지나면 총 배출인원이 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특급 구조기술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연 1회 시행하던 시험 전형을 1994년부터는 매년 4회씩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연간 1억2천만 평방 미터에 달하는 건축허가면적중 구조기술사가 다루어야 할 정도의 건물을 1/3로 가정할 때 구조설계 계산 업무는 현재 인원만으로 적당하므로 앞으로는 아마도 구조 전공자가 건축구조 도면을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도록 될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형편으로는 구조계산만 있고,

자신있게 구조도면을 작성하겠다고 나서는 기술자가 없는 실정 이므로 당분간 이 분야 기술자의 희소가치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주 서울의 모 대학에서 구조관련 특강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근래에 와서 건축과의 인기가 치솟아서 고득점자 지망생이 많아졌고, 1개 학년 정원이 40명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계를 통한 모집해서 돌아온 학생들 중 120명이 건축과를 지망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건축과 희망생 중에서 한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건축과 학생의 1/4이 구조를 전공하겠다고 희망한다는 것이다. 건설시장은 해마다 축소되는데 기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구조계의 전망

• 경쟁이 치열해져서 당분간은 덤팡 등으로 인한 혼란이 올 것이다. 그 결과 또 한차례의 삼풍사건 같은 불상 사의 결과가 노출될지 모르며, 아마도 옥석을 가리는 절차가 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탈락하는 부류에 본인도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우스개소리가 아닌 심각한 말이다. 왜냐하면 건축구조 업무라는 것은 토목분야와도 달라 짧은 시간에 너무나 다양한 구조방식과 수많은 부재를 다루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유능한 자라고 해도 실수를 없을 수 없고, 999번 잘하다가 1번을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내면 감옥행도 각오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30년 무사고 운전사가 한번 인사하고 낸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느냐고 향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건축구조계에도 실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실무를 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건축구조업무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물론 설계분야도 많이 발전되겠지만 건축 계획이나 내외부 디자인 분야에 국한하고, 구조도면이나 시공 도면 작성은 건설회사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 건축구조 기술자들의 활동무대는 건축구조 기술사사무소와 감리회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회사, 연구소, 구조안전진단업체, 관공서 등 현재와 같이 약방의 김초격으로 흘어진 것이나 독립한다 해도 소규모의 업체로 남을 것인데, 아마도 발 빠르게 구조도면을 취급하는 사무소로 변신하면

몇몇 업체는 다소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외국업체가 침투해 오고 있다. 특별히 미국에서 건축설계에 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비도 별로 비싸지 않고, 컨설팅의 질도 신동치 않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심하게는 둘째이들의 사기성 업체도 만날 수 있는데, 잘 알려진 회사의 이름으로 여기 저기에 자리를 차려 놓고 영업하다 보니 영어권의 값싼 동남아 기술자들이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토목분야로부터의 영역침범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건축구조 기술자를 대학교 건축과에서 배출하는데 기인한 부작용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구조를 공부하고 귀국한 건축구조 기술자는 모두가 그 나라 토목과 출신이다. 물론 여기서 건축을 공부하고 유학 갔던 사람도 많으나 이에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뿐만 아니라 일본과 박혀있지 않다.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토질분야의 일은 이미 토목분야에 넘어간 지 오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건설을 좌지우지하는 건설교통부 관리들의 대부분이 토목과 출신이다 보니 건축구조를 토목분야로 흡수하고자 하는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피해망상증 환자라고 나무랄 수도 없다.

•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무언해도 구조전문가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 중에는 구조전문가가 없는 곳도 많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다.

앞으로 또 한차례 구조안전진단 자체의 부실로 인한 발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두 팔로 안아 올릴 수 있는 사람의 건강진단을 하느데도 병원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수만평되는 구조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진단기관마다 다르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엉뚱한 진단서를 낭비하는 기관은 조속히 자숙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40년생으로 서울대와 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73년부터 현재까지 센구조안구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오랜동안 건축구조전문가로서 활동해온 필자는 각 관련단체의 구조안전기술자문역도 맡고 있다.

전주리베라호텔

Hotel Riviera Jeonju

김병현 / 건축사사무소 장
Designed by Kim Byung-Hyun

전주리베라호텔은 97년 1월에 전주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빙상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급호텔 필요에 따라 서둘러 건립된 호텔로 이 지방에 수준급의 호텔을 열망하고 있는 관련 단체와 시민의 요청에 호응한 사업주가 최종사업결정을 내린 것은 호텔 개관일로부터 불과 2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지방도시의 비즈니스호텔이라는 열악한 호텔환경과 함께 설계,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짧은 건설기간, 건설비, 운영비절감 등의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놓고 대결과 설득, 터협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지는 전주시 중심지역에서 약간 남쪽으로 위치하여 전면에 중심가로인 기린로, 후면에 한옥지역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수림이 덮인 언덕위에 오래된 정자인 오록대를 가까이 두고 있다. 전주시와 주변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대지에 들어설 호텔 프로그램은 전주의 지역수요와 사업성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객실은 170실정도 식음부는 실질적이면서 면적은 가급적 적게하여 양식, 일식, 중식당이 포함되나 만남의 장소로서의 라운지는 2개소로 족할 것, 연회장은 의외로 수요가 커 최대수용 500명 규모에 소회의실도 추가할 것, 추가로 사우나겸 휴트니스클럽과 지하에 큰 규모의 나이트클럽 등을 수용하되 별도의 외부입구를 구비할 것으로 이 지방의 그랜드 호텔이 되기에 충분한 크기와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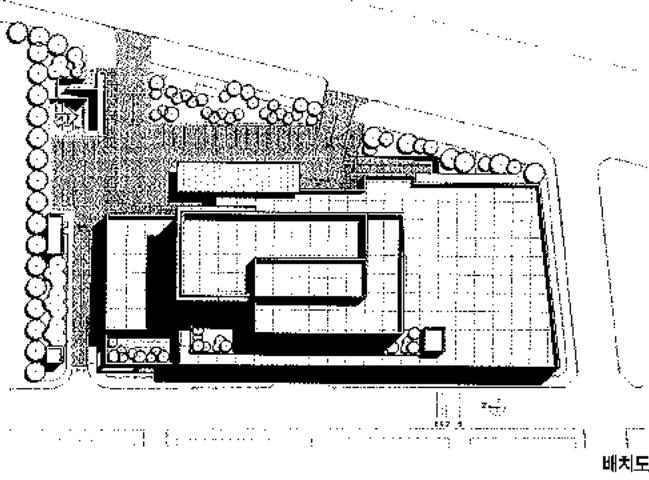
이 호텔의 공간구성은 크게, 지상2층의 로비, 영업장의 저층부와 지상 3~9층의 객실타워, 지하중1층~3층의 나이트클럽, 후방시설, 주차장 및 기계실 등의 3개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평면의 중심위치에 모든 수직동선 및 서비스를 포함한 중심코아가 배치되었고 1층에서는 코아를 중심으로 좌측에 연회장, 우측에 로비를 포함한 양식당과 라운지로 두 구역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사이에 위치한 통합주방이 두 구역을 지원한다. 전주시의 한옥지역을 전망하는 양식당은 전면의 기린로-진입로와 주차장입구-포트커시어-호텔입구-로비를 연결하는 축의 종점을 이루어 인접한 정원과 함께 호텔내부 공간의 도시공간과의 재접속을 보여주고 있다. 2층도 1층과 비슷한 공간 구조로 로비와 식당상부에 일식당, 중식당, 입구상부에 전명창으로 개방된 칵테일 라운지가 있고 연회장 상부에 시우나, 휴트니스클럽이 배치된다.

저층부와 고층 타워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금속캐노피와 2층의 칵테일 라운지의 개방된 외벽처리는 도착공간을 상장하면서 이 호텔의 외관에 특성을 주며 기린로로부터 호텔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야간의 조명효과로 더욱 극적인 진입을 보여주며 그 형태와 공간은 전통 한국건축의 처마아래 공간과 외벽에 비유할 수 있다. 객실 타워의 외부를 감싸는 알미늄과 유리의 커튼월은 전통 한식가구에서 볼 수 있는 격자 디자인이며 입구와 남쪽 오록대를 향하여 첨가된 발코니는 손님의 체류를 은유한다. 후면의 외벽 처리는 전면과 달리 좁은 가로에 면해 있으며 앞으로 변모할 도시 가로 상가를 예견하여 -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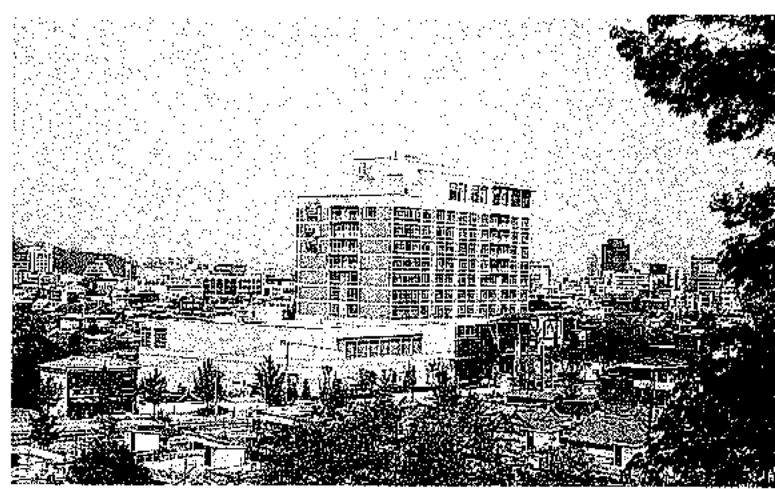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6-5		
지 역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7,427.90m ²	건축면적	3,640.69m ²
연 면 적	34,628.37m ²	건 폐 율	79.01%
용적률	236.98%	규 모	지하 3층, 지상 9층
구 조	기초 - 매트기초 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최고높이	41.8m,	주차대수	389대
설계기간	1995. 4~1995. 12		
공사기간	1995. 8~1996. 12		
설계담당	민병기, 안윤모, 박조우, 조희경, 엄형석, 김성우, 김민수, 정기훈		
구조설계	성립구조(담당 / 박성수)		
기계설비설계	상원설비(담당 / 홍재봉)		
전기설계	새한설계(담당 / 김진성)		
조 경	전복대 김재식교수+동신원(담당 / 이병한)		
감 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담당 / 박천주)		
건축 주	(주)서해건설(이재형)		
시 공	(주)우성건설(담당 / 박관선, 김복규)		
인테리어 기본설계	In Design(David Hyun)		
설계및시공	우원, 조원, 권연		
내부마감	비닥 - 카펫, 대리석, 비닐타일 벽 - 석고보드위 에멀젼페인트, 메이플원목위 립카, 벽지		
외부마감	천정 - 석고보드위 에멀젼페인트, 메이플원목위 립카 비닥 - 점토벽돌, 화강석, 콩자갈깔기 벽 - 화강석, 알루미늄페널, 컬러복층유리 천정 - 알루미늄페널		



온지역은 이미 해제되었다- 활성화될 가로에 따라 좀 더 작은 스케일로 대응하고 있다.

이 호텔을 계획하면서 다루어야 했던 또하나의 과제는 도시의 중심건물로서의 공공성과 개인의 필요성에 호응하는 접객업소의 사적 기능이라는 이중성의 주제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였다.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호텔에서 새로운 체험의 세계를 찾는다. 이러한 현실과는 무관한 괴장된 체험의 강조는 격리되고 내향적



월경

인 장소를 만들기 쉽다. 반면에 외부에서 온 숙박객은 이 호텔에서 전주의 지역성과 문화를 발견하려 한다. 또한 대소집회와 행사는 현실적 도시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호텔은 비교적 단순한 외관속에서 내부 공간의 다원적 성격을 추구하면서도 주제와 양식이 과다하지 않으면서 주요 실내 공간과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도시의 그랜드 호텔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했다.

The Hotel Riviera was planned and constructe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n order to meet the request for a first class hotel to support the Universiade skating games held in Jeonju at January 1997. The decision of the owner to execute this project was made merely 20 months away from its opening date. Constraints of time, along with money matters stemming from the fact that it is a business hotel in a regional city, was evident in the design procedure.

The site was in the south of Jeonju, facing on its front the Kirinro, the main road of the city, and on its back the Traditional Housing Town. On the west is the hill with dense forest, where the Ohmokdae is located. The site commands a fine view of both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nature. The program of the Hotel, to be placed in this sit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estimated demand and commerciality of the region. About 170 guest rooms, Western-style, Japanese and Chinese restaurants, 2 lounges as a place for meeting, a banquet hall that can house 500 people with an extra conference room, a sauna and fitness club, and a grand nightclub - these were enough to rank this Hotel above others within the region.

The overall spaces can be divided into 2-story-lobby and the commercial areas in the lower part, the guest room tower expanding from the 3rd to the 9th floor, and the nightclub, parking lots, machine rooms in the 1st to 3rd basements. For an efficient management, the core for vertical movements and services were placed in the center of the plan. In the 1st floor, the banquet hall is left to the core and the lobby, Western-style restaurant and the lounge is to the right. The division is naturally made by the core, while the kitchen in between serves both areas. The Western-style restaurant with its vistas opened to the Traditional Housing Area, along with the neighboring garden, connects the indoor spaces of the Hotel with the city. The 2nd floor has a similar layout from the 1st - above the lobby and the Western-style restaurant are placed the Japanese and Chinese Restaurants, while cocktail lounge and the sauna, fitness club

are above the entrance and banquet hall, respectively. The metal canopy that visually connects the lower part with the tower, and the 2nd floor's cocktail lounge with grand windows, are symbolical destinations which draws attention from the Kirinro. This part is even more impressive at night with the illuminating light. The form and space of this part can be related to the space under the roof and the exterior wall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frame of the curtain wall that envelopes the tower is borrowed from the window frame of traditional architectures, also. The facade on the rear side is handled differently from the front, in a smaller scale, since it is facing the narrow road that will develop as a road side commercial block. Another factor considered was to present an architectural way to solve the diversity between the public aspect of the hotel as a central building of the city, and the privateness asked in the guest room facilities. People coming to the hotel expects an introvert privacy, isolated from the everyday world, when they also wish to seek the characteristics of Jeonju. The Hotel Riviera Jeonju, containing diverse programs in a simplified exterior form, with subtle themes and styles, seeks to link the major interior spaces with the outside, fulfilling its role as the city's major hotel.

Site 26-5, Pungnam-dong, Wansan-gu, Jeonju-shi

Site Area 7,427.90m²

Building Area 3,640.69m²

Floor Area 34,628.37m²

Building Coverage Ratio 7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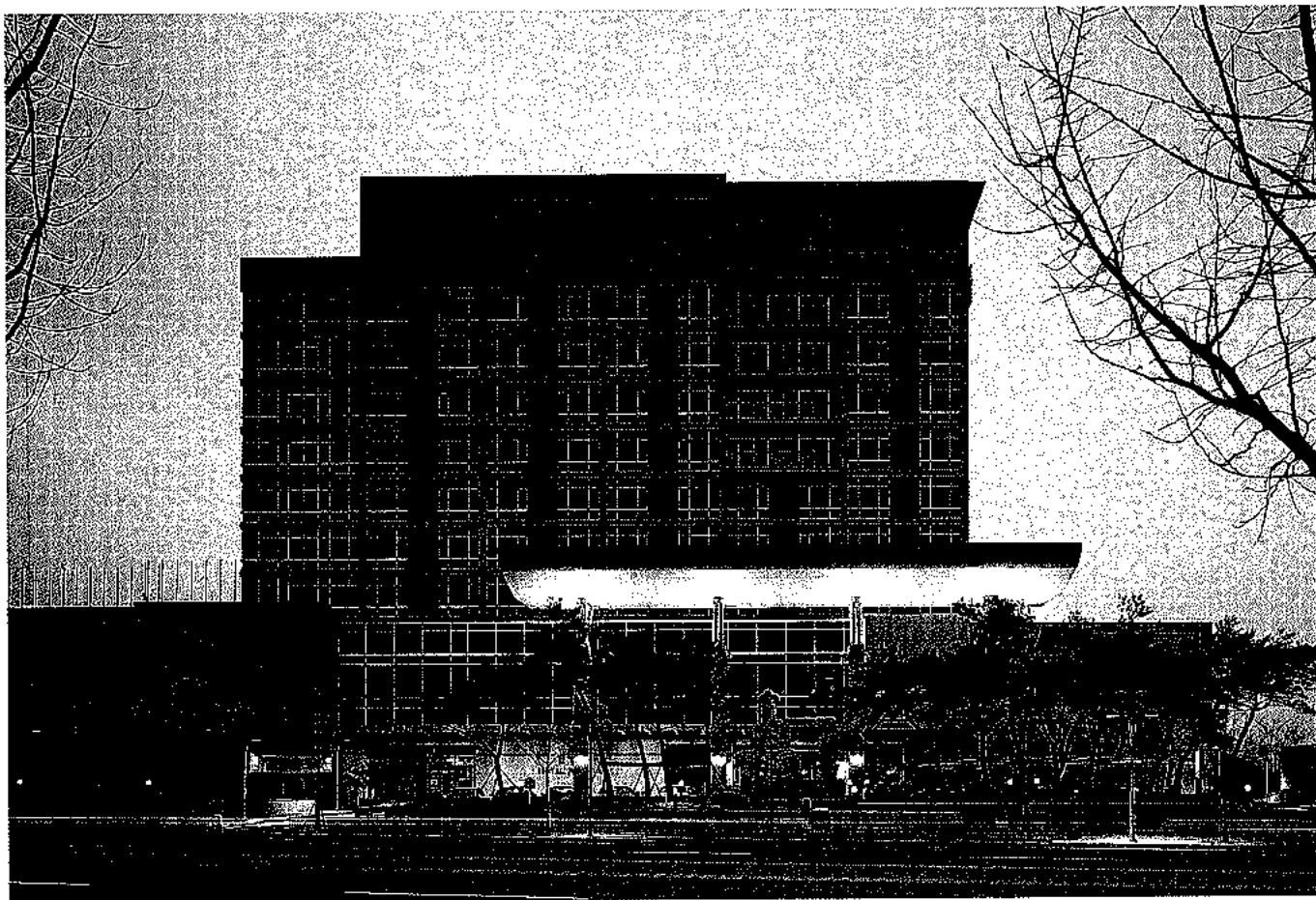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236.98%

Total Floor 9floors, 3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Architects Min Byong-Ki, Ahn Yoon-Mo, Park Jho-Woo, Jo Hee-Kyung, Eom Hyung-Sok, Kim Seong-Woo, Kim Min-Soo, Jeong Ki-Hoon

General Contractor Woosung Construction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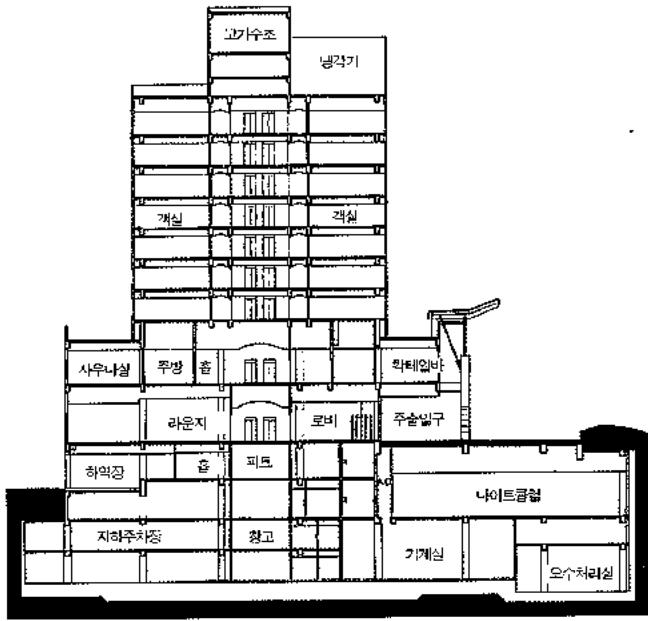


주출입구가 있는 등축 전경



한옥지역에서 본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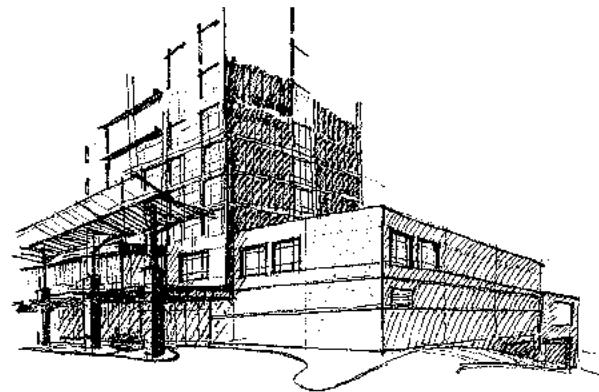




단면도



연회장 입구



스케치



로비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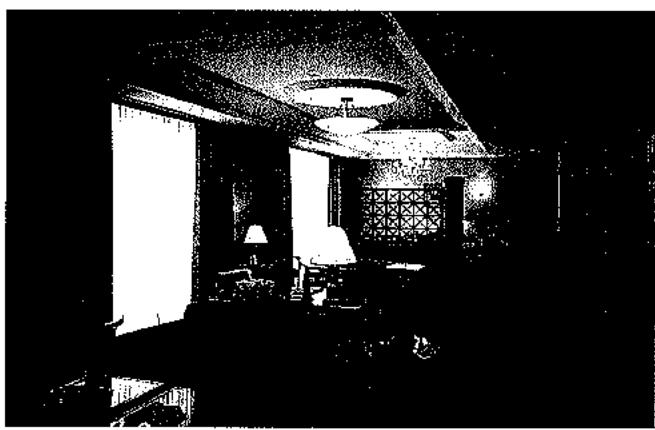
2층 일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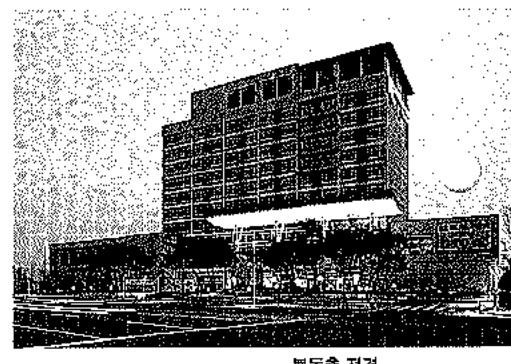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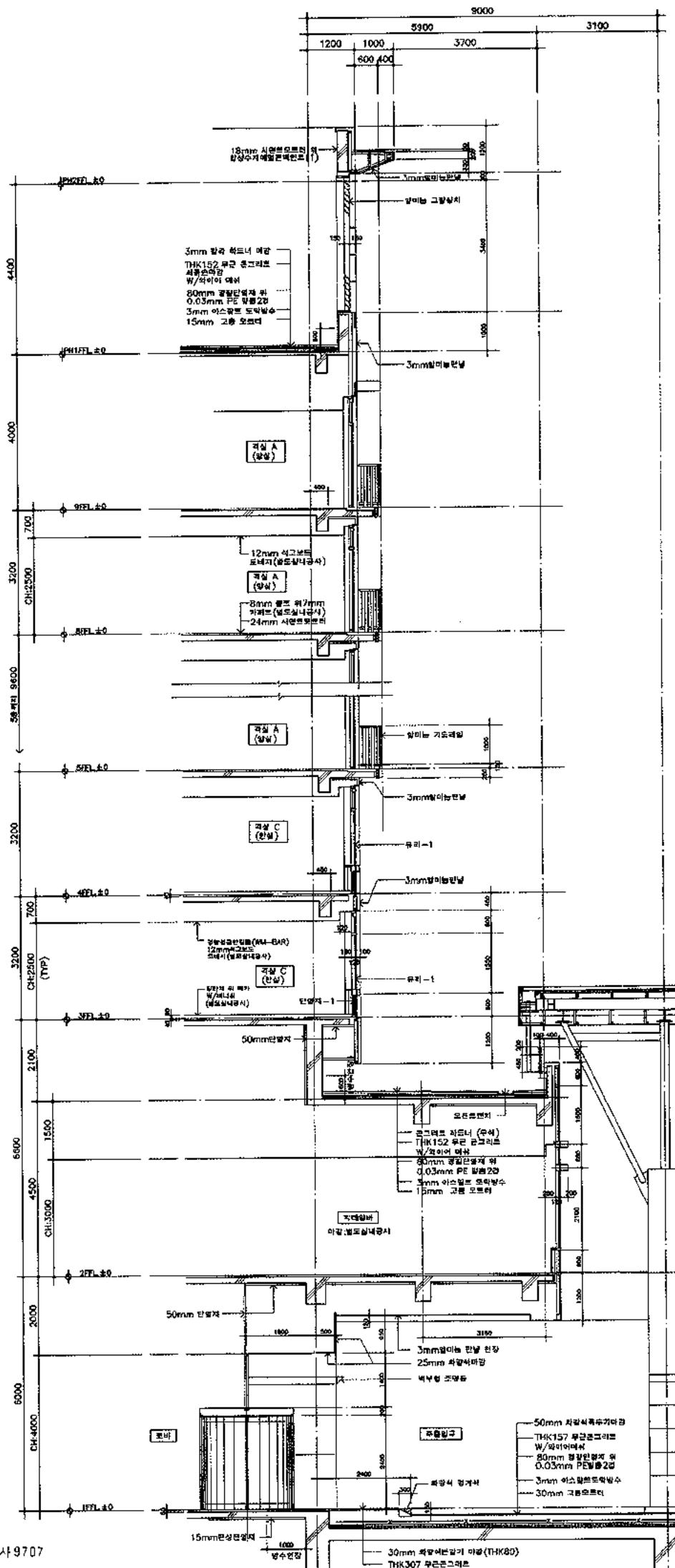
로비



연회장 전실



로얄 스위트룸



북동측 전경



북측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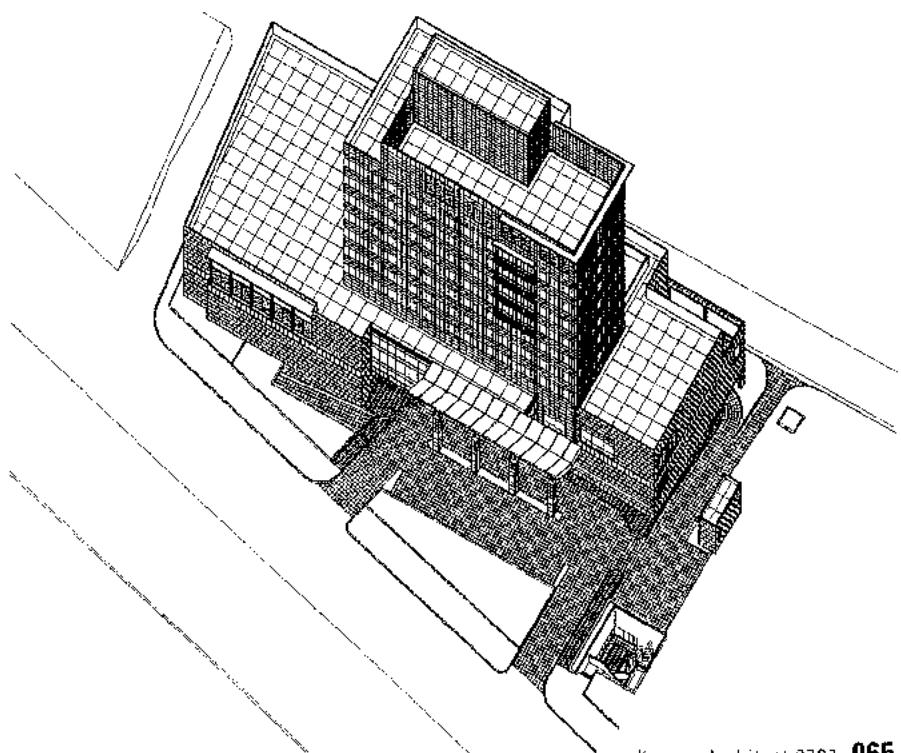
1층 라운지와 커피숍이 보이는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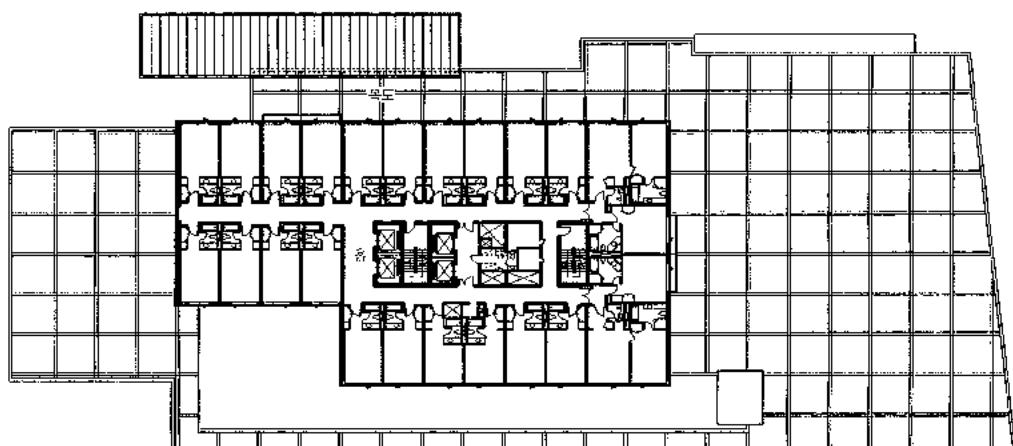
주출입구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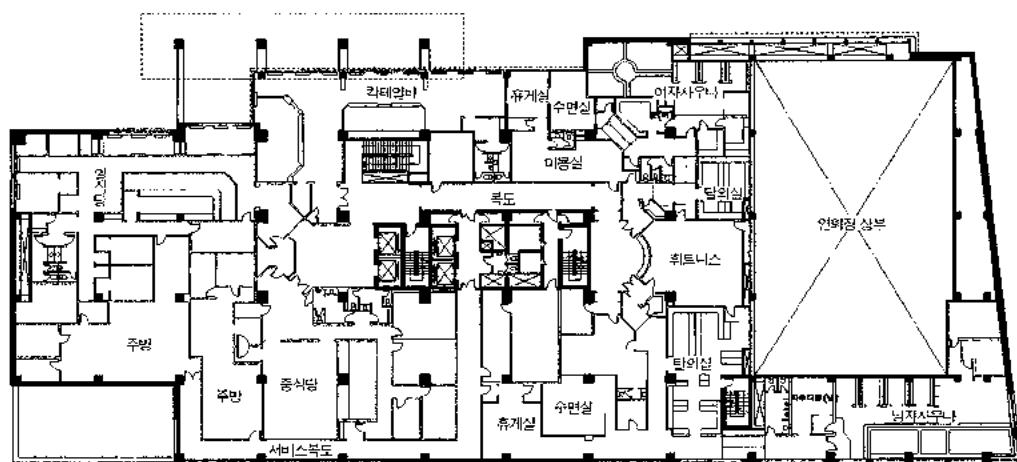
후면도로에서 본 북서측 전경

전면도로에서 본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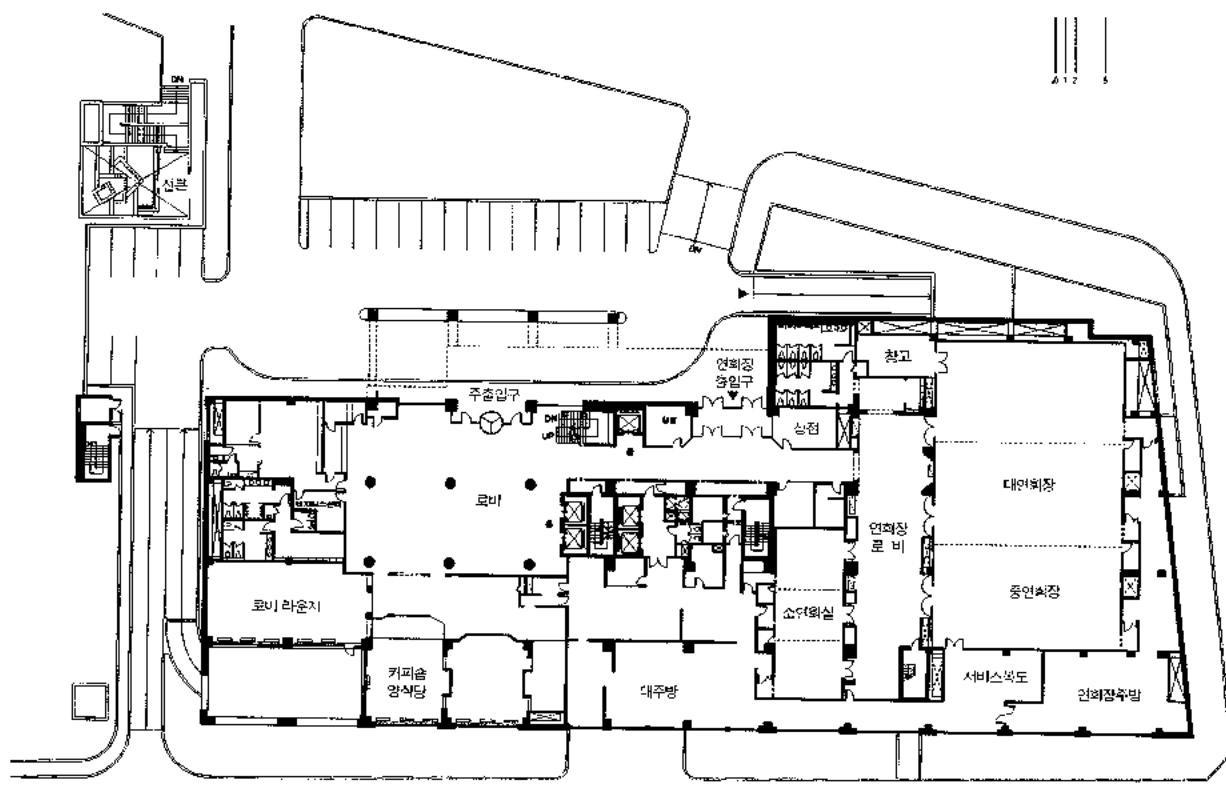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의 합리성과 텍토닉성

The Rationality and Tectonics of Architecture

설계자 / 김병현(건축사사무소 장) 대담자 / 정기용(기용건축연구소)

Kim Byung-Hyun & Jung Gu-Yong

일 시 / 1997. 6. 10(화), 장 소 / 전주리베라호텔



왼쪽 : 김병현, 가운데 : 김봉열, 오른쪽 : 정기용

정기용 먼저 중소도시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해봐야 대도시의 특급호텔과는 그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지만 호텔이라는 것이 교통표지판처럼 국제 공통어로 된 어떤 표준화된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주의 지역성이 선생님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과연 그런 경우에 지역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문제시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전주의 지역성하면 좀 보수적인 도시, 호남지역 문화의 중심지, 아직도 한옥지역이 보존된 도시, 시내에서도 주변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좀 평화스러운 지방도시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적 자존심이 강한 도시로 전주시청이나 전주역사 등이 전통 한식건축을 주제로 한 공공건물이 있는 것도 이런 연유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의 구상단계에서 호텔이 가져야 할 전주의 지역성과 문화의 표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 표현의 방법과 정도는 이 호텔사업이 가진 현실적 제약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정직한 현대적인 기법으로 전주라는 현대도시, 주변환경에 대응하면서 안전한 한옥지역 같은 기준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건축으로 접근함이 이 도시를 위해서도 지방호텔사업을 위해서도 바른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굳이 이 지역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가지의 외관요소, 입구와 객실타워 외벽처리가 전주라는 지역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잔입, 도착하는 과정이 다른 유형의 건물보다 모두 중요하게, 어느 정도는 예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전래건축의 일주문이나 건물의 처마 아래의 공간이 한 장소에의 도착이라는 상징적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깊숙한 입구 캐노피도 이런 의미에서 호텔에의 도착을 상징하고 예식화해 주고 있습니다. 객실외벽은 공사비와 기간의 제약상 단순 상자형의 외형을 벗어날 수 없었으므로 이 외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금속

과 유리라는 얇은 재료로 마치 벽지를 바른 것 같은 패턴만 있는 커튼월에서 벗어나 비록 얇은 재료로 만들어져도 이런 자체가 가진 구조적 성격이나 그 뒤의 독립된 객실을 은유하는데는 이와같은 외관 특성을 가진 한국의 전통 장농의 구성에서 배울 것 이 많았습니다.

정기용 다시 얘기하면 모던한 건축언어로 주변의 전통적인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특별한 지역성을 차별화하기보다는 호텔에 어프로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데서 전통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전통건축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어프로치방식을 차용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호텔들이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호텔 비슷한 것들은 많은데 비해 아직까지 독특한 한국호텔다운 호텔의 탄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처마(캐노피)라는 것이 새로운 주기는 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고유한 호텔은 가능한 것인지 즉 한국성을 지닌 건물의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호텔이 유럽의 귀족적인 스타일에서 미국으로 가면서부터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좀더 대중화시키고 전문화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호텔의 모델이 가만히 보면 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한국의 땅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어느 호텔이라고 하는 특성, 즉 호텔의 특수한 기능 등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특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현 그동안 참여한 호텔설계는 국내외 힘쳐 여러 건이 되는데 여기서 얻은 것은 호텔이라는 건물 유형은 그 위치와 종류에 관계없이 일차적인 접객업소라는 상행위 장소에 이보다 더 중요하게 이 장소가 도시인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험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이 도시의 고객이나 외지의 방문객이 다같이 호텔이라는 연출된 무대에서 편안하고 즐거워야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도시와는 또 다른 이 지방의 지역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사업은 매우 국제화한 고도의 전문업으로 특별히 한국적 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특수한 사업주의 지원이 없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크게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텔이라는 고도의 경쟁력이 요청되는 사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서구식 모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텔의 실내환경에서 한국 또는 이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호텔의 서구식 공간구조에서는 굳이 전례양식적 실내건축을 찾기보다 주요 실내공간에 외부전망, 한옥지역, 전면가로, 오목대를 실내에서 전망을 가지므로 느끼는 장소성도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호텔의 실내환경은 연출된 체험의 추구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허구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내의 호텔에서 창밖의 현실과 너무 등떨어진 과장이나 환타지도 문제입니다.

정기용_____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텔과 도시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만나고 회의도 하고 가족모임 등등 다시 말해서 호텔은 도시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장 고급한 차원에서 공급하는 모델처럼 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호텔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숙박하기 위해서 호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급스럽고 특별한 즉 비일상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리베라호텔도 전주에서는 품위를 한차원 높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 롯데호텔이 을지로에 지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에 물질문화가 확산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또 루이 14세 의자라든지 우글쭈글한 바ロック양식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침투해서 그것이 마치 이제는 어떤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의 전파를 주도한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리베라호텔도 도시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삶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도 이것도 틀림없이 모델이 되어서 바꾸리라 보는데 도시 전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신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현_____ 이 호텔은 건축으로서, 그 장소로서 이 도시의 중심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숙박과 모임의 장소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건축은 철저한 도시건축물, 현대건축이면서도 기존 주변건축을 부정하지 않는 좀 관대한 건물이 중요한 성격으로 생각되었고 이것은 실내에도 유지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의 열악한 호텔사업환경에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후방지원시설입니다. 이 호텔의 후방시설은 사업주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기용_____ 외부에서는 그렇고, 건축 전체 배치에서는 아까 오목대에 같이 올라가 보셨습니다. 주변에서 오목대와 한옥이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 이것들과 호텔과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김병현_____ 한옥부분은 일단은 영구적인 환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존지역이 해제되어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지역으로 변모가 될 것이니까 앞으로 변모한 이후를 계획해서 가로를 만들려고 생각했고, 호텔에서는 객실이나 식당에서 한옥을 보는 풍경을 최대한 허용했습니다. 오목대도 그런 의미에서 미친가지였습니다. 오목대와 호텔에서 어떤 조형적 관계를 찾기보다 오목대는 이 도시에서 하나의 표지물이고 호텔은 도시내의 건축으로 보았습니다.

정기용_____ 전면 대로상에서 어프로치하면서 보이는 입면부분과 한옥하고 만나는 배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김병현_____ 전면은 호텔의 진입과 도착을 수용하는 어느 정도는 예식적인 공간이나, 후면은 장차의 도시상기에 연한 가로건물로 해석하였습니다.

정기용_____ 앞에서 어프로치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규모나 이미지가 몬트레이 쉐라톤호텔과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것은 미국호텔 같아 보이고 리베라호텔은 한국호텔 같은데 이미지에서 조금 다른 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돌출한 객실 밸코니와 저층부와 고층부의 매스 관계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미국의 쉐라톤호텔은 정말 도시적인 연속을 가진 호텔처럼 보이는데, 리베라호텔은 진입에서 조경



쉐라톤호텔 / 몬트레이, 캘리포니아 / 컨벤션센터와 연결된 시티호텔

부분과 자동차가 접근하는 곳을 도로상에서 떨어뜨림으로 해서 도로와 연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쉐리톤호텔이 이 작품의 모델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모델이라고 보기보다는 몬트레이에서 느꼈던 것, 호텔은 아래아 된다는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호텔은 몬트레이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트雷이라는 도시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된 도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서부 건축중에서도 베이지역 건축이라고 해서 프라스터 벽에 다양한 창호 등의 언어를 어느정도 지켜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가진 디자인 프라이어리티는 한식이라는 적극적인 양식건축과는 무관한 공장생산을 거치는 재료에 의존하는 서구식 공법을 써야 됐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전면 도착공간과 객실외벽처리였습니다.

정기용 우리나라의 많은 호텔들이 일반적으로 주현관 앞부분을 주차 등을 위해 넓게 확보하는 바람에 도시의 연속적인 면을 끊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미국의 호텔들도 도심에서는 그런가요.

김병현 꼭 정해진 관례는 없고 위치와 대지조건에 따라 다르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에 있는 호텔들은 비교적 도시의 가로에 근접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봉열 이 호텔의 계획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물의 앞면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비해 뒷면은 여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현 그러니까 앞면이 넓은 대로에 면한 호텔 전면은 문화의 도착 공간의 배경을 만들고 있고 뒷면은 향후 변모될 상가위주의 도시가로에 면한 상업건물의 외관입니다.

정기용 제가 인터콘티넨탈호텔 관계로 뉴욕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나 봤던 것 같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비교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외관에서 나오는 이미지,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청자색 비슷한 녹색 분위기, 즉 밝은 색과 녹색의 대비, 이런 것이 리베라호텔에서도 보이는데,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였다라는 것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도시풍경에서 호텔의 외관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김병현 녹색은 약간 유리 자체가 가진 색채이니까, 커튼월에는 투명한 부분이 있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쉽게 불투명한 색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청자색이었기 때문에 써 왔는데, 인터콘티넨탈은 녹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바꿔보려는 생각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리라는 색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욕심대로 한다면 여기에 장동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두운 색깔이 하나쯤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기용 호텔설계의 어려움은 한 지붕 속에 각기 다른 여러 서비스 공간들을 배분하고 동선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정말로 자급자족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결국은 모듈이 갖는 제약이 를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과 객실과 그것을 모듈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끌어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텔을 설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듈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병현 세가지 전혀 다른 공간이 수직으로 복합된 것이 이 호텔입니다. 주차장, 영업장, 객실의 공통 분모를 맞추다 보니까 8.3m가 됐습니다.

정기용 특별히 오버랩시키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서 오는 제약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층 평면에서 보면 퍼즐을 풀듯이 했어야…

김병현 맞습니다. 첫단계가 퍼즐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화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정기용 그 다음에 호텔에서 인테리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가는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로비 공간에서 리셉션쪽에 조그만 정



인터콘티넨탈호텔 / 강남구, 서울 / 한국무역센터와 연결된 특급호텔



원이 보이는 등 정감이 갑니다만 들어오면서 보니까 천장이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개방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보내 주신 카다로그를 보면서 미국에 계실 때의 건축과 여기에서의 건축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하비머드 대학의 중정이미지 같은 공간이 이 호텔에서는 없어야 되는가. 땅을 보면 자연히 그런 것 이 보여지는데 여기와서 건축하시면서 한국의 제약들에 너무 굽복하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병현_____제약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100% 극복 못하는 것이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텔에서 대지와 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종정은 어려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시간안에 해야된다는 어려운 제약에서 내가 가진 직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기 보다 내 직관에 의해서 제일 탈없이 할 수 있는 계획방법을 사용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관, 주요공간은 남지만은 그 외는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미감, 실내장치물, 객실, 그런 점에서 로비에 대해서는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건축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기용_____대체로 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은 몇 년 있으면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김병현_____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활과 건축환경이 변하니까 당연히 표면에 나타나는 건축도 변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은 있습니다.

김봉열_____덧붙여서 어쭤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시절에 PA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 파사데나 프라자를 봤는데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건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감동받은 것이 공공성이었는데 귀국하신 다음에 대부분 상업건축을 하시니까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잘 안보였습니다. 메인 스페이스가 오픈되어 있다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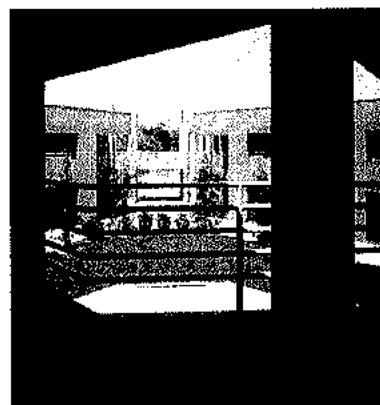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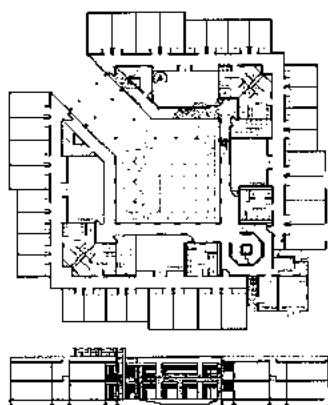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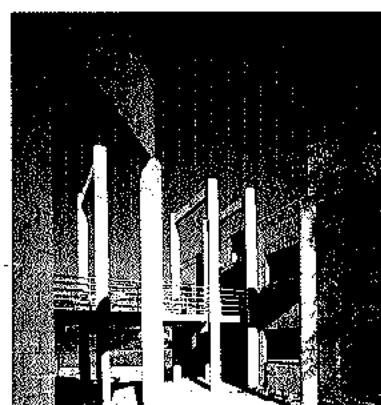
김병현_____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호텔이라는 사업상의 제약과, 20개월 이내에 설계와 시공을 해야된다는 건축기한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또 개방되고 수직성의 메인 스페이스도 이 규모의 호텔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김봉열_____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단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기용_____건축주의 취향과 관련있지 않을까요.

김병현_____그 제약은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은 더 가혹할 정도로 제약이 있습니다.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건축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 가치로서의 건축에서는 우리가 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정기용_____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의 건축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단아함, 단정하고 우아하고, 요란스럽지 않고 과장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인테리어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외관은 남고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로비부분에서만이라도 선생님의 건



하비머드대학 기숙사 / 클레이먼트, 캘리포니아 / 3개동으로 구성된 대학기숙사

축언어가 같이 들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병현 아쉬움은 나도 동감입니다.

김봉열 의무적으로 인테리어는 별도로 준 것인가요.

김병현 별도의 설계자 미국의 INDESIGN이 참여하여 설계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가의 의도만으로 공간을 만들 수는 없고 호텔이 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는 또 건축외 체험을 위해 어느정도는 내부설계가 일임이 되었습니다. 가령 바닥재도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고 전주에서 볼 수 있는 전벽돌이 건축적으로는 선호되겠지만 특급호텔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부족하므로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용 그런데 제가 보았던 인터콘티넨탈호텔 같은 경우 처음에는 너무 평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10년이 흘렀는데 건축이 눈에 띠지 않으면서 세월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특수한 다이나믹한 세상에서 소위 호텔만이 아니라 건축을 한다는 것에서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리베라호텔만이 아니라 혼돈, 무질서한 도시 속에서 건축을 하실 때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병현 그 원칙은 내가 가진 건축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먼저 건축은 철저히 현실의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도시, 사회, 경제의 현실과 여기서 모든 제약을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현실의 기초위에서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컨셉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호텔과 같은 상업건축과 이 프라이어리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합리적인 건축을 추구한다는 층고도 듣고 좀 더 도전적 자세도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호텔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뜻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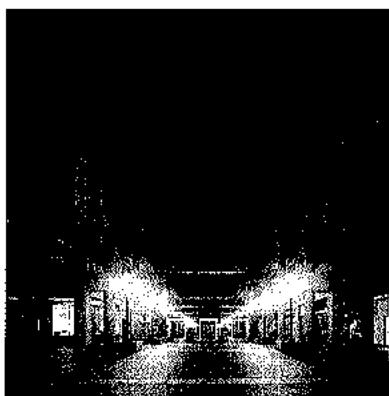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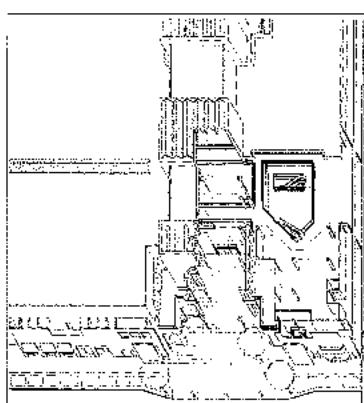
정기용 마지막으로 이 리베라호텔 다음으로 진행하고 계신 작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도 혹시 하고 계신지요.

김병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이고, 한 건축가의 커리어는 조절공이 쌓는 벽돌 벽 같은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쌓아가야 하는 나의 벽 쌓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쌓아 올리기야죠. 지금도 내 나이에 비해서 나를 완전히 찾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기용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후배건축가에게 좋은 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한국의 젊은 건축가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은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베틀낼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의 건축에서 뭔가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자꾸 발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건축이 조금은 절도있고 제대로 문법을 갖춘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도 한 듯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어디까지 끌고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병현 나는 내 능력이 그래서 그런지 건축을 하나의 획기적인 포옹(Form)을 만드는 수단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포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큰 차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더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 건축을 완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건축의 텍토닉성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중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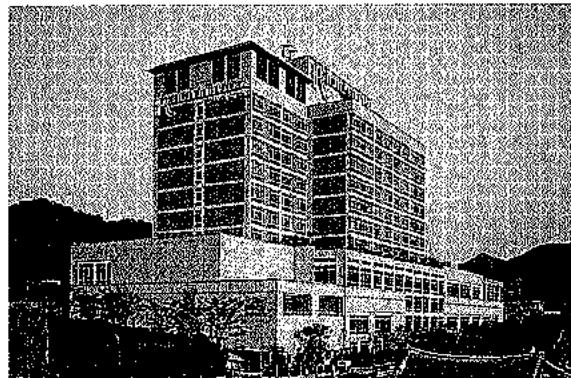
— 전주리베라호텔 비평을 쓴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도 이번 대담에 함께 참석했다. —



파사데나 플라자 / 파사데나, 캘리포니아 / 도시재개발계획에 의한 대규모 쇼핑센터

전통적 도시 속의 도시집합체 Urban Assemblage in a City With Tradition

김봉렬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한 봉사 - 서비스를 돈으로 사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형태를 즐기는 곳이 호텔이다. 여기에는 돈낸 만큼 대접받고 즐기겠다는, 그래서 일상에는 가능하지 않는 우아함으로 기득하다. 특히 전주같이 크지 않은 지방도시의 특급호텔이란 숙박보다는 호텔에 딸린 식당과 카페숍, 사무나와 연회장, 특히 밤 유흥의 꽃인 나이트클럽이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잡는다. 지방도시에서 특급호텔이란 '고급 대중문화'의 상징이요, 특별한 체험이 일어나는 가상현실의 장소가 된다.

전주 리비라호텔은 지방도시의 특급호텔로서 충실히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객실 164실의 규모에 비해 지하의 나이트클럽과 1층의 연회실들은 크고 풍부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저층부의 식음료부는 마치 마방진 페줄을 풀 듯이 한 치의 오차와 여유도 없이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들은 비교적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전망을 얻었으며, 품위를 잃지 않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층의 연회부 부분은 22개의 대소연회실이 매우 유연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계획됐으며, 넓은 복도는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호텔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비법은 숨겨진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각별한 배려다. 대지의 앞 뒤 레벨 차이를 이용해 지상층이 된 뒷면의 반지하1층부터 1~2층에 이르는 부분은 호텔의 관리부와 주방, 서비스 동선부분이다. 보통 호텔의 관리부란 어두운 지하공간에 박혀있기 일쑤지만, 이 호텔은 별도의 그럴듯한 현관을 둔 정식의 사무공간이며, 효율적으로 설계된 서비스 복도는 각 주방과 식당들을 연결하고 있다. 보통을 넘는 수준의 종업원용 라커실이나 샤워시설, 종업원용 식당시설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200여 종업원들에게 궁지의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프라이드를 가진 종업원들은 호텔 손님들에게도 당당하면서도 품위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건축가는 고급스런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호텔건물의 기본적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며, 각부분 공간들은 충실히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다.

호텔과 여관의 차이는 무엇일까? 침실의 평면만 본다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둘다 트윈침대가 있고 드립

된 목실이 있으며, TV와 간단한 소파 세트가 놓인다. 실내장식적인 면에서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도 숙박비는 최소 3배 이상이다. 호텔의 식당과 시중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같은 음식 메뉴. 오히려 더 호화스러운 시중 식당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호텔 청구서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더 부가된다. 그만큼 비싼 까닭은 무엇인가?

호텔은 각종 서비스 시설들이 모여있는 위락의 도시적 집합체다. 이점이 근본적으로 숙박업을 주종으로 하는 여관이나, 요식업만을 하는 시중 식당과 차이다. 도시에는 주거와 상업시설과 위락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연결하는 길이 있고, 자유롭게 서성일 수 있는 광장이 있으며, 스스로 험없이 쉴 수 있는 공공 공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호텔 안에는 품위있는 숙박 요식공간 말고도 도시적 맥락을 갖는 가로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공적인 로비와 정원이 있어야 한다. 호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부분시설의 이용료 뿐 아니라, 호텔이 소유한 인프라 시설의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호텔 이용료가 비싼 이유다. 또한 특급호텔이란 공공적인 인프라 시설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호텔의 등급이리라.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리비라호텔은 개별적이고 상업적 프로그램을 밀도있게 실현하고 있지만, 공공적인 프로그램은 누락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부분시설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한 결과 복도는 최소화됐으며 로비는 축소되었다. 전면과 후면의 레벨이 한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로비가 두 레벨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변화를 만드 한데, 다분히 평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층과 이층을 연결하는 주계단은 비상계단 같이 옹색하게 처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매우 공공성이 큰 저층부 -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 를 시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주공간이 부재하게 되었다. 저층부에서 공공적인 주공간은 물론 인프라 공간도 발견하기 어렵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주어진 시간은 2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몇 달이 채 안되는 설계기간은 지하의 주차공간부터 시작된 구조체계의 한계 속에서 요구되는 모든 위락 편의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열하고 삽입하는데 만도 부족한 기간이었을 것이다. 이나마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배분한 것을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공공공간의 축소라는 프로그램이 건축주 혹은 건축가의 의도적 선택은 아닌가? 지방도시에서 호텔이란 아직 공공적 인프라 공간보다는 부분적인 단위시설들의

질만 보장되면 된다고 본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이는 단기적인 안목일 것이다. 현재 전주에서 리베라호텔이 최고급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최상일 수는 없다. 전주의 발전과 더불어 더 크고 호화로운, 혹은 풍부한 공간을 가진 호텔이 앞으로 들어설 것이다. 장기적인 눈으로 본다면, 리베라호텔의 건축적 경쟁력은 물론 상업적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관광지에 서는 리조트호텔은 급변하는 시류에 따라 일시적인 명성을 갖기 일쑤다. 리조트의 행태와 요구되는 시설의 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비즈니스 호텔은 경우가 다르다. 오히려 오래된 호텔들이 그 도시의 명소로 각광받고 가장 비싼 사용료를 받아도 당연시하는 것을 외국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모래 전통만 있다고 명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서비스의 질과 호텔 경영에 대한 고유한 노하우 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그 호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공공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리베라호텔의 도시적 생명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도시의 해석에 대해

리베라호텔은 전주 도심과 남원을 잇는 6~8차선의 큰 도로변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오목대를 비롯해 전동 헌육군과 전주향교 등 전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포진해 있다. 호텔 앞면 도로는 원래 전주역(현 시청사)을 출발하여 남원 여수로 향하는 전라선 철도가 깔렸던 곳이다. 전주시청 후면을 지난 남북로는 호텔 부근에서 큰 곡선을 그리며 남원 쪽으로 휘어 진다. 앞으로는 남북로가 뒤로는 전동 한옥군이 둘러싼 가운데 남북으로 좁고 긴 대지를 가진다. 역사환경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도 전주를 대표할 장소에 서 있다.

건축기가 중요시한 주변환경은 남쪽 오목대와 뒤편의 한옥주거군이었다. 오목대를 향해서는 남측 모퉁이의 객실 창을 열어 경관으로 끌어들인다. 뒤편 한옥주거군은 최근 한옥보존지구의 규제가 풀려서 앞으로 급속히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 전주의 역사적 집합적 명소가 사라질 아쉬움과 함께, 입자가 작은 주거지역에 대응해 고층부의 매스를 들로 분절시키고, 저층부의 입면을 3부분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저층부 앞면을 매시브한 벽면으로 처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뒷면은 많은 창으로 내어 표정을 달리했다. 앞으로 조성될 근린상가들의 분위기를 예상한 처리다. 물론 뒷면 저층부가 호텔의 관리와 서비스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적절한 처리였다.

호텔 건물의 위치잡기에는 의문이 있다. 건물은 앞면에 최대한의 전정을 만들고 뒷면 주거지역에 바짝 붙여 있다. 그러나 앞면 남북로는 충분히 넓어서 전정의 규모는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로에 바싹 붙여 세우고 주거지역 쪽으로 후정을 열었으면 도시와의 연계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앞면은 자동차의 스피드에 맞게 도시의 시각적 기념물로 존재하게 되고, 뒷면은 보행자의 스케일에 맞는 중요한 옥외 공공 장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현관 2층에 달린 케노피와 돌출된 캐스팅 바의 매스도 더욱 도시적인 오소로 환원됐을 것이다. 뒷면 주거지역과의 만남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매스를 분절하고 입면을 작은 입자로 나누었다. 하지만 뒷

면 도로에 너무 바짝 붙음으로써 좁은 인도는 응색해졌다. 또 앞으로 뒷면 도로가 자잘한 상업몰로 바뀔 것을 예상했다면, 지하 중층의 처리도 약간 셋백시켜서 상가의 표정을 수용할 수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선왕조 전주 이씨들의 본향, 그리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역사적 유구들이다. 따라서 전주에 세워지는 건물들은 이른바 '전통적 요소'에 대한 압력과 유혹을 쉽게 받는다. 옛 철도 역사에 세워진 전주시청사는 풍납문의 이미지를 차용한 패스티 쉬다. 그래서 남한의 시청사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애착을 갖는 건물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특히 한옥군이 밀집한 전동과 교동에 세워질 건물들은 한옥지붕에 대한 압력에서 해방되기 어렵다. 자세히 살펴보면 90년대 이 지역에 지어진 건물을 대부분이 압력에 순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리베라호텔이 적어도 한옥지붕을 씌우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도시의 건축물이 과거 역사의 흔적을 기억해야 함은 정당한 논리다. 그러나 기억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시의 지층을 만들지 못한다면, 건축의 생명력은 물론 도시적 생명도 단절시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기억들을 어설프게 재현하고 있는 건축들로 전주가 채워진다면, 적어도 20세기 후반의 전주의 건축사는 공백기가 될 것이다. 그 공백을 메꿔줄 건축의 하나로 리베라호텔이 기록될 것이다. 건축기는 이 호텔의 형태가 한국의 목가구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면 케노피가 한옥지붕의 형상을 추상화한 것이라고 부연하지만, 그런 배경설명은 심의용에 가깝다. 이른바 전통적 형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때만이 새로운 전통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호텔은 '전통적 요소 운운' 하는 변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전주적이며 충분히 새롭다. 전주로서는 큰 행운이다. 총 9층의 매스는 넓적하고 평평하다. 주변에서의 경관 확보나 인식성을 위해서 좀더 고층화하고 층면적을 줄여서 타 위형으로 세우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었다고 한다. 특히 저층부를 2층에서 마무리하다 보니 둔탁한 매스가 됐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결과가 더 전주라는 도시에 어울린다고 보인다. 이 지역, 아픈 바 백제계 건축이 가져왔던 매우 중요한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 전라지역의 지형적 평탄성은 수평적 건축물들을 만들어왔다. 평활한 대지에 밀착되도록 기단을 낮게 하고, 칸살이도 옆으로 길게 잡아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형상들을 추구해왔다. 경상도 지역의 수직적 건축들과는 대조를 이룬다. 비록 우연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리베라호텔의 수평적 형상은 이 지역 건축의 전통, 평지성'을 새롭게 구현한 하나의 가능성이다.

리베라호텔에서는 어떤 매력적인 내부공간이나, 강렬한 도시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어렵다. 같은 작기가 보여주었던 인터컨티넨탈호텔의 원형 아케이드나, 도시 환경과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모트레이에 쉐라톤호텔과 같은 도시적 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아하고 세련된 형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맞추어진 시설군의 배열, 상업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삽입된 작가의 목소리를 만으로도 건축가 김병현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김병현이 건축 설계를 대하는 태도는 자극히 합리적이다. 우선 건축주의 사업적 목적을 충족

시켜야 하고, 그 속에서 개념화시켜 나간다. 건축가의 과도한 욕심은 절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과 시공과정에서의 완결성을 추구한다. 깜짝 놀랄만한 새로움을 보여주기 보다는 하나 하나 성취된 텍토닉한 건축이 그의 이상이다. 그의 건축적 개념 속에서 전주 리베리호텔은 그다지 큰 흠없는 작품으로 자리매

김될 수 있다. 또 생경한 개념이나 이론에 사로잡힌 미완성 건축들의 치기애 비한다면, 질적으로 활신 풍부하며 전주라는 도시의 품위를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완숙한 경지에 들어선 중진 건축가에 대한 기대는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

On its program

The most capitalist activity of "buying" someone else's service takes place in the hotel. It is where people experience out-of-the-ordinary elegance, fully enjoying the reception which has been or will be paid for. A first class hotel, especially in a local city like Jeonju, puts more importance on its restaurants, cafes, saunas, banquet halls, and the nightclubs, than it does on its guest room facilities. The hotel becomes a symbol of high-popular culture and a stage for virtual experience. The Hotel Riviera Jeonju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a first class hotel in a local city. The basement's nightclub and the banquet hall of the first floor are quite spacious compared to the size of the 164 guest rooms. The restaurants and the cafe of the lower floors are elaborately designed to the inch, but the facilities present commodiousness and partial vistas. The banquet hall is easily dividable into two large and small rooms, and the corridor is wide enough to function as a reception space. Decorous interior designs help preserve the exquisite atmosphere.

Another factor that sets the Hotel's character is the subtle concern for service areas. The proper use of leveled site has prevented the rear service area to sink underground. The Hotel's management office, the kitchen, and the pathway for services that constitute this area, those in which other hotels are usually concealed in dark basements, are here fully developed into individually functional spaces. The office area has its own entrance, effective ordering of the paths connect the kitchen and the restaurants, and the locker rooms are equipped with high quality installations. These help the 200 employees to have self respect for their own works, which, though seldom recognized as such, is the bases for providing a good service. The architect seems to have fully understood the hotel's principal program as a market for refined services.

What c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a hotel and a motel? The plan of the guest room doesn't bear much difference - a twin bed, separate rest room, a TV set and a sofa compose a guest room. The interior decorations are not so different either. But the charges of the hotel are at least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motel. A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restaurant in a hotel and a regular restaurant? The regular restaurant may have the same menu and even provide better services, but it's the hotel restaurant that bills extra tax and service charges. Now how can this be explained? The hotel is an urban assemblage of service facilities. This forms the basic difference of the hotel from motels and restaurants where

the main concerns are lodging and food-serving, respectively. In a city, there are more than housings, industrial facilities and service facilities. There are roads that interconnect them, plazas to wander around, and public parks to take a rest. Likewise, it is not enough for a hotel to have graceful lodging and food-serving areas. It needs roads of an urban context, public lobbies and gardens. The guest of a hotel pays not only for the parts he actually uses, but also for the infra-facilities that supports them. This is why the bill of a hotel is so high. A first class hotel can be judged by the infra-facilities it posses.

Although the Hotel Riviera succeeds in the condensed organization on its individual commercial programs, it lacks to do so on the public programs. Emphasizing the role of the facilities ultimately diminished the lobby and corridor spaces. The difference of level between the front and rear should have given an ideal condition for a loft lobby, which was never realized. The main stairway that connects the first and second floors is reduced to the size of an emergency staircase. As a result, the most public realm of the Hotel - from the basement to the second floor - is without a major space that visually connects the various facilities. It is in need of a infra-space, also. But if we consider the period between its design and the completion of its construction, which is only 10 months, a time barely fit to arrange various facilities within the constraints posed by the basement parking lots, it can be said that this much is pretty successful.

But then again, couldn't it actually have been the intention of the owner and the architect to reduce this public area? Could they have thought that, in a local city,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individual facilities would be enough, without the concern for public infra-spaces? If so, it surely is a short-range view. Although the Hotel Riviera is the best in Jeonju at this moment, it won't be forever. The elaboration of Jeonju would be accompanied by the construction of more grand, extravagant hotels. The Hotel Riviera would then lose both architectural and commercial privilege over other hotels. Resort hotels in famous tourist attractions usually enjoy short-termed popularity riding on the fad. The requirements of these hotel's facilities and forms change rapidly according to the fashion of the times. But a hotel in a city or a business hotel stands on different ground. These hotels gain fame with time, and as we see in foreign cities, the hotels with the highest expenses are usually the old ones. But time alone doesn't make it first class. It's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the method of management achieved through experience that makes it the best. And the unique architectural space

also plays a big part. In these respect, the future of the Hotel Riviera in an urban context is rather dim.

On the analysis of the city

The Hotel Riviera is located along a grand road that connects Namwon and the center of Jeonju. It is next to various historical places that represents Jeonju, such as the Ohmokdae, Jeondong Traditional Housing Town, and the Jeonju Confucian School. The front road of the Hotel was a railway of Jeonra line that connected Jeonju Station (now the City Hall) and Namwon Yusoo. The road that passes the rear side of the City Hall draws a grand circle around the Hotel and heads for Namwon. This road forms the frontal boundary, while the Jeondong Traditional Housing Town limits the rear side, which together arranges the long and narrow site of the Hotel. It can be said that the site is both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important.

The neighboring elements that the architect chose to signify was the Ohmokdae in the south, and the Traditional Housing Town on its back. Guest rooms on the Southern edge of the Hotel open their windows towards the Ohmokdae. On the rear side facing the Traditional Housing Town, which could disappear rapidly with the dissolution of city regulations that prevented development, the Hotel's upper stories are divided into 2 masses, and forms of the lower floors are varied in 3 ways. This lower part, with windows, definitely has a different expression from the other side's facade, which is made of a big heavy plane. This satisfies its function as a service area, but also is a result of a thoughtful consideration of the architect on the neighborhood stores which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doubts, however, in the position of the Hotel within the site. It is placed in direct contact with the Housing Town, leaving vacant spaces on its front. The front, facing the grand road, is already expansive enough. I cannot help wondering why the architect did not choose to provide this space to its rear side, to the Housing Town, which seems more appropriate to the urban context. Grand mass of the Hotel viewed from the high speed automobiles passing the road should have provided a dynamic sight, whereas the pedestrians could have enjoyed a reduction of scale on its rear side. If so, the canopy on the second floor of the entrance and the projected bulk of the cocktail bar could have functioned more properly to the urban situation. The design of the Hotel's rear side is somewhere much more could be asked of.

What the city of Jeonju implies is that it is the home of Yi Family, founder of the Chosun Dynasty. It is a place where historical remains are relatively well preserved. A new building in this city is vulnerable to the pressures and temptations of tradition. The City Hall, replacing the old Jeonju Station, is a pastiche of Poongnab Gate. It is acknowledged as Korea's most beloved city hall by the people. In Traditional Housing Towns, Jeondong and Kyodong, the roof of the newly built architectures are

even more influenced by traditional Kiwha roof system. A close speculation would reveal that almost every building built in the 90s are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and conforming to tradition.

It is really comforting that the roof of the Hotel Riviera was not fashioned in a traditional way. It is logical that an architecture of a city should remember the remains of its history, but it does not follow that it has to be so burdened by tradition and history that it becomes impotent of forming new layers to the city. Architecture and the city would lose its vigor right at that moment. If Jeonju is to be filled with buildings merely imitating the old,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Jeonju, in the late 20th century, could be hollow. The Hotel Riviera is one of the buildings that fill that void. The architect explains the overall image and the canopy in terms of traditional wood structures and roof forms, but it may just be a tool to pass the city architecture reviews. Only those who break away from the constraints of traditional forms can truly create new traditions. It is a great luck of Jeonju to have this new addition.

The Hotel's plan, total of 9 floors, is wide and flat. It is said that there was an alternative plan to develop it as a narrow tower, for better recognition from the outside and better view from the inside. The final decision went for the flat plan, and by limiting the lower areas to 2 stories, its bulk became even more massive. But this is what makes the Hotel in harmony with Jeonju. It follows the rule of Baekjae Dynasty's architecture, to create flat, horizontal buildings on the plain areas of Choongchung and Chulla. To adhere closely to the broad land, bases were lowered and window frames were stretched horizontally. It is strikingly in contrast with Kyungsang region's vertical buildings. It may be an effect achieved accidentally, but the Hotel creates a new flatness in accordance with the vernacular tradition.

The Hotel Riviera does not offer attractive inner spaces or strong urbanist messages. The urban compositions seen in the architect's previous works - round arcades of Seoul Intercontinental Hotel or the close connection to the city in Sheraton Hotel - cannot be seen in this work. But graceful and refined forms, closely arranged layout of programs, and the voice of his own inserted into a commercial end justly prove the architect's competence. His approach to architecture is extremely rational. While meeting the owner's commercial ends, he conceptualizes issues within it. Too much self-will of the architect is avoided. And, most of all, he seeks excellenc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He does not aim for a quantum leap architecture that overwhelms the viewers. He instead finds his ideal in gradually achieved tectonic architecture. The Hotel Riviera would mark an average position among his works, but still would add to the elegance of Jeonju. It surely is something above the paper architecture of those who are obsessed with renewed concepts and theories. But my expectation of an architect reaching his ripening period can only be different from what he thinks of himself.

KJ빌딩

Building KJ

김희곤 / 홍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ee-Gon

도시에서 중소규모 상업건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업 건물은 주변의 컨텍스에 의한 같은 배색의 연장선상이어야 하는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차이점은 인정되지 않는가? 건축물의 특성과 아이덴티티, 건물의 서비스 기능 또한 시민을 향한 작은 무대는 될 수 없는가? 소규모 공연을 하는 작은 무대 관객과 무대가 동일선상에 놓이고 공감을 함께 하는 무대는 없을까? 그 무대가 위압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관객(시민)에게 돌릴 수는 없을까?

바로 이런 질문의 흔적들 사이로 가면서 “탈”이라는 언어적 매개체를 찾아냈다.

탈이라는 형태적 심리적 막 사이로 서로가 더욱 더 풍족한 대화를 형식에서 벗어나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부 기능을 확대하면서도 내부와 외부의 자유로움을 방해하지 않는 늘 자유롭게 서로 통하고 흘러다니는 건축을 찾고 싶었다. 종이처럼 가벼운 건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도시 인의 허상을 재 읊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근본을 다시 확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대지에 대한 해석, 사는 사람의 이상, 도시적 기능, 건물의 목표, 이와같은 요소의 결집으로 형태적 공간을 제안하는

과정을 놀 한정된 범위에서만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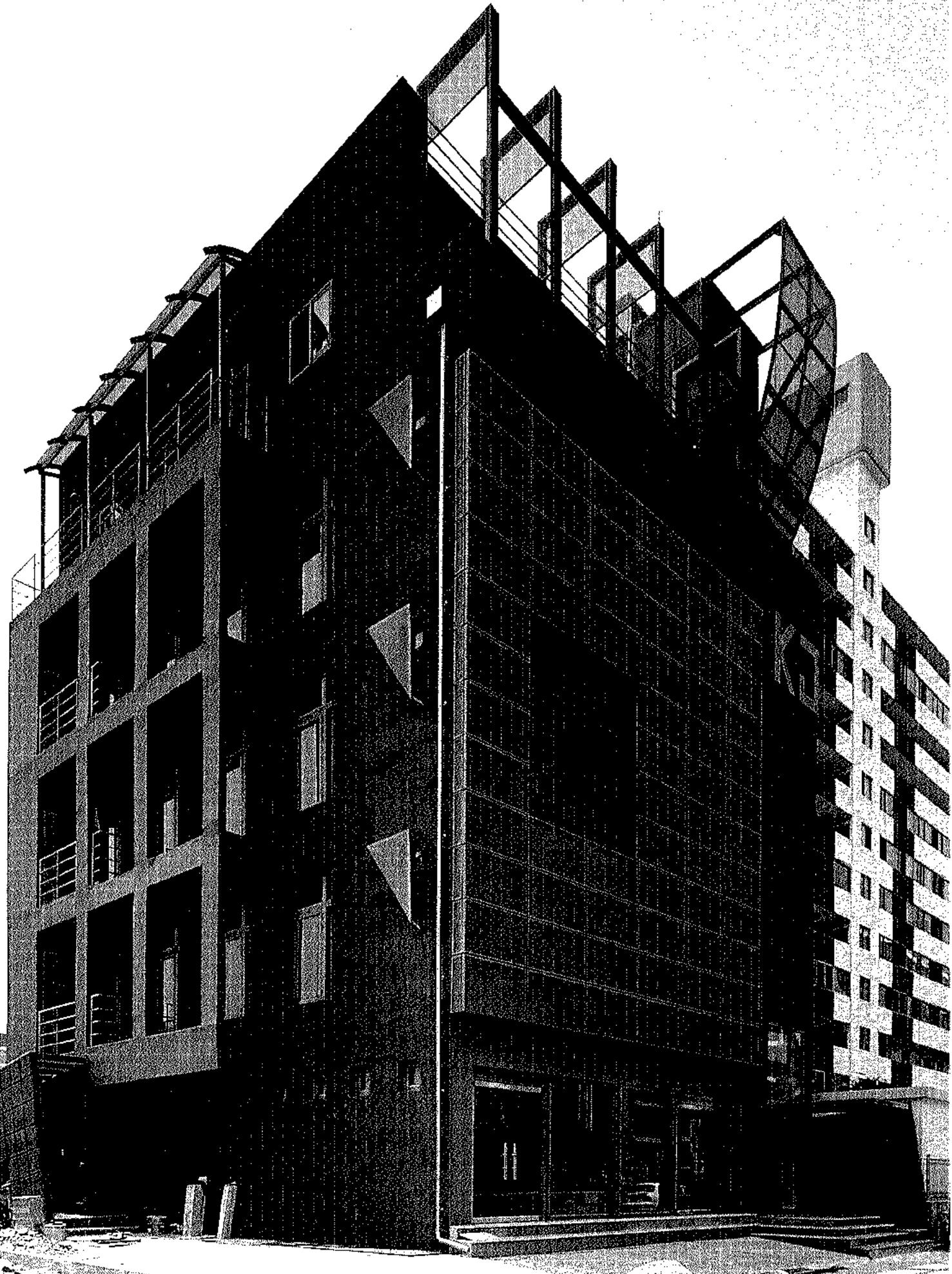
이 건물은 의류를 취급하는 건축주가 의류보관창고 및 전시·주거 기능을 포함하는 건물을 요구했다. 아주 제한된 공사 금액은 시공방법과 재료 및 마감에 대한 간결하고 분명한 정리가 필요했다. 대지에 잠재하는 장소성, 용도를 실은 기능, 주변에 대응하는 면적인 형태적 공간, 이와같은 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심적인 해법은 탈이라는 언어적 매개체를 중심에 두고 해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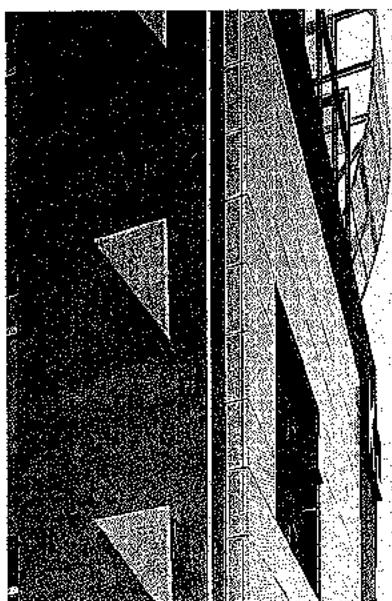
“탈”이라는 언어적 매개체를 형태적 퍼포먼스를 통하여 맞은편 APT의 시각이 서로 개방 공존할 수 있으며 서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양쪽에 하나의 막을 끼워 넣어서 서로가 부담없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탈의 퍼포먼스화라고 생각했다. 탈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자아, 구조상의 전면과 기능상의 전면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 이 건물의 중심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시공과정에 많은 대화와 인내가 수반되었다. 시중일관 건축가의 일관된 의지를 믿어 준 건축주에게 감사드린다. 감사할 사람이 많다. 제한된 여건 안에서 최선의 과정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좋은 협력자들이 생각난다. 지어지는 과정에 새겨지는 시간의 흔적은 땀과 인내를 담보로 그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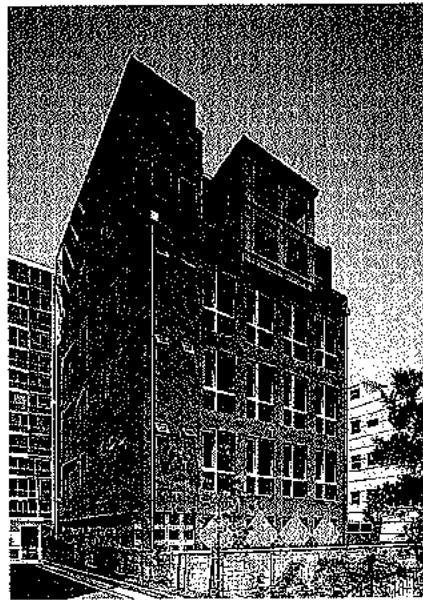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376-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설비	개별 냉난방 + 패널히팅
주요용도	근생 및 주택	주요내장재	석고보드위 페인트
대지면적	310.50㎡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페인트 + 펌칭메탈
건축면적	185.38㎡	건축주	김병곤
건폐율	59.7%	시공자	남송건설
연면적	974.95㎡	설계기간	95. 9~96. 3
용적률	266.60%	시공기간	96. 5~97. 5
최고높이	18.2m	계획담당	권오상, 원윤정, 박주환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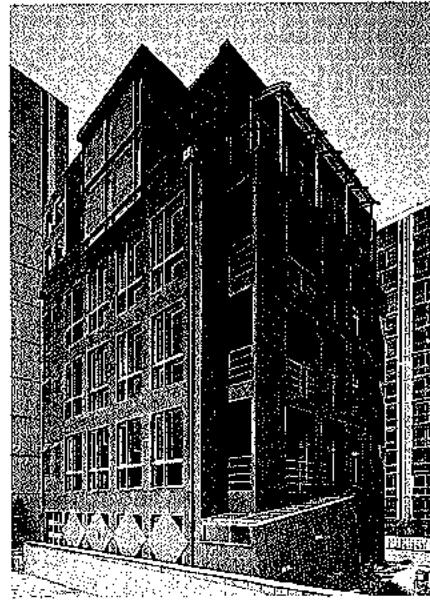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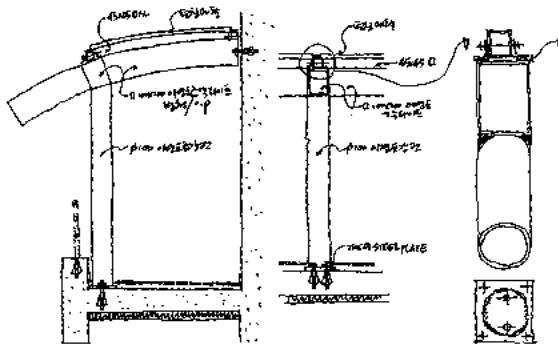
북서측 상부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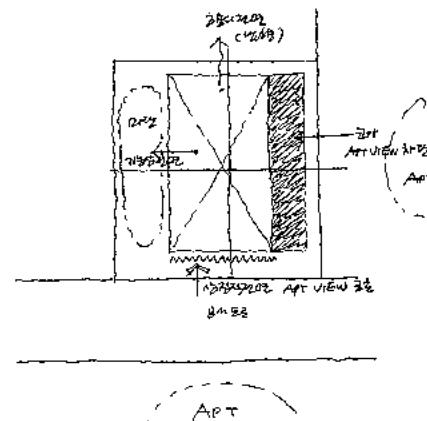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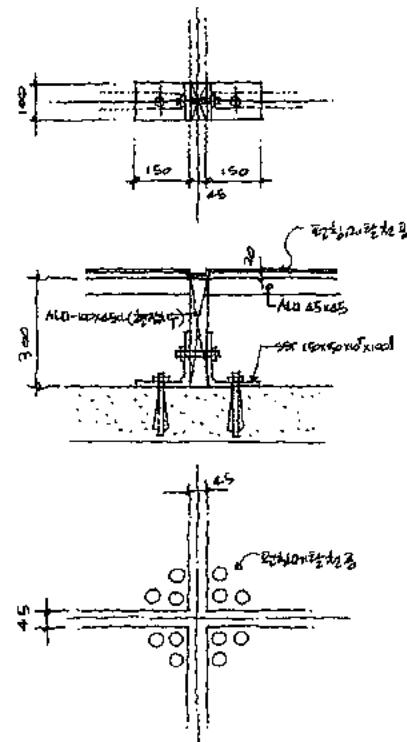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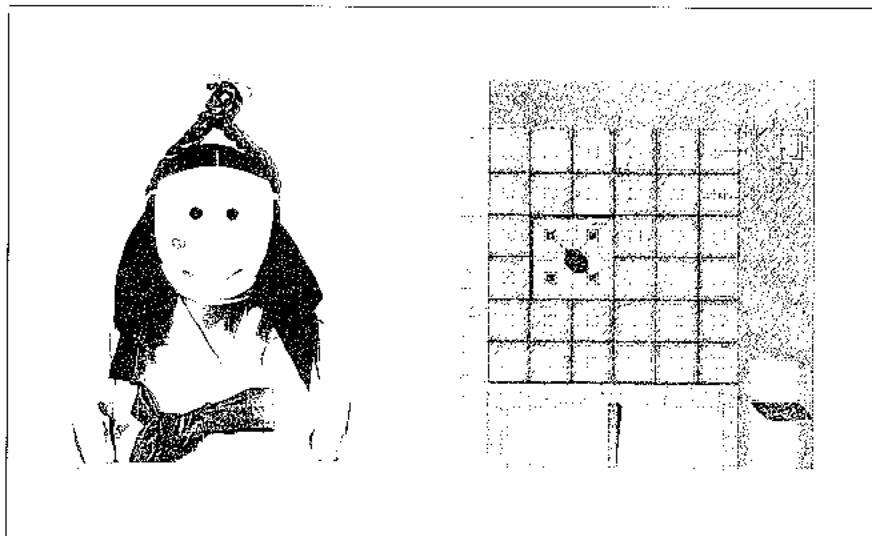
동측 발코니 철물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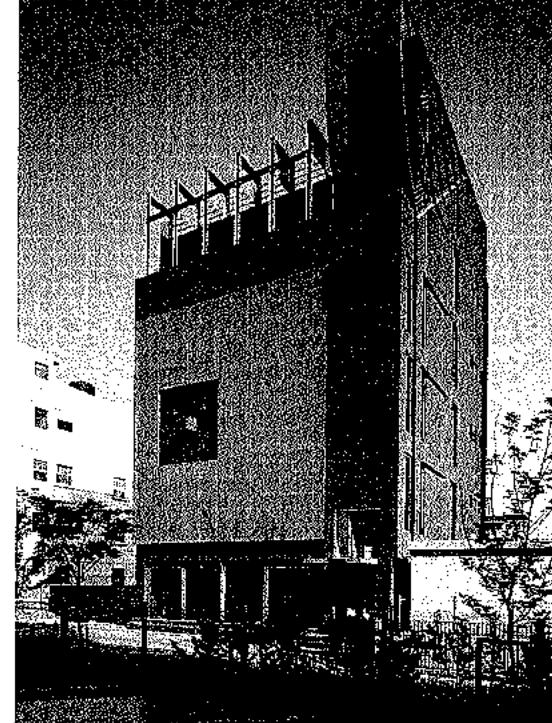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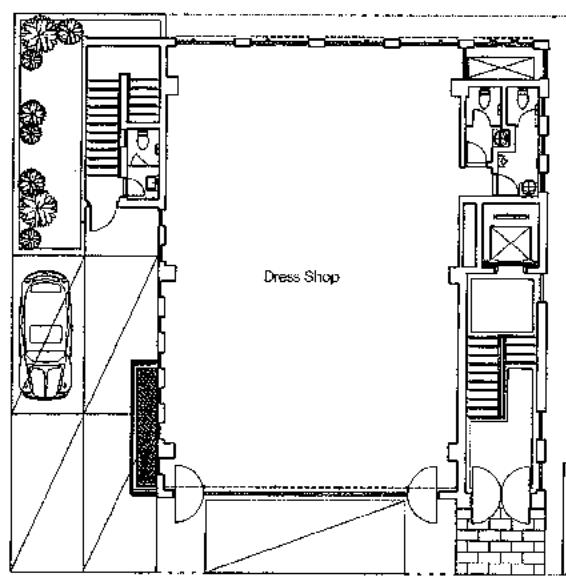
중앙부 입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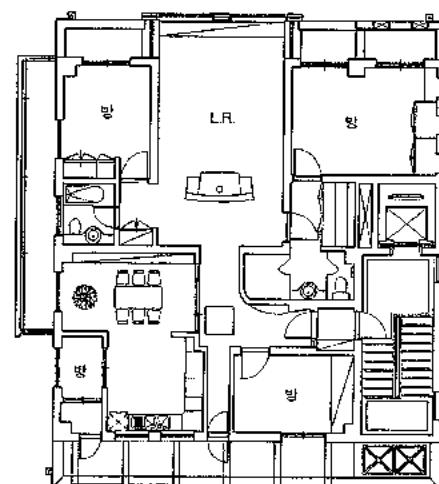
단과 탈의 형상을 이미지화 한 정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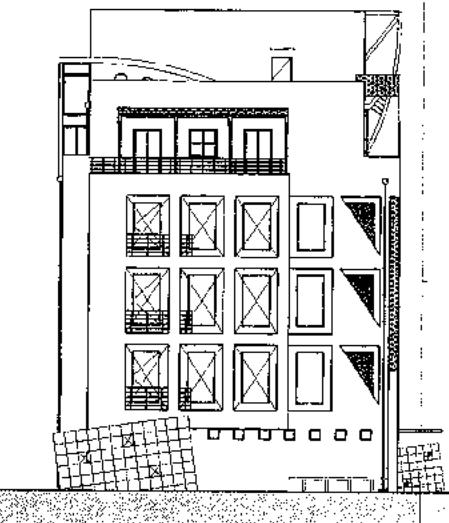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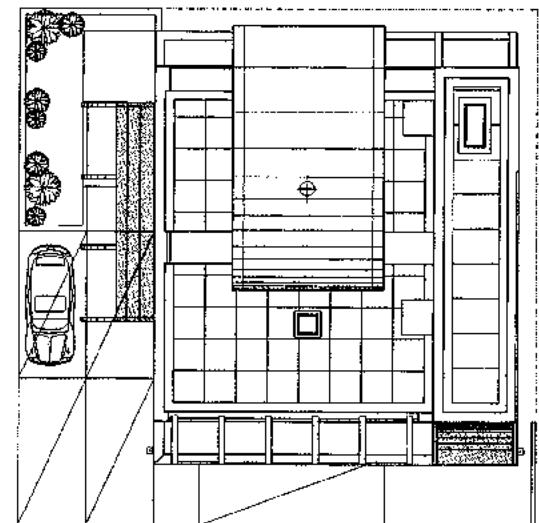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0 1 3 5m



서측입면도



0 1 3 5m
배치도

삼덕건축 사옥

Samdok Building

이주영/(주)삼덕건축사사무소+김원갑
Designed by Lee Ju-Young & Kim Won-Gap

대구라는 보수적인 도시에서 이 건물은 어느 정도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될 수 있었다. 미리 계획된 안에 의해 지하층의 골조 공사와 1층의 대략적인 프레임이 이미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설계에 적극 관여하고 그 이후로도 설계 과정에 있어 최대한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법규적 제약 등이 전제되었지만, 적어도 형태적 디자인에 있어서의 주관적 판단 기준만큼은 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결정될 수 있었다.

이 건물의 위치 역시 상당히 특별한 장소성을 지닐 수 있는 곳으로서, 대구시의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신천대로의 남쪽 끝 지점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앞산 순환도로의 시작점이 만나는 장소에서 용두골이라는 산자락을 뒤로하고 세워짐으로써, 신천대로를 따라 접근하는 방향으로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되는 시각적 초점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신천대로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하는 북동측의 입면과 보행인들의 주된 통행로를 전면에 접하는 북서측의 입면이 주요 파사드로 결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북측과 서측의 입면을 주된 파사드로 가지게 됨으로써 개구부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채광 등의 문제 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되었다. 결국 북동측의 파사드는 입구를 포함하는 정면으로서, 비스듬한 부지 형상에 맞추어 곡면의 유리 벽체와 캔틸레버식으로 상호 관입되는 육면체 매스 등 보다 다양한 매스들의 조합을 시도하였으며, 북서측의 파사드는 그러한 복잡한 매스들을 감싸주는 하나의 경계벽과 같은 입장으로서 공중에 뜬 거대한 독립된 벽체의 형상을 실현하려 했다. 그러므로 각각의 면은 일종의 기둥 부분과 상층부에서 서로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큐비스트 회화의 끌라주된 구성, 그리고 르코르뷔제의 빌라나 대슈탈 건축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독립된

면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파사드의 형태적 구성은 큐비스트 끌라주와 대슈탈적 색채들의 조합으로부터 모티브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서측 파사드의 연한 회색 벽과 일층부분의 노란기둥과 회색과 검정의 기둥들, 검정색의 독립된 벽체, 그리고 흰색과 빨강, 파랑 등 원색의 유리 프레임들은 이러한 모티브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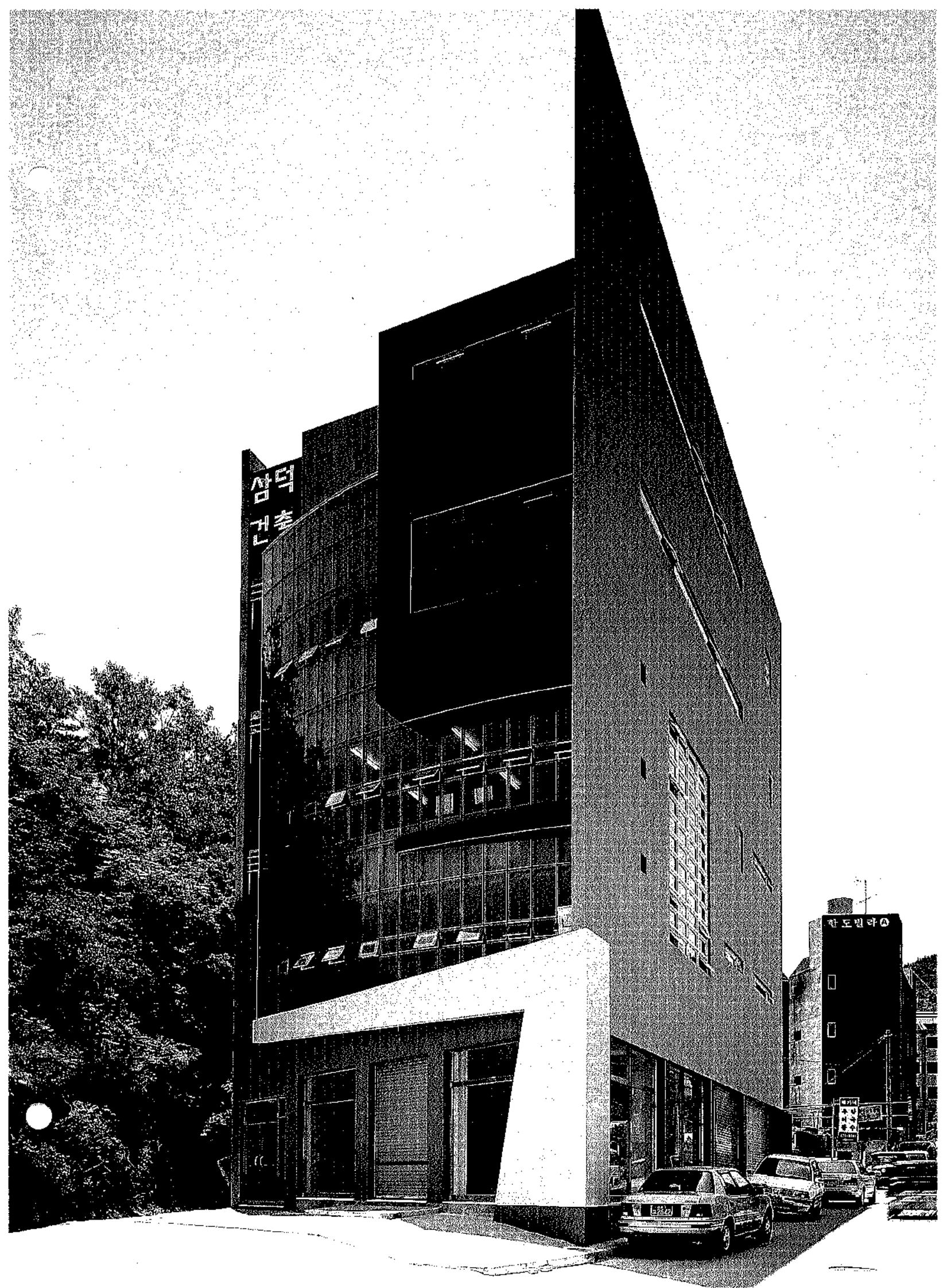
4, 5층은 노부부를 위한 주거로서, 특별히 1층에서부터 직접 엘리베이터에 의해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긴 거실 공간 속에서 식당과 분리시켜 주는 곡면의 유리블록 간막이 벽, 현관에서부터 직접 시선이 머물게 되는 노란색의 내부 계단실 벽과 그 옆으로 대비되는 흰색의 긴 벽체, 그리고 곡면의 유리블록 벽 뒤로 반쯤 투시되는 파란색의 원형기둥 등의 요소들을 통해 마찬가지로 독립된 면들과 색채들의 조합이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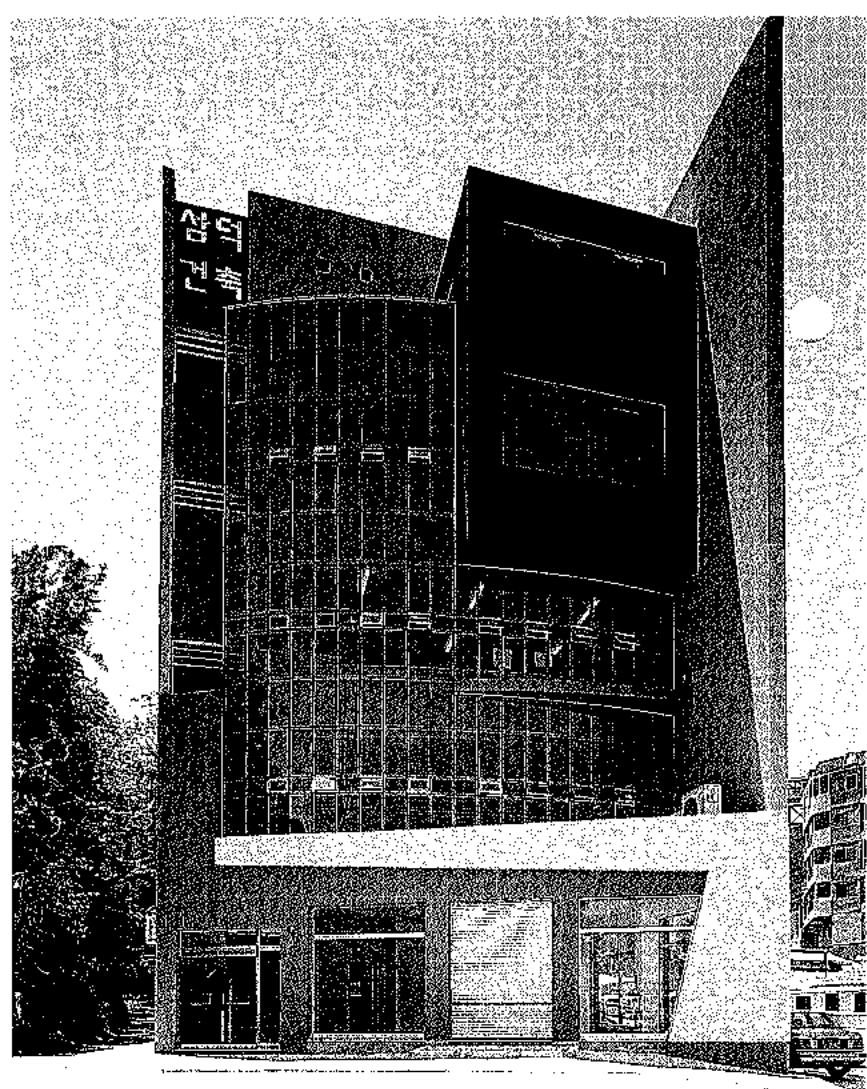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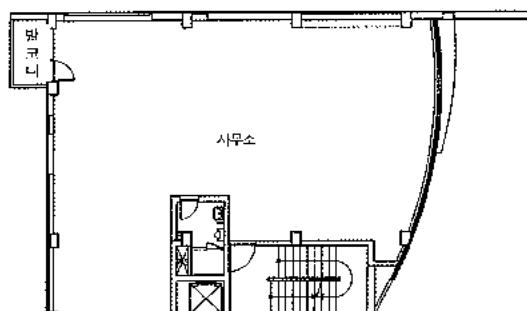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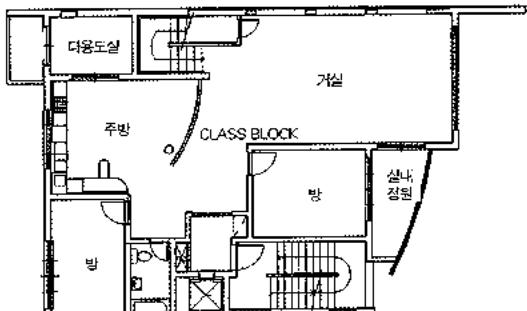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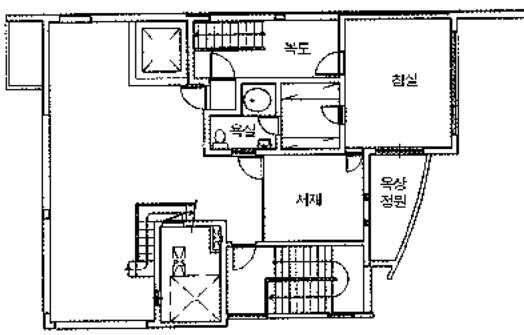
그러나 원래 내부 계단실의 상부 전체를 유리의 매스로 처리하여 계단실과 5층의 침실에까지 이르는 복도를 빛의 터널로 만들고,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하여금 노란색의 계단실 벽체의 주위로 집중적으로 투사시켜려던 계획은 시공 과정에서 상부의 작은 정방형 천창으로 변경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5층의 침실과 서재 앞의 옥상 정원은 각각 3개의 다른 레벨로 구획되었으며, 서재로부터 나가는 동선을 따라 파라펫에 뚫린 개구부를 통해 뒤쪽의 산과 마을의 풍경이 하나의 퍽처 프레임(Picture frame)의 효과로서 나타나도록 계획되었다. 서재로부터 전면의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옥상 정원 내부의 공간과 그 뒤의 파라펫 개구부를 통해 보이는 원경의 이중적 차경(Borrowed scenery)의 시각적 중첩은 또한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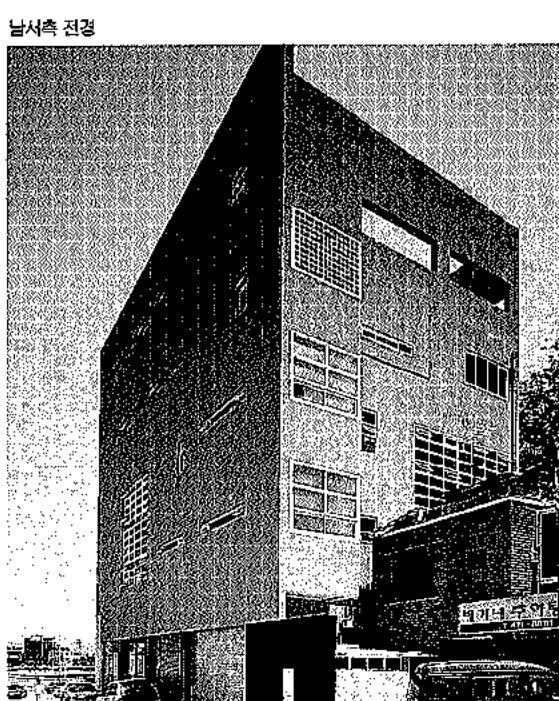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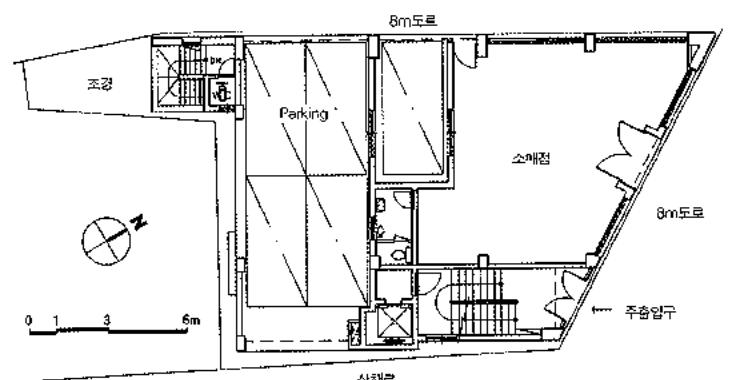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06-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면적	220.00㎡
건축면적	175.56㎡
연면적	828.59㎡
건폐율	79.80%
용적률	308.79%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19.10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
주차대수	5대
외부마감	드라이비트마감, THK18복층유리, 조합페인트
설계담당	이창근, 어재화, 신호리, 김명종, 권상문
시공자	동진주택/박종영, 김석배
설계기간	96. 7. 10~96. 9. 10
시공기간	96. 9. 21~97. 5. 29





북서측 전경



삼성 산청연수소

Samsung RESTRA(Resort & Training)

사무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 Engineers

삼성 산청연수소는 지리산 중산리계곡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과 남명 조식선생의 서원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일치되는 교육과 휴양의 복합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 건축개념은 한국 전통건축의 조형적요소와 공간개념 및 21C 최첨단 기업의 Image를 혼합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주출입구의 Canopy부분과 식당 전면의 열주는 전통건축의 솟을대문과 회랑의 열주를 혼합화한 것이며, 후생동 교육생 휴게실의 S.P.G System 및 후생동 Lobby와 교육동 중정의 천정은 21C 중공업의 Image를 표현한 것이다.

건물내부의 공간은 자연과 호흡할 수 있도록 Open Space 및 개방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사용자 위주의 동선계획을 구축하는 동시에 복합시설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 시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동공간의 적절한 조화와 분리에 힘썼다.

대강당 상부의 Down wall은 천장의 직사광선을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변화시켜 극적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며, 원형의 Open'g은 광선이 대강당 외벽에 투사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중정부분은 전통 조경요소중 소나무, 돌, 물 등을 현대

건축재료인 유리와의 조화를 통해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 것이며, 교육동과 후생동 전면의 건축조명 및 중정의 광섬유에 의한 연출은 야간에도 시각적인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동의 각 세미나실, 실습실 및 중강의실은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현과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산업 교육체계의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소강의실 및 분임토의실은 교육 보조자료의 획기적 전환에 대응한 교육장 개념을 실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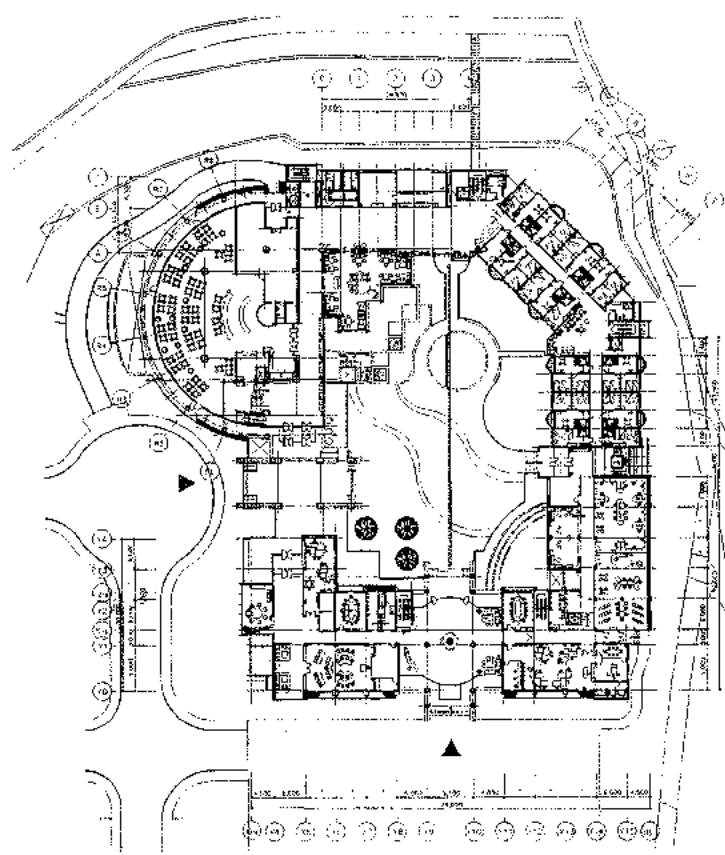
정화조 System은 주위의 자연환경에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부 슬라브를 Open하여 온실을 유치하는 동시에 냄새가 없는 자연정화법을 도입하여 자연 친화시설로 유도하였으며, 방문객에게 항상 Open하도록 하였다.

중정은 단순히 건물에 둘러싸인 중정이 아닌 Highline의 변화와 개방감확보 그리고, 불거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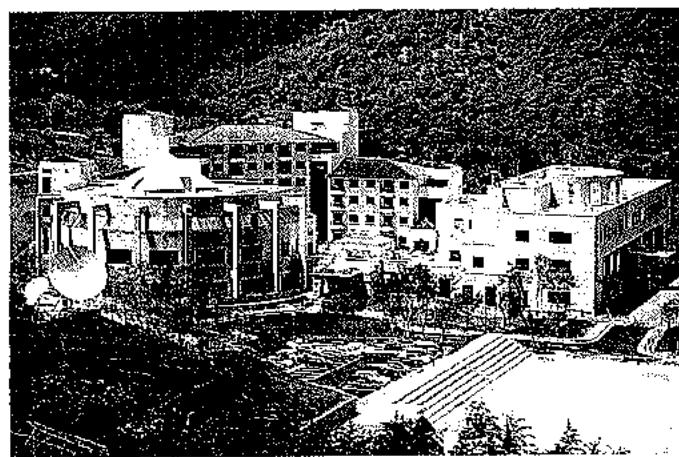
소나무와 돌, 물, 유리를 통해 전통조경의 현대화 작업 및 조형적 연출을 시도하였으며, 교육동 Lobby에서 출발한 광섬유의 수직축은 숙소동 벽에서 위로 상승하며, 바닥에 점점이 박힌 광섬유의 불빛은 하늘의 별빛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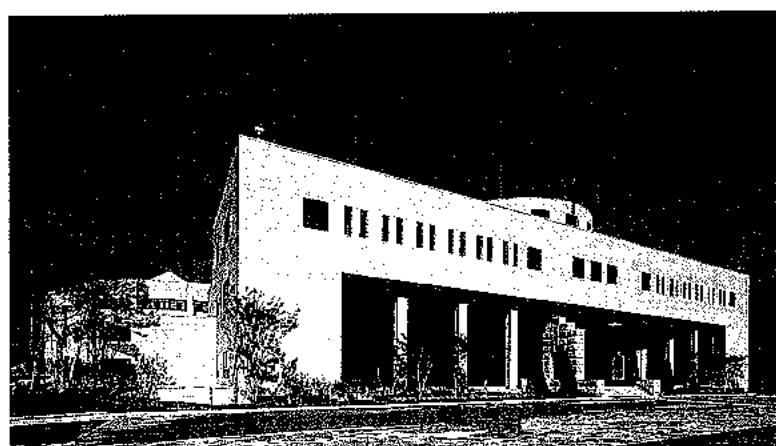
위 치	경남 산청군 시청면 내공리 596번지외 11필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지 역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설 계 팀	건축 - 한상록, 강선철, 박봉규 전기 - 김세영 설비 - 이민우, 배동호
지 구	시설용지지구	구조	금동성, 차병주
대지면적	47,401m ²	인테리어	정용원, 김덕훈, 신지아
용 도	교육, 연구시설	감 리 팀	건축 - 김창국, 박봉규 전기 - 정광호 설비 - 김희일 인테리어 - 김덕훈
건축면적	5,892.89m ²		
면 면 적	22,847.50m ²		
건 폐 율	12.43%		
용 적 률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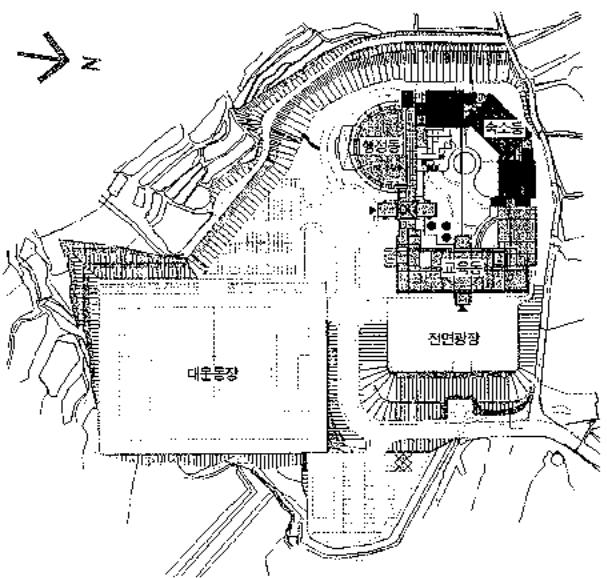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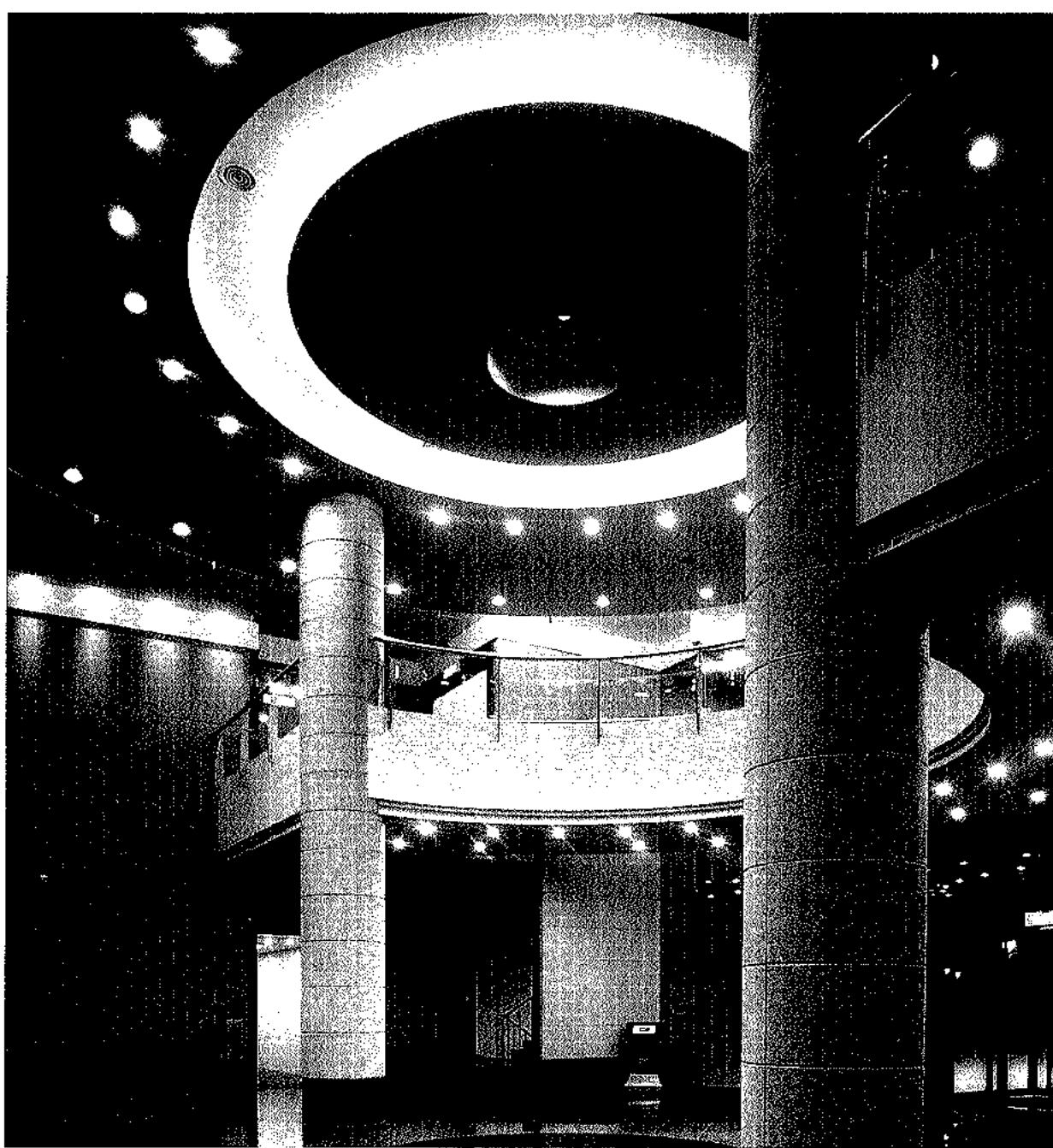
동측에서 본 교육동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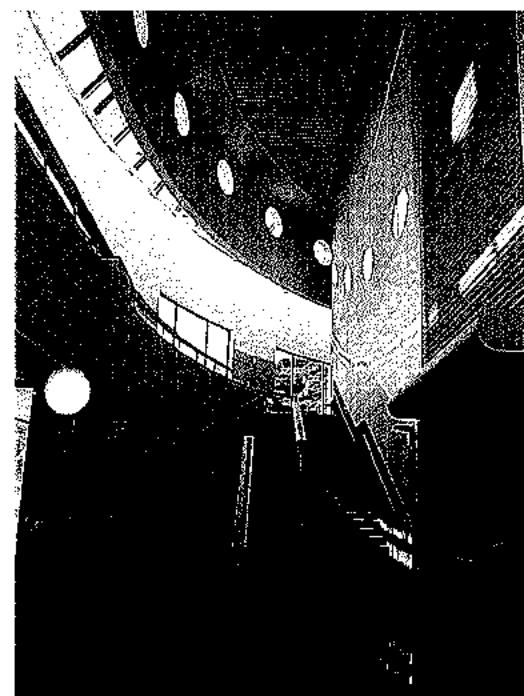
교육동에서 본 행정동과 숙소동(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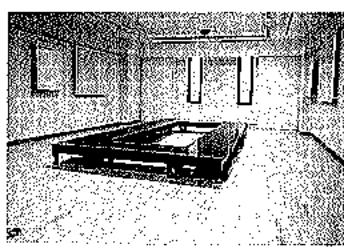


교육동 중앙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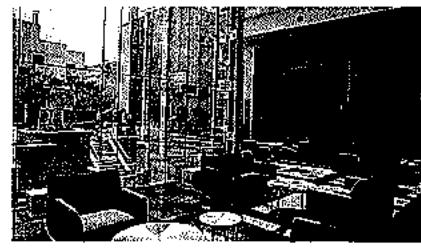
대강당 진입계단실(식당, 행정동)



중정 마경



분일토의실



숙소동 1층 라운지



식당동 전면 통로(홀)

도봉산 지상 정거장

Tobong-Mountain Station

오기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 오
Designed by Oh Ki-Soo

건축이 자연과 이루는 조화는 좋은 건축이 될 수 있는 조건중 하나이다. 이 역사는 국철 도봉산역과 환승의 기능을 가진 지하철 7호선의 시점 및 종점으로 아름다운 경관의 도봉산과 소요산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디자인의 주안점은 산과의 조형적 조화와 수려한 경관, 그리고 환승시의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조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외관으로부터 디테일까지 일관하고 있다.

특히 피라미드형의 지붕에 7호선 구간의 각 역사에 쓰인 로고 색을 순서에 따라 채색하였고, 상부 오프닝은 차량 진출입시 생기는 기압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 준다.

상부 오프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연광과 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봉산과 소요산의 풍경은 이 정거장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라 하겠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 유원지 앞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도봉산국립공원지구

건축면적 5,538.10m²

연 면 적 6,561.39m²

용 도

역사등급	승강장형식	차량편성
특금	상대식	8량
1밀어옹인월	환승호선	선형조건
204,461명	경원선	직선부+곡선(R=400m)

구 조 철골조+RC조

최고높이 19.25m

외부마감 스톤스프레이, THK 16mm 복층유리
(지붕 : 알미늄 복합패널)

구조설계 서울구조

설비설계 대양설비기술단

설계담당 오웅환, 정창교, 정옹욱

시 공 자 한신공영(주)

설계기간 1990. 8~199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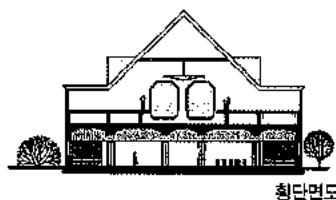
시공기간 1994. 7~199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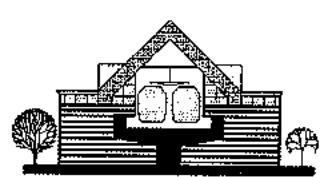
내부



로고색 조형들이 보이는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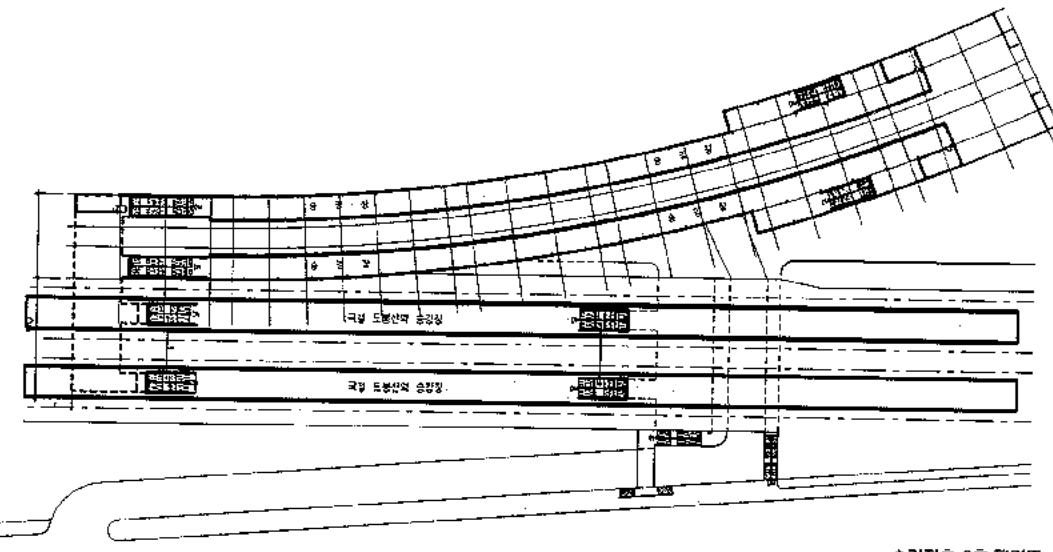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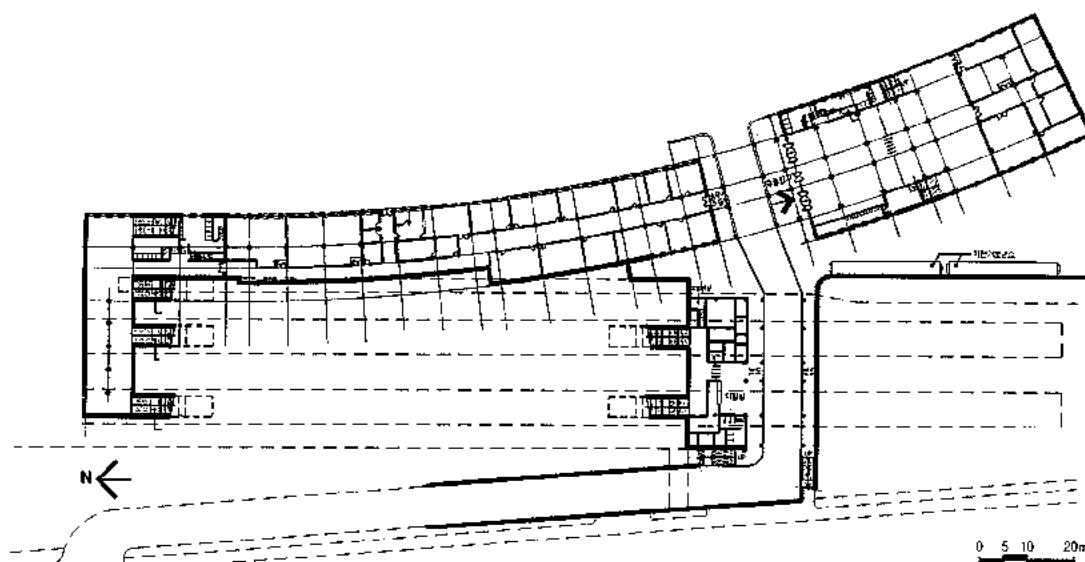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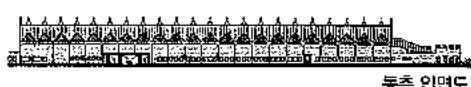
도봉산을 배경으로 한 역사전경



승강장층 2층 평면도



대합실층 1층 평면도



동측 입면도



종단면도



서측도로에서 본 전경

내외건축사옥

Naewoe Architects Research Co., Ltd.

배태현 / 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

Designed by Bae Tae-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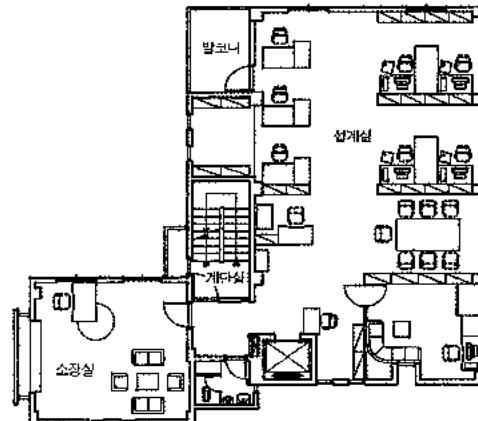
이 대지의 주변 여간을 볼 때 과거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점차적으로 상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면 도로이며, 일반주거지역인 관계로 규모면에서는 대형화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조형물로서는 Image Maker로서의 계획의도를 표출할 수 없다. 또한 주변 도로변 건축물의 획일적인 모양을 탈피한 개성있는 조형물로 부각시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면도로지만 개성있는 거리, 아름다운 거리 형성에 조금이나마 기여되길 희망한다.

소규모 건들이지만 Box형의 전형적인 형태를 탈피하고자 일조권 제한을 이용한 Mass분절의 디자인 효과를 살렸으며 전면이 서향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구부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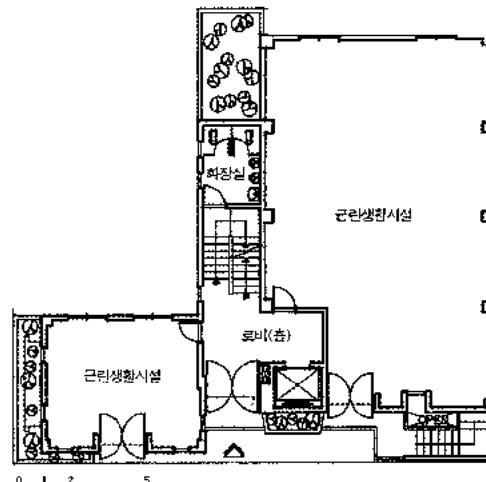
이 건물의 마감인 노출콘크리트 표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각층 바닥보 부분을 망치쓰아내기로 표면처리하여 띠를 형성시키므로써 또다른 질감의 표현을 시도해 보았으며, 콘크리트 노출면을 건물내부(계단실 및 화장실)까지 도입 연장시켜본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하겠다.

기능면에서 보자면 1층 소매점의 Show Window가 다소 폐쇄적이고, 또한 중규모의 Office건물에서 다소 변화된 Core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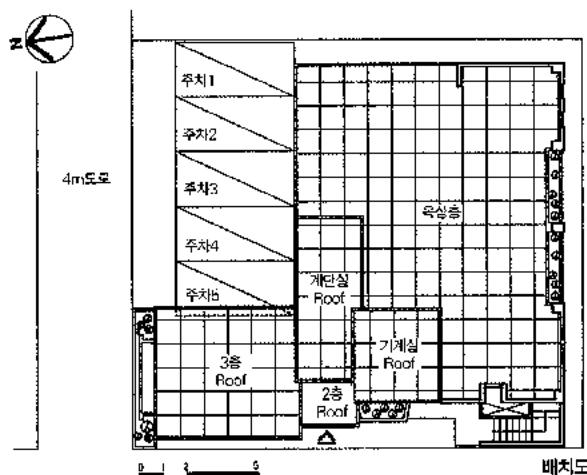
단지 여러 여건상 녹지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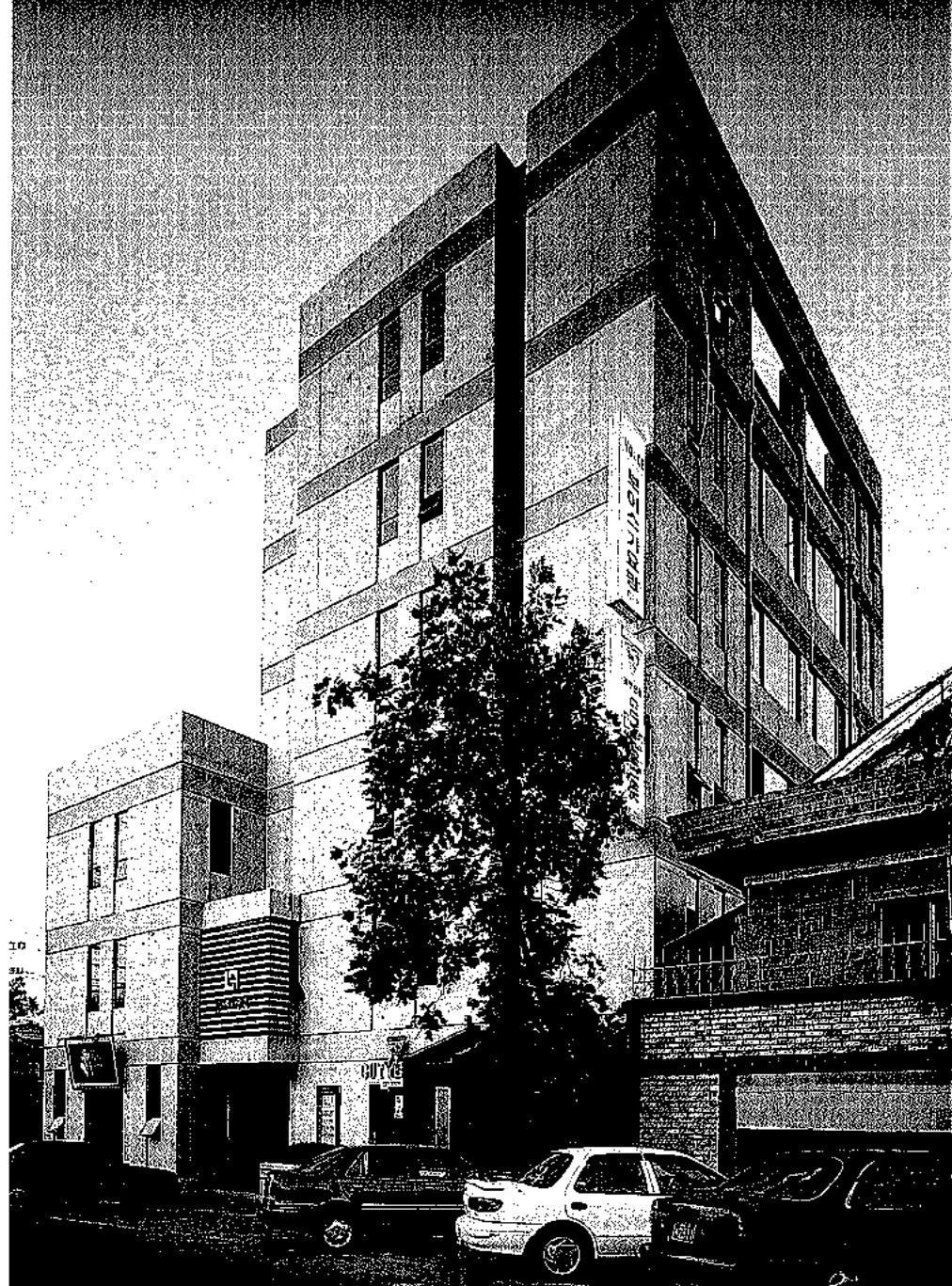
배치도

건축개요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88-4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26.60㎡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	191.73㎡
연 면 적	984.35㎡
건 폐 율	58.70%
용 적 률	253.82%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창 호	12mm 그린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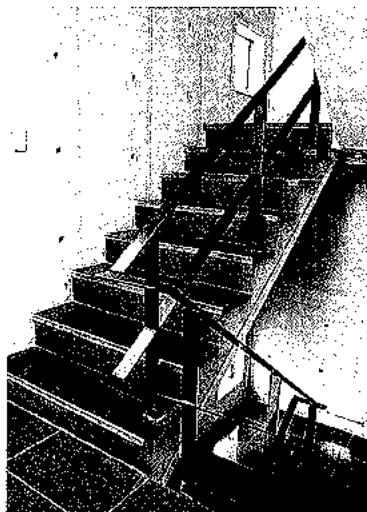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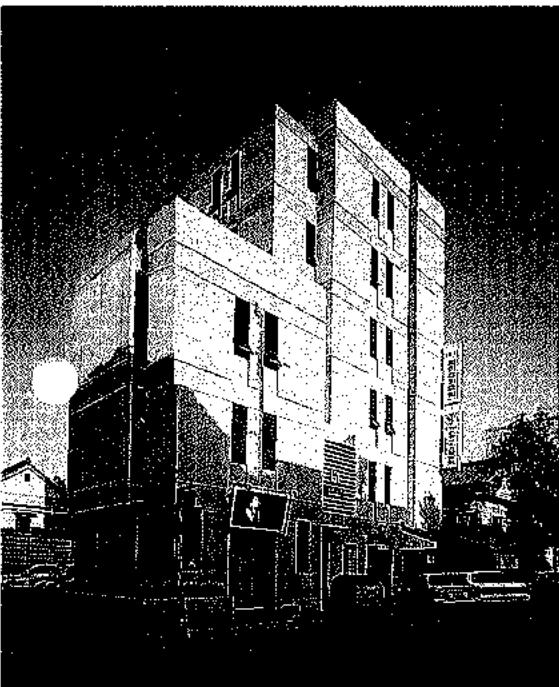


주출입구



남서측 전경

북서측 전경



계단실 1



계단실 2

춘원당한의원

Choonwondang Oriental Clinic

강철희 · 심상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 상
Designed by Kang Churl-Hee & Shim Sang-Chul

이 건물은 강북도심임에도 도시화의 부정적인 면을 가진 혼잡·불량한 주변환경속에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오랜동안 기업(家業)의 터로서 유지되어온 내력과 명성의 계승이라고 하는 건축주이자 한의원 원장님의 시명감과 외지에 의해 실현되게 되었다. 파고다극장길에서 차 한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골목길 막다른 곳에 위치한 이 대지는 기악없는 주변의 개발여건에 의해 계획상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했다. 건축주의 노력에 의해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이 건물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치계획

부지의 형상은 폭과 깊이가 비슷한 비례이기는 하나 경계가 불규칙한 모습이며 현재는 진입방향 전면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한 기준 조건에 따라 진입부와 주 시각대상면이 결정되게 되었다. 일반상업지구로서 전면 및 양측면이 도시설계 및 건축법에 의해 상당부분 도로에 편입되어 요구되는 공간을 구성하고 외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계획의 관건이었다. 따라서 전면동축의 녹지조성과 서측 드라이에리어 부분을 활용하여 대나무수림을 조성하여 내외부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후면에 서비스동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건축계획

평면계획에서는 1층 입구에 대기홀을 중심으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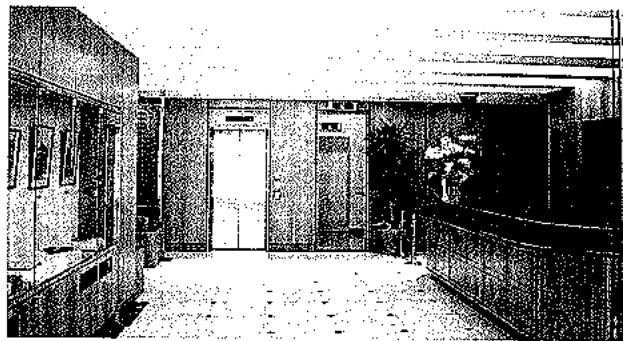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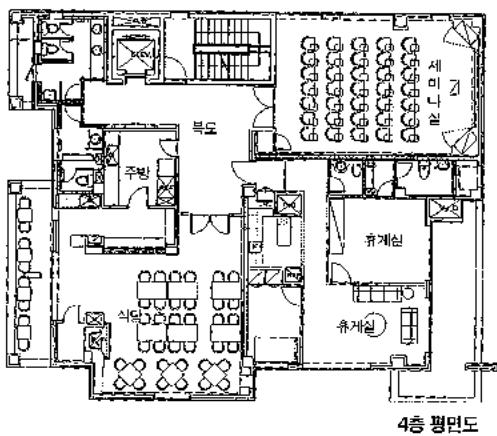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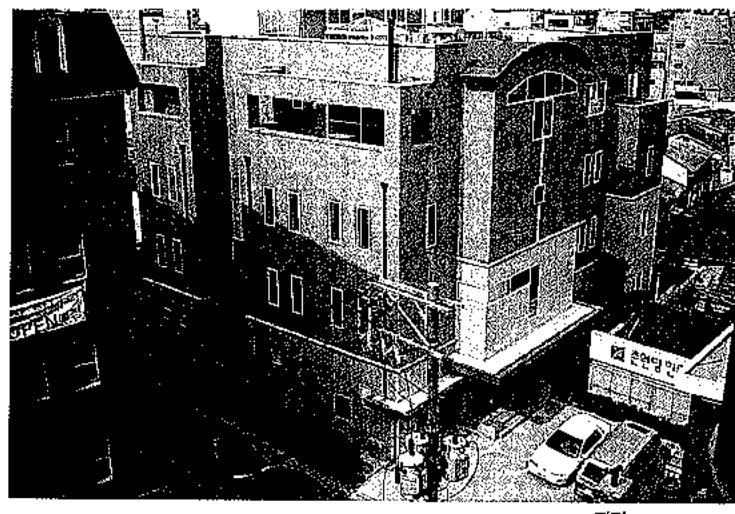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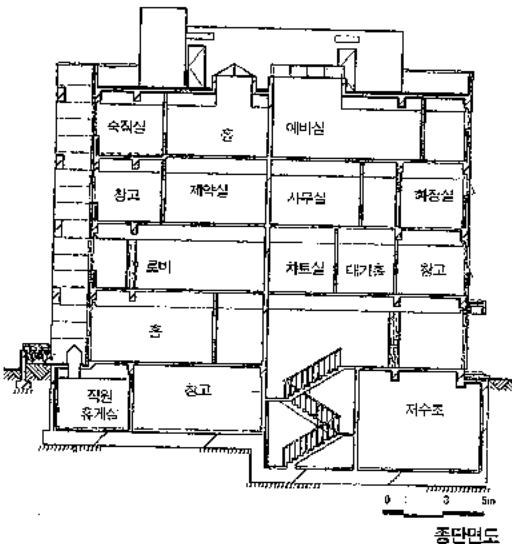
데스크와 계단실, 엘리베이터 등과 측면벽을 이용한 가업의 약사(略史) 전시면을 구성하였다. 한의원의 기능이 예진과 본진, 그리고 침구공간과 통전, 약제실, 약제창고와 관리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되므로 이 의원도 본진과 처방을 하는 원장실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1·2층은 예진을 위한 부원장실과 침구실, 차트실, 그리고 대기홀이 중앙의 관리서비스코어를 중심으로 L자형으로 배치되어 각실은 외부와 접하도록 하였고, 3층에는 제약실과 탕전실, 제환실, 그리고 약창고 등이 구성되어 다른 층과 독립되도록 하였다. 4층에는 40인 정도를 수용하는 세미나실과 직원을 위한 샤워, 틸의, 휴게실 등이 배치되어 각 층은 이용빈도, 외부와의 관련성, 동선 등에 의해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층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놀이공간을 배려하였다. 설비면에서 1·2층이 중앙 서비스코어를 중심으로 복도·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공조설비와 3층 탕전·제약실의 배기가 고려되었고, 탕전실의 기기단 전기용량을 감안한 전기용량의 확보와 배분이 요구되었다. 실내의 분위기를 온화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마감재는 목재를 위주로 하였고 중앙홀이나 대기홀 부분을 밝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톱라이트 및 대형개구부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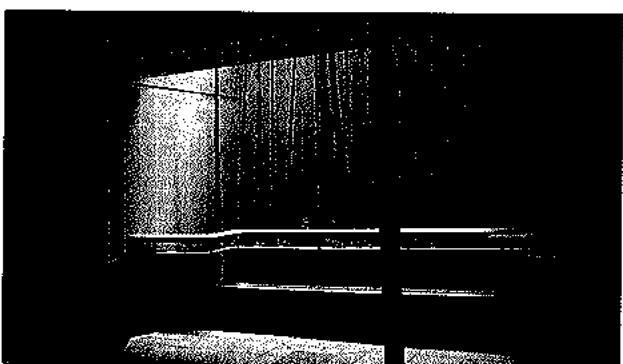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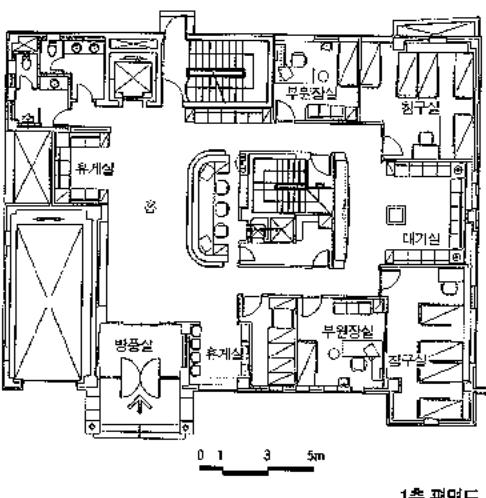
외부에는 적갈색 화강석으로 마감하여 대나무 등으로 조성된 녹지와 함께 이 의원이 품고 있는 지속성과 친근감을 가진 외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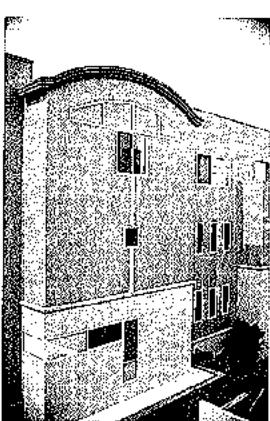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77-2와 6필지	외부마감	화강석+드라이비트+컬러알미늄 창호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지구	설계담당	김성호, 이학기, 박영식, 현정권
대지면적	554.0㎡, 건축면적 314.73㎡	인테리어	(주)코아인테리어
건폐율	56.81%	구조설계	비전구조
용적률	215.40% 규모	기계설계	건화설비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전기설계	(주)명진전기
용도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시공회사	(주)칠화건설
조경면적	62.92㎡	설계기간	1995. 11~1996. 5
주차대수	수평순환식 기계주차 14대(법정 12대)	시공기간	1996. 6~1997. 4



1층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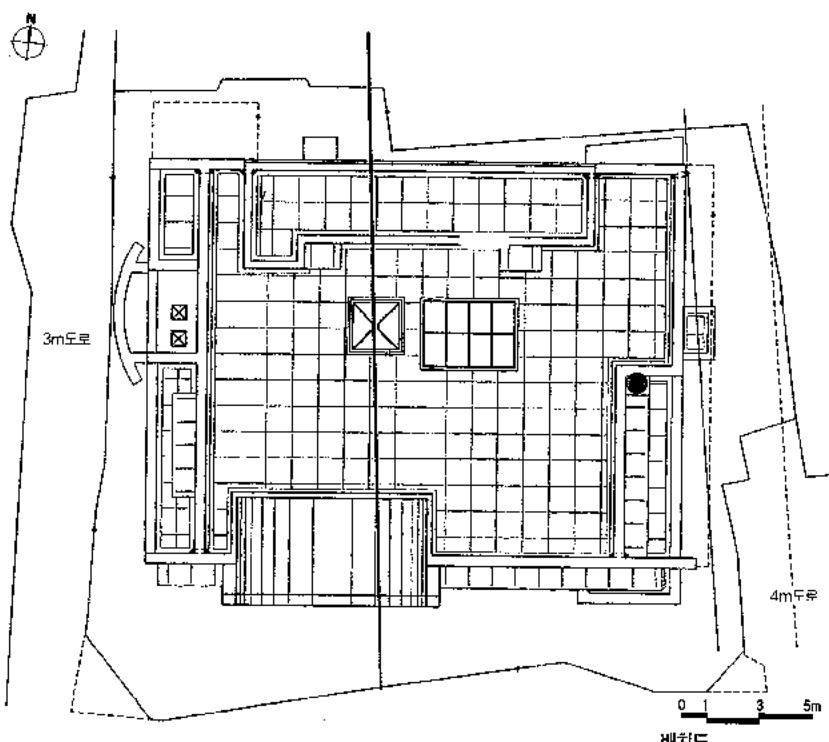
직원휴게실



벽면상세



2층 접견실



배치도

부평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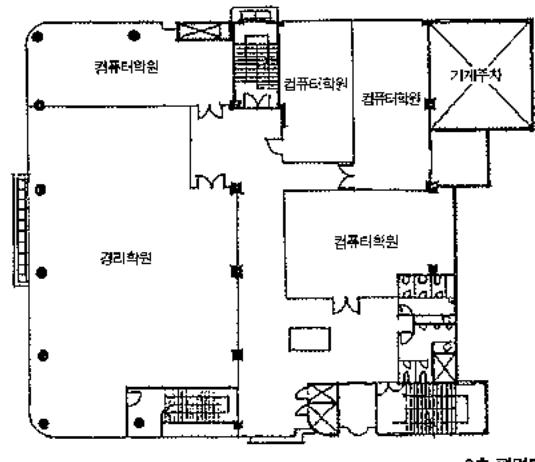
Bupyong Nonghyop

김영석 / 극동영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Seok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96번지에 사면에 35m, 15m, 10m, 6m폭의 도로를 갖는 하나의 블럭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 대지로서 주위에는 소규모 필지로 구획된 신홍도시로 손색이 없다. 이 건물 금융업소와 슈퍼마켓 등의 균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장이 되는, 충분히 만족 할 장소가 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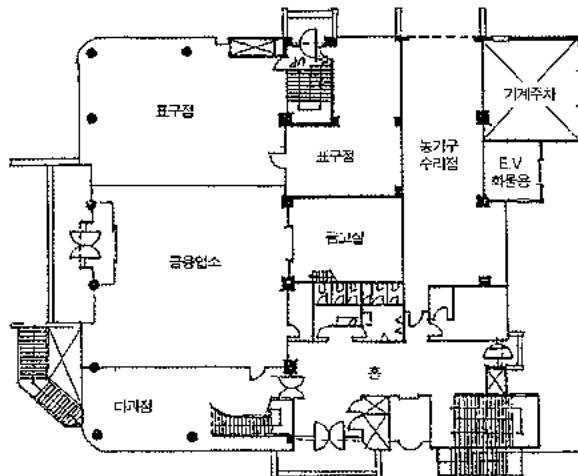
35m 도로에 건물 전면을 접근시키고 북쪽 뒷면의 소규모 주거 단지쪽에는 주차공간과 주민의 이용이 많은 출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2층 평면도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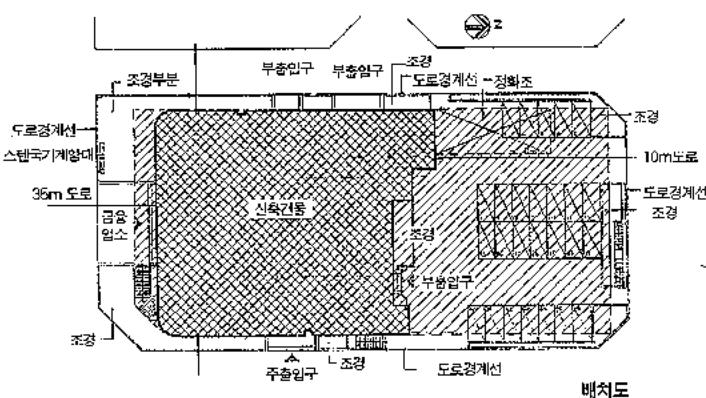
지하1층은 슈퍼마켓, 1층은 금융업소, 2, 4층은 학원, 3층은 표구점, 5층은 식당을 두어 수직동선으로 각층의 동선을 단축시키고 건물 내부의 간마이는 L.P로 처리하여 용도변경시 용이하도록 처리하였으며 건물 구조 계획에도 심도있게 처리하였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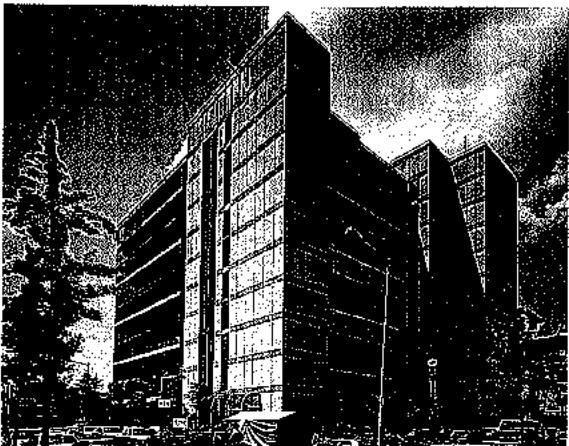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9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2,390.30m ²
건축면적	1,038.81m ²
연 면 적	6,857.40m ²
건 폐 율	43.46%
용 적 률	206.74%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외부마감	파스텔 복층유리, 알미늄 패널
시 공 자	동일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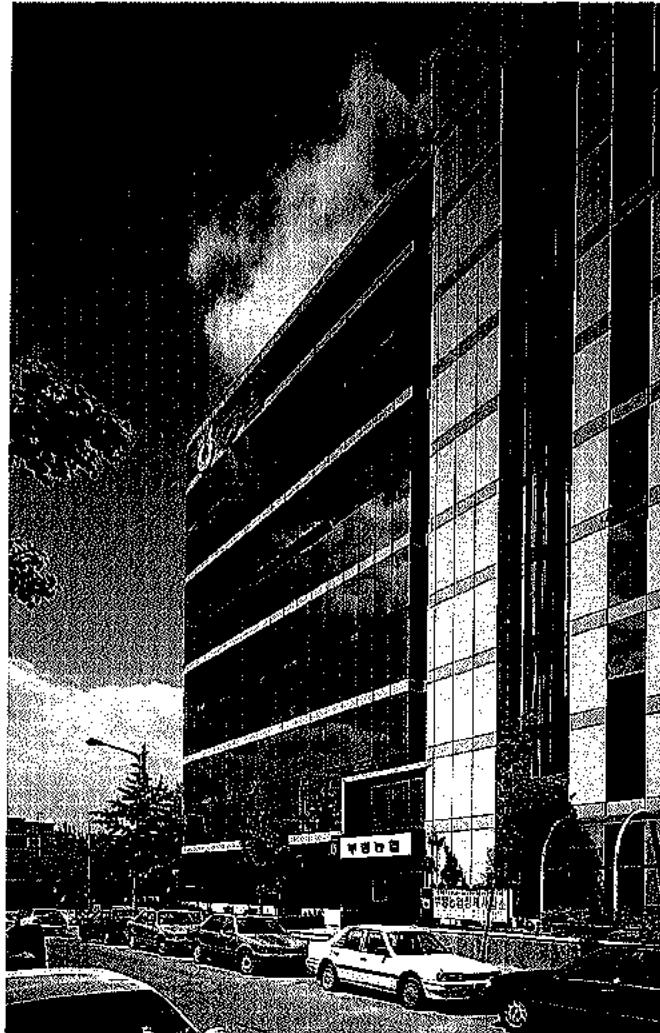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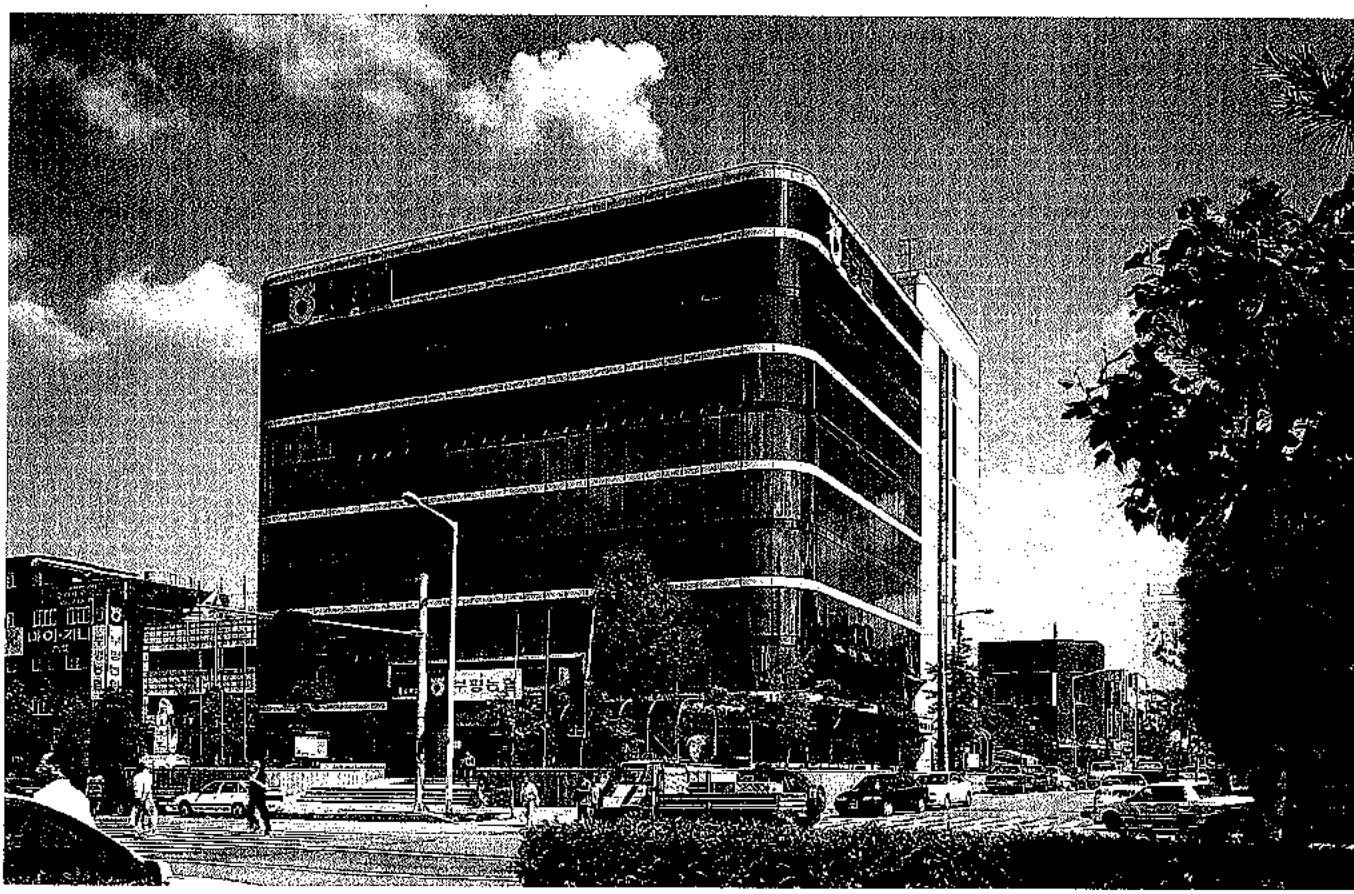
1층 영업장 내부



북서측 전경



북측 벽면 상세



북동측 전경

15年의 유희

Amusement of 15 Years

류익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by Rhyu Ick-Hyun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년여의 사무실생활을 잠시 쉬고 프리랜서격으로 참여했던 독립기념관 건립위원회일이 끝나가는 83년 봄, 그간 모셨던 김소장님께서 마침 재미있는 현상설계가 있으니 참여해 보라는 권유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대졸초년에 잠깐씩 참여한 경우를 빼고는 현상설계를 접해 본 일이 없던 참에 한다면 방까지 빌려주시겠다는 호의까지 있고 보니 의욕이 솟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는 이미 참가신청이 끝난 시점이었지만 해외건축기에 한해 참가신청을 늦게 받는 규정에 의해 마침 귀국해 계시던 선배님명의로 어렵게 현상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그동안 무엇을 믿고 건축을 한다고 해 있는지 의아할 만큼 막연한 상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체계화된 논리는커녕 그만큼

쌓여온 건축계의 자산에 대한 지식도 걸핥기 뿐이었던 채 막연한 자만과 의욕에 내몰린 한판 미당이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청춘은 오히려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달도 안되는 작업날짜와 두명의 후배가 전부인 상태에서 초조한 낮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심어일 반복되던 어느날, 그래도 당시로서는 그럴 듯하다 싶은 배치스케치 한장이 만들어졌다.

단지 중앙에 심볼릭한 원통형 아파트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굽곡된 판상형 아파트의 크러스트로 결합하여 둘러싸므로써 파도치는 생동감을 부여한다는 기본구상은 다분히 즉흥적인 발상이었지만 생각할수록 기분좋은 구상이었다.

그간의 막연하고 답답하던 감정은 안개가 걷히 듯 사라지고, 이리저리 펼쳐지는 구상의 전개는 희열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도면에 옮겨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다. 중앙의 원통형 아파트의 좌·우측 세대들의 향이 좋지 않은 것과 원주상에 배열되는 각실들이 장방형을 유지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단지를 사방으로 에워싸는 배치이다보니 아파트의 주면이 사방으로 펼쳐져 우리나라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일조방향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원통형 아파트의 경우 각 침실은 장방형을 유지한 채 리빙존만 부채꼴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주변의 아파트군은 사선방향의 실배치에 의한 조합방식으로 일조조건이 층 층되었다.

올림픽 스타디움쪽의 메인도로로부터 부채꼴의 조형 광장을 통해 아파트단지로 흡입되는 오픈 스페이스의 디자인도 재미있게 처리된 듯 싶었다.

항상 그렇듯이 나중에 보면 유치한 구식이 많지만 작업당시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듯 싶다.

그러나 즐거운 회열도 잠시뿐, 막상 도면 작업에 들어 가보니 이것은 초년병 셋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원군들이 도와줄 수 없는 사장이 되는 바람에 마감날에 즈음하여 완성된 도면은 전무한 상태였다.

있는 도면, 없는 도면을 무작위 축소, 확대하여 도판을 메우는 긴급작업과 제출창구를 불드는 자연 작전속에 기까스로 제출했던 절박한 기억도 이제와선 그 또한 재미있는 추억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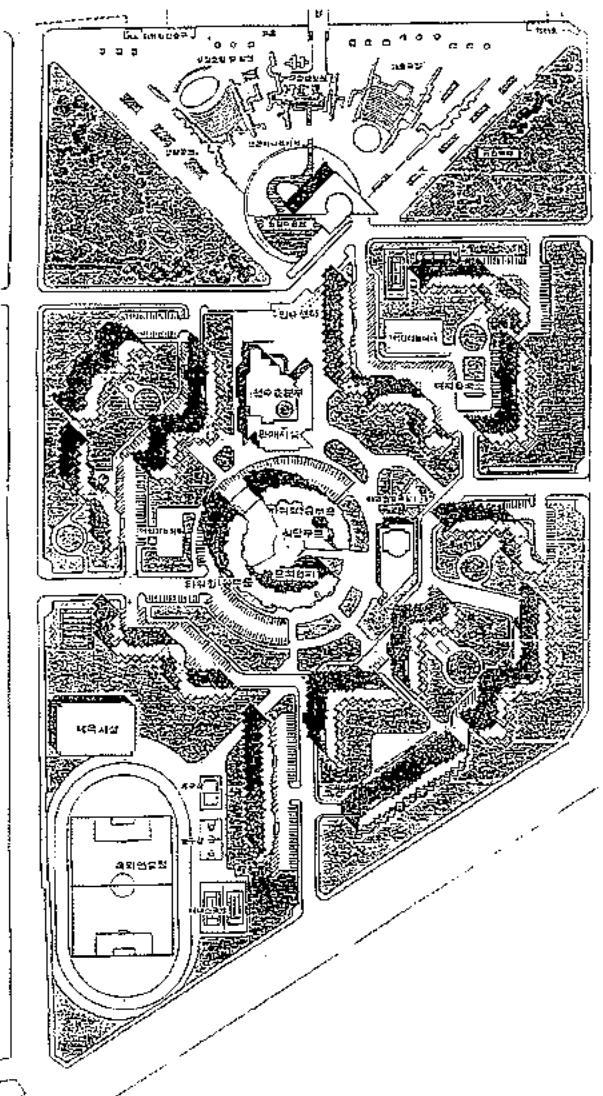
아마추어로서도 낮 뜨거운, 그것도 캐캐룩은 옛날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는 이유의 하나는 짧은 시간속에 교차된 홍분과 좌절 등 나름대로의 드라마와 함께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됨으로써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란 기대가 행인지 불행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혼난한 도전의 세계에 뛰어들어 십오년에 걸친 유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일 것이다.

올림픽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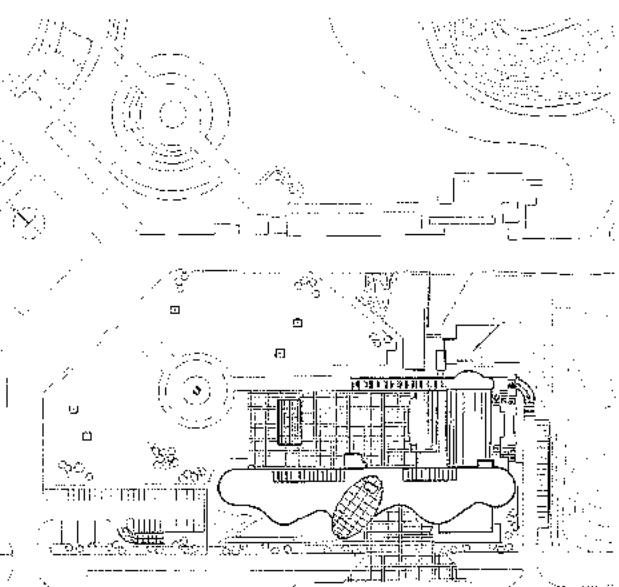
모든 건축이 그 자체, 문화이긴 하지만 혐의의 문화성을 갖는 건축은 대부분 현상설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96년에 시행된 올림픽 기념관도 그런 유형의 건물로 상업성 위주인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프로젝트였다.

민족적 성장을 비탕으로 세계인의 거대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뤘던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시대적 상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나름대로의 숙제였다.

문화적 건물이라해도 몇몇 가지 유형으로 정형화된 우리 현실에서 이 프로젝트만은 그것이 갖는 세계지향의 이미지,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종합계획도



올림픽기념관 배지도

역사적 사건을 표상하는 시간적 이미지로 하여 독특한 구성과 형식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건물이어야 했다.

마침 십년전 올림픽 상징 조형물 현상을 함께 했던 파리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화와 건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그간 많이 느껴온 것이지만 이번 작업에서도 우리가 갖는 주된 관심은 공간과 형태인데 반하여 파리 친구들이 갖는 관심은 시스템과 장치라 볼 수 있었고 이러한 면은 심하면 파리될 수도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충분히 상호보완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

올림픽 상징문을 중심으로 한 기념광장과 중앙호수를 끼친 몽촌토성에 면한 북측면을 구조물이 아닌 공간으로 설정하여 장방형의 상징광장으로 놓고 도로변의 주건물을 이에 대응하는 보조적 구조물로 광장을 에워싸는 방식에는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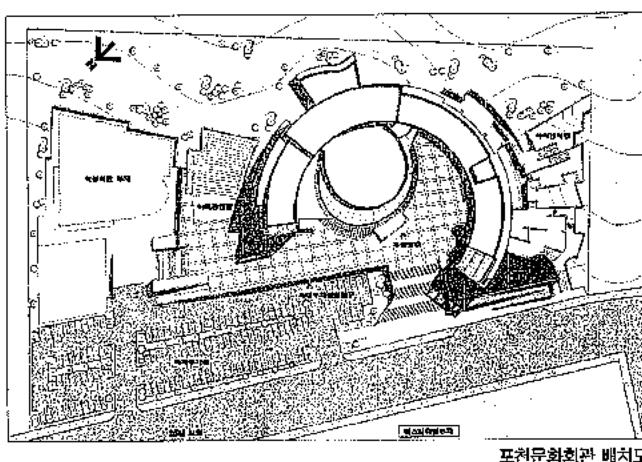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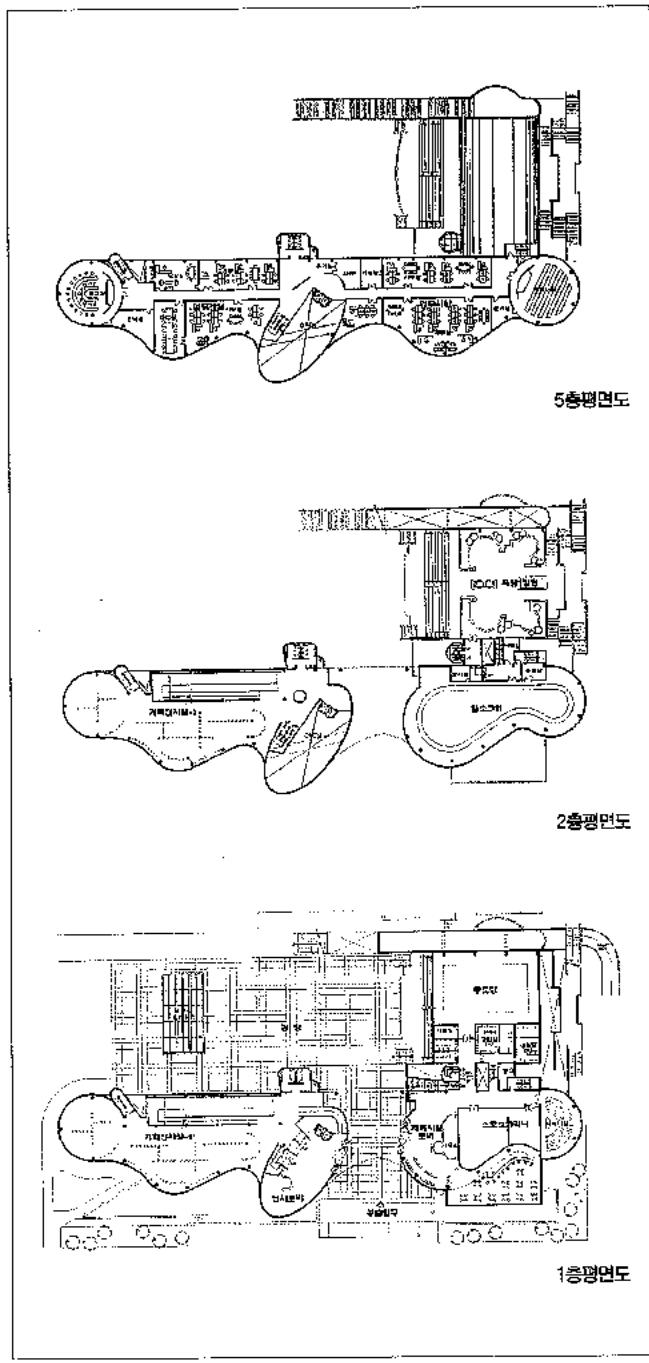
거의 모든 구조물이 공원 내부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장대한 공원의 한면에 입간판과도 같은 주건물을 도로측에 면하여 배치함으로써 국도의 대비감을 통한 도시에의 상징성을 추구한다거나 인간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올림픽정신을 상징하여 무한히 뻗어가는 계단형상의 보조적 구조물을 담의 개념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도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주건물을 도시와 호흡을 함께 하는 동시에 휘황한 빛의 발산체로 하고자하는 의도는 주기능이 전시시설과 체육시설인 상황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파리건축의 대종을 이루는 유리벽의 다양한 처리기법들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짧은 거리이기는 하나 도로측에서 진입공간을 설정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도 상당한 개념차를 느끼게 하는 문제였으나 긴시간 지체된 것은 결국 주건물의 형태가 만족스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었다. 마감이 임박한 즈음에 불현듯 장방형의 주건물을 오륜의 다섯원을 지그재그로 펼침으로써 파도치는 굴곡면으로 구성하는 아이디어가 튀어오르면서 모든 문제는 일순에 해결되는 듯 싶었다.

파도치는 유리면 자체의 조형도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성도 다채로웠고 그 면이 유리로 처리되면서 전시벽과 유리의 이중적 파노라마 역시 예기치 않은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가벼운 홍분마저 일었다.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많은 논의와 고민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순간적인 발상의 형식으로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과정의 즐거움이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포천문화회관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기초적인 분석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후에야 안의 운곡을 잡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는 순간부터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초에 작업한 포천문화회관의 경우가 그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완만한 자연적 경사의 리니어한 구릉 일부라는 지형적 일자와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한 규모의 단순성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구성보다는 직선구성에 대비되는 원통형 구성을 제안하고 싶은 충동이 프로젝트를 보자마자 일었다.

산록면에 깊이 박혀 일체화되면서도 훨으로 넓게 펼쳐진 구릉면에 원형으로 대응함으로써 단조로운 지형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활보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문화회관이면 늘상 갖게 되는 체마와 기둥의 전통적 양식을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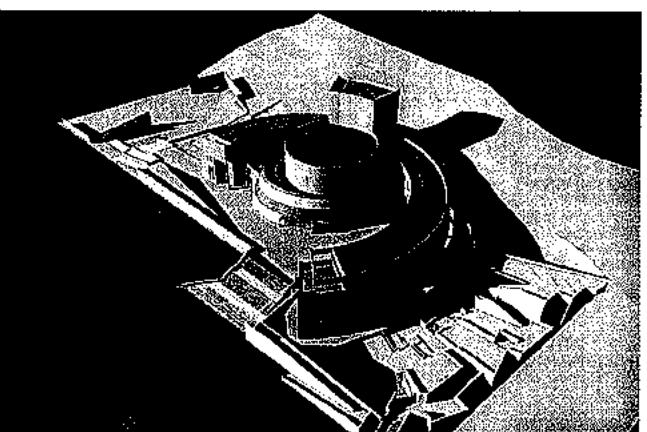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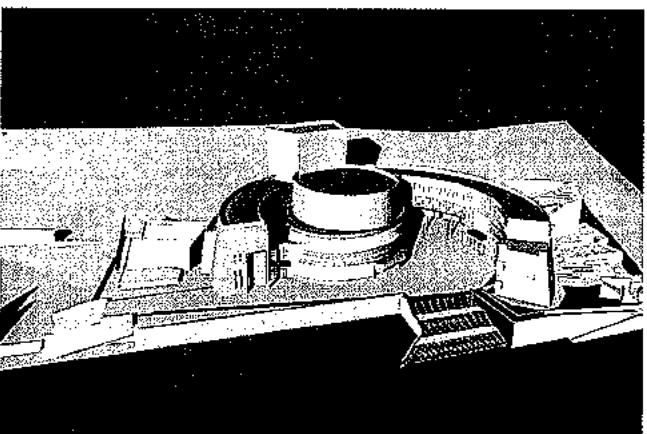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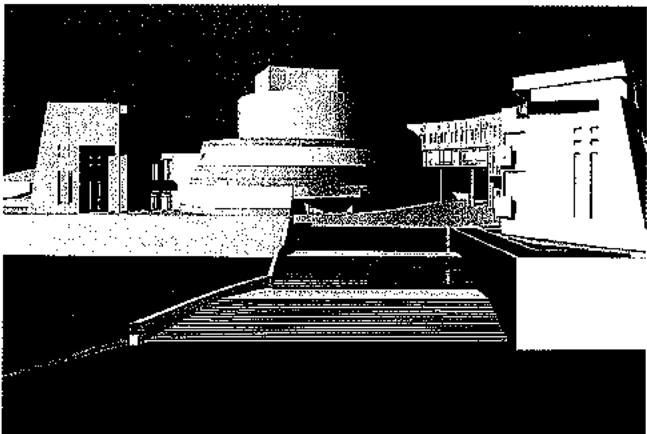
문화회관의 공연장이란 기능이 갖는 평면적 제약을 어떻게 풀것인가가 문제였는데 측부대와 본부대로 연결되는 레일을 커다란 원호상에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원통형 문화회관 구성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었다.

원통형 본 건물내에 나름대로의 중정을 구성하고 도로에 면하여 파상의 진입광장 및 주차장을 배치하는 외에 이에 연하여 계단식 정원을 배치함으로써 원형의 주건물 매스와 파상의 직선적 단지구성이 또한 대비적으로 어울리는 듯 했다.

너무나도 주저함없는 일사천리의 작업인지라 너무 단순한 발상의 경솔함이 아닌가하는 자괴심도 있었고 작업결과의 매스구성에 밸런스가 안맞는 문제등도 보였지만 미흡한대로 그 땅에는 그런 유형의 건물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우연한 계기로 아시아 선수촌 현상을 시작한 이래 십 오년의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오늘에도 여전히 돌발적인 충동에 의해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선과 원형의 대비에 천착하는 등 유사한 성향속에서 있음을 최근 수행한 작업과정을 돌아켜 봄으로써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전한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마무리가 결코 쉽거나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회열하고, 나름대로 몰두하는 것으로 한편으론 유아적인 탐색이라 자괴할 부분이기도 하나 이 또한 쟁이로써만이 가질 수 있는 꾸준한 유화라 소중하게 여겨지는 점이다.



포천문화회관

한국의 건축가 ⑨ - 김중업(完)

Korean Architect, Kim Chung-Up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조인철 / (주)정림건축 Q.C부 팀장, 건축사

by Cho In-Choul

◇ 연재 목차 ◇

(제작일)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 김중업 건축의 바탕

- 김중업의 일생

2. 대담내용

- 김중업 건축과 사마니즘

3. 대담내용

- 김중업과 르꼬르뷔제

4.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꿈과 시와 낭만의 건축

5. 김중업 건축의 해석

- 김중업 건축의 어휘

1. 김중업의 건축사상

1) 사마니즘의 건축

어떤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물로 나타나 있는 작품만 가지고 시도하는 것은 원래 작가가 갖고 있던 의도나 생각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고 평론가의 취향에 따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중업은 건축가에게는 시대를 깨뚫어 보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¹⁾ 어떤 건축가가 그의 일생동안 작품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가에게 작품의 전반을 자비하는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김중업을 포함하여 몇 안되는 건축가에게만 이러한 세계관이 존재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건축가에게 자신의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관되게 그의 작품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 김중업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필자가 김중업파의 대담²⁾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의 주제로 꺼낸 것이 그의 종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종교의 본질이 곧바로 세계관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건축가 김중업은 집안에서 불교를 믿어왔으므로 자신의 종교는 불교에 가깝다고 얘기한다. 그는 이와 더불어서 불교 속의 사마니즘이³⁾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샤마니즘의 가치⁴⁾를 높이 평가하고 있

1) 송효상, '김중업과 그의 한대적 교선주의', 『공간』, 1986.3, 동권224호, p.44.

건축가는 시대를 깨뚫어보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2) 조인철, '한국의 건축가 - 김중업', 『건축사』, 서울: 대만건축사학회, 1997.4, 동권336호, p.84.

3) 위의 책, p.8.

칼난 사마니즘이란 것은 칼이나, 일단 무언가 하면, 무속적인 전통이란 것은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를 놓고 보더라도 불교가 일단은 순수불교라기 보다는 재래종교와 함께된 불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에 가보너에도 꿈성각이 있잖 앤니. 절은 같은 것은 사실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시종교인 사마니즘이 직결되어 나가고 또 더욱기 단정의 심획을 보다리에 맨처음 단장을 칠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원색적이었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비이탄리티(Vitality)라고 할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 그런 것이 이제 사마니즘하고 불교하고 합쳐진 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마니즘이라는 것을 놓고 별 적에는 한 개의 문화적인 가치네 있어서 절대적인 일정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

4) 최일남, '건축가 金重業씨-展示行政이 식약원 食市안본다', 『신동아』, 1984.10, p.406.

제일 아쉬운 것은 사마니즘을 몰아낸 것입니다. 동네마다 강승과 철성각 또는 마을의 신을 모시는 집작들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문화의 큰 줄기인지도 알 않습니다. 군수에게 물으면 미신이라고 해서 종양에서 빠져나가고 없앴다고 달입니다. 얼마나 비문화적인 적인 행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마을 운동을 X마을 운동이라고 말했다가 육도 많이 얹었습니다.

다. 그는 샤머니즘을 하나님의 신화(神話)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샤머니즘 속에는 엄청난 바이탈리티가 내재되어 있고 그것은 하늘(天)과 땅(地)과 인간(人)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김중업은 오랜 공백기를 마감하고 1979년 귀국하여 자신의 건축방향에 대하여 “사마니즘적인 미스테리를 짊어넣고 싶다”⁵⁾고 했다. 좀더 거창하게 말하면 그가 건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마니즘과 같은 신화(神話)의 구현으로 현대인의 병든 인간성을 회복시켜보자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크나 작으나 획일적인 무성격의 방들로 에워싸인 현대인들은 그럼으로써 엄청난 악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 다시는 아우슈비츠의 집단학살을, 히로시마의 참극을 빚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든 현대인들에게 차분히 진실을 위한 삶에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아름다움 또한 그자체의 알뜰한 공간들의 되찾음이 시급하다. 어떠한 공간일망정 자신의 독특한 언어를 자신있게 이야기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⁶⁾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중에는 신화를 주제로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다. 사마니즘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신화로서, 예술의 대상으로서는 출중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김중업은 건축가로서 사마니즘을 자신의 건축 주제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그것의 성공여부를 떠나 주제를 선택하는 안목에서부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축가 김중업이 자신의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땅에 대한 해석이다. 김중업의 대지에 대한 해석은 엘리아데(Eliade)의 성(聖)과 속(俗)에 나타난 원시인의 사고⁷⁾와도 통한다. 김중업은 원시시대의 사만의 세계관과 같이 자연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땅 자체는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싶은 의욕이 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그 의지를 살려서 그위에 한 개의 일회성의 꿈을 짊어 넣어주는 거란 말이야. 건축이라는게 한 개의 인간의 꿈을 살려두는 작업이야. 그렇다면 그일회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도 어울려야 된다.”⁸⁾ 그의 작품중에서 이러한 그의 대지에 대한 해석은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민족대성전, 옥일빌딩(박시우치과), 서산부인과 등에 잘 나타난다. 그렇다면 땅과 자연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업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러므로서 말하자면 그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개체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강조하고 있는거지. 그게 나의 건축관의 하나지.”⁹⁾ 땅의 의지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건축 또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건축론의 중심이다. 땅의 의지와 맞게 한다는 것은 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된다. 땅의 의지에 맞춰 설계한다는 것은 소위 콘텍스트추얼리즘(Contextualism)에서 말하는 주위환경의 콘텍스트에 맞는 형태, 규모, 색채 등으로 계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중업의 경우는 대지주위의 맥락을 읽어내는데 있어서 이러한 인위적인 환경(건물)보다는 자연환경(산, 강)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본다. ‘기장 나온 하나의 해석에 도달하기 위하여 건축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조형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자신의 언어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식도, 체험도, 감정도 이에 속한다. 풍부한 자기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지리하게 정진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쌓아올린 지혜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발상이 아닌 꿈틀 되어진 결실이어야 한다.’¹⁰⁾

살아있는 건축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표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던져주는 강렬한 사인이다”는 것이다. “건축이란 어떠한 공간이건 자신의 일정한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려 하고 자신의 남과 다른 의식을 전달하고자 함은 그 속에 남과 다른 삶을 담고 있는 까닭이다.”¹¹⁾

일단 건축물이 거리에 들어서면 건축기가 의도하든 하지않든 어떤 표정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건축물을 보는 사람이 그표정을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

5) 김중업, ‘건축기의 프라이드, 社會的意味’, 《공간》, 1979.3, p.43.

6) 김중업, ‘총명조서 택에 대하여’, 《김중업, 신록기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4, p.242.

7)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聖과俗: 종교의 본질) 李東夏(譯), 서울: 학민사, 1983.p.125

고대시대의 종교인간의 관점에 우리 자신을 위치시킬 때 당장 깨닫게 되는 것은, 세계는 그것이 신들에 의해 칭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세계 그자체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는 사실이요. 세계는 밀없는 것도 분투생한 것도 아니며, 동적이나 의미를 갖지 못한 활동력 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종교적 인식에게 있어서 코스모스는 ‘삶이 있고’, ‘말을 한다’ 코스모스가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것의 거룩함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신들에 의해 칭조되었고, 신들은 우주적 생명을 통해 그들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때문이다.

8) 조인철, 일의 책, p.94.

9) 위의 책, p.65.

10) 金重業,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건축사》, 1979.6, 통권124호, p.31.

11) 김중업, ‘총명조서 택에 대하여’, 《김중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서울: 열화당, 1984.4, p.242.



김중업의 르꼬르뷔제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시절
(뒷줄 중간의 안경 쓴 이가 김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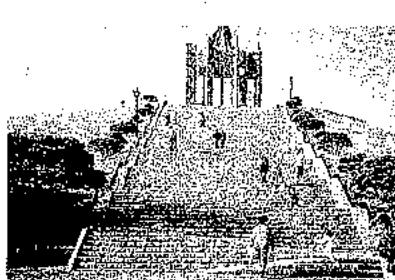


그림1 : 부산총Consilium에 대한 일반인의 좋은 평가
(동아일보 독자투고란에서 발췌됨)



그림2 : (구)국립중앙박물관
(현재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능을 갖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 같다. 사실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떠한 표정으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분 좋은 표정의 건축물(그림1)과 무표정하거나 기분 나쁜 표정의 건축물을 구분하기는 쉽다. 건축가 김중업은 자신의 건축을 통해서 이시대의 삶을,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다. “태고적에 이루어 놓은 동굴들, 그 속에 숨한 기억들이 새겨진 ‘라스코동굴의 벽화’가 지니는 인간의 뜻은 너무나도 크다. 고구려의 문묘를 속에 우리 조상들의 뜨겁고 힘차고 멋있는 삶에의 찬가를 되새겨 봐야 하리라.”¹²⁾

“건축만 안다고 해서 다 건축할 수는 없어요. 건축에 대한 테크닉이나 순재간 등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거죠.”¹³⁾

2)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

건축에서의 전통논의는 아주 진부한 주제가 된지 오래다. 전통논의를 촉발시킨 주요작품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박물관(그림2) 현상공모(1965)에서 부여박물관 왜색시비(1967), 전주시청사(1983)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김중업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작품에서 전통계승은 어떻게 해야 하는기에 대하여 보여준다. 이후 많은 사람들은 존경반 시기반으로 이 작품에 대하여 언급해왔다. 김중업 또한 자신이 이룬 높은 차원의 전통계승에 대하여 만족하고 이러한 작품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전통계승에 관한 프랑스대사관을 능가하는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김중업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그 작품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또다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훌륭한 작품성에 대하여 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논의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이후에 많은 선배 건축가들이 자신도 단번에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은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이고 건축가로서는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할 요건입니다. 그리

고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개개 건축가들의 자신의 문제일거고 만약 교과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극히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거고, 그 반발이야말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¹⁴⁾

여기서 전통을 받아들이는 중간과정이란 모방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건축에서의 전통계승의 시도는 기와지붕의 모방, 목구조의 모방 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럴지 않고는 앞으로 김중업과 같은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과 같은 작품을 더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김중업¹⁵⁾, 김수근 그리고 이후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건축가 김석철씨도 전통계승은 절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건축가들은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모방에 의한 전통건축의 익힘 내지는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 다시 전통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소위 말하는 아주 질낮은 전통의 직접적인 모방에 의한 계승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기와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전통건축물의 모사가 전통의 파괴라는 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기와지붕을 그대로 얹히고 목구조를 그대로 본다는 것도 전통계승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단지 주한 프랑스대사관보다는 전통계승에 있어서 차원이 낮은 작품이며, 과도 기적 작품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전통건축에 대한 제대로된 모방은 각종 잡지에 소개된 외국건축가의 작품을 어줍잖게 베끼는 것보다는 좋은 시도라고 본다. 김중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진주문화회관(그림3)의 경우 자신도 인정¹⁶⁾ 할만큼 칙설적인 기와지붕을 얹은 설계로 현상설계에 당선한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제는 좀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와지붕에 목구조를 그대로 인용하고도 훌륭한 작품으로 승화된 작품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그림4).

12) 김중업, 앞의 책, pp.242~247.

13) 송효상, ‘김중업의 그의 현대적 고전주의’, 《공간》, 1986.3, 통권224호, p.44.

14) 김중업의, ‘遺物 遺物을 摂取하는 길은?’, 《공간》, 1967.1, p.13.

15) 김중업의, 앞의 책,p.6

자나간 치[之]의 形象을 그대로 摂取한다는 것은 遺物을 摂取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破壊하는게 원하고 전 생각합니다.



그림3 : 진주문화회관 현상설계당선작의 정면도(전통건축의 어휘를 칙설적으로 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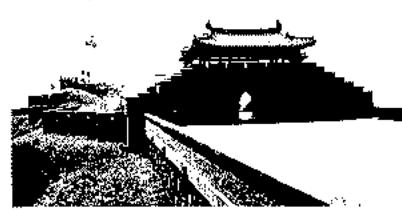


그림4 : 특성산 종계탑(건축환경연구소 광장)



그림5 : 중소기업은행 본점(외장의 검은색이 아주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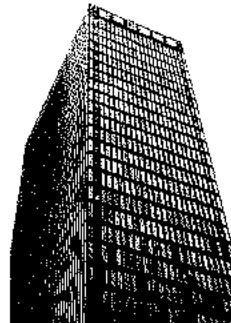


그림6 : 삼일로 빌딩(서울의 랜드마크)

3) 기능과 형태

김중업의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기능과 형태가 상호관련성이 없고 시공성이 배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중업의 작품중에서 건물의 기능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 명보극장의 지붕이 바람¹⁶⁾에 날려갔다든지, 계단에 미리가 부딪친다든지¹⁷⁾ 서산부인 파의 경우 너무 형태를 중요시 하다보니 건축주¹⁸⁾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하는 불평을 할 정도였다는 등의 얘기들이 있다. 그렇다면 김중업은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한 것인가? 김중업은 근대건축이 건축의 주제로 삼았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20세기의 기능이 21세기에 와서도 같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건축은 한세기, 두세기에 걸쳐 남는다 이겁니다. 건축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능이란 무엇이냐, 건축기는 그기능을 나름대로 주는 거지, 어떤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품(form)이라는 것도 인간이 이제까지 빛어 놓은 모든 것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그 것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데이터로 한 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 맞게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던간에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면 됩니다."¹⁹⁾ 기능이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형태를 기능에 따라서 결정지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김중업의 주장이다. "결국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조형성 때문이지 기능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다."²⁰⁾ 사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을 훤히 볼 수 있다. 현대건축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능주의건축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러한 사조에 반기를 들고 발생된 것이 포스트모던건축이나, 해체주의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때 그의 작품을 놓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의 건축태도가 기능이나 기술을 무시한 설계라는식으로 그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건축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필자가 본지 3

월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설계분야에 진출한 사람중에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손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중업은 당시로서는 정규대학의 교육을 받았고 더 우기 미쓰다 하이라 사무실과 르꼬르뷔제 사무실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중업보다도 건축의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에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디자인이 기능과는 동떨어진 그림으로 이해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단지 근대건축에서 디자인의 주제로 삼았던 기능은 그에게 있어서 형태를 결정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능은 설계상의 고려조건의 하나였고 다른 중요한 조건들에 밀려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표현이 옳을 듯하다. "... 인간에게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추위를 막아준다, 비바람을 막아준다,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사실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르게 어떤 사인을 제대로 던져주어야만 건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 아닌 건축가의 문제는 한 개의 기능인 내지 기술자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건축 아닌 건축은 건물이지 건축이라고 표현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정확히 얘기하고 또 정확한 길을 걸어야만 될 거예요."²¹⁾ 건축설계의 과정이 끊임없는 선택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에 임하느냐하는 것은 그결과에 있어서 엄

16) 송효상, 『建筑家 金重業』, 《국가》 1986.3.p 41.

그것은 『建築家이조 檢視室解剖』 통한 작품이었는데 일단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그후에 외도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는 현실적으로 부족이란 사정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建築家』는 사실 많이 알려졌지만 나의 대표작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진주라는 지역성을 심심히 고려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7) 안병의 외, 『전자 꿈꾸던 건축가, 우리가 그를 끌어안지 못했다』, (PA), 1997.1.p.12.

굴뚝 등 디테일을 보면 그래도 이분이 디테일을 원기 제대로 배우고 온 느낌이 듭거예요. 그러나 명보극장이 태풍에 벗겨진 시간을 보면 김중업선생은 컨셉은 좋았지만 원자나 마땅 백일이 안되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18) 위의 책.p.11.

명보극장을 설계하실 때였습니다. 시공은 대원에서 했는데 세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친구 말을 들으니, 아, 김중업씨 설계 순 엑티비티! 그러더니구요. 그래 저가 무슨 소리라고 물고 끊어갔지요. 기뻤더니 2층 라석 발코니를 올라가는데 출입구에 미리가 부딪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린어진지가 많더군요. 저야 그랬더지만 그런 것만 나오면 기성세대들은 자꾸 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9) 안병의 외, 『건축가 김중업선생 추모제谈话』, 《건축가》, 1988.5.p.28.

... 서산부인과 설계할 때인데, 건축주가 하루는 보자고 해서 갔더니, 이복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문을 열어서 점을 찾고 싶어서 김선생한테 말했는데 도시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기예요.

20) 김현, 앞의 책.p.40.

21) 안병의 외, 『건축가 김중업선생 추모제谈话』, p.27.



그림7 : 암사동의 선사주거(지붕과 벽의 구분이 없고, 땅에 블어 있는 상태)



그림8 : 강화도 고인돌(침센 역도 선수가 땅에 블은 지붕을 들어 올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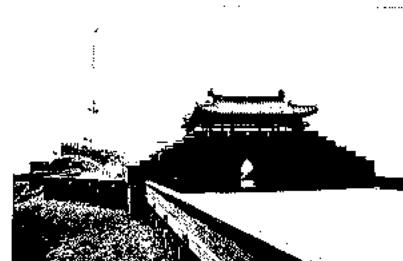


그림9 : 주한 블란서 대사관의 지붕(전통건축의 시뿐 한 지붕의 계승)

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건축가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잣대만을 갖고 그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어떤 조건들이 탁월하더라도 그작품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형태가 주는 감동이 중요하므로 기능을 무시해도 좋다는 주장을 할려는 것이다. 좋은 건축이나, 아니나마 건축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건축관이 어떻게 일관되게 자신의 건축에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건축가 김중업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삶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생의 찬가였고,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의 제시²³⁾이었던 것이다.

김중업의 작품중에서 '한국미술관'의 경우는 처음 주택으로 출발하여, 대사관으로, 또다시 미술관으로 용도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능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건축으로 남아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경우도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기능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건축으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 구제주대학본관의 경우도 몇몇 물지각한 사람들에 의하여 아깝게 사라지긴 했지만 국내의 어느 건축가의 작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건축이었다. "그의 많은 작품중에서 가장 큰 걸작은 제주대학본관과 주한 프랑스대사관이다. 그것은 온갖 힘을 기울인 환상과 꿈과 기술을 써서 실현한 조형의 시였다. 제주대학본관에서 볼 수 있는 공간개념의 환상적 처리와 즐거운 유희정신은 주변공간과의 완전한 합일속에 인간의 능력이 이루어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²⁴⁾

2. 김중업의 건축어휘

1) 기둥

건축가 김중업은 건축에 대한 의뢰를 받게 되면 대지를 답사하고 대지가 원하는 배치를 결정한 후 기둥세우기를 시작한다. 기둥은 수직구조재로서 수평구조재인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건축가 김중업에게 있어서 기둥은 단순한 구조물이상의 상징적의미를 갖고 있다. 기둥은 지붕 아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뻗어나가 하늘로 치솟는다. 아니 하늘이 이기둥을 타고 내려온다

는 표현이 더욱 옳은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늘의 빛이 지붕을 뚫고 기둥을 타고 내려온다. 건축가 김중업은 지붕 아래 묻혀서 담담한 느낌을 주는 기둥을 과감하게 해방시켜주고 있다. 김중업 건축에서의 기둥은 가늘기는 하지만 하중에 눌려서 좌굴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하중과 관계없이 그냥 수평제에 대한 수직재로서 존재하며 선돌처럼 서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중업의 건축어휘로서의 기둥의 형태는 십자형이 되기도 하고 '한국교육방송'에서처럼 조형적형식의 벽체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중심으로서의 기둥이며,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변환시키는 지팡이요, 하늘과 인간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이다. 한국미술관의 기둥이 그러하고, 서강대학본관의 기둥이 그러하고, 굴뚝이 그러하다. 을지로의 '중소기업은행본점(그림5)'과 삼일로에 있는 '삼일빌딩(그림6)'은 도시를 '하나의 건축으로 보는 그의 도시관(都市觀)에 따르면 건물자체가 중심을 지키는 하나의 선들이고 기둥이다.

2) 지붕

김중업의 건축에 있어서 지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김중업의 건축에서의 지붕은 지붕의 원래 기능인 지붕 아래를 바라보며 아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상단으로서 하늘과의 만남을 더욱 중요시한다. 김중업의 건축에서 지붕의 구조는 2중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중구조를 취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표현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지붕의 기능은 하부지붕이 감당하고 있으며 김중업이 취하고 있는 독특한 어휘로써 시적인 감동을 담당하는 것이 상부지붕이다. '건축에 있어서의 지붕이 지니는 뜻은 너무나도 크다. 땅과 하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자연인 건축이 부드럽게 때로는 모질게 하늘과의 부단한 접촉을 꾀한다. 옛부터 동양에 있어서 스카이라인을 이룬 지붕들이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유연했던가 말이다… 이지붕이 갖고

22) 김원, 앞의 책,p.38.

23) 김중업 외, 『建築與紅茶을繼承하는 것은』, p.15.
미래의 도시라는 건 한 개의 건축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게 나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 space를 창조하는게 건축기이고 도시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건축기리야 같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건축가는 30~40년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거죠.

24) 이경식, '김중업의 작품세계', 시설·신세계화랑, 1971년 10월 19일~24일.



그림9 : 주한 불란서 대사관의 지붕(전통건축의 시변한 지붕의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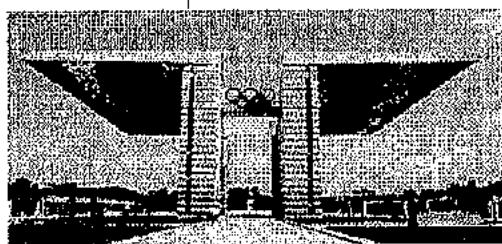


그림10 : 올림픽장조형물(세와 문을 주제로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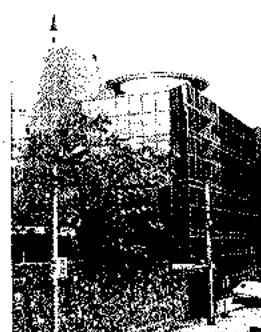


그림11 : 삼일빌딩(독상에 잡시내려앉은 UFO)

있는 풍격있고 단아하면서도 집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효과도 우리를 전통속에 오래도록 순화해 내려온 석탑, 부도, 정자들의 현대적인 처리이어야 한다. 우리의 하늘이 그 얼마나 멎이 있기에 그에 바치는 뜨거운 찬가로서 이지붕은 창조되고 또한 살벌해져가는 소위 현대주택에 대한 강한 항의로서 탄생하리라.²⁵⁾

김중업의 작품에서 지붕의 표현은 전통건축의 지붕선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서 시작된다. ‘경복궁에 가서 경회루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잔 말이야. 그러면 경회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붕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볼륨(Volume)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체 비례로 봐서 지붕이라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말하자면 큰 비중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이 가볍게 보이지 인간을 압박한다던가 하는 느낌이 들지 않지. 소위 하늘에 띄워주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구.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한민족밖에 없어. 전세계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붕을 사뿐히 띄워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거라구. 디자인에서나 또 인간에게 주는 감동에 있어서나 상징성에 있어서나 그러한 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좋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대사관을 보더라도 그 관저(官邸)의 지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크지만 그것이 큰 것이 말하자면 한 개의 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사뿐히 하늘에 치켜올린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의 지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²⁶⁾ 그러니까 김중업에게 있어서 한국 전통건축의 지붕은 일본인들이 해석한 여성적이고 가냘프고 슬픈 곡선²⁷⁾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김중업의 지붕선은 사뿐할 뿐만아니라 강렬한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선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김중업은 어렸을 때에 접한 고구려의 힘찬 선에 대하여 예찬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고구려의 힘찬 선들, 신라의 유연한 선들, 이조자기들이 고려청자가 풍기는 귀족성 고요속에 숨은 생생한 힘이 깃들여 있다.”²⁸⁾ 김중업의 작품에서 그가 즐겨 사용하는 경사로와 같이 곡선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김중업 자신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르꼬르뷔제에게서 건축에서의 곡선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사사 받은 후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건축어휘로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은 평가라고 생각한다. 원시수혈주거(그림7)에서 땅에 불어 있던 지붕은 고인돌(그림8)에서 땅에서 분리되어 일어서고 김중업의 작품에 와서 모포(그림9)를 던져놓은 듯이 사뿐하게 하늘에 띄워지며, 새의 날개(그림10)로, 비행잠시(그림11)로 완전히 날 수 있게 되었다. 김중업의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의 2종구조형식의 지붕은 일희성의 작품으로 보편적인 어휘로 발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본다. 바람직한 형식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지붕위에 지붕을 만드는 형식이나 매스(mass)의 구성에 있어서 지붕과 몸체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분하려는 시도는 그후로 유행처럼 번져서 거의 보편적인 건축어휘가 된 듯

하다. 지붕이나 기둥외에도 김중업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어휘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물에 비치는 건축으로써 의도적으로 건축과 호수(인공연못)를 결합시키는 것도 그가 즐겨 사용한 건축어휘이다.

3. 후기

지난 5개월 동안 온통 김중업선생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갑작스럽게 원고집필 요청을 받고 설계사무실의 머슴생활속에서 장기간 이러한 일을 겸한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변명삼아 원고 내용중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다. 3월호 내용 중에서 김중업선생이 강제출국 당하여 프랑스에서 체류하는 상황에서 르꼬르뷔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권희영씨의 제보에 의하여). 이외에도 부실한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주한 프랑스대사관 현상설계 당시 참여한 프랑스 건축가의 명단과 그들의 제작작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밝혀졌으면 한다.

필자가 이번 기회에 원고를 정리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이 그동안 그의 프랑스로의 유가 자외나, 타외나에 대한 의구심에 대하여 필자가 참고한 문현 중 ‘최일남과의 대담내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충분한 이유로 타의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 사실들 중에서 건축가는 물론 작품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게 되지만, 이것에 못지 않게 살아생전 지내온 행실도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김중업은 여러 문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러가지 부당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던 ‘국회의사당의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건축가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결과로 건축기협회에서 제명당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한국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거장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건축가 김중업은 그의 지나온 인생과 그의 작품을 귀감으로 후배들이 좋은 건축을 위해서 매진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다음호부터는 나설기 선생에 대해 친국재 김문덕교수가 2회에 걸쳐 짚필, 연재될 예정이며, 이어서 배기형선생에 대해 김민네 활동을 교수가 3회에 걸쳐 짚필, 연재될 예정이다 -

25) 김중업, “홍령조씨 택에 대하여”, pp.242~247.

26) 조인철, 앞의 책, p.86.

27) 아내기 무네오시, 조선의 미술”, (조선의 예술), 서울·남주사, 박재실옮김, 1995. 6, 남주문고 082, p.42.

…선이 조선예술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특질임을 자각했다. 만일 형태와 색채의 오수가 거기에 걸핍되어 있는 것을 세심 지역해내는데 그의 견해는 더욱더 비른 기초를 얹어내는 셈이다. …조선에서는 딱히운 옷은 거의 볼 수 없는가. 늙은지도 젊은지도, 남자도 여지도 이지도 한결같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흰옷은 언제나 상복(喪服)이었다. 살을하고 부끄럼 많은 마음의 상징이었다. 백성은 흰옷을 입는 것으로서, 항상 상복을 입고 있는 땅이다.

p.145

나는 조선의 예술, 특히 그요리라고 볼 수 있는 선(线)의 이는 실로 그들의 사랑에 깊이 주된 다른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길게 끌고 조선의 선은 확실히 언뜻하게 호소하는 마음 그것이다. … 눈물에 넣치는 여러 가지 하소연이 이선에 위탁되어 있다. 그들은 그 울쓸한 미움과 무언가 풀리는 괴로운 성을 아름답고 노잘 어울리게 살고 두어한 선에 밤온시킨 것이다.

28) 김중업, 앞의 책pp.242~247.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건축(5)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프랑스의 베즐레이 성당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on

1. 개요

베즐레이(Vézelay) 수도원은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 Bourgogne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승용차로 리옹(Lyon)시로 가는 고속도로(A6)를 이용한다면 불과 1시간 반정도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 수도원의 주위는 일반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도원은 언덕위에 우뚝 서 있어 멀리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 수도원은 여느 수도원과는 달리 건물의 형태나 정면의 조각 등에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여 기억속에 오래 남게 하고 있다. 이 수도원의 설립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베즐레이(Vézelay) 수도원의 창시자인 지라르 드 루시옹(Girart de Roussillon)은 부르고뉴(Bourgogne)지방의 백작으로 중세기 무흔시 속에 그의 공적이 칭송되던 영웅이었으며 9세기 중엽 그는 한 그룹의 수도사들을 현재의 수도원 부지에 정착시켰다. 노르만족의 침입 당시 수도원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라르 드 루시옹은 방어하기가 더 용이한 천연 진지인 언덕 위에 새로운 수도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878년부터 새로운 교황 요한 8세가 베즐레이 수도원의 건립을 축성했다. 1146년 3월 31일 베르나르(Bernard) 성인은 베즐레이에서 제2 십자군운동을 설교했고 수도원은 이 시기에 한창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00년전부터 수도원 성당에는 “용서받은 죄인”인 마들렌느(Madeleine) 성녀의 성유골이 보관되어 있어 베즐레이는 그 시대의 중요한 순례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프랑스를 가로질러 생자끄 드 꿈뽀스뗄(Saint -Jacques -de -Compostelle)까지 순례객과 상인들이 다니는 네 곳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과 많은 영주들에 둘러싸여 있던 프랑스의 왕 루이(Louis) 3세 앞에서 베르나르 성인이 십자군을 위해 감동어린 호소를 한 곳도 바로 이 언덕에서였다. 1190년에 결점되었던 제3차 십자군운동이 베즐레이에서 장려되지 않았던 것은 프랑스의 왕 필립 오귀스트(Philippe Auguste)와 영국의 왕 리샤르 퍼드 드 리옹 (Richard Coeur de Lion)이 출발 전 이 곳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곳은 또 아씨시(Assise)의 프랑수아(François) 성인이 성프란치스코회의 초기 수도원을 건립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이기도 하다. 제7차 십자군운동이 있었던 1248년부터 성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제3회 회원이던 루이(Louis) 성인은 여러 번 이 곳에 순례여행을 오기도 하였다.

2. 쌩뜨 마들렌느(Sainte-Madeleine) 대성당의 건축역사

9세기에 건립된 이 수도원은 11세기까지 클뤼니(Cluny) 수도원의 예속 하에 있었다. 마들렌느 성녀의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 많은 순례객과 고행 수도자들이 몰려들어 카톨릭 왕조 때 건립된 성당을 확장해야만 했다(1096 ~ 1104).

대순례 행사의 전날인 1120년 7월 21일 발생한 큰 화재로 성당의 회중석 전부가 파손되고 천 여명 이상의 순례객이 매장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화재가 발생한 후 곧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어 12세기 중엽 회중석과 성당 정문안의 현관이 건립되었는데 1215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양식을 절충한 내진과 좌우익랑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13세기 말 마들렌느 성녀의 다른 유골이 프로방스 지방의 생막시맹(St - Maximin)에서 발견됨에 따라 많은 순례객들은 혼란에 빠졌다. 순례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정기적으로 서는 장과 시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종교적 투쟁은 수도원의 쇠퇴를 초래했다. 19세기 역사적 유물의 감정가

였던 메리메(Mérimee)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던 이 건물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건축물은 돌더미로 변해 있었다. 1840년 30세가 된 비올레 르퇴(Violet - le - Duc)이 어려운 복원공사를 맡아 1859년 완공 되었다.

3. 외부

3-1 정면

정면을 바라보면 1250년에 고딕양식의 박공과 쌍 미셀(Saint-Michel)탑의 윗층을 추가하기는 했으나 본래의 정면은 1150년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이 정면은 순수 고딕양식으로 재건축된 것으로 고딕양식의 거대한 박공과 그 아래에는 좁은 창이 다섯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면은 비, 결빙과 화재 계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많이 해손되었다.

정면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정문이 셋 있으며 중앙 정문의 합각벽은 1856년 비올레 르퇴에 의해 복원되었는데 그는 굉장히 해손된 중앙의 합각벽을 본래대로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합각벽은 마지막 심판을 나타낸 것으로 중세기에 흔했던 평범한 주제를 갖고 있다. 상인방에는 마리 마들렌느(Marie-Madeleine) 성녀의 생애 이야기 중 성녀의 동생 “라자르(Lazare)의 부활”과 “바리사이인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가 조각되어 있다. 합각벽에는 네명의 복음사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 축복을 하고 있다. 중앙정문의 위쪽에 고딕양식의 대형창이 있고 그 주위는 일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원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복음사 요한 성인, 앙드레(André) 성인, 세례자 요한 성인,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 그리고 브누아(Benoit) 성인의 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위쪽에는 그리스도의 오른쪽과 원쪽에 성모마리아와 마리 마들렌느 성녀가 있고 그 양쪽에 두 천사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풍조에 따라 교회를 상징하는 두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위에서 언급된 정면 오른쪽에 있는 탑은 쌍

미셀 탑이라 불리우던 것으로 13세기에 건립되었다. 높이 15m에 달하는 나무로 된 팔각형 뾰족탑은 1819년 낙뢰로 인해 파손되었고 다른 탑은 미완성인 채 남아 있었다. 아키볼트의 맨 위쪽 아치는 식물 모티브로 장식된 것으로 원래의 것이나 나머지 아치장식과 기둥머리는 근대적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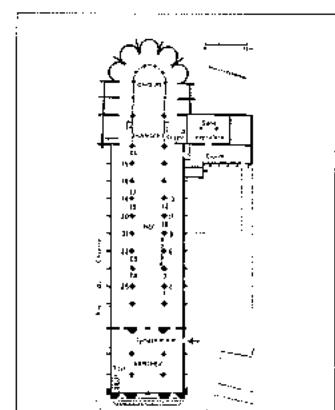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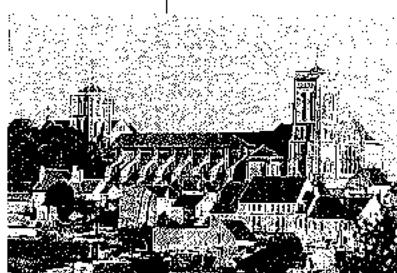
3-2 탑

대성당을 오른쪽으로부터 돌면 벽날개로 밭쳐진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오른쪽 모퉁이에는 13세기에 건립된 30m 높이의 쌍 양투안(St - Antoine) 탑이 있으며 궁륭형 창이 있는 두 층은 매우 순수하고 세련되었다. 12세기 말에 건립된 교회참사회의 실은 건물의 남쪽 일부를 연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원 경내의 주량은 비올레 르퇴이 완전히 재건축 했다. 오른쪽에는 옛 날 수도원 건물의 부지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12세기의 수도원 식당과 같은 몇몇 유적이 남아 있다.

4. 내부

4-1 성당 정문 안의 현관

1150년 루昂(Rouen)의 대주교가 축성한 것으로 중앙회중석과 정면 사이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정문 안의 현관은 규모 면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당이라 할 수 있으며 꺽인 아치와 첨두형 궁륭이 로마네스크양식 구조의 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다. 중앙회중석에는 기둥머리로 장식을 한 원주가 박혀 있는 십자기형의 네개의 기둥은 매우 우아하고 이 기둥들은 세트라베(기둥사이의 공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측면에는 측랑이 있다. 특히 기둥머리는 아곱과 이삭, 카인의 죽음, 사자를 떠려 늙힌 삼손 등 구약성서의 이야기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죽은자의 부활 등 신약성서의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다. 세정문은 회중석과 측랑 그리고 정문 앞 현관과 연결되어 있다. 중앙 정문에서 보이는 빛이 가득한 성당 내부는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네개의 기둥 중 서남쪽 기둥은 비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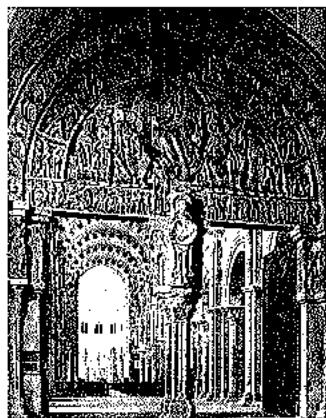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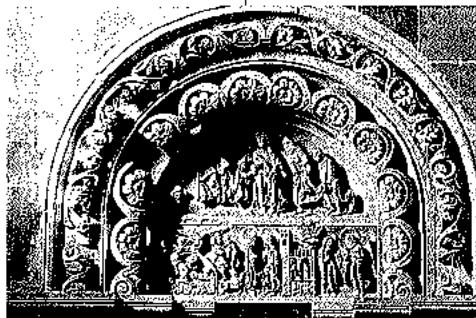
르튀(Violet-le-Duc)이 기초공사를 새로하여 완전히 재건축 했다. 측랑 위로 특별석이 있고 중앙의 특별석에 의해 양 측랑 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회중석의 중앙 정문은 신비 가득한 미광속에 있다. 회중석 다음으로 건립된 정문 안의 현관은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원주가 있는 십자형의 기둥과 교차궁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의 특별석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를 제외하고 적인 아치를 이용했다. 이 특별석은 초기 고딕양식의 궁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첨두 형 교차궁륭이다. 이곳에는 옛날에 미셸(Michel) 성인의 작은 제단이 있었다. 성당 정문 안의 현관을 만든 이유중의 하나는 전례상의 목적에 있었다. 예를 들자면 밤에 운집하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밤을 지낼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나 또는 영세 받을 에비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추방된 고해자들을 위해서였다. 확실한 것은 영세식이나 구마식(마귀를 쫓는 의식) 때 또는 고해자들이 화해할 때 에비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12세기 문헌에 보면 수도원 성당에 인접한 성당 정문 안의 현관에서 있었던 의식에 관한 것이 있다. 문헌에 나와 있는 바로는 미사가 시작되기 전에 큰 행렬이 있었는데 이 행렬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갈릴레이로 가는 사도들의 행렬을 상징했다. 미사 전에 이곳에 들러 잠시 머무르는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이었다. 그리스도가 마리 마들렌느에게 내가 먼저 갈릴레아로 가 있겠다고 한 이 말에서 갈릴레이에는 구세주가 수난에서 부활로, 죽음에서 생으로 지나간 중간 장소로 상징된다. 문사이의 벽에는 세례자 요한이 어린 양을 담은 성반을 들고 서 있다.

4-2 중앙 정문의 합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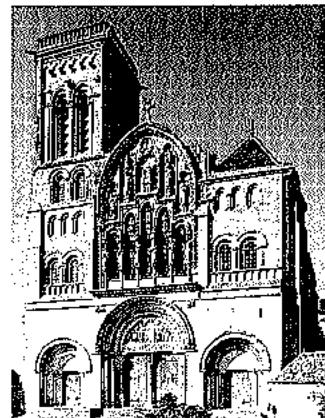
오땅(Autun)의 생 나자르(St ~ Nazare) 대성당의 합각벽과 같은 주제를 가진 중앙 정문의 합각벽은 부르고뉴 지방의 루마네스크 예술의 좋은 본보기로 매우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다. 이 정문은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맡겼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중앙정면의 합각벽



오른쪽 정면의 합각벽



정면

중앙에는 후광 속에서 왕좌에 앉아 있는 거대한 그리스도가 있다. 그는 그의 주위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으며 그의 상처에서 성령이 나와 열두 제자의 머리에 닿아 있다. 아키볼트의 첫번째 아치와 상인방에는 교회의 상징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물려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상인방의 왼쪽에서부터 보면 활을 맨 사람들, 어부들, 농부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거인들, 사다리를 타고 말에 올라가는 난장이, 큰 귀를 가진 사람들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키볼트의 맨 안쪽 첫번째 아치의 오른쪽부터 보면 나막신을 신은 아르메니아인들, 프리지아인들, 이디오피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 다음에는 개의 머리를 한 인간들(토마 성인에 의해 복음화된 인도의 얼굴 모양이 개같은 비비를 나타냄)이 조각되어 있다. 그 다음의 두 조각은 기적을 나타낸 것으로 깨끗해진 다리를 내보이고 있는 나병환자들과 팔이 치유된 두 중풍환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맨 끝에는 그들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두 복음사가 있다.

이 웅장한 조각은 전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아키볼트의 두번째 아치에는 활도 십이궁과 그 달의 농사 일이 묘사되어 있다. 문 사이의 기둥에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활절에 먹는 어린 양(불행히도 체순되었다)을 든 세례자 요한이 마치 그리스도를 받치고 있는 듯 이 또는 다시 오는 그리스도를 중앙에 안내라도 하듯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또한 그의 양쪽 문설주 위에는 제자들이 조각되어 있다. 이 훌륭한 작품 속에서 열두제자들에게 미치는 성령의 힘은 옷을 펼럭이게 하는 세찬 바람으로 상징했다.

4-3 측면 정면

측면 정면 위에 있는 당초문과 장미꽃 모양으로 장식된 아키볼트의 두 아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합각벽을 둘러싸고 있다. 오른쪽 정면의 합각벽은 그리스도의 어린시절을 나타낸 것으로 “동방박사의 경배”를 나타내고 상인방에는 “성모영보”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리고 “예수탄생”이 조각되어

있다. 왼쪽 정면의 합각벽은 부활한 이후의 그리스도의 발현을 묘사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상인방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발현한 그리스도”가 조각되어 있다.

4-4 회중석의 정문

이 문들은 예수 생애에 일어났던 중요한 기적으로 장식되었다.

– 남쪽정문(오른쪽정문)에는 그리스도의 유년기 때의 기적이 표현되어 있다. 아랫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은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다. 그 옆에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으로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다음에 요람속에 누워있는 모습이다. 또한 구름 속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는 장면도 있으며 그 위쪽은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아기예수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왼쪽에 있는 북쪽 정문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관한 기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래부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만나 그의 수난과 부활을 예언한 성서의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엠마오의 한 집에 도착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빵을 떼어 나누는 순간 그를 알아본 장면과 제자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으며 그 위 부분에는 사도들에게 발현한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있다.

– 중앙 정문에는 사도행전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

– 합각벽의 중앙에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후광 속에 팔을 크게 벌리고 헐렁하게 주름진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위엄있게 앉아 있다. 거대한 손에서는 성령의 불꽃이 나와 제자들에게 보내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양쪽에 셋씩 그룹을 지어 앉기도 하고 반쯤 서기도 한 사도들은 중앙을 향해 각각 몸을 돌리고

있다. 왼쪽에는 열쇠를 쥐고 있어 곧 알아볼 수 있는 베드로 사도의 후광이 그리스도의 후광 속에 반쯤 들어가 있다. 사도들 모두는 복음서를 들고 있으며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다. 아카볼트의 맨 안쪽 아치를 보면 각각 다른 민족들에게 대한 치유의 기적이 표현되어 있다. 중간 아치에는 황도 십이궁과 달마다의 농사일이 조각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맨위 한 가운데 계와 사자 사이에는 개와 곡예사 그리고 인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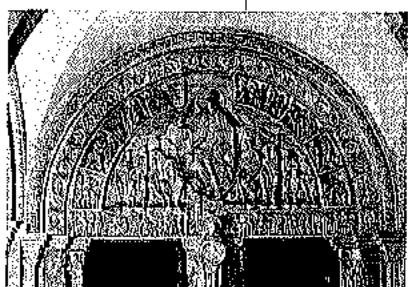
이 합각벽의 아름다움은 영적인 테마를 넉넉하고도 낙천적으로 표현한 데 있다. 가운데 위치한 그리스도 주위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그룹의 동작은 매우 상징적이다. 거대한 그리스도에서부터 아주 작은 이교도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은 신성함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다. 물, 잎사귀, 그리고 바람 등의 자연적 요소는 사도들에게 용기를 준 성령 즉 하느님이 보낸 은총을 표현한다. 위엄있는 그리스도의 자세에서부터 사도들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몸짓은 주의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신체를 우아하게 표현한 주름진 옷의 표현기법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설주와 문사이 벽기둥에서 여러 사도들을 다시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는 담소중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있으며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아래에는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들고 있다.

4-5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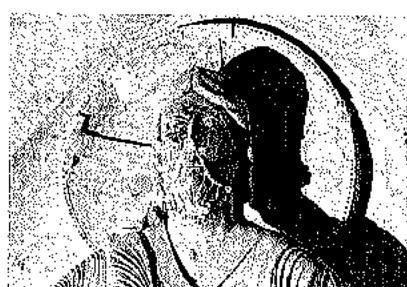
대형 화재이후 1120년에서 1135년 사이에 재건축된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회중석은 웅장한 규모와 다른 색조의 석회암 배치, 광도 특히 아름다운 일련의 기둥머리가 그 특징이다. 이 회중석의 추가적인 특징을 요약정리하면 측랑보다 훨씬 높은 중앙회중석은 반원형 궁륭으로 된 이중 아치에 의해 10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이중 아치의 홍예머릿돌에는 밝고 어두운 색조가 교대로 있어 장식이 없고 딱딱한 선을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한다. 네 면에 기둥머리로 장식한 원주가 있는 십



중앙정문 합각벽의 그리스도



합각벽



중앙정면 합각벽의 그리스도

자기형 기둥 위에 반원형 궁륭의 대형 아케이드가 있으며 그 위로 창이 있고 달걀형과 장미모양 그리고 주름잡힌 리본장식의 우아함이 대들보와 대형 아케이드, 창과 아케이드 사이를 잇는 띠 모양의 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성당의 회중석을 들어서면 밝고 생동감이 있으며 균형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64m, 폭 12m, 높이 18m인 웅장한 회중석이 수직적인 내진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궁륭의 형태 역시 구조면에서 균형이 잘혀있기 때문이다. 궁륭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곡선 둘레에 치밀하게 배열되어 공간에서의 압력을 견디고 있으며 돌지붕으로 인해 성당의 내부가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원형 궁륭을 단념하고 기둥사이의 공간에서 궁륭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위해 북쪽과 남쪽을 잇는 대청축에 있는 대들보 위에 수직 반원형 궁륭을 놓고 동쪽과 서쪽의 대청축에 있는 리브 위에 수직 반원형 궁륭을 놓아 대각선으로 받는 힘이 압력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형태의 궁륭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빛을받아 흠통이 있는 벽에는 대형 창이 있어 성당 내부에 빛이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중석의 기둥은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견고한 십자가 형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네 문설주와 반원주가 박혀있는 네 기둥은 공간을 나누고 있는 홍예문과 대들보를 동시에 지탱하고 있다. 매우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구분된 내부공간은 성당의 건축적 구조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내부에 있는 조각들은 질서있게 배치되어 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홍예문의 리듬을 끊어주는 종려나무잎 모양의 장식이나 중간 높이에 있는 원화창, 기둥머리의 머리판과 리브 위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아름답게 주름진 띠 모양의 장식 등의 수평선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회색 짱빛 색상에서 금색으로 변해가는 고색창연한 돌의 색조는 내부의 밝기를 온화하게 만들고 있으며 내진의 흰색 색조와 대형 홍예문과 대들보에 배열한 밝고 진한 색상의 조화, 그리고 군데군데 녹색과 분홍의 미묘한 색상의 차이가 내부에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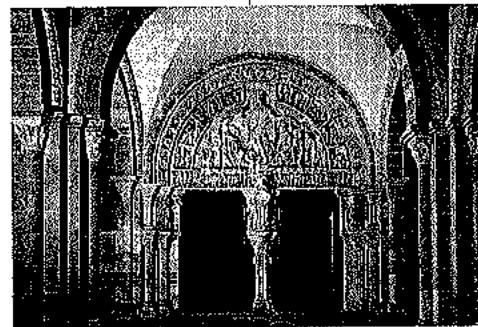
로운 느낌을 더 한다. 물론 창의 위치, 수, 그리고 규모도 성당 내부의 밝기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돌의 색깔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당이 동향이면 햇빛을 받는 위치에 있는 돌은 부식되기 때문에 매년 하지 풀, 그중에서도 특히 세례자 요한의 대축일인 6월 24일 정오에 회중석 한가운데와 내진에 밝은 얼룩이 생긴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성당 정문 안의 현관에서부터 내진까지의 통로는 “죽음의 그림자”를 상징하며 새벽에 들어오는 햇빛은 세례자 요한이 잠깐 동안 세상사람들을 초대했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

4-6 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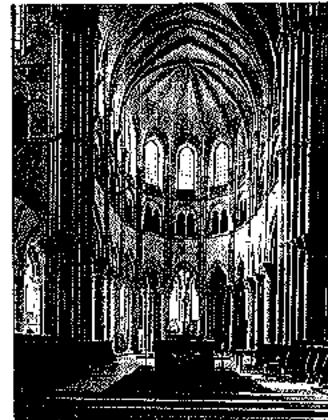
내진은 성당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다. 첨두형으로 교차된 궁륭과 대형 창, 여러 장식에서 고딕양식임을 알 수 있다. 회중석처럼 내진도 매우 질서정연한 느낌을 준다. 내진에 있는 원주 위쪽으로 궁륭의 뾰족아치가 있다. 내진 2층에 쌍으로 된 창구가 있는 통로가 있으며 더 위쪽에는 흥에 사이에 트리포리움이 있고 대형 창으로 밝은 빛이 들어와 흰 돌을 비추게 되어 있다. 내진의 선은 회중석의 선과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줄을 지어선 느낌이 아니라 상승하는 느낌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하늘로 끌려올리기는 것 같아 느끼게 한다. 본래의 설계도에는 한개의 돌로된 굽은 원주가 8개 있었고 남쪽에 가는 원주가 한개 북쪽에 똑같은 원주가 2개 있다. 이것은 예수가 집혀가기 전 날 저녁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기 위해 나가고 난 후 남아서 빵을 나눈 11명의 사도를 의미한다. 또한 2층 중앙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놓았으며 11개의 원주와 오른쪽 두번째 있는 벽기둥을 볼 수 있는데 이 장식용 벽기둥의 정사각형은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은 사도들 사이에 있는 유다를 의미한다. 제단 주위에는 8개의 굽은 원주가 있으며 그 원주에 작은 원주가 세개씩 있어 궁륭을 향해 올리기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요한 묵시록 속에 있는 내용으로 24명의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느님 앞으로 예수의 희생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진 주위 회랑



내부회중석



합각벽



성당내부

의 작은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144개의 작은 원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12배 한 것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이 모든 상징은 예수의 수난과 매일 제단 위에서 새로워지는 미사의 신비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낸다.

4-7 내진 주위의 회랑, 좌우익랑, 지하 묘소

4-7-1 내진 주위의 회랑

내진 주위 회랑은 아름다운 방사상의 작은 제단들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제단 안에는 그 시대의 입상이 있고 또 내진의 원주 위쪽에는 옛날 벽화들이 남아 있다.

4-7-2 좌우익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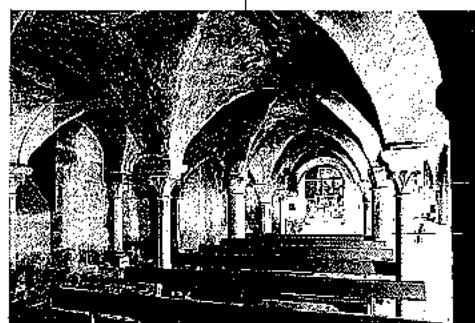
남쪽익랑 속에는 마들렌느 성녀의 현대식 입상이 있다. 또 이곳에서 마들렌느 성녀의 성유골과 함께 있던 옷가지와 성물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북쪽 익랑에는 베즐레이에서 머물렀고 이곳에 온둔자의 집을 건립한 아씨시의 프랑수와 성인의 입상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베르나르 성인의 현대식 입상은 1146년 그가 행했던 두번째 십자군운동을 위한 연설을 상기시킨다. 두번째 십자군운동은 아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전 유럽에서 몬 순례객들이 전쟁의 고통을 상기하고 부활의 믿음을 다지면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치고 성당으로 들어갔다. 이 십자기들은 측랑의 벽위에 현재 고정되어 있다.

4-7-3 지하 묘소

좌우익랑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성당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에 이르게 된다. 그릴로 둘러져 있는 이곳에는 마들렌느 성녀의 유골이 들어 있는 9세기의 성골함이 있다. 화재가 있기 전에 지하 묘소는 대들보로 받쳐주었던 반원형 궁륭으로 되어 있었으나 화재 후인 1165년 현재의 교차궁륭으로 건립되었다. 현대식 제단위에 있는 나무로 된 그리스도는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제작된 작품인데 초라하고 어두컴컴하며 명상적인 이 지하 묘소는 위층의 밝은 성당에는 상징적인 토대가 된다. 또한 성당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지하묘소는 그들의 겸손함과 비천함을 상징한다.



기둥머리



지하 묘소



기둥머리

4-8 기둥머리

성당원주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타낸 모티브나 단순한 장식 모티브로 꾸며져 있다.

매우 다양한 기둥머리들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조각가들의 아틀리에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미학적 가치나 상징적 가치가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타낸 모티브는 대부분 주제를 신 구약성서나 성인들의 생애에서 인용했고 악에 대한 징벌이나 우화 그리고 그리스 라틴의 신화를 표현하기도 했다. 단순한 장식 모티브는 사자, 코끼리, 펠리칸 등이나 머리가 셋 달린 새나 용, 또는 흘끗 보기만 해도 시름을 죽였다 는 괴상한 뱀같은 우화적인 짐승을 많이 이용했다. 가장 많은 수의 기둥머리는 이국적인 식물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식을 모티브들은 때때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상세히 나타낸 모티브의 테두리나 바탕에 사용되었다. 회중석에 있는 99개 기둥머리에서 2개의 장식 모티브와 6개의 이야기를 상세히 나타낸 기둥머리만이 19세기에 다시 제작했고 나머지는 원래의 것이다. 이 8개의 본래 기둥머리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4-8-1 성당 정문 안의 현관에 있는 기둥머리

왼쪽에서부터 보면 포도를 먹고 있는 두 남자, 삼손과 사자를 나타내는 모티브가 있다. 긴 머리카락에 엄청난 힘이 내재해 있는 삼손이 사자를 누르고 있다. 오른쪽에는 요한 복서록 속에서 나오는 용과 여인을 나타낸 기둥머리로 사탄을 상징하는 용의 입에서 성당을 상징하는 여인을 익사시키기 위해 큰강이 나오고 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인은 성당을 상징한다. 그 옆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나타내는 기둥머리가 있다. 궁궐에 앉아 있는 헤로데 앞에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난한 세례자 요한이 잡혀온 모습이 있는 기둥머리가 있으며 유혹을 받는 브누아 (Benoit) 성인 그리고 카인의 죽음을 나타낸 작품도 있다. 짧은이로 부활한 베드로와 바오로, 프로방스의 공주에게 발현한

마리 마들렌 성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주제인 기둥머리가 있다. 중앙에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가 그리스도에게 진짜 구세주인가를 물고 있다. 왼쪽에는 헤로데에게 잡혀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자 요한이 있고 오른쪽에는 헤로데가 헤로데 아의 딸인 살로메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른 세례자 요한의 머리가 장반위에 있다. 그 옆의 기둥머리 왼쪽에는 간부 바쎄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왕을 비난하는 예언자 나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걱정하고 있는 바쎄바가 있으며 중앙에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다윗왕이 있다. 그의 짙은 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후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다윗왕의 이야기를 나타낸 기둥머리 옆에는 어린이를 부활시킨 브누아 성인의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는 기둥머리가 있다. 왼쪽에는 한 수도자가 있으며, 중앙에는 삭발을 하고 책을 든 브누아 성인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수의에 싸여 있는 어린이의 주검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으로 아이의 아버지와 한 농부가 농기구에 몸을 의지하고 슬프게 그 광경을 보고 있다. 오른쪽에는 부활한 어린이와 함께 기쁘게 가는 브누아 성인이 표현되어 있다. 성당 정문안의 현관과 회중석 사이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사탄을 이긴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다. 아름답고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표현된 천사와 공포와 광기로 얼굴을 찡그린 사탄의 추한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다. 그 옆의 기둥머리에는 그리고리안 성가의 두 유형을 두 음악가로 상징했다. 한 음악가는 한줄로 된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고 다른 음악가는 작은 종이 달려 있는 막대기를 흔들고 있다. 그 다음의 기둥머리에는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조각되어 있다. 한 천사가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장면이다. 머리가 셋 달린 새를 사냥하는 목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울왕이 예언자 사무엘이 정한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물로 짐승을 바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낸 기둥머리도 볼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 기둥으로 자리를 옮기면 기둥의 오른쪽에서 머리에 왕관을 쓴 사울이 때늦게 후회하는 모습과 다윗의 머리에 뿔 속에 든 기름을 부어 하느님 백성의 왕으로 축성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진쪽의 전경



기둥머리



기둥머리

그 옆의 기둥머리에는 수염이 더부룩한 요부가 울리세이를 유혹하기 위해 교현금을 연주하고 있고 웅크리고 있는 울리세이는 마력에 훌리지 않으려고 뜻본 척하고 있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회중석쪽에 있는 기둥머리에서는 상아 뿔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는데 천국을 알리고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은 빨리 문을 닫도록 재촉하고 있는 장면이다.

4-8-2 회중석과 남쪽측랑의 기둥머리

먼저 회중석의 오른쪽 기둥과 측랑사이에 있는 기둥머리부터 살펴보고 왼쪽기둥과 왼쪽측랑 사이의 기둥머리를 관찰한 후 회중석 내에 있는 기둥머리를 보기로 한다. 회중석의 입구 오른쪽 첫번째 기둥에서 끔찍한 짐승의 등에 올라탄 날자와 소모양의 몸을 한 여자를 나타낸 기둥머리와 로마시인 베르길리우스(Virgile)가 지은 서사시 아에네이스(Aeneis)에서의 장면으로 쥬피터가 독수리로 변모하게 한 목동 가니메데스(Ganymedes : 제우스에게 납치되어 신들에게 술을 따른 트로이의 미소년)가 유괴되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기둥머리를 볼 수 있다. 부모는 비탄에 젖겨 있고 개는 짖고 있으며 악마는 기뻐하며 손으로 입을 잡아당기고 있다. 두번째 기둥의 기둥머리에서는 음란함과 절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음란함은 뱀이 배를 잡아먹고 있는 여자로 묘사했고 불꽃머리를 한 악마가 큰 검으로 자결을 하는 모습으로 절망을 표현했다. 세번째 기둥의 기둥머리에는 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 Eustache가 나무와 짐승사이에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을 보는 장면이다.

또 황도십이궁의 천칭과 쌍동이의 기둥머리도 있으며 측랑쪽의 기둥에서는 반인반마의 괴물이 잎사귀를 물고 있는 큰 새를 활로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번째 기둥에서는 이 성당의 기둥머리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신비한 방아를 묘사한 조각을 볼 수 있다. 짧은 옷을 입고 신을 신은 한 남자가 방아속에 곡식을 놓고 있고 머리가 벗겨지고 헐렁한 망토를 입은 다른 한 사람은 밀기루를 받아내고 있다. 첫번째 사람은 예언자 모세이며 그가 놓고 있는 곡식은 시나이

산에서 그가 받은 율법 즉 구약을 뜻하며 곡식을 갈고 있는 방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밀가루를 받아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를 상징하며 밀가루는 신약을 의미한다.

방아의 바퀴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모세의 율법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나 곡식 알갱이 속에 가려진 밀가루처럼 모호한 진리를 함유하고 있었다.

십자가 상에서 희생당한 그리스도에 의해 유행은 소화될 수 있는 밀가루, 즉 복음의 새로운 약속으로 변했고 바오로 사도는 이것을 받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임무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기둥머리의 신학적 깊이와 이를다음으로 봐서 조각가는 정문 험각벽의 조각가와 일치할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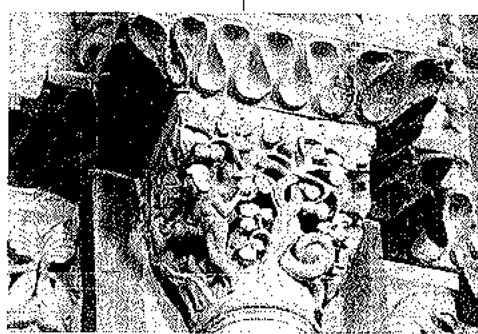
옆에 있는 기둥머리는 기난한 나자로의 죽음을 부자의 죽음을 나타낸 작품이다. 왼쪽에는 부자의 문 앞에 쪼그리고 있는 기난한 나자로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두 천사가 그의 영혼을 추광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있고 중앙에는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부자가 침대에서 죽어가고 있고 침대 밑에서는 뱀이 그의 재물을 삼키고 있으며 두 악마는 집게로 부자의 영혼을 뽑아내고 있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이 나자로의 영혼을 맞이하고 있다. 기난한 나자로와 부자의 죽음을 표현한 기둥머리 옆에는 카인의 죽음을 묘사한 기둥머리가 있다.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뭇잎 속에 숨어 있는 카인이 그의 손자 두발카인에게 인도되어 온 장님 아들인 리메에게 살해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다섯번째 기둥의 기둥머리에서는 다윗과 사자를 나타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젊은 다윗이 아버지의 가축을 공격하는 사자를 맨손으로 잡고 있다. 여기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사자는 심킬 먹이를 찾는 잔인한 악마를 의미한다. 여섯번째 기둥에서는 마르탱(Martin) 성인과 우상숭배자들의 나무를 표현하는 기둥머리와 시자의 굴에 갇힌 다니엘을 나타내는 기둥머리가 있다. 골(Gaule : 프랑스)의 복을 전도자였던 마르탱이 우상숭배자들이 숭배하는 나무를 쓰러뜨리도록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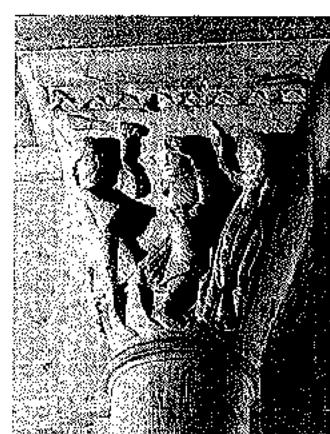
그들은 이 부탁을 받고 나무가 마르탱 성인 위로 넘어가게 하니 성인은 간단하게 십자성호를 그어 이교도들 위로 나무가 넘어지도록 한다. 건장한 근육질을 한 한무리의 사람들이 나무를 줄로 끌고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과 성인의 조용한 움짓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옆의 기둥머리는 다리우스 왕을 경배하지 않은 이유로 예언자 다니엘은 시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는 하느님 앞에서 죄없는 자였기 때문에 사자들이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성서내용을 표현한 작품이다. 측랑쪽에 있는 기둥의 기둥머리는 세속적인 음악과 추잡한 악마를 나타내는 작품이다. 왼쪽에는 곡예사가 플롯을 연주하고 있고 한 여자가 악마에게 몸을 쓰다듬게 놔두고 있다. 악마는 똥뚱하고 비틀어진 신체를 가졌으며 얼굴은 불길하고 불꽃모양의 머리에 뱀이 그의 배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 주위의 식물조차도 병약해 보인다. 일곱번째 기둥에서는 천사와의 결투, 아곱을 축복하는 이삭, 유혹을 받는 브누아 성인을 나타내는 기둥머리를 볼 수 있다. 아곱은 하느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결투를 했는데 아침이 되어 결투를 멈추었을 때는 승리자가 없었다. 천사는 아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하느님과 거루었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창세기의 내용을 기둥머리에 표현한 것이다. 그 옆의 기둥머리는 아곱을 축복하는 이삭을 표현한 것으로 중앙에는 그의 형 에사오의 덜 많은 손으로 가장하기 위해 짐승의 털로 손을 감싼 아곱이 눈이 먼 이삭에게서 맘이에게만 빛어주는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 있고 왼쪽에는 사냥에서 돌아온 에사오, 오른쪽에는 작은 아들 아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귀뜸해준 리브기가 동정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유혹을 받는 브누아 성인을 나타내는 기둥머리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굴에 은둔하고 있던 브누아 성인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다. 매일 브누아 성인에게 로마인 수도자가 빵을 줄에 매달아 절벽 위에서 내려보내고 조그만 종소리로 빵이 내려가는 것을 알렸다. 왼쪽에는 한 악마가 작은 종을 부수고 있고 중앙에는 브누아 성인이 구원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보이면서 축복해 준 한 여인을 또 다른 악마가 채찍으로 위협하고



기둥머리



기둥머리(곡식을 갈고 있는 모세와 바오로)



기둥머리

있으며 오른쪽에는 브누아 성인이 유혹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시나무로 서둘러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여덟번째 기둥과 나란히 있는 측랑의 기둥에서는 낙원에 있는 네 개의 큰 강을 묘사한 기둥 머리를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네 개의 큰 강은 여기서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벌거벗은 몸을 한 사람들로 표현되었고 큰 강은 글로써 영원한 생명의 물을 댄 4대 복음사를 의미한다. 그 앞의 기둥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후광에 경배하는 동물들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 기둥머리는 다시 제작한 것이다.

4-8-3 회중석과 북쪽측랑의 기둥머리

여기서는 내전 앞에 있는 기둥부터, 보기로 한다. 첫번째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를 묘사한 작품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헤로데에게 잡혀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내용을 표현하였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서서 자고 있는 감옥지기들이 조각되어 있다. 두번째 기둥에는 아담과 이브를 나타낸 기둥머리가 있다. 이 작품은 성당의 기둥머리 중 가장 모래된 것의 하나로 매우 오래된 작품 제작솜씨가 눈길을 끈다. 옆에 있는 측랑쪽 기둥에서 악마 아스도데를 이긴 천사 리파엘을 조각해 놓은 기둥머리를 볼 수 있는데 선과 악의 싸움을 표현한 것으로 왼쪽에는 사자와 함께 토비아가 있고 악마의 우스꽝스런 몸짓과 웃음을 머금고 조용히 있는 천사의 모습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세번째 측랑기둥의 기둥머리에는 은둔자 바오로와 앙투안(Antoine)성인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는데 사막에 은둔하고 있던 바오로를 앙투안 성인이 찾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 두 사람은 한 깨마귀가 바오로 성인에게 물고 오는 뺨을 나눠 먹었는데, 하루는 그 깨마귀가 조금 더 큰 뺨조각을 두번 정성을 다해 물고 왔다. 기둥머리의 대칭적 장식은 두 친구의 형제와 같은 성덕을 상징한다. 회중석 쪽의 세번째 기둥에서는 유혹을 받는 앙투안 성인을 나타낸 기둥머리와 환상을 보는 앙투안 성인을 묘사한 기둥머리가 있다. 네번째 기둥에서는 사울을 살인한 자를 처단하는 다윗, Eugénie 성녀의 전설, 바오로 성인의 장례식을 묘사한

기둥머리들을 볼 수 있다. 첫번째 기둥머리의 왼쪽에는 사울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이 있고 오른쪽에는 형리에게 저항하는 살인자가 조각되어 있다. 두번째 기둥머리에는 이교도 판사의 딸로 여자인 것을 감추고 남자수도원에 들어갔던 Eugénie 성녀의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수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녀가 남자인줄 알고 정을 통하려했던 여인에게 발각되어 고소를 당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법정에서 신분을 밝히고 가슴을 보이기 위해 옷을 벗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서는 잉글리시에서도 실망한 표정의 고소인과 깜짝 놀라 뻣뻣하게 앉아 있는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있는 성녀를 볼 수 있다. 세번째 기둥머리는 양투안 성인이 그의 친구 바오로 성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사자 두 마리가 매우 힘없이 무덤을 파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기둥머리는 다시 제작된 것이다. 측랑쪽의 기둥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흘끗보기만 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괴사를 조각해 놓았다. 수탉의 알로 나서 두꺼비가 7년동안 품어서 부화하는 전설적인 짐승이다. 다섯번째 기둥에서는 파라오의 아들을 죽인 천사, 모세와 금송아지, 사탄들의 싸움을 표현한 기둥머리를 볼 수 있다. 첫번째 기둥머리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집트를 떠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파라오에게 하느님은 열가지 재앙을 내린다. 하느님은 천사에게 파라오의 아들을 포함해서 이집트인들의 맏아들을 몰살하도록 했다. 굴목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놓아두었고 이 사건은 그때부터 유월절(이집트 탈출 기념제)로 기념하게 되었다. 훼손된 이 기둥머리의 아름다움은 천사의 무서운 몸짓 아래에 있는 작은 파라오의 체념한 듯한 자세에 있다. 두번째 기둥머리는 하느님이 준 증거판을 갖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을 기념하기 위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백성을 발견한다는 내용이다. 왼쪽에는 모세가 우상에 대해 막대기를 들고 증거판을 휘두르고 있고 악마가 금송아지의 입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오른쪽에는 한 유대인이 희생제물로 양 한 마리를 가



기둥머리



기둥머리



성당축랑

져오고 있는 장면이다. 여섯번째 기둥의 기둥머리로는 다윗의 아들 암살롬의 죽음을 나타낸 것과 부자의 잔치를 나타낸 조각이 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에게 대항한 다윗의 아들 암살롬의 머리를 자르고 있고 머리카락은 나무가 지에 걸려 있으며 암살롬의 말은 도망을 치고 있는 광경을 표현했다. 부자의 잔치를 나타내는 기둥머리는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묘사한 것이다. 일곱번째 기둥에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의 이야기를 표현한 기둥머리가 있다.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로 쳐죽이는 장면과 거인의 머리를 잘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를 나타내는 기둥머리에는 그의 동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여 시체를 물어버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여덟번째 기둥에는 유딧과 헬로페르네스의 이야기를 나타낸 기둥머리가 있다. 이 기둥머리는 완전히 현대적인 작품이다. 아홉번째 기둥의 기둥머리는 탐욕과 중상모략에 대한 벌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원쪽에는 탐욕스러운 자가 그의 가방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그를 기리키며 서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중상모략하는 자의 혀를 집게로 뽑아내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4-8-4 회중석 윗부분의 기둥머리

회중석의 남쪽 세번째 트라베의 대형 아케이드 머릿돌에는 둥글게 둘을 새김을 한 곳에 왕관을 쓴 여인이 앉아 있다. 한 손에는 작은 성당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깃발을 들고 있다. 그 주위에는 라틴어로 글을 새겨놓았다. “지금은 연기에 싸여 있으나 나는 곧 아름다워지리라”는 내용으로 1120년 마들렌 성당을 힘쓴 화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 옆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표현했다. 내진쪽으로 가면서 삼손과 데릴리를 묘사한 기둥머리도 볼 수 있다. 회중석 북쪽에 있는 기둥의 기둥머리에서는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두 펠리칸을 볼 수 있다. 아벨과 카인을 나타낸 기둥머리에서 원쪽에는 아벨이 하느님에게 어린 양을 드리고 있고 구름속에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 그를 시기한 카인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 위에 손을 얹고 나무단을 드리고 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나타낸 기둥머리에는 이브가 사파나무에서 사파를 따서 아담에게 건내주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밤과 사파나무가 서로 엮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작품의 옆에 있는 기둥머리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묘사되어 있다.

5. 교회참사회의실과 성당 안뜰

내진이 건립되기 전 12세기 말에 건립된 참사회의실은 첨두형 궁륭으로 되어 있다. 이 곳 역시 비올레 르퇴에 의해 복원되었다. 성당 안뜰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완전히 파손되었다. 이곳

의 중앙에는 오랫동안 베즐레이 시의 물저작고였던 대형 저수조가 있었다. 비올레 르퇴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회랑을 재건축했다. 원쪽 정문 옆에 있는 200계단을 통해 탑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구 도시 너머로 펼쳐진 풍경과 퀴르(Cure)계곡, 그리고 프랑스 중부의 산맥 지방인 모르반(Morvan)을 감상할 수 있다.

6. 맷음말

소개하고 있는 마들렌 대성당은 중앙회중석에 서서 내진을 바라보면 태양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이를 건축에 적용시킨 특이한 수도원이라는 점이다. 6월 21일에서 24일 사이인 하지에는 북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12월 21일에서 24일 사이인 동지에는 태양이 남동쪽에서 떠오른다. 만일 회중석의 방향이 정동이었다면 성당은 두 해들이 방향의 중간축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하지 때 태양은 북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성당내부에 햇빛이 가장 오랫동안 들어오고, 동지때는 태양이 남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성당내부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가장 짧다.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성당의 높은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은 벽과 북쪽의 기둥들을 비춘다. 정오가 되어 태양이 정남에 있을 때는 모든 기둥과 바닥의 포석에 햇빛이 비친다. 한겨울에는 햇빛이 성당내부 깊숙히 들어와 가장 높은 기둥의 기둥머리 밑까지 닿는다. 이 때 남쪽 측랑의 창을 통해서도 빛이 들어와 서쪽을 향하고 있는 기둥머리까지 황금빛으로 된다. 하지 정오가 되면 회중석의 중앙에는 들어온 빛으로 인해 불꽃 모양이 생긴다. 건물의 내부는 건축에 의해 한정되는 공간으로 내부에 들어오는 빛은 태양과 지구의 위치관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순간 일정한 장소에 투사되는 빛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우주와의 관계속에서 성당이 건립되기를 원했던 건축가의 소망을 나타낸다. 우주의 아름다움에 열중했던 건축가는 질서와 절도, 아름다움 속에서 만물을 창조했던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천국의 안뜰을 건립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후세의 사람들은 추측을 할 뿐이다. 하지 때 세례자 요한의 대축일에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증기리아가 요한이 탄생하는 순간에 옮았던 성가의 마지막 구절처럼 빛은 절정에 이른다.

협회소식 / 116
건축계소식 / 120
현상설계경기 / 123
계획작품 / 126
해외잡지동향 / 129
산업회원 / 135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36
게시판 / 138

협회소식 KIRA news

「건설업체 건축설계업 진출」**강력 저지**

규제개혁추진회의, 중요성을 감안
유보카로

공정위의 「건축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우리협회가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집회를 여는 등 건축설계업계가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열린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공정위의 규제방안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신중히 재검토해 7월말로 예정된 차기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경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공업체도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텐키공사와 연면적 2만㎡ 이상인 자기 시공공사의 설계를 허용하거나,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을 확정하므로써 건축설계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협회 또한 지난 6월 9일에 열린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단계로 현장조사·검사업무와 정부위탁업무를 전면거부하고 2단계에는 건축사의 건축행정업무와 정부위탁업무 전면 중단, 3단계에서는 건축사 면허의 반납과 건축사 업무를 전면포기한다는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하고 지난 달 30일 전국 건축사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집회가 열린 서초동 협회회관 앞은 공정위의 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침이 '자본을 앞세운 재벌건설업체들의 설계·시공 독점기도에 동조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부실건축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줌으로써 우리의 건축문화를 망살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각종 구호와 피켓들

결의문

우리 건축사는 건축문화의 주체로서
자본을 앞세운 재벌 건설업체의『설계·감리·시공』독점기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개혁을 빙자한 재벌 비호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6,500여 건축사와 50,000여 종사자는
이를『전문화 역행시책』·『건축문화 망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전국 건축사의 이름으로 이를 결사 저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 1단계—현장조사 검사업무와 정부위탁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 2단계—건축사의 건축행정관련업무와 공사감리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 3단계—건축사면허를 반납하고 건축사업무 일체를 전면 포기한다.



규탄집회 광경



토론회 광경

로 가득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3백5십여 명의 회원들은 공정위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건축설계분야의 규제진입 완화 방침'을 끝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건축사업부의 일체 포기는 물론 건축사면허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규탄하는 한편 건축설계업 보장을 위한 전건축인의 결집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규탄시위에 앞서 협회대강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건설산업의 설계·시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총체적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이달초 공정위는 우리 협회가 규탄집회를 열고 시리즈 형식으로 회원들의 단계별 대응결의가 담긴 「국민앞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광고를 연이어 게재한데 대해 이를 대응책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광고경비 내역과 관련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므로써 협회의 초강경 대응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현재 협회 당면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 사안은 지난 7월 2일 고 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건설업체에 유리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받아들여져 유보되므로써 최종 채택여부는 이달 말쯤 열릴 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진입 반대」 결의문 채택



임시총회 광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설계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화시키려 함에 따라 우리 협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결사자지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6월 9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4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당면 최대 현안인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문제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이들 현안의 심각성이 말해주듯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들의 높은 참석률속에 시종 열띤 토론과 강경대응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김영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위의 재벌건설업체 설계진입 허용은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문화 수호차원에서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현안문제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대의원들은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진입이 건축설계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

제작제작자: 김민수, 사진제작자: 김민수

“정부와 재벌의 합작, 건축문화 실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길 것인가?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제작제작자: 김민수, 사진제작자: 김민수

“개혁방자 재벌비호, 개혁정책 실종된다.”

재벌의 「설계·시공」 독점,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바로 짜어야 한다.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 재벌에게 건축설계까지 기어코 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글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일동』

중앙·조선·동아·매경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전문

별 건설업체들의 자본논리로 말미암아 시장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결국은 건축문화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개탄하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건축사업무 중단은 물론 면허반납도 불사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날 대의원들은 열띤 토론 끝에 '우리건축사들의 결의'란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정위의 설계 시장 진입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키로 하는 한편 이에대한 추진 방법 등 세부계획은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다수의 대의원들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중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문제와 관련해 기술사에게도 대표자 자격을 허용토록 완화한데 대해 절대불가 의견을 밝히자 이를 부의안건으로 정식 채택해 결의문내에 설계감리 관련구를 삽입키로 결의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의 각 부의안건별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반대」의 건
 -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키로 함.
 - 1단계 : 현장조사 검사대행업무 및 정부위탁업무 전면거부
 - 2단계 : 건축사의 건축행정관련업무 및 공사감리업무 정면종단
 - 3단계 : 건축사면허 반납 및 건축사업부 일체 전면 포기
 - 소요예산 및 추진방법 등 세부계획은 집행부에 위임
 - 필요시 반대집회 개최
- 제2호의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심의의 건
 - 결의문내에 설계감리 관련 문구를 삽입키로 함
 - 문안작성은 집행부에 위임

이사회 개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겹업」 등 현안문제 협의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30일(제8회)과 6월 19일(제9회), 6월 30일(제10회)에 협회 종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부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회차별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8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 변경 승인의 건
- 유보 (계약내용 및 진행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키로 함)
- 제2호의안 :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승인의 건
 - 97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키로 함
 - 일시 : 97. 6. 9(월) 14:00
 - 장소 : 협회 강당
 - 의제 :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무 진입반대」의 건
- 총회개최 통보시 경제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삽입

- 동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추진계획 (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
- 대책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

● 제9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정명석 회원 : 권리정지

6월)

- 제2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개발 용역 및 시스템 구축계약의 추가계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기간연장 : 1개월, 금액추가 : 1,800만원)
- 제3호의안 : 97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예산범위내에서 항목조정 : 364,649,000원)
- 제4호의안 : 건축사시험 응시원서 판매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응시원서대 : 2,000원)
- 제5호의안 : 외국인고용추천서 발급규칙 제정 승인의 건
 - 수정승인 (일부 용어를 추가 및 삭제하고 제출서류중 "법무부의 신원조회서 1부"를 추가)
- 제6호의안 : 건축연구소 연구원 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연구원 2인 : 안종현, 경승원)
- 제10회
- 제1호의안 :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한·동 교류증진을 위한 장학사업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월 200,000원 / 1인)
- 제2호의안 :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한 협의
 - 제7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97. 6. 30. 11:00 개최)에서 합의한대로 추진키로 함
- 제3호의안 :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한 협의
 - 제7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 합동회의 합의사항 주요내용
 - 정책토론회 종료후 협회내에서 구호연창 등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로 함
 - 규제개혁추진회의(7월 2일 개최 예정)시 협회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강력 대응키로 함
 - 대책소위원회 감토를 거쳐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집행방법 강구
 - 차기회의(7월3일 개최 예정)시 결의사항 1단계 집행 결정

제주도건축사회

「'97제주건축 세미나」 개최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 주제로



세미나 광경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강행생)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도건축의 지역성 재론」을 주제로 건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건축문화의 속내와 제주다운 건축이미지를 찾아내 현대건축에 되살리므로써 지역건축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건축관계자를 비롯한 제주시민 약 190여명이 참석해 지역건축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약 4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병기 구미전문대학장은 「지역성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는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에 적합한 건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연구발표와 토론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건축계획시부터 창작활동의 개념근거를 향토성에 바탕을 두어 설계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 이의 정착을 위해 건축 미관심의 강화와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을 제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김홍식(명지대 교수), 김중근(제주도건설교통국장), 김석윤(제주건축사회 건축위원회 위원장), 허영주(건축위원)씨를 비롯해 지정토론자로 김정동(목원대 교수), 김태일(제주대 교수), 양상호(동원산업대 교수), 신석하(제주전문대 교수), 김창우(제주건축사

회 전회장) 씨 등이 참가했다.

제7회 경남건축대전 작품공모

일반공모전 및 완공건축전 2개부문

3. 심사결과 발표 : 1997. 11. 10(예정)

4. 시상 : 1997. 11. 15. 11:00

• 일반공모전

- 대상(경남도지사상) 1점 : 상금200만원 및 상패
- 특별상(경남건축사회장상) 1점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우수상 2점 : 상금 각 50만원 및 상패
- 특선 5점 : 상금 각 30만원 및 상패
- 입선 (다수) : 상패

• 원공건축전

- 금상 : 상패
- 은상 : 상패
- 동상 : 상패

5. 작품접수처 및 전시장소 : 추후 별도 공고

6. 수상작전시 : 97. 11. 12 ~ 11. 15

7. 문의 : 경남건축사회

(0551-46-4530~3)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회원 및 독자 임직원 100여명 참석해 축하



리셉션 광경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세훈)가 발행하는 서울건축사신문이 창간5주년을 맞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협회회관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회원과 독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서울건축사신문의 창간 다섯들을 축하고 독자와 함께 하며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언론매체로서의 발전을 기원했다.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서울건축사신문은 97년 6월 16일 현재
제116호가 발행됐다.

건축계소식 archi-net

경기도건축사회 원로회원 경로소연회 열어

전임회장 등 65세 이상 원로회원 초청

경기도건축사회(회장 윤영재)는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수안보 와이키키호텔에서 원로회원을 초청해 경로소연회를 개최하였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된 이 행사에는 경기도 건축사회 전임회장과 65세이상 경로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해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건축사회

제3회 회원작품전 작품공모

일반공모전 및 완공건축전 2개부문

부산광역시건축사회(회장 박충명)에서는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건축에 대한 일반의 저변확대를 위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제3회 회원건축작품전을 개최한다. 출품작은 작품의 소재지나 종류(완공부문, 계획부문, 기타)에 제한없이 90cm×75cm 규격의 패널 2매에 담아 제작하면 된다. 7월 14일부터 출품신청서를 접수하며 작품제출마감일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전시회는 10월 4일부터 9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예당에서 열린다.

제2회 청년작가 실험展 -안티키주의 지형학 '항성'

현실비평연구소가 자체선정한
청년작가 「대상전」과
대표작가 「초대전」으로 구성

현실비평연구소가 주최하고 경인미술관이 후원하는 제2회 청년작가실험전이오는 8월9일부터 16일까지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최측이 선정한 청년작가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성건축가들의 작품세계와 건축언어가 전시라는 형식을 빌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건축정신을 중심에 두고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항성'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다 많은 대중과 문화영역에 '건축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초대작가로는 김태수, 조건영, 강남구 씨가, 대상작가로는 김태우, 조병수, 정창석, 박종원, 강일원, 조용범 씨가 참여한다. 현실비평연구소측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항성'에 대해 일정한 형식 또는 예술이나 건축물을 특징짓는 표현형태로 특정한 시기, 유파, 작가 등을 나타내는 말을 양식이라 할 때 양식은 원가 공통적인 특성을 카테고리화 하기 위한 분류이며 다소 현학적인 시각으로써 역사적 또는 시기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상대적으로 이번 전시의 주제인 '항성'은 시대양식, 지역양식 등 의 집합적 개념을 보유한 작가의 자기표상으로써 의식개념이라고 밝혔다

창덕궁·수원華城,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듯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문화유산 목록 등재 권고 결정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장경판고, 종묘에 이어 수원 화성(華城)과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회의는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의 창덕궁과 수원 화성에 대해 세계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창덕궁과 화성은 올해 12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결정을 거쳐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정식 등재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우리나라 는 지난 95년 12월 제19차 위원회에서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장경판고, 종묘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었다.

한국건축가그룹 金友會 창립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세미나, 전시회, 리셉션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 열려

뜻을 함께 하는 건축인들이 한데 모여 친목을 다지고 연구·전시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해온 금우회(회장 이병호)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27일 오후6시부터 서울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는 금우회 회원들과 건축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초청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세미나와 출판기념회, 기념리셉션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금우회는 지난 1967년에 발족돼 매년 정기적으로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휘경지구 아파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 의회청사

휘경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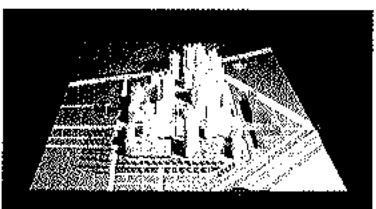
Huihyong-District Apartment

국립건설시험소가 이전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지구에 이상적인 주거단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설계를 공모. 그 결과 총 18 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강남건축(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안이 선정됐다.

▶ 최우수작 / 강남건축(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



조감도



모형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09일원

대지면적 79,286m²

건축면적 13,599.84m²

연면적 272,016.65m²

건폐율 17.15%

용적률 240.35%

도로율 17.13%

녹지율 45.2%

계획 세대수 임대 - 12평형 : 400세대

18평형 : 400세대

분양 - 25평형 : 822세대

34평형 : 408세대

계획담당 박종서, 박숙진, 이승기, 엄명준, 김문경, 이성희

기본방향

- 부지 축에 부응하는 주동 배치 축 설정으로 단지 전체의 정형성을 부여
- 주변 배봉산 및 중랑천의 자연환경을 단지내로 유입
- 인근 단지 및 주택지의 시각 개방을 위한 주동 및 충수계획으로 조화있는 지역개발
- 단지 중앙에 동서를 잇는 보행률 도입으로 대형 녹색공간 제공
- 출입구를 분산 배치하여 주출입구의 교통량 분산 효과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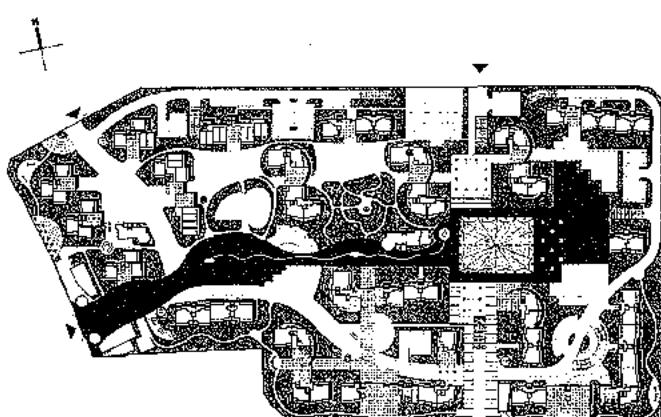
- 부지 축 및 도시 축에 부응하는 주축 설정으로 단지의 정형성 부여
- 도로변 타워형 주동배치로 Land Mark로 부여
- 동서를 잇는 보행률에 상가, 관리시설 및 광장을 연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대
-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동간의 충분한 이격 및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
- 인접 주택지의 Privacy 침해 및 시각 개방을 위해
 - 낮은 충수의 주동을 배치
 - 저층부에 피로티 계획으로 시각개방감 부여
 - 동서, 남북의 시각통로를 위한 변화있는 충수계획
 - 축벽 및 Open Space 확보로 개방감 부여

Open Space / 시설물 배치계획

- 유기적, 체계적 공간 구성
- 주변 자연환경을 단지내로 유입시키는 녹지공간 및 수공간 계획
- 단지 동서를 주활동축으로 하는 보행률 설치와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열린 마당, 한마음 마당 설치
- 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을 보행률 주변에 배치 접근성 및 인자성 도모
- Open Space의 적정한 분산배치로 개방된 단지 조성

보행동선

- 주출입구에서 동서를 잇는 보행률을 중심으로 보행축을 설정, 쾌적하고 안전



종합배치도

한 보행체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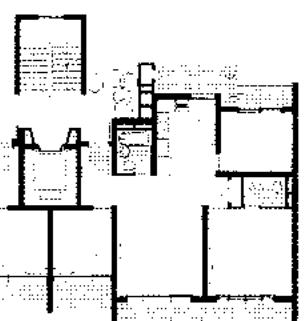
- 주동을 통과하는 동선에 피로티 설치로 간결한 보행동선 수립
- 차량동선과 교차하는 부분의 차량동선을 지하화하여 안전한 보행동선 수립
-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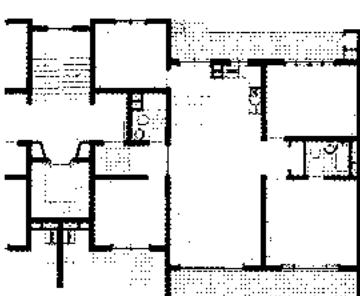
12평형



18평형



25평형



34평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Small & Medium Industry Support Center

연면적 42,088m²

건폐율 8.31%

용적률 30.8%

규모 지하3층, 지상16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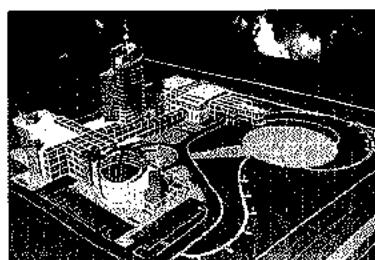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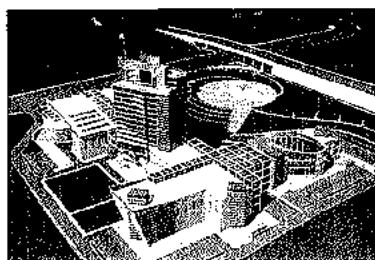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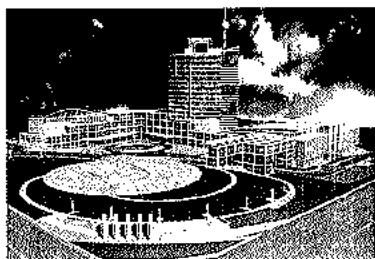
주요외장 알미늄시트페널, 복층유리,

메탈페널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계경기
의 심사결과, 총 9개 작품이 제출된 가운데 무영건축(안길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건원국제건축(한현호)인이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우수작에게는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9년 준공예정이다.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조감도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11-1번지 일원

대지면적 99,900m²

건축면적 8,298m²

도로레벨과 대지경사의 현격한 차이, 대지내 급경사 재단시설과 부대시설의 기능상 분리, 재단시설내 복합적 기능, 첨단시설의 이미지, 지원센터로서의 상징성 등 많은 제한 조건들을 풀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 및 대안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 전면부 남측면을 시민광장으로 하고 경사가 완만한 북측면에 건물을 배치하면서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는 본 계획안이 탄생되었다. 제한조건들에 대한 디자인 해결은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배치에 대한 해결로서, 재단시설의 건물 매스는 단순한 직사각형의 매스를 T자 형태로 교차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건물 매스를 대지의 경사에 따라 배치하고 50m 도로변에 2단계 개발의 부대시설을 브리지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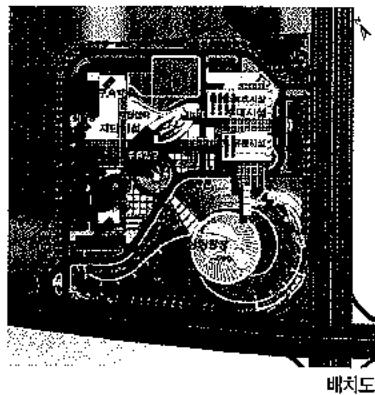
건물 매스에 대한 해결로서, 단순한 매스에 의하여 기본의 축을 설정한 후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경되는 Division의 개념이 아닌 Addition의 개념에서 건물의 매스를 구성하였다.

- 8m×8m 모듈의 Cubic Frame Structure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4개층 Open의 아트리움, Circulation, Green Space 등을 건물내 복합기능이 각각 분리되고 연결되는 순환 기능을 갖는다. 또한, 8m×8m Cubic Frame Structure는 유리로 마감하여 외부의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까지 인입되는 투명성을 부여하고 차후의 증축 및 내부공간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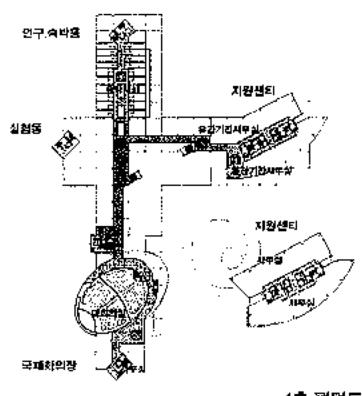
- 전통악기(진고)의 형태를 반영한 타원의 원통형 매스는 국제회의 시설로서 계란 형태의 내부공간기능과 Metal Frame과 유리로 마감된 서비스 시설

이 교차되어 Solid와 Void Space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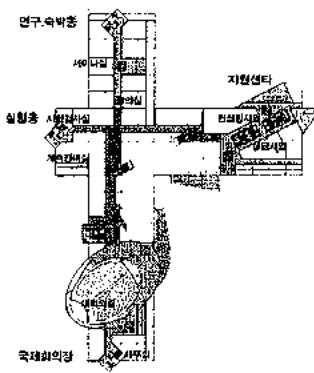
- 기존의 건물 디자인에게 보여졌던 Minor한 Core Space를 건물 매스의 변화 요소로 활용하면서 Iconic Function과 동적 느낌을 갖도록 건물 축에 반하는 사선으로 배열하였다.
- 국제회의시설, Core Space와 같이 동서의 축에 따라 사선 배치된 지원센터의 오피스 타워는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에 각각 Green Room 및 휴게 박코나를 설치하여 입면 형태에 변화를 주고 전통개념에서의 솟대와 같이 지원센터를 High-Rise화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토록 하였다.
- 시민의 휴게광장, 앞동산, 도로 소음에 대한 원총역할로서 남측 전면부에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수목이 어우러진 전면광장, 썬큰광장을 통한 지하 공간 연계, 대지 경사를 이용한 지하층 Open, 첨단시설의 이미지로서 유리, Metal Frame, Aluminium Sheet Panel의 사용, 전봉창호 모듈에 의한 입면 모듈구성 등도 본 계획안에서 고려되었던 점들이다. (글/이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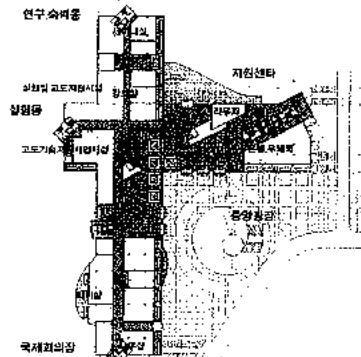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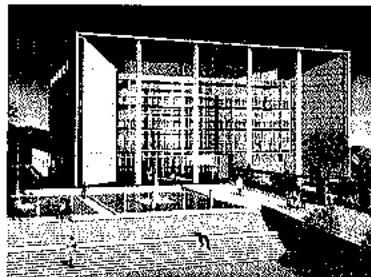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당선작 / 코아건축(전병직)



투시도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의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6,685m ²
건축면적	2,110m ²
연 면 적	7,615m ²
건 폐 율	12.65%
용 적 율	37.6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18 컬러 투명복층유리
계획총괄	서민원
제 희	김혜자, 정민영, 정성식
조 경	박영임
컴퓨터그래픽	정재욱, 이시한, 민재원, 강보금

관문(Gate)

본 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계획의 출발점 (Design Motive)으로, 민의수렴의 관문으로서 의회청사 고유의 성격을 표현하며,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는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통일을 지향하는 관문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공공성(Public Spirit)

절제된 개념으로 공공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기존의 의회청사와는 차별화된 '새로움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며 전면 투명 유리를 통해서는 여과된 형태의 표현 및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나타낸다.

변화와 체험

(Variation & Experience)

공간의 위치에 따른 단계적 체험은 대침적 질서속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 및 내·외부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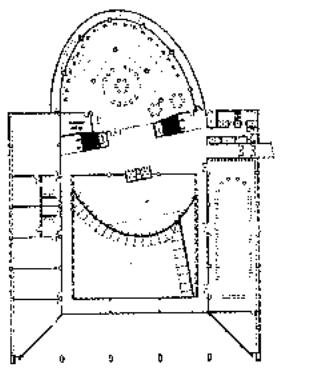
의정부시 의회청사

Committee Hall, Euijungbu-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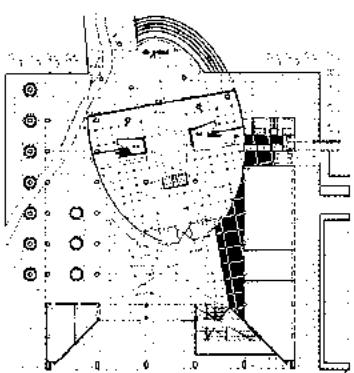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코아건축(전병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5월 9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총 13개 작품이 제출되어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하나건축(김영규)+미래건축(홍장표)안이, 가작으로는 한국건축(이윤경)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명호(중앙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심우갑(서울대 교수), 최찬환(서립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김상식(부림건축), 김영섭(건축문화), 김인철(아르키움), 변용(월도시), 시의원,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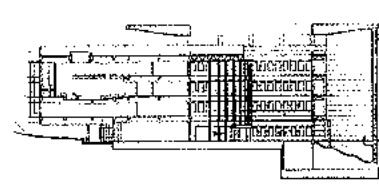
상호관입에 따른 공간연출 등을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시도이며, 기존환경유지를 위한 수경공간 도입 및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감은 계획의도에 합리성을 부여 한다.〈글/서민원〉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계획작품 blue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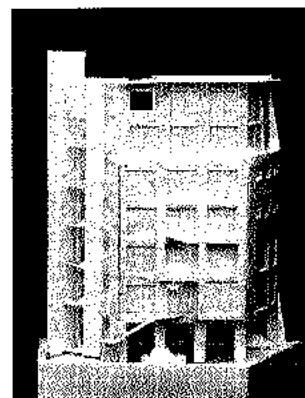
서교동 F빌딩

은평구 체육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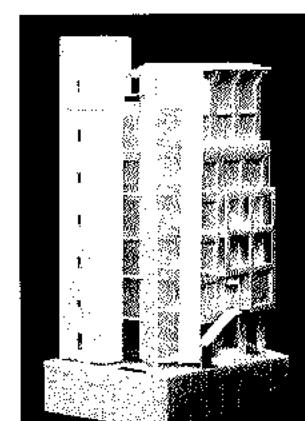
서교동 F빌딩

F Bulg., Sokyo-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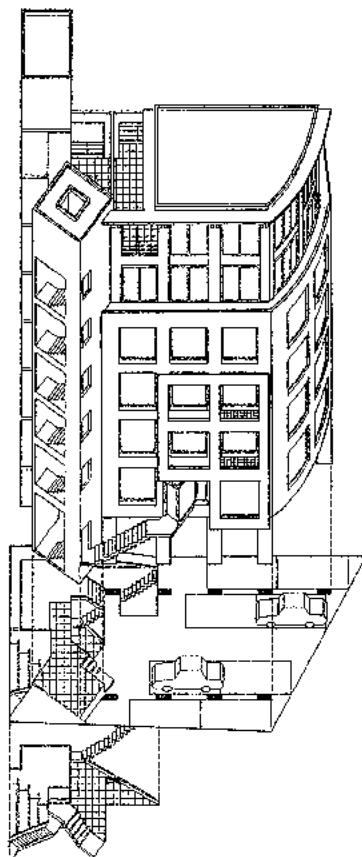
손기찬 / 동이건축사사무소



모형1



모형2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5-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 도 근린생활시설(까페, 웨딩홀, 뷰티샵, 레스토랑)

대지면적 276m²(83.48평)

건축면적 165.22m²(49.97평)

연 면 적 959.94m²(290.38평)

건 폐 율 59.86%

용적률 303.84%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8대

설계담당 하해란, 김태임, 배길호, 이진
욱

구조계획 조현성

기계,전기설비 선화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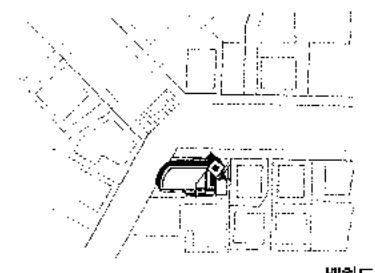
도시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특히 상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종, 업태들의 출현으로 골목길, 큰길가, 넓은 거리 할 것 없이 새로운 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도시속의 정주자들은 내몰리고,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던 도시의 생명력은 사라져 가고 있다.

때로는 낡아빠진 거리에 끼어 들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이내 물거품처럼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이동성과 변화성(유형)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물결은 곧 우리의 도시가 일과성의 소비적인 거리로 변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흥대앞에 위치한 작은 계획부지는 이 지역의 적극적인 변화에 부딪혀 최대한의 경제적인 불룸과 함께 패션너불한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었다. 빌딩속의, 건축디자인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고급화된 인테리어로 치장한 점포들이 경제원리와 결부되어 도시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채 거리를 휘어잡고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상업성으로 인해 자칫하면 우리들의 거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가 패션으로만 흐르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우려이다. 도시속에 남은 건축이란 그 도시의 문맥이며, 골격을 형성하고 성격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도시속에 건축은 단절된 내부공간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도시의 흐름속에, 도시속에 내재함이다. 1층의 피로티는 코너부지로서, 거리와의 연속성과, 차량의 용이한 접근, 만남의 장소로써 제공되어지며 좁은 대지에 상하 수직동선은 새로운 시선으로서 도시와 내부를 향해 열려져 있을 것이다. 좋은 도시를 겨냥하는 데는 충간벽면은 반드시 사유가 아니고 도시의 것이라는 인식하에 설비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든 벽면은 기꺼이 개방시키고 내부의 움직임과 시선은 빛과 바람에 의한 연출을 생각해, 때로는 그와 같은 시간적, 자연에 대한 변화를 의식하였다. 그것은 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하로 이어지는 아침, 낮, 밤-하루종일 점포와 건축물의 얼굴이 보이게 되고 아침은 아침의 모습(패셔너불한 거리는 아침이 없다), 낮의 활동적인 준비, 밤의 빛과 시간변화에 대응한 신선한 연출은 자기도취적인 커다란 간판이 아닌 건축을 자체의 광고탑이라는 매력을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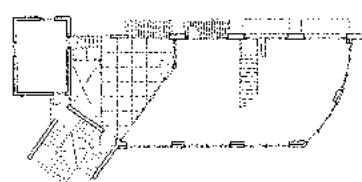
도시야말로 우리들의 숲이며, 도시공간은 공간을 발생시키는 건축에 의해 성립된다. 조그만 이곳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시각적인 공간뿐만 아니다. 바람,

빛, 커피향기, 나무와 돌연 마주치는 친구와 같은 만남의 연속적인 공간을 의도하였다. 인테리어와 같이 폐쇄된 공간의 퍽션성을 당연히 기대할 터이지만, 이곳에서만이라도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희망적인 지속성과 조응성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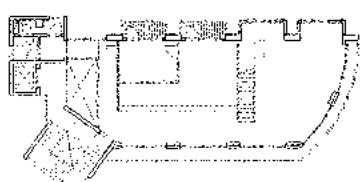
「만물은 문활이 불가능한 전체적 운동이다」〈데이비드 봄〉 (글 / 손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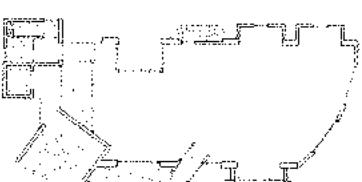
배치도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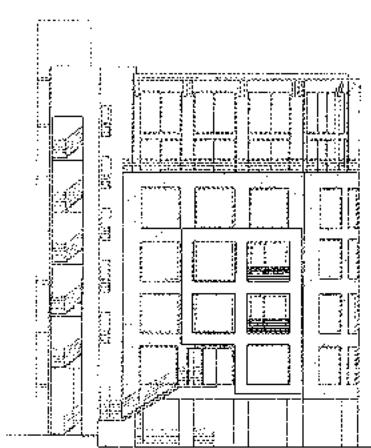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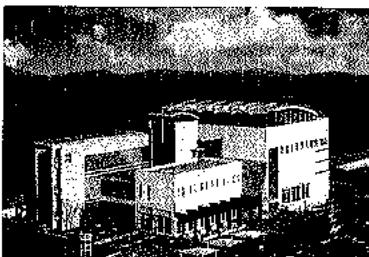


북측입면도

은평구 체육문화센터

Culture & Sports Center,
Eunpyeong-gu

심우근 / (주) S.A.C 건축사사무소



조감도(현상설계 우수작)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42-9의 3필지 갈현근린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9,070m²

도로현황 8m 도로
연 면 적 7,566.54m²

건축면적 1,787.42m²
건 폐 율 19.71%

용 적 률 49.52%
규 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총 수 지하2층, 지상3층

최고높이 23m
외부마감 ①18켤라 복층유리, 알루미늄

페널(지정색) 동판지붕재
주차개요 60대(장애인주차 6대 포함)

	법정: 49대
조경개요	18% (1,632.60m ²) 법정 : 15% 이상
설비개요	옥외시설 : 야외공연장, 주차장, 선큰가든,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계획의 배경

지자체 실시 이후 여러 자치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은평구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은평구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 도모를 목적으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게 공간의 마련을 건립취지로 하고 있다.

갈현근린공원내에 마련된 부지는 동쪽으로 9m 도로를 면하고 있으며 남북으로의 고저차로 인해 최대한 지형에 순응하는 건물 배치와 외부 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각기 다른 체육시설의 복합적인 수용을 위해 합리적인 Zoning을 통한 가능수행의 극대화를 필요로 한다.

배치계획

- 남북으로의 고저차를 최대한 활용
- Approach-휴게 공간을 사이로 차량통선과 보행동선을 양분하여 원활한 진입을 유도한다.
- 옥외 체육시설, 휴게 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의 부대 시설을 분산 배치시켜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 다양한 휴게 시설을 마련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진입을 유도한다.
- 진입광장, 공개공지, 선큰가든, 분수대,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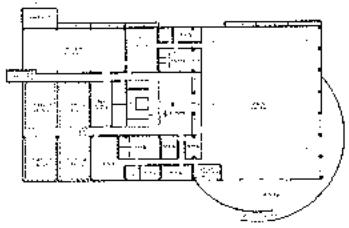
평면계획

- Mass의 기능별 분리 배치(중점)-동측 광장으로부터의 진입 유도
- Atrium 공간의 마련-채광면적의 극대화
- 배면부에 부지를 애워싸는 수직동선을 마련하여 Core와 연결-입체적인 동선 체계의 유도
- L자형의 Mass를 Bridge로 연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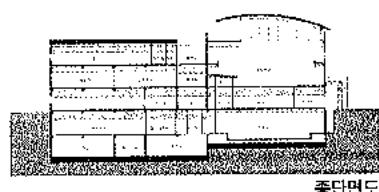
- 선에 순환성을 부여(광장과 중정간의 공간분리)
- 실의 용도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확보-간이칸막이 벽 사용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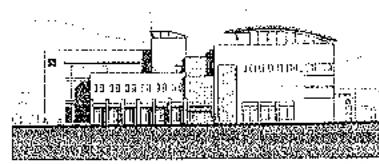
- 통일화된 입면 패턴을 통한 분리된 Mass의 일체화
- 알루미늄 쉬트 및 경량 Truss 등의 High-Tech한 소재의 사용-구조미의 표현
- 전면계단을 Curtain Wall로 처리하여 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확보한다.
- Circulation의 투명성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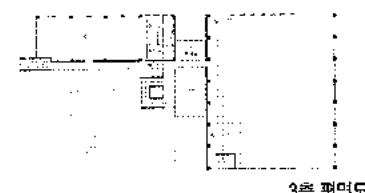
종단면도



정면도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건축문화

a+u

신건축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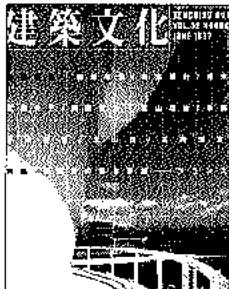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97년 6월호

이번호에서
는 작품특집
으로 야나기
사와 다까하
교와 TAK
건축·도시
계획연구소
의 동경 신
국립극장과, 다까다 코지의 이즈미 후레
아이센터(Village Center), 일본설계의
센조꾸 학원 부속 유치원 등이 실렸으며,
특집으로는 '건축가의 도시계획 - 프랑스판'이 소개되었다.



■ 특집

건축가의 도시계획 - 프랑스판
프랑스의 건축가에 의한 도시계획이
Manuel Tardits와 Sylvie Brosseau
의 글로 소개되고 있다. 프랑스의 도시계
획은 합리주의적 접근으로 특징지워진
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호했던 여타의 유

럽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훌륭한 공간
의 위계와 건축의 지역적 전통에 대한 존
중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많은 수의 사람
들에게 공급할 것을 전제로 한 전후 세대
의 공동 주택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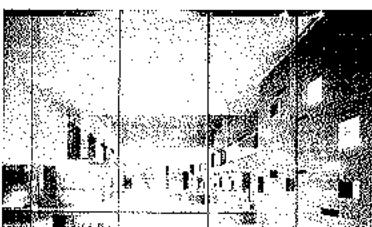
이들 프로젝트들은 도시와 극단적인 대
치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집
합주택과 스포츠 리조트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주요에 대한 양적평가를 가하는
일반적인 기술적 해결방안에서 보면 예
외적인 상황이다.

7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정렬하는
방식보다는 도시의 공간을 구성해 가기
를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나
타나게 된다. 동시에 디자인 코드에 의해
작업하는 건축가들의 팀에 의해 도시의
구획이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Rem Koolhaas의 Euralille
프로젝트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서장 : 프랑스의 어번프
로젝트, 1장 : 합리주의적 도시, 2장 :
메가스트럭처에서 모뉴먼트 건축으로-가
로의 부활, 3장 : 유기적 도시, 4장 : 도
시건축-街區로의 회귀, 5장 : '세기말'
적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작품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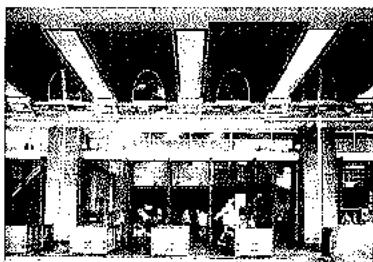
▶ 동경 신국립극장(야나기사와 다까하
교와 TAK 건축·도시계획연구소 설계)
'신건축'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이 건물
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극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좌석과 무대에 있어서 가변
성을 지닌 이 세 개의 극장이 하나의 공
간 안에 구성되어 있다.



▶ 센조꾸 학원 부속 유치원(일본 설계)
일본에서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상의 학교
이나 교육내용과 방법은 각 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크게 '일제 보육'과 '자유 보육'으로 구
별되는 가운데 센조꾸 학원의 전통은 후
자에 속했다. '자유 보육'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각 처에서 자유롭게 놀이에 열중
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사가 정원과 교실의 아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건물은 정원을 둘러싸는 쪽
선형을 이루며, 정원과 교실은 이 둘 사
이에 복도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대신
각 교실을 이어주는 복도는 메자닌으로
되어 있어 교사는 아이들이 어느곳에 있
어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안전의 사각지
대를 갖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이즈미 후레아이센터(다까다 코지 설
계)

마을 회관인 이 작품에서 작가는 '마을
의 얼굴'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다. 장래
마을의 주요 산업의 테마를 제기하는 것
을 목표로 작가는 '茶'를 그 테마로 정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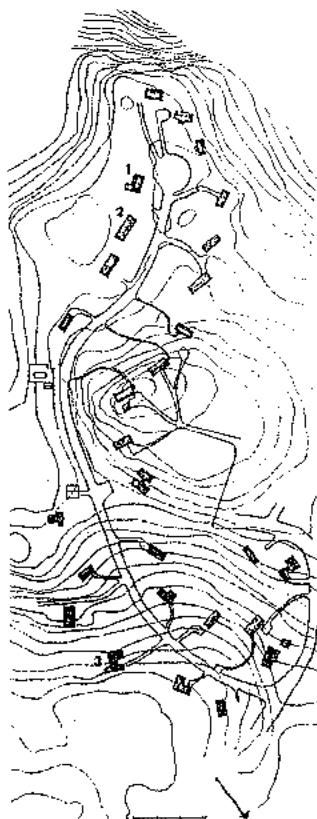
▶ Green-Wall (Architecton 설계)

4인 가족과 母堂을 위한 2세대 주거에
준하는 주택이다. 'ㄷ' 자형의 평면을 갖
고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에 데크를 설치
하여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뉘어진 2
개의 동을 연결하고 있다. 가로를 면한
녹색의 벽을 작가는 자연과 시간의 에코
를 발생시키는 반사판으로 설명하고 있
다.

이번호에 소개된 작가들은 C. de Portzamparc, Williamms and B. Tsien, G. Lynn, W. - Bruder와 J. Cutler, E. Becket and M. Yazdani이다. 연재물로는 '전후의 현대주택' 제3회가 실렸으며 기사로는 MOMA증·개축 설계경기의 지명 건축가 발표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연재
전후의 현대주택 제3회 - Six Moon Hill의 유토피아 건축, The Fletcher House



'Six Moon Hill' Site Plan

2차대전 직후인 1945년 월터 그로피우스와 젊은 건축가들이 미국 메사추세스 주에 설립한 사무소인 TAC는 뉴딜정책과 함께 '도시건축의 문제'로 떠오른 전후의 주택문제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들 자신의 주택들을 만들게 된다. 그로피우스와 함께 참여한 7인의 건축가들은 메사추세스주 렉싱턴에 20에이커의 부지를 설정하고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자연에 둘러쌓여진 경관 뿐 아니라 당시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웨브리지에 15분, 보스턴에 30분이라는 활동적인 '움직이는 장'으로서 부지를 설정하게 되었다. 1966년 노먼 플래처는 이렇게 말했다.

"판에 박힌 관계를 극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느낌을 모두 갖고 있었으며, 협력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인 커뮤니티는 사회의 혼란에 대항하는 커다란 효과를 갖는다는 TAC의 강한 신념이 거기에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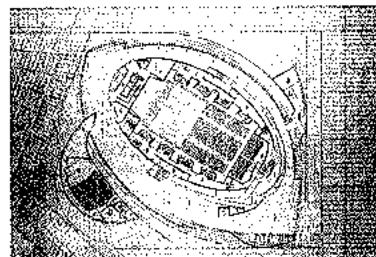
TAC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주거 커뮤니티에 살아 있다.

■기사

새로운 뉴욕 근대미술관을 향하여 - MoMA증·개축설계경기 최종선고의 지명건축가 발표
MoMA의 건축가 선별 위원회의 의장인 Sid R. Bass는 설계경기의 지명건축가로 Jacques Herzog and Pierre de Meuron(Basel), 타니구찌 요시오(동경), 그리고 Bernard Tschumi(New York)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계각국에서 지명된 10개의 설계사무소중에서 설계의 최종단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처음에 참가한 10인의 건축가의 스케치전이 5월 3일에서 7월 8일까지 뉴욕 근대미술관 필립존슨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품

▶Christian de Portzamparc
룩셈부르크의 필 하모닉 콘서트 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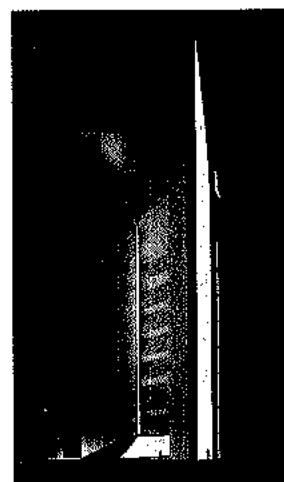


룩셈부르크 필 하모닉 콘서트 홀(1997)

이 콘서트홀은 리카르도 보필에 의해 디자인된 도시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일종의 보석 내지는 세레당의 메타포로서 계획되어 있다.

홀로의 도입은 그 들어서는 행위가 특별한 물리적 체험이 됨으로써 시각적으로 감각적인 경계를 경파한 것을 확인시키도록 되어 있다. 출의 갤러리를 통과할 때 음악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장면의 전개, 움직임, 변화의 연속이 리듬이 풍부한 장면을 연출한다. 이러한 감각적인 연속된 움직임을 통해 건축과 음악의 합체를 괴하고 있다.

이 외에 LVHM 타워(1995-1997, 미국 뉴욕)와 반다이 타워(1994-, 일본 동경) 두 개의 타워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동경 반다이 타워(1994-)

신건축

97년 6월호

이번호에서 작품으로는 신국립극장(야나기사와 다 까 히 코 +TAK), 아즈미노의 치히로 미술관(마이토 하로시), 川/Filter(쿠마 겐고), 후꾸오까대학 A동(스튜디오 건축계획), Cube-白石市 문화체육활동 센터(호리 이끼 히데토)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별기사로는 '막구조와 대가구 공간'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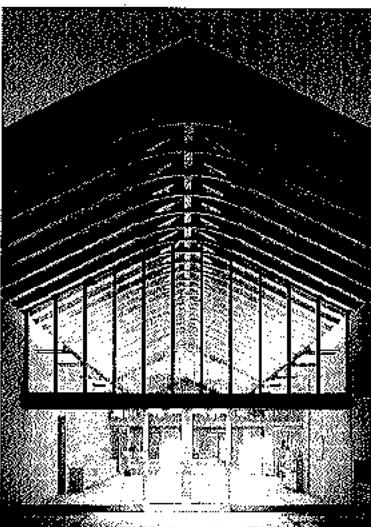
■ 작품

▶ 치히로 미술관-아즈미노(나이토 히로시 설계)

아즈미노 치히로 공원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공원의 설계와 동시에 설계가 행해졌다.

작가는 도서관과 미술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건물을 제안하였고 환경과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데 주목하였다.

내부가 목조로 된 천정의 디자인은 20종 이상의 형태를 시험해 본 결과이며 중앙의 중정은 광활한 주위 환경에 대해 구심



적인 기능을 갖도록 했으며 이 중정을 통해 미술관 안의 다양한 활동들이 시각적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川/FILTER(쿠마 겐고 설계)

부지의 한편으로는 阿武常川의 명승지이며 면해 있으며 다른 한편은 福島공항과 須賀川市를 잇는 바이패스에 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적이며 무성격한 '교통'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부지는 그 양자의 우연한 만남의 지점에 위치한다. 프로그램 상에서도 두 개의 대립되는 요소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현대 최신기술의 설비를 갖춘 공장이며, 하나는 직접 수작업이 행해지는 취사시설과 식당이다. 이는 또하나의 '교통'과 '자연'으로 작가는 해석하고 각각을 그에 대응하는 교통과 자연에 인접시켜 배치하였다.

강을 면한 쪽의 독재의 루버는 주체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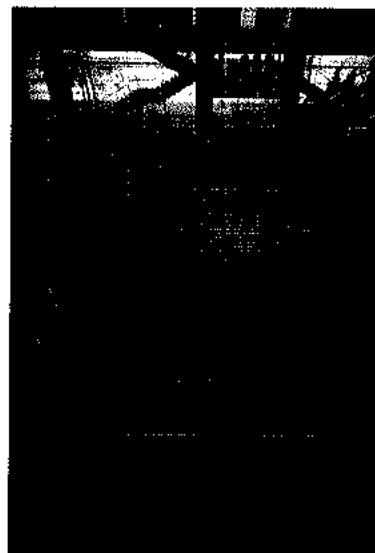
▶ 후꾸오까대학 A동(스튜디오 건축계획 설계)

후미히코 마끼도 참여하여 이미 소개된 바 있는 후꾸오까대학의 새로운 캠퍼스 조성 계획 중의 하나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이 건물은 길이나 광장으로 질서잡혀 차례대로 연속되어나가는 도시공간에 균형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길에 해당하는 반외부의 서클레이션 스페이는 개별의 블럭들을 연결하며, 6층 높이의 반외부의 비워진 공간이 광장을 형성한다.

작가는 건물내외의 공간이 일체가 되어 사람들의 만남을 위한 장, 입체적인 커뮤



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특별기사

'막구조와 大架構 공간' - 세계의 막구조의 계보(石井一夫)

먼저 저자는 로마의 판테온으로부터 근대의 대공간 가구로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대공간계보에 이어 일본에서의 대공간 계보를 소개하면서 동구조의 다양한 발전사를 소개하고 있다.

■ 연재

TOKIO계획 1997 - PROJECT - 06. Waterfront Residence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상에 만들어지는 이 주거는 도시생활과 바다와의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낸다.

바다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주거의 혼합은 도시생활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생성해 낸다.

중심과 주변
의 이분법적
사고가 현실
적으로 의미
를 잃어가는
상황은 건축
에도 나타나
고 있으며,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예들이 본지 3월호
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빠른 속도를 선
호하는 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제4
차 Doors of Perception 회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 틀 중심과 일반화

내부와 외부, 사랑과 증오, 긍정과 부정
등 우리의 사고는 이분법 체계에 의해 강
하게 지배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있어서
중심부와 교외라는 구분으로 적용된다.

도시 중심부가 고도로 집적된 행위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며 여러 방향성의 출
발점이면, 그 교외는 불연속적이고 불균
질한 구조들이 산재한 주변적인 곳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Rem Koolhaas가 '일반화
된 도시'에서 언급하듯, 이러한 엄격한
구분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
라 특정한 장소성이 갖는 의미도 약화되
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계획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요시
했던 이상들을 더 이상 견지할 수가 없으
며, 일반성과 반복성 등 현실적인 가치들
이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
기에 소개된 작품들은 중심과 주변이라
는 이분법의 틀을 깨면서 문제의 해결안
을 동떨어진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
아가는 계획의 예들이다.

► Maurice Nio의 네덜란드 트웬테 하수 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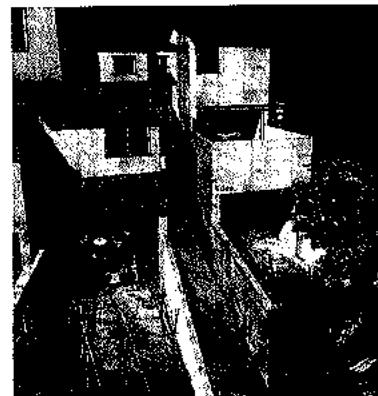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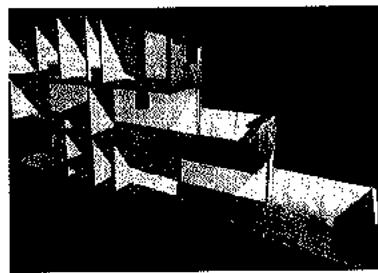
과거의 유산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우리



시대의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현대의 폐
기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모듈처리
장이 미래의 교회당이 될 것이다.

현재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이러한 시설
물들은 미래에는 도시의 중심 영역에 위
치하게 될 것이며, Nio의 작품은 그 모
습을 암시해 주고 있다.

► Le K architectures의 프랑스 오베빌 리에 도시계획



실업률이 높고 갖은 기능들이 마비 상태
에 있는 파리의 한 교외 도시에 대한 설
계 경기에서 당선된 Le K architectures
의 안은,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해결안을 찾아나간 뒤 이를 그 도시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용시킨 것이다.
중심화되고 정리된 기타 도시계획과는
달리, Matrices Pavillonnaire와 Ha
ngars Verticaux로 구성된 이들의 안은
계속하여 저소득층으로 남을 시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변적이고 중성적이
며, 기존의 도시 조직에 기생하면서 궁극
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해가도록
계획되었다.

그 외에 ►고속도로 교량 밀이라는 버려
진 공간에 역동성을 상징하는 형태의 건
물을 삽입한 Odile Decq, Benoît
Cornette의 낭테레 고속도로 통제소, ►
João Alvaro Rocha, José Manuel

Gigante의 포르투갈 통신소 ►도시성과
교외적인 프라이버시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이트에 건설된 Marianne Burk
halter, Christian Sumi의 스위스 라우
펜부르그 아파트 단지 ►Adolf
Krischanitz의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
주거 ►Anne Lacaton, Jean Phi
lippe Vassal의 프랑스 보르도 플로아
락 라타피 주택 ►Bolles + Wilson,
Hans Hollein의 조명제품전시관 설계
등이 소개되어 있다.

■ Doors of Perception 4차 회의
네덜란드 디자인 협회에 의해 조직된 모
임으로, 현대 문화를 인류학적인 관점에
서 분석하는 Doors of Perception의 4
차 회의가 1996년 11월 암스테르담에
서 열렸었다.

금번 회의는 '속도'라는 일반 명사를 중
심으로, 철학, 생물학, 사회 과학, 산업,
디자인, 건축,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통수단, 정보매체 등의 발달에 의해 현
대는 그 일상 삶까지도 전례없는 속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빠르다라는 개
념이 발전과 반드시 상응하는가, 속도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놓쳐고 있
는 것은 무엇인가, 느림은 현대성과 대립
되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간과되어
왔다.

빠른 속도의 개발은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제작
공정, 이동, 통신에서 속도에 의해 절약
된 시간은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쓰여지
기 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는데 사
용되고 있는 등 그 부정적인 면들이 다수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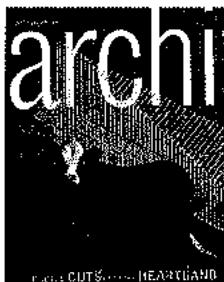
■ 기타

►Rem Koolhaas의 글 '일반화된 도
시' ►디자인계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Enzo Mari와의 인터뷰 ►스위치, 플러
그 디자인 ►제23회 상파울로 국제 비엔
날레 ►Jasper Johns의 작품 세계 ►
근대 건축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Victor Bourgeois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그의 대표작들 ►소호 지역에서 챌

시 지역으로 그 중심지를 옮겨가는 미국 미술계의 현황 ▶세로나운 회장실 설비 부품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e 97년 5월호

5월호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건축 경향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AIA 건축 상의 문제점, 건축설계사무소 확장 운영별 제안, 컴퓨터 프리센테이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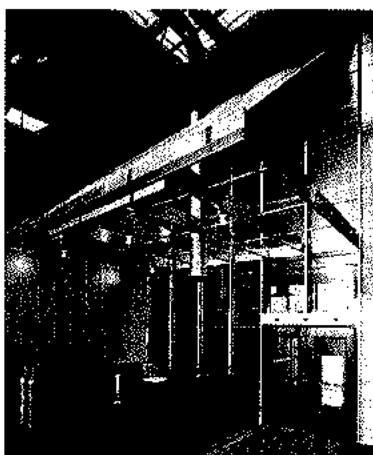
RIGHT CUTS..... HEARTLAND

■ 미국 중서부의 건축

목재 재료의 사용, 옛 구조체의 이용, 산업 이미지의 보존 등 미국 중서부 지역의 신작들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작품 경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근 참고 건물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Bravura의 캔터키 주 루이스빌 발레센터 ▶옛 목장 구조를 도입한 Abend Singleton Associates의 캔서스 주 토페카 역사연구회관 ▶각종 설비들을 노출시킨 Herbert Lewis Kruse Blunck의 아이오와 주 앤케니 참고형 사무실 계획 ▶지역 전통의 재료와 현대적인 형태 및 구조를 조화시키면서 북유럽적 균형을 연상시키는 David Sa-Imela의 미네소타 주 산림지역 통나무 주택 증축안 ▶그 밖에 Loom의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 녹스 공원 계획, Randy Brown Architect의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 사무실 계획, BNIM Architects의 미조리 주 캔서스 시티 교육 회관 등이 소개되었다.

■ 뉴욕 현대미술관(MoMA) 증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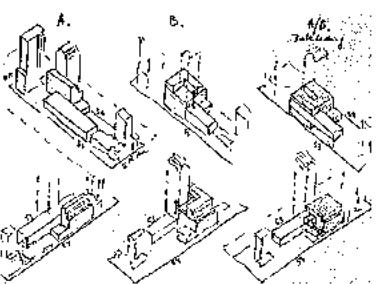


아이오와 주 앤케니 참고형 사무실 계획

Philip Goodwin과 Edward Durrell Stone에 의해 설계된 미술관 건물의 인근 대지를 매입한 MoMA는 10명의 건축가에게 그 증축안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Williams and Tsien, Rafael Viñoly, Steven Holl, Wiel Arets, Rem Koolhaas, Toyo Ito, Dominique Perrault의 안을 제치고 최종 설계단계에 진출한 것은 Bernard Tschumi, Herzog & De Meuron, Yoshio Taniguchi였다.

그러나 이들 안은 하나같이 기하학적인 박스형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Bernard Tschumi의 MoMA 증축안

■ AIA 건축상에 대하여 - 과연 최고의 건축물들에게 수여되는가

AIA에서 해마다 수여하는 건축상은 뛰어난 디자인을 시상한다는 것 이외에도, 건축이라는 분야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 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아방가르드 작품보다는 평범한 주류작품들이 뽑히기 마련이다. 건축계의 오스카상을 지향하는 AIA 건축

상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상을 디중화하는 등 개선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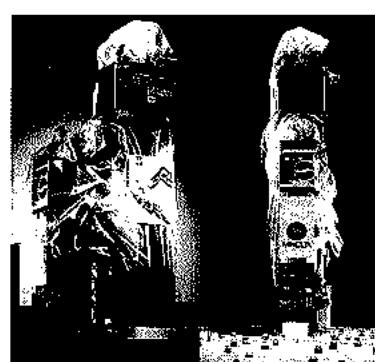
■ 건축사무소의 확장 문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나 80년대 경기 호세를 타고 확장했다가 90년대 들어 큰 타격을 입은 많은 사무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확장이라고 무조건 발전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작업 환경이 바뀌면서, 사무원당 투자비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규모를 확장하고자 할 때 확인해 볼 사항과, 확장된 사무소의 운영방법에 대한 제안이 실려 있다.

■ 기타

▶Maxwell MacKenzie의 전원건축 사진기행 ▶재개발 계획과 함께 뉴욕 도시계획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뉴욕의 인근 섬들 ▶1997년도 AIA/BIA 벽돌 건축상 수상작 소개 ▶근대의 상징인 커튼월을 제거하고 반투명의 메탈메시로 '포장'될 Frank O. Gehry의 뉴욕 타임즈 스퀘어 고층건물 재개발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Sverre Fehn ▶시에를 대학의 Steven Holl 교회 ▶미



Frank O. Gehry의 뉴욕타임즈 스퀘어 고층건물 재개발

국 건축의 가벼움, 미국 문화의 환영성을 고발한 Ada Louise Huxtable의 저서 '비현실적인 미국 : 건축과 환영'에 대한 소개와 그 비판 ▶미국 미조리 주 캔서스 시티의 재활성화 계획 ▶본격적인 건축 박물관을 준비중인 건축가이자 전통 보존 주의자인 Phyllis Lambert과의 인터뷰 ▶커튼월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실리콘 방수제의 디테일 ▶건축주에 대한 컴퓨터

프리센테이션의 할리성 문제 ▶새로나온 각종 마감 재료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5월호

1997년도 AIA 건축상 시상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5월호는 그 이외에도 뉴올리언즈 시의 공동화 문제, 현대 건축교육계의 앞길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능에 따른 건축물 분석의 연속 기획으로 의료시설을 다루고 있다.



■ 1997년도 AIA 건축상

'올해는 엘리트적이지 않고 사회성, 공공성에 비중을 둔 작품들을 선정한다'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통해 선별되었다. 그러나 시상의 의미가 희석화되고 있고, 너무나 건축계 내부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은 여전히 등장하였다.

본 호에서는 건축, 건축설계사무소, 인테리어, 도시계획, 25주년 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된 올해의 작품들과 그 건축가를 소개하고 있다.

▶건축부문 - Venturi, Scott Brown의 하버드대 기념관, Williams and Tsien의 캘리포니아 뉴로사이언스 협회, Steven Ehrlich의 캘리포니아 Paul Cummins 도서관, David Baker의 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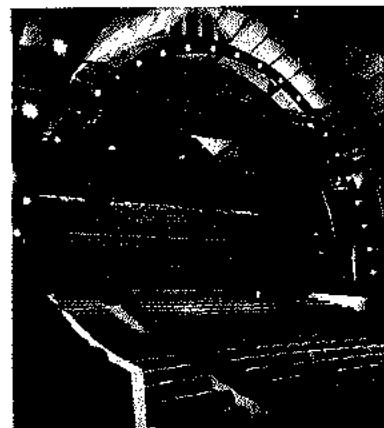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뉴로사이언스 협회(Williams and Tsien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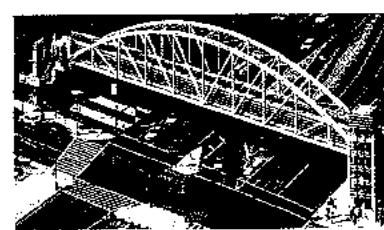
리포니아 맨빌 홀 학생 아파트 등

▶인테리어부문 - Brayton & Hughes Design Studio의 캘리포니아 보이드 조명사, Phillippe Starck의 플로리다 멜라노 호텔, Hardy Holzman Pfeiffer 외 하와이 딜링햄 홀, Rafael Vinoly의 동경 국제 포럼 등

▶도시계획 - Comunitas Architecture의 이탈리아 베니스 산 줄리아노 공원 계획, SOM의 베트남 호치민 시 사 이공 남부 도시계획, SOM의 뉴욕 트리 베카교 등



하와이 딜링햄 홀(Hardy holzman Pfeiffer 설계)



뉴욕 트리베카교(SOM 설계)

▶건축 설계사무소 부문 - R.M. Kliment and Frances Halsband, Architects

▶25주년부문 - Louis I. Kahn의 뉴 햄셔 엑시터대학 도서관

■ 버려지는 미국 뉴올리언즈 시

뉴올리언즈는 역사적, 건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도시였으나,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 교외로 이동하면서 점점 더 공동화 되어가고 있다.

한때 역사적 유산으로 여겨졌던 건물들은 현대적 삶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됨으로써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버려진 건물들을 박물관 등으로 재개발하

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각종 직장과 산업을 부흥시키지 않고는 옛 도시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뉴올리언즈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 앞에 건축은 한정적인 해결안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 건축교육

건축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교육은 과거의 커리큘럼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건축가를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컴퓨터를 장려하여 각종 문화와 시각들에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로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철폐해야 하며, 셋째로 교육의 질 자체에 완벽성을 추구하고, 넷째로 지식을 현실 삶과 연결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스튜디오 작업에 도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연속기획 - 의료시설 건축

병원 건축은 90년대 초에 비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근린의료원, 특수분야 전문병원, 장기 치료의료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가들은 운영 직원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축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건축주들에게 건축 비용에 좀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미래의 의료시설 건축은 점차 소규모화되고, 근린지역 중심의, 노인층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샤피로 의료원 ▶커네티컷 샤론 병원 ▶팬실베니아 알투나 병원 ▶캘리포니아 버클리 알타 베이츠 암센터가 소개되어 있다.

■ 기타

▶건축 전문 사진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Ezra Stoller의 작품 세계 ▶내학에 대한 새로운 법률과 재료들 ▶곧 발매될 AutoCAD 14의 성능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5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 1천8십9만9천7백94㎡ 보다 29.9%(3백2십5만7천9백98㎡) 증가한 1천4백1십5만7천7백92㎡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5월 누계 4천7백6십5만5천3백88㎡ 보다 12.1%(6백7십4만3천9백33㎡) 증가한 5천3백3십9만9천3백21㎡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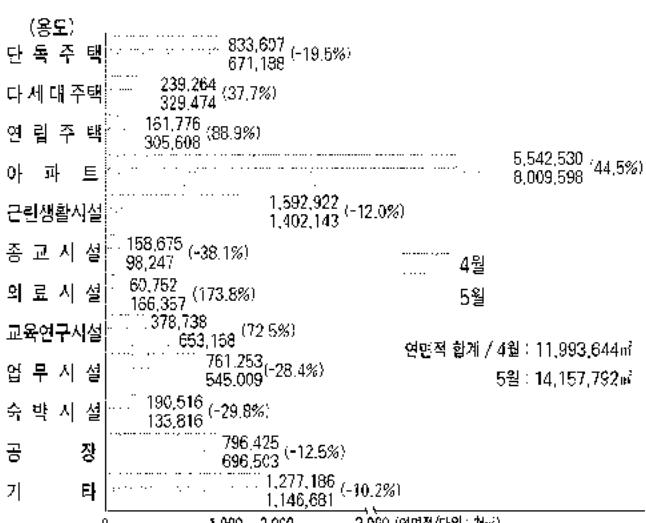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4월분 1천1백9십9만3천6백44㎡보다 18.0%(2백1십6만4천1백48㎡) 감소한 1천4백1십5만7천7백92㎡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4,926,197	5,829,559	903,362	18.3
	부 산	1,552,612	2,981,577	1,428,965	92.0
	대 구	419,753	855,782	436,029	103.9
	인 천	312,210	553,658	241,448	77.3
	충 북	189,348	335,467	146,119	77.2
	충 남	126,909	184,216	57,307	45.2
	전 북	193,029	211,571	18,542	9.6
	전 남	135,828	345,658	209,830	154.5
	경 남	709,438	1,197,738	488,300	68.8
	경 기	1,280,667	767,533	(513,134)	-40.1
감소지역	광 주	240,385	213,932	(26,453)	-11.0
	대 전	161,059	154,807	(6,252)	-3.9
	경 기	1,280,667	767,533	(513,134)	-40.1
	강 원	311,467	235,902	(75,565)	-24.3
	경 북	222,654	212,860	(9,794)	-4.4
	제 주	118,238	77,532	(40,706)	-34.4
	합 계	10,899,794	14,157,792	3,257,998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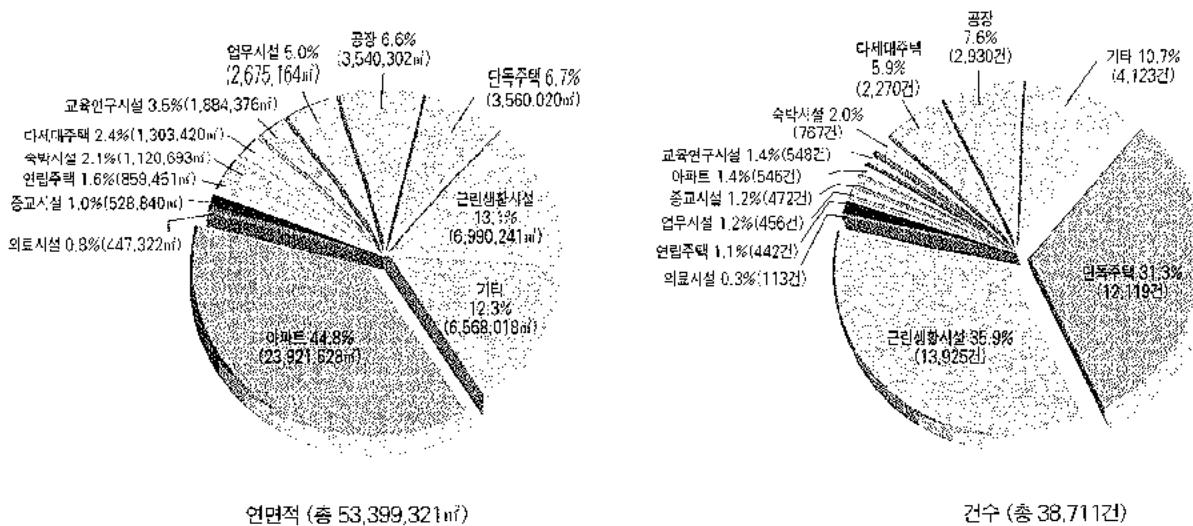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 도											
단독주택	3,905	3,997	1,131,017	2,329	2,456	671,188	(1,576)	(1,541)	(459,829)	-40.7	
다세대주택	778	842	650,527	569	619	329,474	(209)	(223)	(321,053)	-49.4	
연립주택	118	135	178,944	108	119	305,608	(10)	(16)	126,664	70.8	
아파트	99	220	3,468,121	111	460	8,009,598	12	240	4,541,477	130.9	
근린생활시설	3,684	3,826	1,710,526	2,863	2,926	1,402,143	(821)	(900)	(308,383)	-18.0	
종교시설	133	150	111,444	110	129	98,247	(23)	(21)	(13,197)	-11.8	
의료시설	22	25	46,664	28	28	166,357	6	3	119,693	256.5	
교육연구시설	109	123	316,488	156	173	653,168	47	50	336,680	106.4	
업무시설	94	98	788,552	107	109	545,009	13	11	(243,543)	-30.9	
숙박시설	138	140	145,533	134	139	133,816	(4)	(1)	(11,717)	-8.1	
공장	748	1,014	1,217,411	654	866	696,503	(94)	(148)	(520,908)	-42.8	
기타	1,136	1,388	1,134,567	921	1,033	1,146,681	(215)	(355)	12,114	1.1	
합 계	10,964	11,958	10,899,794	8,090	9,057	14,157,792	(2,874)	(2,901)	3,257,998	29.9	(+)미너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5월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568	2,569	4,926,197	1,406	1,411	5,829,559	(1,162)	(1,158)	903,362	18.3	
부산	890	1,124	1,552,612	659	1,060	2,981,577	(231)	(64)	1,428,965	92.0	
대구	792	792	419,753	552	552	855,782	(240)	(240)	436,029	103.9	
인천	370	370	312,210	273	276	553,668	(97)	(94)	241,448	77.3	
광주	281	364	240,385	310	375	213,932	29	11	(26,453)	-11.0	
대전	325	331	161,059	236	238	154,807	(89)	(93)	(6,252)	-3.9	
경기	1,995	2,255	1,280,667	1,459	1,611	767,533	(536)	(644)	(513,134)	-40.1	
강원	510	569	311,467	462	500	235,902	(48)	(69)	(75,565)	-24.3	
충북	424	479	189,348	449	556	335,467	25	77	146,119	77.2	
충남	323	255	126,909	327	282	184,216	4	7	57,397	45.2	
전북	333	333	193,029	205	205	211,571	(128)	(128)	18,542	9.6	
전남	308	331	135,828	374	399	345,658	66	68	209,830	154.5	
경북	481	586	222,654	450	492	212,860	(31)	(94)	(9,794)	-4.4	
경남	1,098	1,301	709,438	748	911	1,197,738	(350)	(390)	468,300	68.8	
제주	266	299	118,238	180	209	77,532	(86)	(90)	(40,706)	-34.4	
합계	10,964	11,958	10,899,794	8,090	9,057	14,157,792	(2,874)	(2,901)	3,257,998	29.9	()=マイナス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5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0,131	10,156	22,286,296	7,062	7,107	22,613,078	(3,069)	(3,049)	326,782	1.5	
부산	3,486	4,639	4,792,461	2,663	4,103	7,726,490	(823)	(536)	2,934,029	61.2	
대구	4,418	4,461	3,054,143	2,365	2,368	3,425,071	(2,053)	(2,093)	370,928	12.1	
인천	1,664	1,680	1,976,039	1,506	1,541	2,947,372	(158)	(139)	971,333	49.2	
광주	1,503	1,786	1,049,201	1,466	1,690	953,412	(37)	(96)	(95,789)	-9.1	
대전	1,093	1,103	694,723	1,203	1,220	667,799	110	117	(26,924)	-3.9	
경기	7,967	8,786	5,072,819	7,304	8,189	4,625,957	(663)	(597)	(446,862)	-8.8	
강원	2,057	2,237	847,823	2,086	2,247	860,716	29	10	12,893	1.5	
충북	1,856	2,070	969,985	2,097	2,544	1,615,674	241	474	645,689	66.6	
충남	1,440	1,309	845,651	1,686	1,312	1,078,297	246	3	232,646	27.5	
전북	1,099	1,101	872,608	901	901	812,493	(198)	(200)	(60,115)	-6.9	
전남	1,513	1,670	760,683	1,548	1,686	938,924	35	16	178,241	23.4	
경북	2,174	2,703	1,162,711	2,054	2,288	954,848	(120)	(415)	(207,863)	-17.9	
경남	4,748	5,459	2,896,976	4,074	4,659	3,880,807	(674)	(800)	983,831	34.0	
제주	749	823	373,269	696	763	298,383	(53)	(60)	(74,886)	-20.1	
합계	45,898	49,983	47,655,388	38,711	42,618	53,399,321	(7,187)	(7,365)	5,743,933	12.1	()=マイナス